

# 梨花語文學會 학술대회

## 인간의 희로애락과 한국어문학 ②

### -怒, 분노와 혐오의 어문학

일시: 2018년 1월 9일(화) 오후 1:00 - 6:00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1, 110호

주최: 이화어문학회

이화여자대학교 루체테 인문학사업단(CORE)

주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 梨花語文學會 학술대회

“인간의 희로애락과 한국어문학 ② - 怒, 분노와 혐오의 어문학”

▶ 일시 : 2018년 1월 9일(화) 오후 1:00 - 6:0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1호, 110호

[1:00 - 1:05] 회원 등록 및 접수	
[1:05 - 1:10] 개회 및 회장 인사 (111호) * 회장: 이은정(한신대)	
<p style="text-align: center;"><b>기획 주제 발표 (111호)</b></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김수연(이화여대)</p> <p>[1:10 - 1:30] 김소륜(이화여대)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 나타난 분노의 정동"</p> <p>[1:30 - 1:50] 황지영(이화여대) "분노의 조직과 혁명으로서의 이행"</p> <p>[1:50 - 2:10] 이유민(이화여대) "‘호모소셜’의 경험을 통한 성장의 실패 - 김영하,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중심으로" <u>중간 휴식 (20분)</u></p> <p>[2:30 - 2:50] 한유진(선문대)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욕망의 문제"</p> <p>[2:50 - 3:20] 이연순(부산대) "『眉巖日記』에 나타난 ‘怒’ - 인식과 실천으로서 怒의 다스림을 중심으로"</p> <p>[3:20 - 3:40] 이민규(연세대) "규방가사 속 분노의 한탄과 남성 인식" <u>중간 휴식 (20분)</u></p>	<p style="text-align: center;"><b>자유 주제 발표 (110호)</b></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전지니(항공대)</p> <p>[1:10 - 1:40] 오규환(동덕여대) "단어 형성론 관련 전문용어의 사전 뜻풀이에 대한 관건" 토론: 정한대로(가천대)</p> <p>[1:40 - 2:10] 김혜림·진정(선문대) "정당 대변인 논평의 담화 분석" 토론: 이해용(경기대) <u>중간 휴식 (20분)</u></p> <p>[2:30 - 3:00] 정혜진(성균관대) "김지하 문학·사상의 자기구원 서사와 타자의 문제" 토론: 김미옥(장안대)</p> <p>[3:00 - 3:30] 홍지혜(성균관대) "1970-80년대 잡지 『샘터』의 여성 필자·독자의 문제" 토론: 안상원(삼육대)</p> <p>[3:30 - 4:00] 양정현(서강대) "이형기 초기 비평에서 역사와 창조성의 문제 -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와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 토론: 임보람(서강대)</p>
[4:00 - 5:30] 기획 주제 종합토론 (111호) * 좌장 : 임정연(안양대)	
지정토론자 : 송주현(한신대), 가게모토 츠요시(연세대), 이소영(서울대) 홍나래(성공회대), 하지영(이화여대), 조은별(고려대)	
[5:30 - 6:00] 연구윤리교육 편집이사	

梨花語文學會長 이은정

주최: 이화어문학회

이화여자대학교 루체테 인문학사업단(CORE)

주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기획 주제 발표 (111호)

-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 나타난 분노의 정동 ..... 1  
김소륜(이화여대)
- 분노의 조직과 혁명으로서의 이행 ..... 13  
황지영(이화여대)
- ‘호모소셜’의 경험을 통한 성장의 실패  
- 김영하,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중심으로 ..... 29  
이유민(이화여대)
-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욕망의 문제 ..... 43  
한유진(선문대)
- 『眉巖日記』에 나타난 ‘怒’-인식과 실천으로서 怒의 다스림을 중심으로 ..... 57  
이연순(부산대)
- 규방가사 속 분노의 한탄과 남성 인식 ..... 73  
이민규(연세대)

## 자유 주제 발표 (110호)

- 단어 형성론 관련 전문용어의 사전 뜻풀이에 대한 관견 ..... 89  
오규환(동덕여대)
- 정당 대변인 논평의 담화 분석 ..... 103  
김혜림·진정(선문대)
- 김지하 문학·사상의 자기구원 서사와 타자의 문제 ..... 119  
정혜진(성균관대)
- 1970-80년대 잡지 『샘터』의 여성 필자·독자의 문제 ..... 133  
홍지혜(성균관대)
- 이형기 초기 비평에서 역사와 창조성의 문제  
-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와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 ..... 151  
양정현(서강대)

##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 나타난 분노의 정동

김 소 루 (이화여대)

### <목차>

1. 머리말
2. 호모 이라쿤두스(homo iracundus), 분노하는 주체의 탄생
3. 공감의 분노, 연대하는 분노를 향한 글쓰기
4. 맺음말

### 1. 머리말

2000년대 한국 사회의 면모를 드러내는 단어로 ‘분노’가 존재한다. ‘분노조절장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만큼, ‘분노’는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에 대한 모멸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희랍인들에게는 이러한 과도한 분노의 표출이 야만인의 전형적 특성으로 간주되었고,<sup>1)</sup> 헬레니즘 시대에도 분노는 인간의 행복과 정신적인 건강함을 위협하는 ‘영혼의 질병’으로 분류되었다.<sup>2)</sup> 이는 세네케가 분노를 제거되어야 할 ‘악’으로 규정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마땅히 분노해야 할 상황에 대해 분노하지 않음이야말로 ‘악’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통해 제기한 ‘사유의 무능성’이야말로 본질적인 ‘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일에 어떤 의문도 품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인 순응을 했던 아이히만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분노’가 아니었을까? 반인륜적인 범죄를 묵도하며 분노하지 않은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분노란 사회적 감정 내지 반응으로, 공동체 전체에서 나타나는 외적 행위나 운동의 주요한 잠재적 요인 혹은 모티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sup>3)</sup> 그런 의미에서 ‘분노’란 부조리와 위선으로 비틀린 사회의 어둠을 거둬내기 위한 촛불로 명명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대한민국의 광장을 채웠던 시민들의 손에 들린 촛불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거둬내길 열망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분노’의 가시화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분노란 “부정의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관계나 구조를 바로 잡으려는 정의의 감정”이기 때문이다.<sup>4)</sup>

본 논문은 이러한 분노의 문제를 한강<sup>5)</sup>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창비, 2014)를 통해 이야기

1) 손병석, 『고대 희랍·로마의 분노론』, 바다출판사, 2013, 15쪽.

2) 손병석, 「그리스 철학에서의 분노의 개념과 역사」, 『분노』통권 4호, 파란, 2016. 겨울, 28쪽.

3) 위의 글, 18쪽.

4) 박혁, 「분노와 권력의 이중주」, 『분노』통권 4호, 파란, 2016. 겨울, 66쪽.

5) 한강은 1993년에 시로 등단을 하였으나, 1994년에 서울신문을 통해 단편「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소설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6권의 소설집과 7편의 장편소설, 4편의 동화, 2편의 산문집, 1권의 시집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일보 우수소설가(1995), 제25회 한국소설문학상(1999), 문화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문학부문(2000), 제29회 이상문학상 대상(2005), 제13회 동

기하려고 한다. 창비문학블로그 ‘창문’을 통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연재된 소설 『소년이 온다』는 2014년 5월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2016년에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영국의 맨부커상을 수상한 것과 더불어, 『소년이 온다』는 작가의 최근작이라는 점에서 『채식주의자』와 나란히 베스트셀러 1, 2위를 선점할 만큼 대중의 높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소설이 1980년 광주에 대한 서사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작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거론되었다는 여론이 불거지면서 또 다른 맥락에서 화제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에게 문체부가 요구한 축전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입장 표명은 『소년이 온다』에 담긴 ‘광주’가 결코 후일담적인 소재가 아닌, 여전히 진행 중인 현실적 문제임을 가시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소년이 온다』에 관한 학술연구가 최근 2~3년 사이에 무려 15편 이상 이루어질 만큼 활발한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sup>6)</sup> 2018년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작가와 작품에 관한 연구가 약 10편의 학위논문<sup>7)</sup>과 20여 편의 학술 논문을 통해

리문학상(2010), 제15회 황순원문학상(2015)을 수상하는 등 문단에서 독특한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인정받고 있는 작가이다. 특히 이상문학상의 경우 1970년대 작가로서 이루어진 첫 번째 수상이자, 아버지인 소설가 한승원에 이어 동일한 문학상을 부녀(父女)가 나란히 수상했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낳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채식주의자』로 영국의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을, 2017년에는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 6) 2018년 1월 현재까지 발표된 한강의 『소년이 온다』 관한 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 강소희, 「오월을 호명하는 문학의 윤리: 임철우의 『백년여관』과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Vol.62, 2015.
- 강진호, 「5.18과 현대소설」, 『현대소설연구』No.64, 2016.
- 김미정, 「기억-정동`전쟁의 시대와 문학적 항쟁: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가 놓인 자리」, 『인문학연구』Vol.54, 2017.
- 김수정, 「역사적 경험의 재현을 위한 2인칭 서술의 효과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논문, 2017.
- 김종엽, 「공감의 시련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 대해」, 『기억과 전망』Vol.33, 2015.
- 서영인, 「집단기억과 개별성의 고통 사이: 한강, 소년이 온다(창비, 2014)」, 『삶이 보이는 창』, 2014년 가을.
- 심영의, 「5·18소설에서 항쟁 주체의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2015.
- 양윤의, 「문학의 동시대성에 대하여: 2014년 발표된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작가들』 No.52, 2015.
- 유용역, 「한강 소설의 인물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
- 이 숙, 「예술가의 사회적 책무: 폭력의 기억과 인간의 본질: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2014)」, 『현대문학이론연구』Vol.60, 2015.
- 정미숙, 「정동과 기억의 관계시학: 한강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16.
- 조연정,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 권여선의 레가토(2012)와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14.12.
- 최윤경, 「소설이 ‘오월-죽음’을 사유하는 방식」, 『민주주의와 인권』Vol.16 No.2, 2016.
- 한순미, 「나무-몸-시체 : 5·18 전후의 역사 폭력을 생각하는 삼각운동」, 인문학연구, 2016.
- 7) 한강 소설에 관한 단독 학위 논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 강연옥, 「『몽고반점』의 미의식 연구 - 들뢰즈와 가타리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김선영, 「소설 <몽고반점>의 영역 및 작품 해설」,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 김선희,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서사적 특성의 변화양상」,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 김수정, 「역사적 경험의 재현을 위한 2인칭 서술의 효과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논문, 2017.
- 박은희, 「한강 소설 연구: 에코페미니즘과 환상성의 결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
- 유용역, 「한강 소설의 인물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
- 이유진, 「Equivalence strategies of deborah smith in Han Kang's novels」,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17.
- 정서화, 「한강 소설의 인물 정체성 연구 : 인물 정체성과 갱신의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년이 온다』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가히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소설이 의미를 갖는 것은 ‘광주’를 직접 체험하지 않은 작가가 ‘광주’에 대한 서사를 끌어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두고 김미정은 “존재치 않는 세계에서 미래의 사람들은 그들과 어떻게 무엇으로 관계 맺어야 하나. 증언은 반드시 직접적 경험과 그것의 언어(=재현)적 제약 속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광주에 대한 직접적 경험도 자각적 기억도 없을 먼 미래의 세대는 어떻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sup>8)</sup> 그러나 본 논문은 바로 이 점이 ‘광주’를 고유명사로서,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음을 가시화한다고 보았다. 이는 『소년이 온다』가 2017년에 이탈리아의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광주’가 한반도 내의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전지구적 차원의 ‘공감’을 형성하는 ‘공간’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다시금 뒷받침된다. 이때 ‘공감’을 야기하는 공통 감정이란 앞서 서술했던 ‘분노’를 통해 접근될 수 있다. 이때의 분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분노’, 지속해야 하는 ‘분노’로 작가의 글쓰기를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이 분노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글을 읽어나가는 독자들에게로 전이된다. 공감하는 분노, 연대하는 분노로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강의 소설에서 말하는 ‘분노’란 1980년 5월의 광주에 한정된 분노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속되어야 할 역동적 분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분노’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 상태가 아닌, 들뢰즈가 제기한 ‘정동’의 개념을 통해 접근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들뢰즈는 ‘정동’을 누군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sup>9)</sup> 정서(affectio)가 신체의 한 상태라면, 정동(affectus)는 행동 능력의 연속적인 ‘변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정서’가 변경된 신체의 성질을 지칭한다면, ‘정동’이란 힘의 실행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들뢰즈가 말하는 ‘정동’이란 행동능력의 연속적인 ‘변이’로 ‘행동할 능력(poewr of act)’이며,<sup>10)</sup> “인간과 비인간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생성의 전체적, 생동적, 조절적 장”인 것이다.<sup>11)</sup> 이는 들뢰즈가 『천개의 고원』에서 말했던 ‘-되기’의 이론과 연결해 볼 수 있다. ‘-되기’란 하나의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향하는 변화를 주목하는 개념으로, 자기-동일적인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 다른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떤 확고한 것에 뿌리박거나 확실한 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되기’의 대립개념으로 ‘-이기’가 있다. ‘-이기’란 확정된 동일성을 가질 수 없는 ‘-되기’와 달리 어떤 것의 현재 상태가 갖는 동일성/정체성을 명시한다.<sup>12)</sup>

한강의 소설에 나타난 ‘분노’는 광주에 국한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로서의 ‘분노 이기’를 거부한다. 피해자로 고착화된 ‘분노’는 보상을 욕망하며 반(反)사회적인 방식으로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할 위험을 내포한다. 작가는 당시 중학생이던 소년 동호와 정대를 통해, 여고생 은숙의 5년, 재봉사 선주의 20년, 죽은 아들을 기억하는 어머니의 30년,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이들의 현재 속에서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

주은경, 「한강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양상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한아름, 「한강 소설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2017.

한정희, 「한강 소설 연구: 몸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2.

8) 김미정, 261쪽.

9) 질 들뢰즈 외 7인,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2014, 34쪽.

10) 위의 책, 163쪽.

11) 그레고리 J. 시그워스, 멜리사 그레그, 「미명의 목록[창안]」, 『정동 이론』,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옮김, 갈무리, 2016, 23쪽.

12) 이진경, 『노마디즘 2』, humanist, 2002, 33-34쪽.

서고 있다. “우리들을 희생자라고 부르도록 놔둬선 안돼”(175쪽)라는 문장처럼, 소설 속 인물들의 분노는 피해자로서의 분노에 정주하지 않고 현실을 변혁하기 위한 역동적 힘을 품고 유통한다. 이에 본 논문은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주제의식을 작품 내 인물에게서 발현되는 ‘분노의 정동’을 통해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작가의 창작 행위와 독자의 독서 행위를 능동적인 분노의 표출로 이해하고, 각각의 행위가 분노를 통한 공감과 연대를 가능하도록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해보고자 한다.

## 2. 호모 이라쿤두스(homo iracundus), 분노하는 주체의 탄생

소설 『소년이 온다』는 에필로그를 포함해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고 있다. 1장과 2장은 각각 중학생 동호와 정대를 통해 산(生)자와 사(死)자의 시선으로 1980년 5월의 광주를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여고생에서 출판사 직원이 된 은숙의 5년, 교대 복학생의 진술을 통한 진수의 12년, 미싱사에서 시민 단체 직원이 된 선주를 통한 20년, 더워도 더운 줄 모르는 동호 엄마의 눈물을 통한 30년, 그리고 안방 책장 안쪽에 숨겨놓은 사진집을 펼쳐든 소녀의 서사를 통해 5월의 광주를 넘어 ‘5월 이후’의 광주가 복원되어 나간다. 5월의 광주는 각각의 인물들은 지탱하는 ‘오늘’로서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마치 오니버스 구성으로 전개되는 인물들의 서사는 1장의 초점화자인 ‘동호’를 통해 하나의 서사로 응집된다. 1장의 초점 화자로 등장하는 동호는 이후 이어지는 장들에서 지속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2장에서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채 매장된 정대는 동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3장의 초점화자인 은숙은 검열을 피해 무대에 올라간 연극의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하얀 반소매 체육복 상하의에 흰 운동화”(101쪽)를 신은 소년을 향해 동호의 이름을 부른다. 4장과 5장에 걸쳐 드러나는 동호의 주검이 담긴 사진은 진수와 선주의 삶에, 6장에서는 막내 아들 동호를 잃은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삶이, 에필로그에서는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지만 자신의 옛집에 살던, 아버지의 제자 ‘동호’를 떠올리는 ‘소녀’가 등장한다. 이처럼 동호는 5년, 12년, 20년,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인물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소설의 제목을 ‘여름의 동호’라고 붙이고 싶었다는 작가의 인터뷰처럼,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인물은 바로 ‘소년’ 동호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호는 소설 전반을 가로지르는 1980년 5월의 광주를 가시화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 동호는 상무관에서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시신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시신들을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중학교 3학년생으로 등장한다. 동호는 자신의 문간방에 세들어 사는 친구 정대가 군인이 쏜 총을 맞았다는 동네 사람의 말을 듣고 정대를 찾기 위해 도청 민원 봉사실을 향했다가, 그곳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은숙과 선주를 돕기 시작한다. 정대와 정대의 누나 정미를 찾을 때까지 결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다짐하는데, 그 이유는 정대가 총에 맞는 것을 본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동호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앞 대열로 돌아가려는 이수라장 속에서 정대의 손을 놓쳤다. 가시 총소리가 귀를 찢었을 때, 모로 넘어진 정대를 뒤로 하고 너는 달렸다. (중략)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거리 가운데 쓰러진 수십명의 사람들을 봤다. 네가 입은 것과 똑같은 하늘색 체육복 바지가 얼핏 보인 것 같았다. 운동화가 벗겨진 맨발이 꿈틀거린 것 같았다.

내가 뛰쳐나가려는 순간, 입을 막고 떨고 있던 아저씨가 네 어깨를 붙들었다. (중략) 하지만 너는 정대를 향해 그들처럼 달려가지 않았다. 네 곁에 있던 아저씨들은 숨이 끊어진 일행을 업고 서둘러 골목 사이로 사라졌다. 갑자기 혼자 남은 너는 겁에 질려, 저격사의 눈에 띄지 않을 곳이 어디일까만을 생각하며 벽에 바짝 몸을 붙인 채 광장을 등지고 빠르게 걸었다.

(31-33쪽, 밑줄: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동호가 도청을 찾은 이유를 드러낸다. 어머니와 형이 설득하는 대로 집에서 정대를 기다릴 수 없는 것은 정대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호는 희생당한 시신들이 집결되는 도청 상무관을 떠날 수 없다. 정대를 남겨두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동호에게 견딜 수 없는 부채의식을 부여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동호를 도청으로 인도하고, 군인들에게 총살을 당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한 이유는 단순히 살아남은 자의 슬픔, 스스로를 향한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동호를 도청으로 이끌고 1980년 5월의 광주에 머물게 한 것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 즉 분노의 '정동'에서 기인한다. '정동'이란 하나의 몸에서 다른 몸으로 도약하도록 이끈다.<sup>13)</sup> 이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살아갈 자의 분노로 도약하고, 그 속의 분노 역시 자신을 향한 분노에서 세계를 향한 분노로 확장된다.

동호는 정대가 쓰러진 날을 회상하며 “달아났을 거다, 라고 이를 악물며 너는 생각한다. 그때 쓰러진 게 정대가 아니라 이 여자였다 해도 너는 달아났을 거다. 형들이었다 해도, 아버지였다 해도, 엄마였다 해도 달아났을 거”(45쪽)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자기 고백은 비겁한 자신을 향한 분노에 국한되지 않는다. 똑같은 순간이 와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 무자비한 세계를 향한 분노이기 때문이다. 이는 죽은 손녀의 시신을 확인하러 온 노인을 바라보며, “이승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꿈적거리는 노인의 두 눈”(45쪽)을 마주보며,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45쪽)라고 말한 동호의 중얼거림을 통해 확인된다. 누구도 노인을 위로할 수 없고, 누구도 동호를 위로할 수 없다. 이에 동호의 분노는 정대의 죽음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귀속되지 않는다. 죽음의 대상이 그 누구였다고 해도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스스로에 대한 분노,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회 구조에 대한 분노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도청을 향한 동호의 선택은 슬픔에 정주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분노하는 주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호의 모습은 ‘분노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이라쿤두스(homo iracundus)’의 탄생으로 명명할 수 있다.<sup>14)</sup> 이제 동호는 그만 집에 돌아가라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 “저 안에 사람들은 누가 지키고요?”(39쪽)라고 되묻는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던 나약한 존재, 혼자 살아남았다는 부끄러움을 지닌 존재를 넘어선 것이다. 썩어가는 시신들 곁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촛불처럼, 동호를 슬픔과 부끄러움에 정주하지 않고 주어진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주체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분노’인 것이다.

이러한 동호의 분노는 은숙, 진수, 선주, 나아가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로 전이된다. 열여덟에서 열아홉이 된 은숙은 1980년 5월의 광주를 기억하며 “처음부터 살아남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87쪽)고 고백한다. 정대의 손을 놓친 동호와 마찬가지로 살아남았다는 슬픔,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은숙 역시 슬픔과 부끄러움에 정주하지 않는다. 은숙은 유월의 분수대에서 내뿜는 눈부신 물줄기들이 자신의 눈동자를 찌르는 통증을 경험하고 공중전화 부스를 찾는다.

13) 사라 아메드, 「행복한 대상」, 『정동이론』, 갈무리, 2016, 69쪽.

14) 손병석(2016), 앞의 글, 28쪽.

집 앞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책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주먹으로 훔치며 전화기에 동전을 넣었다. 114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도청 민원실 부탁드립니다. 안내받은 번호를 누르고 다시 기다렸다.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그럴 수 있습니까. (69쪽)

은숙의 분노는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어떻게 벌써 그럴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가시화된다.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에 머물지 않고 불합리한 세계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은숙의 태도 역시 ‘호모 이라쿤두스’의 탄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브레히트는 가장 어두운 시대란 불의만 존재하고 분노가 존재하지 않는 때라고 이야기하였다.<sup>15)</sup> 그런 의미에서 은숙의 질문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한 촛불로, 동호가 품은 분노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분노가 “너 같은 년은 여기서 어떻게 돼도 아무도”(68쪽) 모른다고 위협하는 남자에게 혈관이 터져 피가 흐를 만큼 뺨을 맞는 상황을 버티게 하는 동력이 된다. 더 이상 혼자 살아남지 않겠다는 주체의 구체적인 의지가 ‘분노’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호와 은숙을 통해 발현되는 분노는 개인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감정이 아닌, 사회, 정치적 의미를 지닌 ‘분노의 정동’으로서 연대를 가능하도록 이끈다.

이는 도청에서 동호, 은숙과 함께 시신을 수습하던 선주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선주는 방직공 노동자 시절 노조 활동을 했던 경력과 계엄군에게 발견될 당시 총을 소지하고 했다는 이유로 다른 여대생들과 분리되어 더욱 혹독한 고문을 당한다. 삼십 센티 나무 자가 자궁 끝까지 수습 번이고 후벼들어오는, 소총 개머리판이 자궁 입구를 찢고 짓이겨지는 고통을 겪은 선주는 이년 동안 지속되는 하혈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다. 이에 선주는 “오직 살아남기 위하여”(167쪽) “모든 따뜻함과 지극한 사랑을 스스로 부숩뜨”(167쪽)했다고 고백한다. 1980년 5월 이후로 선주의 삶은 죽은 것과 다름없게 된다. 그런 선주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한 것이 바로 ‘분노의 정동’이다.

그러니까 그 여름에 년 죽어 있었어. 내 몸이 끝없이 피를 쏟아낼 때, 네 몸은 땅속에서 맹렬하게 썩어가고 있었어. 그 순간 네가 날 살렸어. 삼시간에 내 피를 끓게 해 펄펄 되살게 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의 힘, 분노의 힘으로

(173쪽, 밑줄: 인용자)

죽어가던 선주는 도청 안마당에 모로 누워있는 동호의 사진을 통해 ‘분노하는 인간’으로 다시 살아난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동호의 비애와 부채감이 함께 살아남기 위한 역동하는 분노로 전이되고, 이러한 동호의 분노가 선주의 삶을 되살게 하는 분노를 불러온 것이다. 이처럼 인물들의 분노는 정주하지 않고 유동하며, 공감의 분노, 연대하는 분노를 가능하도록 이끈다. 바로 이것이 한강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이 아닐까?

15) 박혁, 「분노와 권력의 이중주」, 『계간 파란: 분노』 통권 4호, 파란, 2016. 겨울, 65쪽.

### 3. 공감의 분노, 연대하는 분노를 위한 글쓰기

리처드 커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윤리적인 행동을 서사, 즉 ‘이야기하기’로 이해하였다.<sup>16)</sup> 그런 의미에서 1980년 5월의 광주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은 당시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윤리적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서사를 통한 위무(慰撫)를 시도하는 것으로, 서사화의 과정을 통해 카타르시스적 체험인 ‘용서’가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용서란 상처받은 주체의 내면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이때의 ‘용서’란 단순히 상처를 잊는 행위인 망각과는 다르다. 커니에 따르면 ‘용서’는 망각을 거부하는 가장 적극적인 주체의 의지적 행위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1980년 5월 광주에 관한 서사화 과정은 망각을 요구하는 ‘용서’가 아닌, ‘잊지 않기’ 위해 이루어지는 윤리적인 행위로서의 ‘용서’를 이야기한다고 파악된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 속에서 요구되는 용서와 화해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들이 희생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오해였다.”(213쪽)는 에필로그의 문장처럼, 한강은 광주를 더 이상 피해자 혹은 희생양의 이미지로 정형화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년이 온다』를 통해 구현되는 광주에 관한 서사는 아픈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 1980년 5월의 광주를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잊지 않기’ 위한 작업, 기억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경험’이다.

누군가에게 조그만 라디오를 선물받았다. 시간을 되돌리는 기능이 있다고 했다. 디지털 계기판에 연도와 날짜를 입력하면 된다고 했다. 그걸 받아들고 나는 ‘1980.5.18’이라고 입력했다. 그 일을 쓰려면 거기 있어야 하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이니까.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인적 없는 광화문 네거리에 혼자 서 있었다.

(204쪽, 밑줄: 인용자)

위의 인용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소년이 온다』의 작가는 1980년 5월의 광주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글을 읽는 독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sup>17)</sup> 경험하지 않은 시대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작품 속 인물들과 연대를 맺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받는다. 위의 인용문의 화자인, 에필로그의 소녀는 자라서 1980년 광주에 관한 글을 쓰고자 마음먹는다.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읽고자 했으나, 소녀는 1980년 5월의 광주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부채감을 버릴 수 없다. 이는 정대의 손을 놓치고 혼자 살아남은 동호, 처음부터 혼자 살아남으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은숙의 자리에 소녀를 위치시킨다. 그리고 그 소녀의 자리에 텍스트 밖의 작가, 모든 것을 잊은 듯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독자들을 불러들인다. “너무 늦게 시작했다”(200쪽)는 소녀의 중얼거림과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205쪽)도 여전히 결혼식을 올리고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바라보는 이들이 바로 텍스트 밖의 작가와 독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5월의 광주에 함께 하지 못했다는 부채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스스로에 대한 분노로 정동되고, 이러한 ‘분노의 정동’이 작품을 창작할 수밖에 없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작가에 의해 창작된 소설은 5월의 광주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의 독자들까지도 분노의 정동에 전염시킨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

16) 리처드 커니, 『이방인, 신, 괴물』, 이지영 옮김, 개마고원, 2004.

17) 이를 두고 김미정은 한강의 소설이 “경험적 제약으로 인한 서사적(미학적) 부담뿐 아니라 윤리적 부담까지 감안하면서 “문학적 진상 규명 작업”을 다시 꾀”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 김미정, 앞의 글, 252쪽.

고 살아가는 자신을 향한 분노, 저항해야 할 것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분노, 분노해야 하는데도 분노하지 않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분노, 또는 분노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분노”<sup>18)</sup>들에 정동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 안의 분노는 외부로 향해 공감하는 분노, 연대하는 분노로 향해 나아간다. 바로 이 지점이 한강이 『소년이 온다』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 아니었을까? 하나의 인간으로서 갖는 분노가 글을 쓰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 글을 통해 구현된 인물들을 통해 자칫 잊혀질 분노가 현재화되고, 현재 위에 서사화된 분노를 통해 독자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를 향한 분노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년이 온다』는 광주에 대한 망각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제거되어야 할 ‘아브젝시옹’이 된다. 광주 현장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죽음, 실제적 경험의 소멸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2014년 새롭게 등장한 또 하나의 광주는 폐기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이는 2016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한강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 이로써 『소년이 온다』는 1980년의 광주만이 아닌, 2016년의 대한민국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이제 작가가 직접 광주를 경험했는가, 광주의 실상을 얼마나 그대로 재현했는가라는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소년이 온다』에 등장하는 ‘광주’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고유 명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 덧나고 폭발하며 피투성이로 재건되었다”(207쪽)는 문장처럼, 광주는 우리들의 현실 속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돌아오고 있다.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망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볼썽 중얼거렸던 것을 기억한다. 저건 광주잖아.”(207쪽)라는 소설 속의 문장처럼,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016년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대한민국의 수많은 비리와 부패로 끊임없이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207쪽)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의 분노는 지속되어야만 한다.

이처럼 한강은 『소년이 온다』를 통해 우리에게 기억해야 하는 ‘분노’, 지속해야 하는 ‘분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런 면에서 작가의 글쓰기를 추동하는 원동력이 ‘분노’에 기인함을 다시금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글을 읽어나가는 독자를 통해 ‘연대하는 분노’로 확장된다. 이때의 분노란 특정 지역과 이데올로기에 정체된 감정에 머물지 않는다. 한강 소설에 나타난 ‘분노의 정동’은 현실에 저항하고 변혁을 꾀할 수 있는, 광주를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단순히 주어진 현실과의 투쟁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인간의 행복은 분노를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분노에 따라’ 실현되는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는 분노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갖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강이 소설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

#### 4. 맺음말

18) 박시하, 「우리의 몸짓과 말로써 분노합니다」, 『계간 파란: 분노』통권 4호, 파란, 2016. 겨울, 171쪽.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한 강(2014), 『소년이 온다』, 창비.

### 2. 2차 자료

김미정(2017), 「`기억-정동` 전쟁의 시대와 문학적 항쟁: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가 놓인 자리」, 『인문학연구』Vol.54.

손병석(2013), 『고대 희랍·로마의 분노론』, 바다출판사.

이진경(2002), 『노마디즘 2』, humanist.

파란(2016), 『계간 파란: 분노』통권 4호, 파란.

리처드 커니(2004), 『이방인, 신, 괴물』, 이지영 옮김, 개마고원.

멜리사 그리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2016), 『정동 이론』,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옮김, 갈무리, 2016.

질 들뢰즈 외 7인(2014),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2014.

##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 나타난 분노의 정동」에 대한 토론문

송 주 현 (한신대)

김소륵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이 논문은 많은 대중독자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주었던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최근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와 움직임의 계기가 되었던 사회적 분노의 표상으로 읽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은 분노라는 ‘정서(affectio)’, 혹은 ‘감정’이라는 용어대신 ‘정동(affectus)’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텍스트에 표출된 분노가 개인적·고정적 영역이 것이 아니라, 사회적·역동적인 것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년이 온다』는 광주 5·18이 과거의 한정된 시공간 속의 화석화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기억되고 경험되는 사건임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작품 분석의 틀로 삼은 분노로서의 정동은 텍스트를 독해하고 그것이 생산해내는 매우 역동적이고 다양한 의미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취지와 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분노의 정동은 이 소설의 다양한 서사의 주제, 혹은 초점들을 매우 역동적이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해석의 틀이 됩니다. 특히나 이 소설의 각 장이 각기 다른 인물들의 각기 다른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점, 또한 사건을 경험한 인물들이 그 현장으로부터 각기 다른 시대적 거리(5년 후, 12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리고 현재 등)를 두고 그 일을 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동’이라는 개념은 이들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뒤얽히고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변이되고 충돌되는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매우 잘 보여주는 핵심적 도구이자 이론이 될 것 같습니다. ‘분노의 정동’이라는 프리즘이야말로 이 작품을 보면 고정적·개인적 감정의 분노가 역동적·사회적 공감과 행동의 분노로 다양하게 분광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논의를 따라가다보면 이 분노가 ‘정동’이라는 개념에 맞게 얼마나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설 속 각 인물들(정대, 동호, 은숙, 선주, 교대 복학생, 진수, 동호 어머니, 소녀 등)은 각기 다른 입장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사건 속에서 다른 방식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다시 각기 다른 시간 차를 두고 회고되고 기억되며 서사화됩니다. ‘정동’의 역동성을 생각해 본다면 인물의 시점, 경험, 서사화 시점의 차이에 따른 이들의 각기 다른 분노의 영역들 또한 분명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문에서는 각기 다른 이 인물들의 분노가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사회적인 것이라는 차원에서만(동질적인 것으로) 해석·풀이되는 듯 합니다. 야심찬 ‘정동’의 개념만큼 생성적(?), 혹은 역동적인 분노의 양상이 드러나지 않는 듯 합니다. 가령 각 인물들의 시점, 경험, 기억과 서사화, 현재화 과정에서 보여주는 분노의 질감 차(差)를 다양하게 보여주면 어떨까 합니다.

2. 제가 3장의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2장은 작품에 나타난 각 인물들의 분노가 갖는 의의(정주하지 않고 유동하며, 공감의 분노, 연대하는 분노)를 밝히고 있고, 3장의 경우 언뜻 보기에 작가의 글쓰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듯 합니다. 2장에서 논의한 분노는 텍스트 안(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구현된 것이라면, 3장에서 논의하는 분노는 텍스트 밖(작가의 글쓰기)을 통해서 구현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 보더라도 3장의 중반부를 보면 다시 텍스트 내 인물들(선주, 소녀)의 분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의 분노는 2장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3장이, 이 소설이 갖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는 효과를 논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2장에서 이야기한 분노의 의미와 개념이 발전적 의미로 확장·도약함을 이야기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 (아주 사소한 것이어서 읽고 참고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논문 첫머리에 최근 우리사회의 분노를 이야기하시면서 ‘분노조절장애’, ‘자기자신에 대한 모멸’, ‘혐오’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때의 분노는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는 분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엽기적 행각을 벌이는 등의 분노, 혐오로 확산되는 분노는 선생님께서 논의하신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관계나 구조를 바로 잡으려는 정의의 감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성혐오(misogyny)는 동성애 혐오(homophobia) 남성연대(homosocial)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적 연대에 위협이 되는 약한 존재(여성, 동성애자)들을 제거하고자 만들어 낸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뒷부분에서 다루신 촛불집회에 나타난 분노 등은 충분히 공감미 되고, 이 글의 논의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다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난 분노와 관련된 논의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급하게 읽고 제 이해가 부족하여 드리는 질문들이 아닌가 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전체적인 글의 방향과 의도를 확인해 주시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분노의 조직과 혁명으로의 이행

- 1920~30년대의 프로문학과 그 운동을 중심으로 -

황 지 영 (이화여대)

### <목차>

1. 프로문학 속 '분노'라는 문제계
2. 프로문학이론의 진화와 소설-미디어
3. 개인적 분노와 '동정'으로의 안착
4. 집단적 공분과 '통쾌'로의 전환
5. '공감'을 통한 분노의 정치
6. 혁명을 향한 정동들의 연쇄 만들기

### 1. 프로문학 속 '분노'라는 문제계

1925년은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해였다. 그해 7월에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인 카프(KAPF)가 결성되었고, 초창기 카프를 이끌었던 박영희가 '신경향파 소설'이라고 부른 흐름이 프로문학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박영희는 「신경향파의 문학과 그 문단적 지위」<sup>1)</sup>에서 김기진의 「붉은 쥐」(1924), 조명희의 「땅속으로」(1925), 이기영의 「가난한 사람들」(1925), 최서해의 「기아와 살육」(1925) 등을 언급하면서 작품 속 주인공들의 특징을 “새 사회를 동경하는 개척아”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무산적 조선을 해방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부르주아 문학의 전통과 전형에서 벗어나와서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신경향파 문학의 등장 이후 십여 년 동안 식민지 조선의 문단을 주도했던 프로문학과 그 운동은 맑스주의의 유물변증법과 직결된 것으로, 이 경향의 작가들은 노동계급과 동맹관계를 지닌 채 계급투쟁을 삶의 주요한 사건으로 다루는 문학을 창작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당대에 현존하던 문학 전부, 구체적으로는 춘원류의 낡은 이상주의, 염상섭과 김동인의 자연주의, 세기말적 데카당스 등을 그 적으로 상정하고, 이제까지의 무질서, 혼돈, 무방향적 현상을 수습하여 통일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sup>2)</sup>

프로문학이 기존의 부르주아 문학을 적으로 상정하고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계급투쟁의 도구가 되기를 선택한 만큼, 작품 안에서 계급대립과 계급모순을 짚진하게 형상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프로문학을 접한 독자들이 계급의식을 함양하여 계급혁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프로문학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난

1) 박영희, 「신경향파의 문학과 그 문단적 지위」, 《개벽》, 1925.12.; 이동희·노상래 편, 『박영희 전집Ⅲ』,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121쪽.

2) 임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 이인직으로부터 최서해까지」, 『조선중앙일보』, 1935.10.9.~11.13.; 임규찬 편, 『임화 문학예술전집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417쪽.

과 그로 인한 고통을 형상화하는 “가난의 리얼리즘”<sup>3)</sup>을 위시해 다양한 문학적 장치들이 사용되었는데,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난에서 촉발된 ‘분노’<sup>4)</sup>와 그 상관성 안에서 발생하는 정동들의 연쇄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분노는 어떤 관념에 사로 잡혀 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개인이 특정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분노도 발생하지 않는다. 분노와 관계 맺는 관념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 층위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전체의 층위이다. 개인적 층위에서든 사회적 층위에서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와 자신이 놓여 있는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때, 그리고 그 괴리가 부적절하다고 느낄 때, 그 어긋남과 균열, 불일치를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분노가 발생한다.<sup>5)</sup>

분노를 형성하는 관념이 개인적 층위와 사회적 층위 모두에 걸쳐 작동한다는 것은 분노를 통해서 미시영역과 거시영역 사이의 연계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함을 뜻한다. 감정은 하나의 사회적 사물(social thing)이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감정은 시간을 통해 사회구조의 다양한 국면들과 연결되고, 구조화된 관계의 유형 속에서 발생하며, 행위의 토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다시 얼마 후에는 사회구조를 공고히 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다.

이처럼 개인들이 느끼는 분노는 ‘사회적 층위’를 창출하고 재생산하는 구조화된 관계, 특권에 의해 창출된 기회구조, 그리고 층화된 사회의 억압적 제도에 기반해서 등장한다.<sup>6)</sup> 그리고 이 분노가 모여서 집단적 분노로 전환될 수 있다면, 분노는 1920~30년대에 프로문학자들이 의도한 대로 계급모순을 계급적대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문학 속에서 분노는 때로는 부적절한 파괴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때로는 부당한 사회에 대한 진지한 비판의식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노’를 감정의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다 능동적인 개념인 ‘정동(affect)’으로 분석할 것이다. ‘정동(affect)’은 말초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감각(sense)과 다름은 물론,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정서(emotion)와도 구별된다. ‘정동’은 감정(feeling)의 차원을 끌어안으면서 그 감정에서 촉발되는 신체적 변화까지를 포괄한다. 더 나아가 정동은 행위를 둘러싼 능력이며, 순간적이거나 지속적인 시간성, 그리고 그 시간성이 만들어내는 관계들과 연결된다. 즉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정동은 주관적 감정, 인지적 경험, 생리적 요소, 무의식적 환상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심리생리학적 상태를 아우르는 감정의 흐름이자 움직임이다.<sup>7)</sup>

이러한 정동은 아직 행해지지 않은 것 가운데 사회적인 것의 성격도 지닌다. 그래서 정동은 정치적인 것의 확대된 정의 내에 포함된다. 대면, 관계, 부딪힘, 충돌, 접촉의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정동은 ‘강렬함(intensity)’을 특징으로 지니며, 촉발되는 것, 이로 인한 이행까지를

3) 이재선, 『한국소설사: 근현대편 I』, 민음사, 2000, 247-248쪽.

4)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5장, 서해문집, 2011.

기본적으로 분노는 개인과 개인의 특정한 관계에서 나오는 감정으로,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쾌하고 공정하지 못함을 경험할 때 느낀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 여부에 따라 분노의 강도는 달라지기도 하고, 서열이 분노의 표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분노는 화를 내더라도 안전하다고 느낄 때, 즉 안전이 보장되고 불안감이 없을 때, 그리고 얼굴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비대면 상태에서 더 잘 발생한다. 즉 분노는 개인이 자신의 세계에 갇혀 혼자만 느끼는 감정과는 달리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할 때 그 상대를 향해 발산된다.

5) 정지우, 『분노사회』, 이경, 2014, 14-24쪽.

6) J.M.버버렛, 『감정의 거시사회학』, 박형신·정수남 역, 일신사, 2007, 113-125쪽.

7) 그레고리 J. 시그워스·멜리사 그레그, 「미명의 목록[창안]」, 멜리사 그레그 외, 『정동 이론 : 몸과 문화·윤리·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갈무리, 2015, 14-55쪽.

함의한다.<sup>8)</sup> 그렇기 때문에 정동은 삶을 바꾸는 정치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이고, 특정한 의도와 의 상관성 속에서 조직되고 관리될 수도 있다.

1920~30년대 프로문학에서 정동으로서의 분노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프로문학자들은 문학, 그 중에서도 소설이라는 미디어를 사용해서 독자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고 관리하고 재생산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프로문학이론과의 상관성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진화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sup>9)</sup> 시기별로 보자면 김기진의 ‘감각의 변혁’, 박영희의 ‘감정의 전염’, 임화의 ‘이념의 형상’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자연발생적이고 개인적인 분노가 표출된 신경향파 소설, 목적의식적이고 집단적인 분노가 드러나는 공장소설, 분노의 힘을 매개로 개인의 삶과 사회의 모순을 개선해 나가는 이기영의 『고향』 등이 순차적으로 등장하였다.

본고에서는 1920~30년대 프로문학과 그 운동 속에서 분노가 이처럼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고, 이 변화를 계급혁명으로 나아가는 도정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또한 프로문학 운동에서 소설을 매개로 하여 분노를 중심으로 한 정동들의 연쇄를 만드는 작업이 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프로문학이론의 진화와 소설-미디어

J.M.바버렛 역시 제도를 변화시키는 분노의 힘, 즉 ‘정당한 실천’과 관련된 분노에 주목한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외적으로 승인된 일련의 기준, 가치, 규범에 의해 추동된 분노는 개인적 몰입이기보다는 사회적 권리와 사회적 결과 간의 분리에 대한 개인적 통찰에 근거한다.<sup>10)</sup> 그러므로 정당한 관념을 가진 이는 부당한 관념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고, 내면에 정당한 관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면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실천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sup>11)</sup>

그래서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 대중들의 실천적 힘을 이용하려고 했던 프로문학자들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자극하기에 앞서, 대중들에게 자신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관념, 즉 맑스주의를 중심으로 한 계급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착취와 차별, 폭력과 억압을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대중들에게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힘을 썼다. 특히 자본가와 노동자 혹은 지주와 농민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모순과 대중 개개인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소설을 매개로 하여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로문학자들은 부르주아의 착취와 프롤레타리아의 곤궁한 삶을 핍진하게 그리는 방법을 고민함과 동시에 작품들과 대중들의 삶이 같이 호흡할 수 있기를 바라며 프로문학

8) 권명아, 「식민지 내부의 감각의 분할과 정념의 공동체 : 병리학에서 정념-론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론」, 『석당논총』 53집, 2012, 19-20쪽.

9) 안재좌, 「삼일년의 조선 프로예술운동」, 『동광』, 28권, 1931.12, 18-19쪽.

안재좌 역시 이 글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의 역사적 흐름은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는 자연발생적 경향파 문학의 단계로 1920년대 초반이며, 이 시기는 초반의 경향파 또는 신경향파 문학의 시대라고 일컬어진다. 두 번째 단계는 작품 속에서 뚜렷한 목적 의식이 드러나는 ‘목적의식기’로 1925년부터 1927년 경이다. 마지막은 1927년부터 1935년 카프 해체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데 이 시기에는 이론 투쟁과 프로예맹의 아지 프로적 성격이 나타났다.

10) J.M.바버렛(2007), 앞의 책, 232쪽.

11) 정지우(2014), 앞의 책, 32쪽.

의 '대중화' 전략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신경향파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임정재는 1923년에 예술은 대중의 것이어야 하며 인간 사회의 진화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sup>12)</sup> 이러한 문제의식은 1930년대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김기진은 프로예술/문학을 “노동 대중 속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였다. 그는 프로예술/문학이 “극소수의 지식층과 그보다도 더욱 소수인 각성 있는 프롤레타리아에게 작용하였을 뿐”임을 시인한다. 그리고 프로예술가/문학자들에게 “금일의 대중의 생활조건과 그들의 교양 정도”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sup>13)</sup>

대중들의 삶에 대한 천착 위에서 만들어지는 프로문학이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프로문학이론이 작품을 창작하는 데 전위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 중 본고에서 다룬 김기진의 '감각의 변혁', 박영희의 '감정의 전염', 임화의 '이념의 형상'은 신경향파소설, 공장문학, 그리고 프로문학 최고의 성취로 평가되는 이기영의 『고향』이 등장하는 맥락과 깊은 관계가 있다. 프로문학이론에서 이 세 개의 개념이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변증법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은 프로문학 속에서 분노가 형상화되는 방법뿐 아니라 분노를 통한 독자의 의식화라는 문제와도 깊은 상관성을 지닌다.

우선 김기진의 '감각'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정서적 감응 능력, 식욕과 성욕을 포함한 인간의 본능, 그리고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김기진은 카프에서는 배제하려고 했던 미적 감수성을 현실 변혁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감각의 혁명을 일으키야 하겠다. 인간성을 변혁하여야 하겠다.”<sup>14)</sup>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개인적 차원의 감각적 변혁을 통해 사회 전체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에게 부르주아 사회문화로부터의 근원적인 해방을 꾀하는 주요한 전략이었다. 그래서 그는 '감각하다'라는 동사를 '생활하다'의 동의어로도 사용한다.<sup>15)</sup> 감각하는 것은 생활을 하는 것이고, 감각을 바꾸는 것은 생활을 바꾸는 것이다.<sup>16)</sup> 분노라는 정동을 통해서 혁명을 꿈꾸는 프로문학이론의 첫 번째 단계가 여기서 발견된다.

두 번째로 박영희는 「고민문학의 필연성」<sup>17)</sup>에서 문학은 “그 시대에 처한 민족의 생활이 진화적 의식을 무의식 중에 포함”하며 “그 생활에 대한 감정과 정서를 순화케하려는 기능을 소유”한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문학비평의 형식파와 맑스주의」<sup>18)</sup>에서는 톨스토이를 인용하면서 예술은 “정서적 '전염'의 방법”이며, 예술 작품이 독자에게 전염하는 정서의 성질은 예술가의 계급적 의식 상태에 따라서 한정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문학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 감정을 격동시키는 운동으로서의 문예”<sup>19)</sup>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화는 프로문학의 위기가 논의되던 시기에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 창작 방법의 핵심에 '형상'의 문제가 놓여 있음을 간파한다. 임화에게 형상은 내용 없는 형식과 구별되는 용어이다. 형상은 주어진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서술되는 모멘

12) 임정재, 「문사제군에게 여(與)하는 일문(一文)」, 『개벽』, 1923.7.

13) 김기진, 「예술의 대중화에 대하여-신년은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 『조선일보』, 1930.1.1.~14.

14) 김기진, 「눈물의 순례」, 『개벽』 43호, 1924.1, 237쪽.

15) 팔봉, 「감각의 변혁」, 『생장』 2호, 1925.2, 62-63쪽.

16) 손유경, 「프로문학과 '감각'의 문제-김기진의 '감각의 변혁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Vol.32, 2006, 127-147쪽.

17) 박영희, 「고민문학의 필연성-문제에 대한 발단만을 논함」, 『개벽』, 1925.7.; 이동희·노상래 편, 『박영희 전집Ⅲ』,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107쪽.

18) 박영희, 「문학비평의 형식파와 맑스주의」, 『조선문단』, 1927.3.; 이동희·노상래 편, 『박영희 전집Ⅲ』,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229쪽.

19) 박영희, 「무산계급 문예운동의 정치적 역할」, 『예술운동』, 1927.11.; 이동희·노상래 편, 『박영희 전집Ⅲ』,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284쪽.

트”<sup>20)</sup>이며, 예술이 현실을 파악하는 고유한 방법이다.<sup>21)</sup> 그리고 문학이 예술인 이유는 ‘산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므로 문학은 생활의 진실에 의해 성립되어야 하고, 인식된 생활 세계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야 한다. 임화가 생각한 생활은 계급의식 위에서 만들어지는 삶의 실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의 형상화를 목표로 삼는 리얼리즘은 “인간이 이해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실감을 주게 하는 방법”<sup>22)</sup>이고 프로문학의 대중화는 문학을 통해 “대중의 감정 자체를 건드리면서 예술의 성취를 얻는 것”이었다.<sup>23)</sup>

프로문학이론에서 발견되는 ‘감각’과 ‘감정’, 그리고 ‘형상’의 문제는 프로문학의 대중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문학이론을 바탕으로 소설이 창작될 때 ‘분노’라는 정동이 각 시기별로 감각과 감정과 형상에 무게중심을 둔 채 표출되었다. 생의 욕구와 관련된 감각이 서사를 추동하는 신경향파소설, 작품 속 인물들 사이뿐 아니라 독자들에게까지 감정을 전염시키려고 한 공장문학, 도식적 틀을 넘어서서 실감을 형상화한 이기영의 『고향』에 이르기까지 프로문학의 이론들은 변증법적으로 진화 발전해 나간다.

프로문학자들이 계속해서 이론을 보완했던 이유는 프로문학의 근본 성격, 곧 현실을 변혁하려는 지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소수의 노동자·농민만이 의식화된 상태였던 당대에 대중에 대한 선전 및 선동은 프로문학의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중화 문제가 프로문학 내에서 중요한 논쟁으로 지속되었다.<sup>24)</sup> 소설 안팎의 ‘분노’ 정동과 관련하여 지식인과 농민 사이, 전위와 대중 사이, 더 나아가 작가-작품-독자 사이의 계몽관계<sup>25)</sup>는 현실 변혁이라는 프로문학의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사실 프로문학은 이론 분야에서의 왕성한 논의나 운동의 적극성에 비해 작품의 수준은 빈약한 것이었다. 과도하게 도식적일 뿐 아니라 삶을 인지하는 태도나 방법도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그려졌다. 따라서 소설이 문학 자체로서의 독자성을 지니기보다는 사회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이념적 선전이나 선동의 교육적 수단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였다.<sup>26)</sup> 그럼에도 프로문학자들은 문학이 “이상에의 적합을 향하여, 현실을 개조하는 행위, 즉 이미 존재한 것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은, 그러나 존재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존재할 세계를 창조하는”<sup>27)</sup>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계속해서 작품을 창작하고 이론을 예각화하며 정치적 실천을 이어갔다.

20) 임화, 「문학에 있어서 형상의 성질 문제」, 『조선일보』, 1933.11.25.~12.2.; 임규찬 편, 『임화 문학에 술전집4: 평론1』, 소명출판, 2009, 300쪽

21) 손유경, 「팔봉의 ‘형식’에서 임화의 ‘형상’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Vol.35, 2011, 139-167쪽.

22) 임화,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 『조선일보』, 1934.4.14.~25.; 임규찬 편, 『임화 문학예술전집3: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22-23쪽

23) 가계모토 츠요시, 「‘형상’과 ‘대중화」, 『한국학연구』, Vol.46, 2017, 417쪽

24)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출판, 1999, 132쪽.

25) 사실 현실 세계에서 대중의 공분을 조직하기 위해서 프로문학자들이 소설을 미디어로 삼아 운동을 이어간다면, 소설 안팎의 세계에서 다양한 층위의 분노를 만날 수 있다. 우선 소설 외부 세계 중에서 문학이 현실의 이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비평가 전위의 분노가 있다. 프로문학의 선두에서 이론과 실천을 이끌었던 김기진, 박영희, 임화 등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느꼈을 분노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비평가 전위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문학 작품을 창작한 작가들의 분노를 떠올릴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소설 내부에서는 소설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동인물의 분노와 주동인물을 보조하는 주변인물들의 분노를 떠올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설 외부에 있는 독자들의 분노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독자들의 분노는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프로문학이 조직하려는 공분의 총착점이 바로 독자들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프로문학을 읽은 독자들이 공분을 느껴서 사회를 변혁하려고 할 때 프로문학이 의도했던 분노의 조직화는 혁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26) 이재선(2000), 앞의 책, 324-325쪽.

27) 임 화, 「偉大한 浪漫的 精神-이로써 自己를 관찰하라!」, 『동아일보』, 1936. 1. 1-4.

### 3. 개인적 분노와 ‘동정’으로의 안착

분노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래서 계급적대를 들어낼 때도 분노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가 사회적 행위와 연결될 때는 의식적 차원뿐 아니라 무의식적 차원에서도 작동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관념이 개개인에게 미리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부당함과 착취를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관념이 형성되어 있다면 계급투쟁은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맑스는 적절한 물질적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계급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엥겔스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허위의식은 “[계급 행위자들을] 추동하는 실질적 동력이 [그들에게] 여전히 인식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허위의식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허위의식에 사로잡히면 실질적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적절히 행동하지 못한다.<sup>28)</sup>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자본주의적 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프로문학이 목표했던 것은 개개인이 지닌 관념을 바꿔서 공분을 조직하고, 그 공분을 기반으로 대중들을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이중구속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이었다. 계급과 계급의식에 대한 관념이 본격화되기 전 대부분의 대중들은 자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개혁의지를 지니지 못한 채 숙명론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프로문학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호명하며 계급의식을 각성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신경향파 소설이 이 흐름을 주도했다.

‘자연발생적’이고 개인적인 분노에 주목한 신경향파 소설은 “가난의 극한적인 형태로서의 굶주림과 아귀의 식욕, 죽음과 직결된 가난 그 자체”를 주로 다루었다.<sup>29)</sup> 김기진 자신이 “신경향파소설의 효시”<sup>30)</sup>라고 자부하게 만든 「붉은 쥐」는 빈민가 셋방에 사는 림펜 박형준이 배고픔과 우울 때문에 폭발하여 강도질을 하다가 죽는 이야기다. 그는 자신의 영양부족과 배고픔이 “양젓물이나 비상 같은” 자본주의 문명 때문임을 알고 분노한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관념적인 내적 독백 상태에 머물 뿐 자본주의가 만든 계급모순을 타파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배고픔과 더불어 신경향파 소설 중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요소는 극빈의 상황이 아니라면 먹지 않을 혹은 먹지 못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묘사이다. 「탈출기」(최서해)에서 임신한 아내는 길에서 주운 굴껍질을 먹다가 남편에게 들키자 그것을 아궁이에 던지고, 「박돌의 죽음」(최서해)에서는 어린 소년이 남의 집에서 버린 고등어 대가리를 끓여먹은 후 탈이 나서 사망한다. 또 「지옥순례」(박영희)에는 배가 고파서 만주를 훔쳐 먹고 살인까지 한 남성과 피 묻은 채 얼어버린 만주를 먹는 그의 자식이 등장한다. 「철야」(박영희)의 주인공은 원고를 써야 하지만 극심한 배고픔에 정신이 혼미해져 다다미에서 구수한 냄새를 맡고 지푸라기를 뜯어 먹는다.

신경향파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배고픔과 질병, 사회적 차별 등 때문에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굶주림은 인간을 도덕적 경향에서 동물적인 충동 쪽으로 퇴행시킬 수 있다. 굶주림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자아 파괴 의지인 자살, 살

28) J.M.바버렛(2007), 앞의 책, 116쪽.

29) 이재선(2000), 앞의 책, 260쪽.

30) 김기진, 「십 년간 조선 문예 변천과정」, 『동아일보』, 1929.1.11.

인, 방화, 강도적인 탈취와 범죄적인 폭력이 증가한다.<sup>31)32)</sup> 그리고 굶주림에서 비롯되는 배고픔은 인간의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결핍되었음을 뜻하고, 이 결핍은 분노 정동을 촉발할 수 있는 내장 감각을 자극한다. 그래서 신경향파 소설에는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분노가 인과관계 속에서 그려진다.

그런데 주인공의 반사회적인 폭력 행위와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신경향파 소설을 읽은 독자 대중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분노하기보다는 작품 속 주인공에게 동정을 느끼는 데서 멈추고 만다. 그 이유는 배고프지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몸이 아프지만 약을 살 돈이 없는 사람, 빛을 갠지 못해 가족을 잃은 사람, 과중한 노동을 감내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사람 등으로 재현되는 소설 속 인물들이 대다수의 독자들보다 훨씬 더 참혹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계급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창작한 소설을 읽고 독자들이 작중 인물에 대한 동정에 머무르고 만다면, 그것은 프로문학 운동이 지향하는 바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도식성과 더불어 신경향파 소설의 결정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박영희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신경향파 소설을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인용문에서 박영희는 이종명의 「배신자」를 분석하면서 작가의 감정 노출과 서사의 성급한 진행이 독자의 긴장감을 앗아간다고 설명한다.

이 작품[이종명의 「배신자」]에 한해서 그 효용을 말한다면 이 「배신자」를 독자로부터 배척하며 독자가 이 작품을 읽을 때에 이 배신자에게 대한 의분이 일어나게 되어야 끝까지 독자는 권태 없이 읽을 것인데 작품이 발단에서 작자 자신이 이 배신자에게 의분을 일으키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독자의 정서가 움직여지지 않고 작자의 정서가 먼저 움직이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범속한 말로 하면 동무들이 배신자 P군을 때려 준 후부터의 사건이란 지극히 평범하고 권태를 일으키게 한다.

이것은 평자의 독단일지 모르나 이러한 작품을 살리게 하려면 배신자 P는 그렇게 빨리 작자가 때릴 것이 아니라 일반 독자로부터 증오감을 일으키게 해야만 한다. 그러자면 이 작품 끝까지 긴장되어야 한다. P가 잔인하게 얻어맞을 때에 독자는 한숨 후- 쉬었다. 시원한 한숨이다. 따라서 작품은 이곳에서 벌써 생명이 끝났다. 오히려 작자가 너무 속히 때려버린 P군의 정황은 읽은 사람으로서 그가 배신자임에 불구하고 동정하게 되는 것이다.<sup>33)</sup>

신경향파 문학이 독자들의 분노 정동을 불러일으켜서 혁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작품 속 인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독자들은 그 분노의 과잉 상태에 동조하기보다는 한걸음 물러서서 이들을 관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발 물러선 그 거리만큼 독자들은

31) 이재선(2000), 앞의 책, 244-245쪽.

32) 신경향파 소설에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들은 ‘쥐’, ‘벌레’, ‘개’와 같은 ‘비인(非人)’으로 형상화되고, 가진 자의 탐욕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광인’이 되어버린다. 형준은 피가 묻은 “몽클한” 붉은 쥐를 밟고 “소름”이 끼치는데, 사실 그 쥐는 차에 치어 죽게 되는 형준의 미래 모습과 닮아 있다(김기진, 「붉은 쥐」). 정호는 금고를 지키기 위해 고가에 구입한 사냥개가 도둑을 잘 잡게 하기 위해서 며칠씩 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다 그 사냥개에게 물려죽는데, 탐욕스러운 부르주아를 응징하는 굶주린 ‘사냥개’는 분노한 프롤레타리아의 형상과 겹쳐진다.(박영희, 「사냥개」) 외독자인 박돌이 죽은 후 그의 어머니는 돈 때문에 약을 주지 않았던 의원의 얼굴을 물어뜯고(최서해, 「박돌이의 죽음」), 아픈 아내의 약을 대기 위해 머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수는 어머니마저 중국인의 개에게 물려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자 가족을 몰살하고 집 밖으로 나와 무차별 폭행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죽는다(최서해, 「기아와 살육」)

33) 박영희, 「만춘창작평」, 『조선일보』, 1929.4.30.; 이동희·노상래 편, 『박영희 전집Ⅲ』,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370쪽.

소설 속 인물의 삶 속으로 녹아들지 못하고, 자신과 그들에 대한 구별짓기를 시도한다. “동정은 고통의 당사자와 관찰자 사이의 연극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교환된다.”<sup>34)</sup> 어쩌면 독자들은 자신보다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인 작중 인물들을 보면서 그나마 나은 자신의 삶에 안도하였을지도 모른다.

#### 4. 집단적 공분과 ‘통쾌’로의 전환

신경향파 소설이 도시의 빈민가, 룬펜 프롤레타리아트, 간도 이주민의 참상, 농촌의 피폐함 등 다채로운 소재를 자연발생적이고 개인적 분노와 함께 다루었다면, 192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공장소설은 식민지 상황에서 발전한 자본주의, 그리고 공장 노동자의 계급적 성장 과정에서 빚어지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충돌을 담고 있다. 공장소설은 노동자 계급의 주체적인 의식 성장과 역사 발전에 대한 전망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장소설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송영은 실제로 공장에서 노동한 체험을 바탕으로 「용광로」(1926), 「석공조합대표」(1927), 「인도병사」(1928) 등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들은 작가의 경험이 녹아든 만큼 공장 노동자들의 삶에 사실적으로 다가가기 했지만, “자기의식의 변혁과 성장을 조직적으로 확대시키는 투쟁적인 실천”<sup>35)</sup>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쟁은 연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투쟁을 주도했던 인간미 있고 강인한 의지를 지닌 주인공들은 몰락의 과정을 겪는다.

공장주의 기만적 행위에 대항해서 조직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소설은 이복명과 김남천에 의해서 창작되었다. 이복명은 흥남질소비료공장에서 직접 노동한 체험을 바탕으로 「질소비료공장」(1932), 「암모니아탱크」(1932), 「출근정지」(1932) 등을 창작하였고, 이들 작품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장비 없이 독가스에 노출되어 생기는 산업재해, 관리자에게 구타당하는 노동자의 인권 문제, 분노한 노동자들의 연대 등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1930년대 초반의 프로문학은 “당의 문학”과 “전위의 눈”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볼셰비키 창작방법론’에 경도되어 있었는데, 이 방법에 충실한 작품을 창작한 것이 바로 김남천이었다. 김남천은 「공장신문」(1931)에서는 어용노조에 반대하여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우회」(1932)에서는 노조결성 과정을, 「문예구락부」(1934)에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이전의 모습을 그려낸다.

이러한 공장소설에서 공통적으로 그려지는 모습은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주나 관리자들에게 부당하게 핍박을 받는 모습이다. 「암모니아탱크」의 감독은 암모니아 가스를 마시면 폐가 건강해진다고 말하며 노동자들에게 녹이 가든 찬 탱크 청소를 강요하고, 「공장신문」에서는 수도세를 아끼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짐승들도 먹기 힘든 우물물을 마시라고 한다. 또한 「공우회」에서는 공장을 더 짓기 위해 노동자들의 운동장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

거의 모든 공장소설들에는 이와 같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향해 분노하고 저항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노동자들이 이 목소리를 외면하면 투쟁은 시작되지 못하고 하강의 결말로 치달는 반면, 이 목소리에 다른 노동자들이 공명하여 움직이게 되면 투쟁은 성공에 이른다. 후자의 소설들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 분노한 목소리에 ‘함성’이나 ‘박수’로 호응하고, 투

34)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23쪽.

35)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 민음사, 2008, 366-369쪽.

쟁이 성공한 후에는 ‘만세’를 부르는 방식으로 기쁨을 공유한다. 이러한 방식은 집단적 공분이 통쾌로 전환될 때 나타는 신체적인 반응들을 수반하면서, 노동자들이 투쟁에서 이루려고 했던 바가 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공장소설의 독자들이 이 상황에 얼마만큼 공감했는지는 미지수이다. 소설 속 파업이 성공하면 작중 인물들처럼 통쾌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소설 속 상황에 자신의 삶을 대입하고 동일시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공장소설은 독자들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은 채 작가가 짜놓은 도식에 맞춰서 고통을 받던 노동자들이 저항해서 승리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완결된 상태의 이야기를 제공받고, 그 투쟁의 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간접적인 통쾌함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고 만다.

## 5. ‘공감’을 통한 분노의 정치

임화로부터 “프로문학의 커다란 가치를 기록한 예술적 피라미드”<sup>36)</sup>라는 극찬을 받은 이기영의 『고향』은 동경으로 유학을 갔던 ‘김희준’이 고향인 월터마을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희준이 동경에 있는 동안 고향은 놀랄 만큼 변했다. 근 십년 내에 근대적 제도들이 들어왔는데, 시대의 변천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양상을 더 많이 낳았다. 그전까지는 그냥 얻어먹을 수 있었던 “재강(술지계미)”이 이제는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상품’이 되었고, “모든 물건이 만드는 사람 따로 먹는 사람 따로”가 되었다. 근대화와 더불어 생활이 ‘돈’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마을 안의 사람들은 ‘사유재산’의 정도에 따라 계급이 나뉘게 되었다. 작가는 근대화가 진행되는 친근한 식민지 농촌을 소설의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독자들이 궁핍하게 사는 소설 속 농민들에게 쉽게 공감하도록 만든다.

일반적으로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은 타자의 고통이나 불행을 함께 느끼는 도덕적 감정이라고 평가된다. 반면에 공감은 도덕적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힘일 뿐이지, 그 자체로 하나의 도덕적 감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공감에는 도덕적 함의가 담겨 있다. 우리는 도덕적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우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수용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기 때문이다. “동정은 ‘갈아지면서 멈추는’ 것이고 공감은 ‘다른 채로 나아가는’ 것이다.” “동정은 상태이고 공감은 실천이다.”<sup>37)</sup>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일으키는 힘이 바로 공감이다.

이러한 공감은 기본적으로 타자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의존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공감을 위해서는 ‘상상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sup>38)</sup> 작품 속에서 공감은 농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농민들과 지식인 사이에서, 그리고 농민들과 지주 사이에서 발생한다. 밥을 굶는 집이 있으면 곡식을 나누어먹고, 급락하는 곡가(穀價) 앞에서 무너지는 이들의 감정은 공통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을 바라보는 희준과 갑숙의 마음, 그리고 소작농들의 소작료를 감해주려는 지주 민주사의 처사 역시 상상력을 매개로 공감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6) 임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 이인직으로부터 최서해까지」, 『조선중앙일보』, 1935.10.9.~11.13.: 임규찬 편, 『임화 문학예술전집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366쪽.

37) 신형철, 「감정의 윤리학을 위한 서설1- 주제와 대상에 대한 개요 및 단상들」, 『문학동네』, 82호, 2015.봄.

38) 신형철(2015), 위의 글.

이기영의 『고향』이 프로문학의 최고봉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독자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작가가 원한 공감의 차원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카프의 최고 작가인 이기영이 진정으로 의도한 바는 작중인물들을 매개로 해서 자신의 생각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소설 속에 배치한다.

이 작품의 첫 번째 장점은 개연성 있는 사건 전개와 농촌의 궁핍함에 대한 찜찜한 묘사를 통해 독자들이 작중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당대인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농촌의 자연미를 상당히 자세하게 서술한 점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프로문학에 나오는 영웅적인 전위들과 달리 원터마을의 지도자급인 희준은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 즉 허점도 있고 자기 번민에도 빠지는 인물로 그려진다. 자신과 비슷한 곳에 살며 자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인물들이 『고향』의 서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독자들은 마름과 대립하는 농민들의 분노에 공감을 하고, 자신들의 삶이 작품 속 농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인지하게 된다.

한편 지주보다 악랄하게 소작료를 걷으려는 마름의 횡포에 농민들이 분노할 때 분노의 정치적 성격이 부각된다. 분노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고 있는 타인에 대해 취하는 특정한 태도와 반응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등한 자로 인식되는 맥락을 전제한다. 그리고 분노는 서로가 서로의 평등성을 인정하는 조건에서만 외화될 수 있다. 그러니 농민들이 마름을 향해 분노를 표출할 때 마름은 더 이상 농민들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 자신들은 마름의 하수인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사는 능동적 행위자라는 계급의식이 생겨날 때 농민들은 분노할 수 있다.

이처럼 분노는 계급의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고무될 가능성이 높고, 정의에 대한 가치판단과 밀접히 연관된다. 분노를 통해 정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노는 정치적 힘이며, 도덕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힘이다. 그래서 분노의 발화에 공감하는 폭이 크면 클수록 분노의 연대는 공고히 구축된다.<sup>39)</sup>

『고향』의 결말에서 마름 안승학과 농민들의 대립은 농민들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갑숙이와 희준이의 합동 작전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농민들의 삶은 앞으로도 고단할 것이고, 소작농의 궁핍은 한 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소설은 끝이 났지만 소설 속 인물들과 비슷한 삶을 사는 농민들, 그리고 이 작품을 읽은 독자들의 고단한 삶은 여전히 진행태로 남아 있다.

이 작품은 전면적이고 완전한 승리 대신에 부분적인 성공을 그림으로써 저항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계급투쟁은 변증법적 지양을 통해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들의 가난은 분노의 공동체를 만드는 강력한 경험적 토대로 작용했고, 분노를 내재한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sup>40)</sup> 그렇기 때문에 『고향』은 프로문학의 관념성과 도식성에서 벗어나 “고도의 종합적 사실주의”<sup>41)</sup>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39) 강계숙, 「해방기 ‘전위’의 초상-『전위시인집』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5, 2017.5, 50-52쪽.

40) 강계숙(2017), 위의 논문, 53쪽.

41) 임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 이인직으로부터 최서해까지」, 『조선중앙일보』, 1935.10.9.~11.13.; 임규찬 편, 『임화 문학예술전집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435쪽.

## 6. 혁명을 향한 정동들의 연쇄 만들기

프로문학 운동의 이념적 지침이 되고 있는 변증법적인 유물사관은 역사 발전의 단계를 계급 간의 투쟁 과정으로 파악하는 계급의식을 주축으로 삼고 있다. 이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이며, 프롤레타리아는 현실 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계급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1920년대 프로문학자들은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조선의 식민지 현실을 일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적 지배라는 계급적 논리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프로문학 운동의 근본적인 목표는 프롤레타리아로 하여금 계급적 각성을 갖게 하고 계급투쟁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선동하는 것이었다. 프로문학운동에 참여한 작가들은 스스로 무산계급의 일원이 되어 계급적 세계관을 가지고 투쟁의 효과를 문학을 통해 직간접으로 보여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묘사된 현실의 투쟁 대열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려고 했다.<sup>42)</sup>

도덕적 행위나 의사 결정의 동기는 이성뿐 아니라 감정의 영역일 수도 있다. 감정은 행위를 준비하는 경험이다. 인간의 행위와 실천은 감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감정은 행위자가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고 행위자가 기꺼이 행위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행위와 연루된다. 감정은 특정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이 유발하는 느낌 및 그와 관련된 흥분 상태들을 통해서 행위와 연계된다.<sup>43)</sup> 본고에서는 이처럼 감정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정동’이라고 부르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동은 일정한 시간성을 지니기 때문에 무한히 지속되지 않는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다. 계급적 힘에 의해 발생한 공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화된다. 분노에서 공동성이 희미해지면 개인화된 분노는 그 강도와 지향점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분노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문학 진영의 창작자와 비평가들은 이 노력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프롤레타리아의 고통스러운 삶을 형상화하고, 현재의 자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자의 목소리로 계급 해방의 가능성을 부르짖었다.

이때 분노의 지속이라는 시간성의 문제와 더불어 고려되었던 것은 분노의 확산이라는 공간성의 문제였다. 감정은 개개인의 개별적인 경험이지만, 옆 사람들에게 퍼지는 전염성이 있다. 분노란 자기가 받는 대우가 공평하지 못한 느낌이 들 때 생기는데, 이 불공평을 사회계층 전반이 공유하게 될 때 분노는 집단화되어 공동의 적에 대한 공격으로 표현된다. 단체 행동은 그동안 분노를 억제시켰던 두려움을 없애 준다. 이러한 집단 분노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간디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분노는 다스려지기만 한다면 세계를 움직일 힘”이 될 수 있다.<sup>44)</sup>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한 아이히만은 전범재판에서 유태인을 학살할 당시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최종 결정’, 즉 유태인 학살을 반대하는 사람을 하나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sup>45)</sup> 그는 국가와 총통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채 관료주의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수동적 인간의 전형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류의 전체 역사에서 보기 드문 대량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혹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그

42) 권영민,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18-19쪽.

43) J.M.버버렛(2007), 앞의 책, 119-120쪽.

44) 최현석(2011), 앞의 책, 132쪽.

45)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김선옥 역, 한길사, 2006.

것이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본인의 역할을 방기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프로문학자들은 소설을 미디어 삼아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소설 속에서 독자 대중들이 계급혁명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개인적 차원의 분노를 담은 신경향파 문학을 거쳐, 함께 분노하고 연대하여 계급모순을 타파하는 과정을 통쾌하게 그린 공장소설이 등장했고,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소설 속의 남겨진 이야기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동일시하면서 지속적인 투쟁을 모색하게 하는 이기영의 『고향』이 창작되었다.

프로문학은 문학의 진보와 계획적 필연성 위에 파괴된 단일성을 일층 높은 곳에서 조직하고 명확히 체계화된 이상을 가지고 생활적 현실과 결부하면서 보다 견고한 통일적 방향을 걸었다. / 그러므로 프로문학은 (중략) 조선의 생활적 현실의 발전해 나가는 역사적 필연의 문학적 체현으로써, 그들에게 허락된 무한의 능력 위에 명확히 자각한 방법을 가지고 수행하려고 하였다. 또한 그리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마 미래에도 이 세대의 손에 의하여서만 조선의 근대문학이 이상하던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sup>46)</sup>

위의 인용문은 임화가 문학사를 서술하면서 프로문학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임화의 말처럼 프로문학은 문학의 진보와 계획적 필연성 위에서, 체계적인 이상과 생활 현실을 결부하면서 통일적 방향을 향해 나아갔다. 문학을 매개로 계급혁명의 길을 만들기 위해 프로문학자들은 분노라는 정동을 이용하였다. 소설 속 등장인물의 분노와 독자 대중의 분노가 만나고, 프로문학을 진두지휘했던 비평가 전위들의 분노와 계급관계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했던 작가들의 분노가 만나 프로문학은 역사적 필연을 문학적으로 체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화는 미래에도 프로문학 세대에 의해서만 “조선의 근대문학이 이상하던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프로문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면서, 계급착취와 계급투쟁, 그리고 계급혁명까지 나아가는 길을 분노의 정동을 이용해 만들어 가고 있었다. “더 이상 자본의 억압과 비인간성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가장 도덕적 반응이 바로 분노에서 시작”<sup>47)</sup>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분노의 정동은 타인의 고통에 다가가게 하는 ‘동정’을 불러오기도 하고, 억압된 자들에게 ‘통쾌’라는 대리만족을 주기도 하며, 공감으로 독자들의 계급의식을 고양시키면서 새로운 주체들을 생산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동들의 연쇄가 만들어질 때 분노는 혁명으로 나아가는 추동력의 기 능할 수 있을 것이다.

(미완)

46) 임화, 「역사적 반성에의 요망」, 『조선중앙일보』, 1935.7.4.~16.; 임규찬 편, 『임화 문학예술전집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357-358쪽  
47) 김미현, 「분노의 문학과 정념기호학- 김사과의 『미나』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44집, 2015, 87쪽.

## 참고문헌

### 1. 저서

- 권영민,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 『한국현대문학사1』, 민음사, 2008.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출판, 1999.  
멜리사 그레그 외, 『정동 이론 : 몸과 문화·윤리·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갈무리, 2015.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이동희·노상래 편, 『박영희 전집Ⅲ』,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이재선, 『한국소설사: 근현대편 I』, 민음사, 2000.  
임규찬 편, 『임화 문학예술전집2,3,4』, 소명출판, 2009.  
정지우, 『분노사회』, 이경, 2014.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5장, 서해문집, 2011.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김선옥 역, 한길사, 2006.  
J.M.바버렛, 『감정의 거시사회학』, 박형신·정수남 역, 일신사, 2007.

### 2. 논문

- 가게모토 츠요시, 「‘형상’과 ‘대중화’」, 『한국학연구』, Vol.46, 2017, 417쪽.  
강계숙, 「해방기 ‘전위’의 초상-『전위시인집』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5, 2017.5, 50-52쪽.  
권명아, 「식민지 내부의 감각의 분할과 정념의 공동체 : 병리학에서 정념-론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론」, 『석당논총』 53집, 2012, 19-20쪽.  
김기진, 「눈물의 순례」, 『개벽』 43호, 1924.1, 237쪽. 팔봉, 「감각의 변혁」, 『생장』 2호, 1925.2, 62-63쪽.  
——, 「십 년간 조선 문예 변천과정」, 『동아일보』, 1929.1.11.  
——, 「예술의 대중화에 대하여-신년은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 『조선일보』, 1930.1.1.~14.  
김미현, 「분노의 문학과 정념기호학- 김사과의 『미나』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44집, 2015, 87쪽.  
손유경, 「프로문학과 ‘감각’의 문제-김기진의 ‘감각의 변혁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Vol.32, 2006, 127-147쪽.  
——, 「팔봉의 ‘형식’에서 임화의 ‘형상’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Vol.35, 2011, 139-167쪽.  
신형철, 「감정의 윤리학을 위한 서설1- 주제와 대상에 대한 개요 및 단상들」, 『문학동네』, 82호, 2015.봄.  
안재좌, 「삼일년의 조선 프로예술운동」, 『동광』, 28권, 1931.12, 18-19쪽.  
임정재, 「문사제군에게 여(與)하는 일문(一文)」, 『개벽』, 1923.7.  
팔봉, 「감각의 변혁」, 『생장』 2호, 1925.2, 62-63쪽.

## 「분노의 조직과 혁명으로서의 이행-1920~30년대의 프로문학과 그 운동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가게모토 츠요시 (연세대)

이 발표는 분노를 중심으로 프로문학 소설을 독해하려는 시도이다. 분노가 '동정'으로 연결된 초기 신경향파 소설이나, '통쾌'로 연결된 30년대 초의 프로문학은 분노를 독자에게 잘 전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기영 <고향>에 와서 분노는 '공감'과 연결되어 독자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다는 내용이다. <고향>이 좋은 소설이라고는 평가에는 동의하겠지만 마치 <고향>을 최고점으로 삼아 논의를 구성하는 것은 너무나 임화적인 문학사 인식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임화에게는 <고향>을 최고봉으로 논의해야 할 필연성이 있었겠지만 임화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우리는 임화적인 문학사 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연구는 이미 많이 제출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글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3장과 4장이었다. 이 부분은 분노하고 있으며,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모색하지만 잘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부분은 신문연재이던(즉 장편이 가능하던) <고향>과, 성급히 기승전결을 만들어야 할 잡지 계재의 단편(3,4장에서 분석대상이 된 소설)이라는 매체적인 차이도 있겠다. 그리고 신경향파 소설들은 임화적으로(즉 '문학사'/'본격소설'에 기대어) 논의되면 그것 자체로는 평가되기 어려울 것이다(물론 동시대 평에서 임화는 김남천 소설에 대해 호평하고 있으나). 신경향파/초기 프로 소설을 <고향>과의 우월대비가 아닌 식으로 독자적으로 읽어보면 무언가 보이지 않을까. 즉 역사적 맥락에 놓으면서 '감정을 조직화'하려는 시도로 읽는다면 임화적 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신경향파의 성급함은 그것 자체로 다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와 연결하려는 직접적인 의도는 사회주의리얼리즘시기보다 그 이전(20-30년대 초)시기가 훨씬 강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제3기론'(1930년 전후의 임화도 자주 쓰던 말이다)을 비롯해 사회주의가 곧바로 오겠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실인식은 인민전선노선이 배포된 시기의 사회주의리얼리즘이나 <고향>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현실인식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소설 플롯의 '속도'도 다르다(6장에서 분노의 시공간론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와 연결되는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본다면 발표문에서 대상이 된 모든 소설과 '계급혁명'을 연결시키고 있는 서술도 조금 상세한 것으로 변하지 않을까 한다(혹은 2장 마무리 부분에서 임화 <위대한 낭만적 정신>(36년)을 인용하면서 '정치적 실천으로 이어갔다'고 쓰는 부분에서 정치적 실천이란 과연 무엇이 가능했을까? 임화는 36년에 정말로 '정치적'인 실천을 하려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이 글은 '독자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글은 독자를 계몽의 대상으로만 설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계급투쟁의 도구"(1쪽), "대중들의 실천적 힘을 이용하려고"(3쪽), "계급의식을 심어주기"(3쪽), "예언자"(11쪽), "프로문학자들은 소설을 미디어 삼아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소설 속에서 독자 대중들이 계급혁명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제시하였다."(12쪽) 등의 서술이 그것이다. 물론 프로문학에는 확실히 계몽의 의도가 있다. 그러나 독자는 그러한 작가의 의도를 항상 배신하며, 배신함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텍스트 읽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더군다나 '분노'라는 감정은 지적인 계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신경향파 소설은 이론적인(변증법적인) 발전단계를

뛰어 넘는 도박적인 효과에 건 소설들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신경향파의 ‘분노’의 위치는 임화적 문학사에서와는 다른 자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아닐까(‘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시간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벽모스<꿈의 세계와 파국>등).

그리고 사소한 일이지만 “프로문학운동에 참여한 작가들은 스스로 무산계급의 일원이 되어(후략)”(11쪽)이라는 서술이 있는데 레닌적인 ‘외부’의 문제(임화가 30년대 중반의 낭만론에 도달하면서도 계속 인용한 책은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가 없어지지 않을까? ‘해박서 아는 주의’인 것처럼 들린다. 본문에서는 복잡하게 논의되던 내용이 갑자기 단순화된 것 같다.



**‘호모소셜’의 경험을 통한 성장의 실패**  
- 김영하,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중심으로 -

이 유 민 (이화여대)

<목차>

1. 들어가며
2. 가출 청소년들의 ‘집’: 서열 제도의 내면화
3. 폭주족들의 ‘사회’: 최상위 서열의 추구
4. 제이와 ‘나’: 서열의 해체의 시도
5. 나가며

## 1. 들어가며

김영하는 빠른 이야기 전개와 신선한 감각, 그리고 한국문단에서 보기 드문 악마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가장 주목받는 작가 중의 한 명이라고 평가받아왔다.<sup>1)</sup> 특히 김영하의 소설들은 나르시시즘, 탈주, 환상, 욕망 등과 같은 키워드로 해석되어 왔는데, 그의 소설들은 나르시시스트적 개인이 각종 억압과 금기로부터 탈주하는 모습을 그리며, 그 존재들의 상실감을 추적하여 자아와 타자 그리고 세계를 해석하려는 욕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힌다. 이러한 특징으로 미루어 봤을 때, 김영하 소설은 (모든 작품이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억압되고 소외되었지만 욕망하는 존재, 표현하고자 하나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존재’를 대변하는 문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2)</sup>

김영하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sup>3)</sup> 역시 사회에서 소외되어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이의 연장선상에서 읽을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제이’와 ‘나(동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는 화목한’ 가족<sup>4)</sup>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지

1) 한혜경, 「김영하 소설에 나타나는 감각과 욕망의 글쓰기」, 『이화어문논집』 no.19, 이화여자대학교한국어문학연구소, 2001, 26쪽.

2) 양미영, 「반(反)성장 서사 인물과 주제화 기획의 문제 - 김영하 장편소설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no.50, 한국비평문학회, 2013, 181쪽.

3) 김영하, 『너의 목소리가 들려』, 문학동네, 2012

4) 서혜지는 한국근현대문학사에서 ‘가족’은 가장 중심적인 주제 중 하나로서, 근현대사를 거쳐 오는 동안 국가, 혹은 민족과 더불어 개인에게 가장 깊은 삶의 뿌리라고 언급했다. 가족은 역사의 변화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과 밀접한 ‘삶의 단위’이자 ‘사회의 기초’인 것이다. 가족이라는 단위 안에서 부모는 자식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책임을 져왔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하는 것이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율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족구성원 간의 정신적 분리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으며, 가족은 이기주의와 불평등의 운상이 되기도 한다. 서혜지는 이처럼 가족이 정서적 안정을 주는 보호처라는 신화는 해체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대의 욕망과 갈등, 그로 인한 폭력, 감추어진 가족의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이 가족 구성원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서혜지, 「한국현대소설에서 가족의 자본주의 폭력 대응방식 연구」, 『비평문학』, no.37, 한국비평문학회, 2010, 277-278쪽.

못한 아이들이었다. 제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아버지를 모른 채 다른 여성을 어머니로 부르며 자라다가 청소년기에 또 다시 버림받았고, '나'는 불륜을 저지른 어머니와 곧잘 부부싸움을 하는 아버지 하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이처럼 이들은 '제대로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김영하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반(反)성장소설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양미영은 지금까지 '반(反)성장'이라는 개념은 성장소설의 논의 안에서 함께 다루어져왔다고 언급하며, 반성장서사를 성장소설의 한 면으로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소설을 반성장소설로서 청소년인 인물들의 주제화 문제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정신분석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sup>5)</sup>

결국 세계와 타협하거나 순응할 줄 알게 되는 교양소설 속 청년과는 달리, 반성장 소설의 작중인물은 방향을 계속하며 어른이 되지 않는, 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제이'와 '나'(동규)는 반성장 서사의 전형이 될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있으며 외부 사회로부터 받는 고통에 괴로워하다 '정상적인' 주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음<sup>6)</sup>에 이르고 만다.<sup>7)</sup>

즉 양미영에 의하면 제이와 '나'는 수동적 성장을 택하기보다는 능동적인 퇴행과 탈선을 선택함으로써 나름의 주제화를 꾀한 반성장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방식은 다른데, 제이는 통상적이고 사회적인 성장을 거부하고 상징계가 아닌 곳에서 스스로 상징(권력)이 되고자 하는 나르시시스트적 주제화를 시도하는 인물이다. 반면 '나'는 자의적으로 성장을 거부한다기보다는, 주제화를 기획하여 상상계적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좌절하여 결국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상상계에 남게 되어버리는 양상을 보인다.<sup>8)</sup> 결국 제이와 '나'는 모두 상징계에 속하지 못하여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공통점과, 각각 실재계와 상상계로 그 행보를 달리했다는 차이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 소설을 호모소설이라는 개념을 통해 읽어보고자 한다. 우에노 치즈코는 자신의 저서 『여성혐오를 혐오한다』<sup>9)</sup>에서, 여자의 가치가 '남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남자의 가치는 '여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일은 없으므로, 이성애 질서가 여성과 남성에게 비대칭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이때 남자의 가치는 '남성세계 내 패권 게임'에 의해 결정되는데,<sup>10)</sup> 패권 게임의 '승리자'는 여자를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우에노는 이브 세지윅의 용어를 빌려, 이러한 '남성 간의 연대'를 '호모소설'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호모섹슈얼이 남성 간의 '성애'라면 호모소설은 성적이지 않은 남성 간의 유대,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적인 것을 억압한 남성 간의 유대'를 의미한다.<sup>11)</sup>

이 소설의 서사는 제이와 '나'의 관계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서로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결국에는 파국을 맞는다. 특히 이 관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이의 변화이다. 제이는 남성들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서열'을 인지하게 된 후 이를 내면화하여 최상위 서열에 서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제이의 변화에는 두

5) 양미영, 앞의 글, 179쪽.

6) 소설 속에서 제이는 오토바이 폭주 중에 쇠바늘형 바리케이드가 쳐진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다가 오토바이 바퀴에 펑크가 나서 몸이 날아가 죽음을 맞은 것으로 그려지고, '나'는 제이를 죽게 만든 것이 자신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소주에 약을 타 마시고 자살했다.

7) 양미영, 앞의 글, 182쪽.

8) 양미영, 앞의 글, 179-180쪽.

9)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옮김,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10) 우에노 치즈코, 위의 책, 30쪽.

11) 우에노 치즈코, 위의 책, 31-32쪽.

번의 호모소셜에서의 경험이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모소셜은 여성을 대상화하고 객체화하여, 타자화하고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여성혐오적인데, 이는 여성에 대한 제이와 ‘나’의 시선, 특히 자신이 속한 호모소셜을 유지하기 위해 제이가 행했던 여성에 대한 성적 도구화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 2. 가출 청소년들의 ‘집’: 서열 제도의 내면화

이 소설에 가지적으로 드러나는 호모소셜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이가 ‘돼지엄마’의 가출로 혼자 남게 되었을 때 PC방에서 알게 되어 함께하게 된 가출청소년들과의 생활이며, 두 번째는 제이가 이후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서 이끌었던 폭주족 무리이다. 제이는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낱자마자 버려진 아이였고, 그런 제이를 키운 것은 ‘돼지엄마’였다. 그녀는 ‘결혼한 적도, 아이를 낳은 적도 없었으며 돼지를 연상시키는 구석도 없었는데도, 언제부턴가 돼지엄마라고 불리고 있었다.’(18)<sup>12)</sup> “제이가 터미널 화장실에서 처음 세상으로 제 몸을 내밀던 순간, ‘돼지엄마’는 은행에 다녀오는 길”(18)이었는데, “누군가 방금 어미에게서 떨어져나온 미끌미끌한 핏덩이를 그녀에게 건네주었”(18)고, 그렇게 제이는 ‘돼지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다.

‘돼지엄마’라 불리는 이 ‘두 번째 어머니’와,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나’(동규)의 집에 세 들어 살던 시절이 제이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러나 ‘돼지엄마’가 젊은 마약중독자 ‘뽕돌이’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이 행복은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뽕돌이’는 제이가 눈에 보이면 때렸기 때문이다. 결국 ‘뽕돌이’ 때문에 함께 마약중독자가 되어버린 ‘돼지엄마’도 갓 중학생이 된 제이를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린다.<sup>13)</sup> 혼자 남은 제이는 살던 집마저 동네 재개발로 폐허가 되자 반쯤 허물어진 집의 반지하방에 숨어 살다가 고아원에 가게 되고, 이후 제이는 열여섯 살에 고아원을 나오으로써 ‘전형적인 가출청소년의 생활’<sup>14)</sup>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 제이는 첫 번째 호모소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비가 내리는 봄밤을 밖에서 지새울 수는 없을 것 같”(90)아 들어간 PC방에서 만난 남성 청소년들의 무리였다. 이들의 무리는 세 명이었기 때문에 “쪽수”(91)가 맞지 않아 게임에 끼게 된 제이는 게임이 종료된 후 이들을 따라가게 된다. 이때 제이가 속하게 된 호모소셜은 매우 서열이 고착화되어있는, 즉 일종의 서열 제도를 내면화한 집단이었으며, 여성들을 객체화하고 도구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 남성 청소년들의 일차적인 목적이 이들과 마찬가지로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과 만나는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여성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동대문의 의류전문 쇼핑몰 앞에서 여자애들과 만났다. 공장에서 찍어내기라도 한 듯, 키도 비슷하고 패션도 같은 스타일이었다. 스키니진에 몸에 짝 달라붙는 셔츠에 싸구려 카디건을 걸쳤다. 얼굴마다 화장을 진하게 올렸다. 그래서인지 앞에 서 있는 남자애들보다 서너 살은 많아 보였다. 그러나 태도와 표정에서 숨길 수 없는 어린 티가 묻어났다. 여자애 하나가 도드라졌다. 시

12) 괄호 안의 숫자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쪽수이다.

13) 양미영, 앞의 글, 184쪽.

14) 양미영, 앞의 글, 186쪽.

원한 눈에 턱선이 가름했다. 남자애들 눈길이 그쪽으로 쏠렸다.(93)

예문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동대문 쇼핑물 앞에서, 자신들이 집을 제공할 네 명의 여성 청소년들을 만난다. 이때 여성들의 외모와 패션에 대한 서술에서 이들을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남성들의 시선을 읽을 수 있다. 키가 비슷한 이 여성들의 ‘스키니진, 셔츠, 카디건’을 입은 옷차림은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다’는 평을 받는데, 이는 여성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일종의 사물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선을 보여준다. 특히 ‘몸에 짝 달라붙는 셔츠’는 여성들의 ‘성적인 몸’을 보여주는 것이며 ‘짜구려’ 카디건의 강조는 이러한 여성들을 ‘천한’ 것으로 인식하는 남성들의 혐오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의 관계는 여성들이 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남성들이 머무를 곳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위계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남성들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도구화하고 대상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때 ‘예쁜’ 여성 청소년은 이종으로 도구화되며 타자화되는데, 이는 세 명의 여성 청소년들이 ‘예쁜 애를 데리고 가출하기 위해 기다렸다’(94)는 서술에서 알 수 있다. “예쁜 애가 하나도 없으면 여자애들의 가출은 실패하기 십상”(94)이었는데, 이는 ‘가출한 첫 날, 늦어도 둘째 날까지는 지붕이 있는 잠자리를 구해야’(94)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예쁜 여자애가 필수”(94)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을 도구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남성들의 집단은 제이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는 ‘야구모자’와 성관계를 맺기를 거부하는 ‘예쁜 애’(지연)<sup>15)</sup>를 남성들이 ‘요란하게 덮쳤’(97)음에도 다음 날 ‘그 소동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97)기 때문이다. “담배빵의 위협 속에 윤간을 당했던 지연은 남자애들과 태연하게 장난을 치며 농담따먹기를 하고 여자애들과는 시시덕거렸다.”(97) 이러한 호모소셜은 제이에게 하나의 “야생”(97)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제이의 이내 이 사회의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각각 남녀 그룹의 “짱”(99)인 ‘후드티’와 ‘깃잎머리’는 마치 ‘가장’과 ‘주부’처럼 집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난교가 줄어들고 고정된 짱이 생겼다.”(102)<sup>16)</sup> 여성 청소년들과 함께 가출했었던 ‘풍선껌’이 배탈이 심하게 나서 집으로 돌아와 여성들의 숫자는 셋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짱인 후드티가 깃잎머리와 잤고 지연은 야구모자와 잤다. 피어싱은 큐빅과 잤다.”(102) 제이는 “그대로 노예로 남았”(102)는데, “가끔 술에 취한 여자애들이 선심이라도 쓰듯 그의 성욕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해주었다.”(102)

이러한 호모소셜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자, 제이는 “노예”(102)인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 원하는 여성을 쟁취하고자 결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남성들의 패권싸움에 뛰어들게

15) 이들 여성들 중 별명이 아닌 ‘이름’이 있는 이는 이 ‘예쁜 애’인 ‘지연’뿐이라는 것 역시 여성혐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여성들은 단지 ‘깃잎머리’, ‘큐빅’, ‘풍선껌’으로 불릴 뿐인데, 이러한 별명이 붙은 이유는 ‘깃잎머리’는 깃잎 모양의 머리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큐빅’은 큐빅이 박힌 머리핀을 했기 때문에, ‘풍선껌’은 껌을 항상 씹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지연’은 제대로 된 ‘이름’이 부여되어있으나, 소설 속에서 드러나는 지연의 특성으로는 ‘예쁘다’는 것이 가장 강조되어있다. 이처럼 네 명의 여성들 중 지연에게만 이름이 부여되어있다는 것은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예쁜 외모’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여성들을 외모를 기준으로 위계화하며 대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혐오적이다.

16) 이는 ‘한 집안’을 관리하는 이가 남성 한 명이 아니라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라는 점에서, 남성들만의 연대인 호모소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집안에서 함께 잘 ‘여성’을 ‘선택’하는 것은 남성들이다. 즉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남성을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남성들의 우두머리인 ‘후드티’가 먼저 원하는 여성을 선택하면 이후 다른 남성들이 자신의 서열에 따라 원하는 여성을 선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삶은 호모소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된 것인데, 제이가 어느 날 다용도실에서 들고 나온 맥주병으로 피자를 먹고 있던 ‘야구모자’의 머리를 찍는 모습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방심하고 있던 야구모자는 말 한마디 못 한 채 그대로 쓰러졌고, 제이는 야구모자의 배도 발로 걷어찼다.’(106) ‘야구모자’는 정신을 차리자 제이를 ‘슬슬 피하더니 슬그머니 집을 나갔고, 밤이 되자 제이는 지연의 손목을 잡아 이불 속으로 끌어들이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106)

그러나 이는 제이가 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이가 ‘야구모자’와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의 우두머리인 ‘후드티’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드티’는 제이의 눈이 지연만 따라다닌다는 것을 눈치 채고, 제이에게 ‘종옥(‘야구모자’의 이름)을 ‘제끼라’(105)고 말한다. 제이는 ‘너네 친구 아니었느냐’(105)고 묻지만, ‘후드티’는 코웃음을 칠 뿐이다. 제이가 ‘야구모자’를 공격하고 있을 때도 “후드티는 조용히 앉아 뜨거운 피자만 먹고 있었다.”(106)

호모소셜은 여성을 객체화함으로써 주체로 인정받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 관계라 할 수 있다. 즉 호모소셜에서 “남성됨을 인정하는 것은 동성의 남성”<sup>17)</sup>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이의 ‘남성다움’을 승인한 이는 ‘후드티’이며 이러한 승인은 제이가 ‘폭력’이라는, ‘남성성’을 표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제이의 ‘남성다움’은 곧 스스로가 ‘승인하는’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이가 가출 청소년들을 모으고 오토바이를 몰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그의 행보에서 추정할 수 있다.

### 3. 폭주족들의 ‘사회’: 최상위 서열의 추구

자신이 맥주병으로 내려친 ‘야구모자’의 신고로 인해 아이들이 잡혀갈 때, 제이는 장을 보러 돌아오다가 낫선 승합차 한 대를 발견하고 숨어버림으로써 경찰의 손을 피했다. 이후에도 제이는 ‘비슷한 일을 몇 번 더’(108) 겪었는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제이는 “자기 몸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강력한 힘을 느꼈다.”(116) 이러한 힘은 제이가 두 번째 호모소셜에 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이가 경험하게 된 두 번째 호모소셜은 제이가 이끌게 된 폭주족 무리이다. 이 호모소셜은 앞서 제이가 속해있던 가출 청소년들의 호모소셜과는 다른 양상을 띠는데, 이는 폭주족들의 호모소셜은 제이가 남성들의 패권싸움에서 이긴 상태로 속하게 된 사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이는 몇 번의 가출청소년들의 호모소셜에서의 경험 이후 직접 가출청소년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이전에 함께 지냈던 ‘후드티’도 있었고, 우연히 만난, 자신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찍었던 ‘야구모자’도 있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제이는 간단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전했다는데, 이러한 메시지는 ‘너희들은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141)이며, 이는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지만 나는 너희들로 인해 아프다’(141)는 내용이었다. 아이들은 제이가 자신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존재라고 느꼈고, 제이의 기이한 생활 태도에 외경심을 품기 시작했다. 제이의 ‘몸에 밴 자신감과 기이한 품모’(141)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다. 이렇게 제이가 아이들의 리더가 되어가고 제이가 오토바이를 몰기 시작하면서, 제이는 폭주족 아이들의 리더가 되어갔다.

봄이 되면 폭주족들이 원효대교 아래나 여의도 고수부지로 몰려들었다. ‘아이들이 나타나기

17)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45쪽.

시작한 것은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152)였는데, '원효대교 아래의 공원으로 모여든 아이들의 오토바이는 할리 데이비슨이나 BMW 같은 고가의 오토바이만 없을 뿐, 온갖 종류의, 다양하게 개조한 오토바이들'(152)이었다. 심지어 피자 체인점 로고와 배달상자까지 그대로 달린 배달용 오토바이도 있었는데, '나'가 폭주족에 합류한 시점도 이 즈음이었다.

제이는 이 시기에 대해 '나'에게, '그 아이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으며, 성난 개떼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지만 막상 자신이 다가가면 꼬리를 내리고 받아줄 것 같았다'(153)고 말했다. 또한 '그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을 이끌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라'(153)는 어떤 목소리도 들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폭주족이라는 또 다른 호모소셜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제이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이는 첫 번째 호모소셜에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남성들 사이의 패권싸움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번의 패권싸움의 상대는 이 시기 제이가 교제하고 있던 목란이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 '태주'였다. 태주는 자신의 '그룹의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오토바이'(154)를 타는 남자였다. 그는 제이와 함께 있는 목란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와, 제이에 대해 "옆에 있는 거지는 누구"(155)냐고 묻는데, 눈싸움을 하듯 제이를 노려보는 태주의 눈을 제이도 피하지 않(155)음으로써 제이는 태주와의 싸움에 응한다.

이후 폭주는 주말마다 벌어졌는데, 목란과 '나', 제이만 몰려다니던 '목가적인 시기'(160)는 지나간 것이었다. '제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수가 붙어났고, 폭주가 끝나도 돌아가지 않고 제이 곁에 남아 있는 애들이 수십 명은 되었'(160)다. 즉 제이는 '주말마다 왕의 삶'(160)을 살았다. 제이는 삼선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었지만 그것이 그 세계의 패션이었다.

알에서 깨어난 바다거북은 드디어 바다에 다다른 것일까? 잠복해있던 제이의 본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인기가 권력이라는 것, 권력은 폭력이 본래 구현하려던 것을 폭력 없이 구현하는 힘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제이는 도전자에게는 가혹하게, 추종자에게는 부드럽게 대했다. 눈짓만으로도 뜻이 이루어졌다. 도전자는 추방당하거나 곤욕을 치렀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제이가 이끄는 폭주 그룹은 그 어느 그룹보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161)

예문에서 알 수 있듯 제이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이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면서도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는 부드럽게 대했다. 이를 통해 남성들 간의 패권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제이의 욕구와 서열 제도의 내면화를 살펴볼 수 있다. 제이는 자신이 태주와의 싸움에 응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과의 싸움에 응한 것이다. 동시에 자신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 즉 스스로 자신의 낮은 서열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부드럽게 대함으로써 폭주족 무리 내의 서열을 공고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추종자들을 늘려가던 제이는 마침내 태주와의 (폭주족 내의) 패권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다. 특히 삼일절의 대폭주는 제이가 폭주족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형사에게 덜미를 잡힌 태주<sup>18)</sup>가 상대적으로 암전하게 리드하는 가운데, 제이의 그룹이 치고 나왔기 때문(207)이었다. 형사들의 눈에 제이가 띄게 된 것은 삼일절 전야였다. 태주에게서 제이의 정보를 미리 들은 형사 박승태에게도 제이는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폭주족 아이들과도 달랐다'(207)는데, '침착하고 영리하게 대열을 리드'(208)하는 제이의 모습은 무턱대고 남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이전의 다른 리더들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었다.

18) 태주는 오토바이 절도 건으로 형사 박승태에게 붙잡혀, 제이에 대한 정보를 그에게 전달하고 절도 건에 대해서는 선처를 약속받는다.

이러한 제이의 모습은 자신이 원하는 여성과 성교를 맺기 위해 남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전의 모습과 같으면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무렵 '제이는 노골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다른 여자애들을 건드리고 다녔'(167)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목란의 신경은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다."(167)

결국 제이는 한 무리의 리더가 됨으로써 여러 여자를 취하는 방식을 이전의 호모소셜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체득했고, 이를 다시 스스로 패권싸움의 승리자가 됨으로써 이루고자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호모소셜이라는 남성들만의 '사회'에 적응하려던 제이의 노력은 유일한 '친구'라고도 할 수 있었을 '나'와의 관계에 의해 무너진다.

#### 4. 제이와 '나': 서열의 해체의 시도

이처럼 제이가 겪은 두 번의 호모소셜은 이 소설 속에서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호모소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또 다른 호모소셜의 형태를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인 '나'(동규)와 제이의 관계이다.

이 소설에서 '나'는 제이의 유일한 친구이자 분신이다. '나'는 유년기에 삼촌과 어머니의 불륜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한 가정의 불화를 모두 자기 탓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상처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나'의 어머니는 '나'를 "마치 옆집에서 잠시 맡겨놓은 강아지처럼"(26) 대했고, '나'는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럴 때 제이는 그런 '나'와 함께 있어주었을 뿐 아니라, '나'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말해줌으로써 동규의 '욕망의 통역자'가 되어주었다. 동규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신뢰가 존재한다고 믿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sup>19)</sup>

그러나 제이가 거리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갈 때 '나'는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지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제이는 평범해진 '나'와 달리 '신비로운 영웅'이 되어 있었고, '나'는 그런 제이의 모습에 매혹되어, 유년 시절보다 더 맹목적으로 제이를 욕망한다. 제이처럼 되고 싶은 동규는 제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 집을 나오고, 오토바이 폭주를 시작하고, 제이의 여자 친구 목란을 좋아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동규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원해서 시작한 일들이 아니다.<sup>20)</sup>

우에노에 의하면 '호모소셜리티(동성사회성)'는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에 의해 유지된다. 호모소셜한 남자가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장치가 '여성을 성적 객체화'하는 것인데, 이는 남성 집단에 매복해있을지 모르는 '계집'에 대한 경계는 자신이 주체의 위치에서 전략할 수 있다는, 즉 자신 역시 성적으로 객체화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21)</sup> 결국 남성들은 여성의 성적 객체화를 서로 승인함으로써 성적 주체(남성들) 간의 상호 승인과 연대가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sup>22)</sup> 이를 '나'와 '제이'의 관계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제이가 폭주족을 이끌고 그 안에서 리더로 인정받게 되면서, "제이와 잤다고 떠들고 다니는 여자애들은 많았다."(169) 제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대장 수컷'(169)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

19) 양미영, 앞의 글, 193-194쪽.

20) 양미영, 앞의 글, 195쪽.

21)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36쪽.

22)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37쪽.

이다. 그런 제이도 당시 사귀고 있던 목란과는 ‘아무 일이 없었’(169)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의외라고 생각한다. 이때 ‘나’는 자신에게 제이와의 관계를 털어놓는 목란을 보며, 자신이 목란을 처음 보았을 때 목란은 “큐브 속의 여신”(170)이었으나 지금 목란은 “스스로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170)다고 언급하면서, 여성혐오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더욱이 ‘나’는 목란이 “그것도 모자라 제이까지 끌고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170)고 말하며, 그때까지 목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감정이 식었다는 것을 느낀다. 이는 목란이 ‘자신을 낮추고 비하해서가 아니었다. 제이가 목란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안 순간, 목란에 대한 욕망도 사라져버린 것이었다.’(170) 그 순간 ‘나’는 자신이 목란에게 빠졌던 이유는 바로 제이가 목란을 원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171)을 깨닫는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나’는 제이를 욕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소설 속에서 제이에 대한 ‘나’의 욕망을 추정할 수 있는 서술은 여러 번 등장한다.

말을 못 하는 나와 그런 나를 이해하는 제이 사이에는 다른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유대가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굳어가는 말, 입 밖으로 뿜어나가지 못한 채 종유석처럼 굳어가는 그 무엇을 제이는 즉각 알아차렸다. 제이는 나를 대신해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시작했다.(33)

나라는 인간을 글자로 써서 거울에 비춘 것이 제이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왔었다. 좌우가 뒤바뀌어 있을 뿐 근본은 같은, 나이를 먹어 둘로 분리된 정신의 삼쌍둥이.(165)

그러나 제이를 향한 ‘나’의 욕망은 이내 흔들리기 시작한다. ‘나’가 말을 하지 못했던 증상을 떨치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나’는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살며 같은 학원을 다닌, 중학교에서 사귀 ‘평범한’(44) 친구들과 어울리며 제이를 멀리하기는 했었다. 그러나 ‘나’는 이후 제이를 만난 뒤 다시 제이를 욕망하게 된 것이었는데, ‘나’는 어느 순간 제이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나’가 가출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제이는 잘 생각했다고 대답하며,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146)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는 처음에는 제이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점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목란은 제이의 발치에 앉아 마치 송배라도 하듯 그를 올려다보며 그가 내 인생에 대해 내놓는 과격한 해결책에 감탄”(146)했지만, ‘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제이의 조언이나 해결책이 자신의 ‘존재의 위기’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같다(146)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도 제이는 나를 잘 알았다. 그러나 한때 내 욕망의 통역자였던 제이는 이제 나는 인간의 내면을 읽을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게 그를 더 오만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148)

즉 제이는 혼자 지내기 시작하고 가출 청소년들의 호모소셜을 경험한 뒤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인정욕망’<sup>23)</sup>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욕망을 폭주족들의 우두머리가 됨으로

23) 이러한 인정욕망은 신자유주의적 도시노동이 부추긴 성취인정의 욕망과 연결된 것일 수도 있다. 이 현재는 여성을 혐오하는 집단들이 강한 인정욕망을 드러내는 일차적인 이유는 ‘성취원리’, ‘성취인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며, 이는 신자유주의적 도시 노동과 연결된 것으로써 성취를 위한 남성들의 인정투쟁은 곧 생존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과 정체성을 과시하고자 하는데, 성취인정은 이미 전반적인 도시적 삶의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적 성취로 연결되지 않을 때도 맹목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이다. 이현재, 『여성혐오 그 후, 우리가 만난 비체들』, 들녘, 2016, 94-95쪽.

써 획득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자신을 삼쌍둥이라 여기던 ‘나’에게까지 요구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나’는 제이를 욕망했다. 이는 제이처럼 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 제이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었다. 우에노에 따르면 사실 ‘되고 싶은 욕망’과 ‘가지고 싶은 욕망’은 간단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절실한 욕망과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열렬한 욕망은 종종 겹쳐져 나타나기도 한다. 세지윅은 호모소셜 속에는 호모섹슈얼한 욕망이 포함되어있으며 이 두 가지를 연속체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sup>24)</sup>

다시 말해 ‘나’와 제이의 호모소셜은 제이를 욕망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나’의 무의식의 발현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호모소셜 내에서 호모섹슈얼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나’는 ‘제이가 욕망하는’, 혹은 ‘제이가 욕망한다고 생각한’ 목란을 욕망하게 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란은 제이가 (성적으로) 욕망하는 대상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나’는 목란에 대한 성적인 욕망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는 제이가 자신의 인정욕망을 ‘나’에게 투영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제이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이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욕망은 ‘나’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제이와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는 가출 청소년들의 호모소셜에서의 경험을 통해 ‘서열’을 인식하게 된 제이와는 달리, ‘나’는 이전부터 서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학창시절 반에서의 ‘나’의 서열은 “너무 비만이라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애 바로 위”(127-128)였다. ‘나’는 자신이 “사실상 꼴찌”(128)였다고 서술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서열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공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 병신력 절정의 찌따’(128)이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학창시절에는 매우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나’의 서열은 이후, 고아원을 나와 혼자의 삶을 지속하게 된 제이를 다시 만나 그의 호모소셜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상승’한다.

그러나 이렇게 상승한 ‘나’의 서열은 ‘애매한’(160) 것이었다. 새로 합류한 제이의 추종자들은 거칠었고 대놓고 ‘나’를 무시했다. 아이들은 제이가 ‘나’를 상대할 때만 잠시 ‘나’를 의식했다가 곧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나’는 제이가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줄 때마다 ‘황송함’을 느끼게 되었고, 동시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게 되었다.(160)

이러한 애매한 서열은 목란의 것이기도 했다. 목란은 ‘남자친구’인 제이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지 않는, 스스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폭주에 참여하는 여성이었다. 수많은 ‘여자애들이 제이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올라타보겠다고 몰려드는’(166) 상황에서, ‘자기 차를 갖고 폭주를 뛰는’(166) 목란은 일견 남성의 대상화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주체적인 여성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폭주행렬의 규모가 커지고 제이가 점점 더 인기를 끌면서 목란과 ‘나’만 뒤로 남겨지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는 ‘목란은 공식적으로 제이의 여자친구였지만 바로 그 이유로 ‘나’와 같은 서열, 그러니까 서열을 매길 수 없는 애매한 상태’(166)에 머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이와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와 목란은 제이가 외면하는 순간,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166)

결국 ‘나’와 목란은 ‘서열을 매길 수 없는 서열’에 함께 놓이게 됨으로써 동등한 관계가 되고, ‘나’는 이로 인해 목란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나’가 목란을 처음 봤을 때 그녀는 큐브 속의 ‘여신’이었으나 스스로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갔다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혐오적 시선은 목란이 제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소재의 대화

24)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34쪽.

를 ‘나’에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가 목란과 자신을 같은 위치(호모소셜 내에서의 동등한 서열)에 놓을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해졌던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나’가 목란에 대해 품게 된 혐오의 감정은 ‘나’와 제이의 관계가 호모소셜적인 것이었다는 점, 또한 호모섹슈얼적인 욕망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나’는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서열이라는 제도를 인식하게 된 제이와는 달리, 이전부터 ‘서열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폭주족이라는 호모소셜 내에서의 자신의 서열도 감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과 목란이 같은 서열에 놓여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욕망의 대상인 제이가 목란을 욕망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말해 제이가 자신을 욕망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서열을 해체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설 내에서 ‘나’가 ‘제이의 죽음’을 상상하기 시작했다(171)는 것에서 알 수 있는데, 제이의 죽음은 ‘나’가 그의 서열을 취득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 서열 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다. ‘나’가 제이의 서열을 취하고자 했다면 그와의 패권싸움을 통해 최상위서열이 되고자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나’ 스스로 서열을 해체하려 시도한 것은 아니다. ‘나’는 제이의 죽음을 상상하면서 직접적으로 제이를 살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의 손을 잡음<sup>25)</sup>으로써 이를 이루어내었기 때문이다.<sup>26)</sup>

## 5. 나가며

본고는 김영하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제이’와 ‘나’의 관계를 우에노 치즈코가 정리한 호모소셜 개념으로 읽어보고자 했다. 이 소설에서 주된 인물로 등장하는 제이와 ‘나’는 ‘비행 청소년’으로서,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타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성인’이 아니며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했는데, 이에 따라 제이와 ‘나’는 더욱 타자화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가족을 벗어나 호모소셜 속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제이의 서사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제이는 생부를 모르며, 생모는 자신을 버렸다. 생모가 자신을 버렸을 때 근처에 있었던 ‘돼지엄마’가 자신을 키워주었지만, 그녀 역시 자신을 두고 떠나버림으로써 제이는 진정한 ‘고아’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제이는 고아원에 갔다가 ‘비행 청소년’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속하게 된 호모소셜에서 제이는 최하의 서열에 위치해 있었다. 이 호모소셜에서 그는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도구화하는 모

25) 소설 말미에서 박승태는 동규(‘나’)가 자신들에게 협조했었다는 사실을 말하며, ‘여러 그룹이 뒤섞여서 폭주를 벌이고 있었으니까 우리로서는 제이 그룹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했고, 동규는 제이 뒤를 바짝 따르면서 자기들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알려줬다’(251)고 말한다.

26) 김지혜는 이러한 제이의 죽음을 ‘승천으로서의 죽음’이라고 보았다. 제이는 고행을 거치며 예수와 비슷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키우지만 폭력적인 세계에 ‘폭주’라는 분노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안전한 영웅일 뿐이었으므로, 제이는 8월 15일 광복절에 대폭주를 진두지휘함으로써 저항을 기획하지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막혀 좌절당하고 하늘로 증발해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제이의 죽음은 ‘승천으로서의 죽음’이 되며, 이 소설이 초점화자를 ‘나’, 제이, 박승태, 소설가 ‘나’ 등으로 바꾸며 제이의 탄생에서 기이한 죽음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인물들에 의해 재구성된 종교적 기록의 형태’가 된다.

김지혜, 「김영하 소설의 죽음 연구」, 『한국문학연구』 no.4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4, 363-364쪽.

습을 보는데, 이때 제이가 욕망한 이는 ‘예쁜 애’ 지연이다. 이 호모소셜에서 ‘노예’인 자신이 ‘예쁜 애’, 즉 전리품으로서 지연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높은 서열’에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당시의 최상위 서열인 ‘후드티’의 승인 하에 ‘야구모자’를 폭행하고, 자신이 그 서열을 획득함으로써 지연까지 ‘획득’한다.

이처럼 ‘상위 서열’을 획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산물들을 이해하게 된 제이는 자신이 최상위 서열인 호모소셜을 욕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는 ‘비행 청소년’들을 만나러 다니고, 폭주족 무리를 이끔으로써 최상위서열에 올라선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인정 욕망’은 실패하고 마는데, 그가 속해 있던 호모소셜은 가시화된 호모소셜로서의 폭주족 무리 이외에도 한 가지 더 있었기 때문이다.

‘나’(동규)와 제이 사이의 호모소셜은 제이와 ‘나’가 서로에게 인정 욕망을 투사함으로써 해체될 가능성을 보이게 된다. 이는 제이가 ‘나’에게 ‘인정’(일종의 숭배)을 받으려 시도했고 ‘나’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낮은 서열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는 제이에 대한 자신의 욕망이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 즉 제이 역시 자신을 욕망하는 것은 바랄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됨으로써 이러한 서열을 해체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서열의 해체 시도는 호모소셜의 해체 시도로 나아가지는 못했고, 제이의 죽음 역시 ‘공권력’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열 해체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으며, 제이와 ‘나’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호모소셜’의 경험을 통한 성장의 실패  
-김영하,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 소 영 (서울대)

이 발표문은 이브 세지윅의 ‘호모소셜’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김영하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2012)에서 드러나는 동성사회적인 관계들을 세심하게 분석하면서, 특히 제이와 ‘나’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동성사회적인 관계의 이면에 동성애적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동성애적 욕망으로 인해 결국 제이와 ‘나’의 성장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평소 교양소설과 남성성에 대해 관심을 지니고 있던 저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발표문을 매우 흥미롭게 읽은 저로서는 이 글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이 글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반(反)성장 서사’로 파악하는 선행연구와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모소셜’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이 소설을 ‘성장의 실패’로 읽어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제이와 ‘내’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는 ‘성장’의 의미가 보다 치밀하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글에서는 모레티의 『세상의 이치』에 따르면 세계와 타협하거나 순응하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와 같은 고전적 교양소설과 이 소설이 구별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을 반성장 서사로 이해하고 있는데, 『적과 흑』과 같은 사실주의적 교양소설은 주인공이 불행한 결말, 즉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사실주의적 교양소설과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서사/반성장 서사의 틀로 이 소설을 이해하기보다는 교양소설 자체가 남성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겨냥하는 것이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 소설이 ‘호모소셜’의 개념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근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루카치는 『소설의 이론』에서 소설이란 성숙한 남성성의 형식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루카치는 왜 소설이 성숙한 ‘남성성’의 형식인가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모레티의 『세상의 이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모레티는 교양소설의 주인공이 유독 남성인 이유를 19세기라는 시대적 상황의 특수성에서 찾습니다. 19세기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양쪽 다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여성은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일한 차원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양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영하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문제적인 이유는 그가 2012년의 시점에 IMF 이후 급증한 가출 청소년들을 통해 남성 교양소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일 터입니다. 그러나 이 발표문의 논의에 따르면 이들의 성장은 실패한다는 점에서 결국 이 소설은 2012년에 남성 교양소설이라는 양식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김영하는 2012년이라는 시점에 적합한 새로운 남성 교양소설을 창안해 낸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다면 이 발표문이 좀 더 풍요로운 논의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저는 발표자님께서 선행연구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보다 예각화해서 2012년에 김영하가 ‘남성 교양소설’을 창작한 이유에 대해 더 탐구하시면 이 글이 더욱 흥미로워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 모레티는 『세상의 이치』에서 자신의 교양소설 논의가 지닌 한계로 서구의 남성 부르주아만을 다루었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는 교양소설이라는 양식이 육체노동자를 포괄할 수 없었던 이유로 육체노동자가 교양소설의 본질적 특성인 사회적 이동성을 체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듭니다. 이에 비추어보았을 때 가출 청소년들은 사회적 이동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육체노동자보다도 더욱 ‘짧고 억눌린 젊음’, ‘꿈꿀 권리도 없는 젊음’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계급적 측면 역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넬은 『남성성/들』에서 노동계급의 남성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에 의하면 노동계급에 있어서 남성성의 담지자는 집단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남성성을 획득하는 계기가 가출 청소년 집단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코넬의 논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이 발표문은 이브 세지윅에 대한 우에노 치즈코의 논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브 세지윅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모레티와 코넬 등 다양한 이론적 컨텍스트들을 끌어오는 것이 이 글의 논의를 보다 탄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욕망의 문제

한 유 진 (선문대)

### <목차>

1. 서론
2. 자료개관과 각편별 특징
3.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4. 전승집단의 인식 양상
5. 결론

### 1. 서론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은 전승 현장에서 ‘고분지통(叩盆之痛)<sup>1)</sup>의 유래담’으로 구연되는 설화이다. 이는 이 설화가 ‘남편이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叩盆之痛]’으로 귀결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인데, 작품명을 고분지통 유래담으로 규정할 수 없는 까닭은 텍스트 표면에 제시된 의미가 이면의 의미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설화에서 남편은 아내 자결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서사의 귀결을 ‘고분지통’으로 의미화하는 것은 이 설화가 함의하고 있는 문제적 국면들을 은폐하는 것이다. 이에 이 설화를 대표하는 작품명은 대상 설화의 서사 구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형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 본고에서는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는 남편이 본인의 ‘거짓 죽음[假死]’의 상황을 마련하여 아내의 정절을 시험하는 이야기로, 여성의 성(性)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긴요한 자료이다. 여성의 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는 여성이 정절을 수호하는 서사로 구성된 열녀설화에 집중된 가운데<sup>2)</sup>, 여성의 성적 욕망의 일단이 드러난 자료들은 간통설화<sup>3)</sup>와 육담(肉談)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간통설화에서 여성의 성적 욕망은 간통이라는 사건을 발생시키는 계기로 작

1) 고분지통(叩盆之痛)의 본래 유래는 『장자(莊子)』의 「지락편(至樂篇)」에서 찾을 수 있다. “혜자(惠子)가 장자의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을 갔는데, 장자는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유를 묻자, 장자는 아내가 죽은 것이 사실은 천지 사이에 편히 쉬게 된 것이니 울지 않고 동이를 두드린다고 대답하였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2) 열녀설화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에 그 연구성과도 매우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열녀설화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인경(「구비 ‘열설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 삼국시대 이후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열녀전승 작품을 대상으로 삼아 열관념의 전승과정 및 변모양상, 서술자의 시각 등을 깊이 있게 고찰한 강진옥의 논문(「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 1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995)도 열녀설화 연구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3) 간통설화 연구는 문헌, 구비 간통설화를 대상으로 삼아 간통설화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홍나래(「간통 소재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홍나래는 이 논문에서 간통설화를 징치형, 용서형, 권유형 설화로 분류하고 전승양상 및 설화 향유층의 인식 양상 전반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용하고, 육담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성적 욕망은 향유자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대상화된다.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sup>4)</sup>는 여성인물이 성적 욕망을 인식하는 과정, 여성의 내면이 집중적으로 제시된 작품이다.<sup>5)</sup> 특히, 이 설화는 여성 인물이 형상화된 방식을 통해 성에 대한 담론을 읽어낼 수 있는 서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형상화한 주제, 구성 맥락을 탐색해보고, 이를 향유한 전승집단의 인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자료개관과 각편별 특징

『구비문학대계』에서 확인되는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의 각편은 모두 21편으로, 대부분 ‘441-10 행실이 음란한 아내’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sup>6)</sup>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 자료				
각편 번호	대계 번호	쪽수	각편 제목	제보자 정보
①	2-3	45-47	장자 이야기	김현배(남,75)
②	2-7	371-374	고분지통의 유래	이수길(남,39)
③	2-8	826-827	마누라 시험한 장주	김진환(남,75)
④	2-9	74-76	수절 못 지킨 장영 선생 부인	엄기복(남,73)
⑤	3-1	26-36	고분지통(叩盆之痛) 유래	김기회(남,78)
⑥	3-1	332-335	장자(莊子) 이야기	조학구(남,76)
⑦	3-3	490-493	고분지통(叩盆之痛)의 유래	장갑성(남,70)
⑧	3-4	594-599	고분지통(叩盆之痛)의 유래	송재충(남,68)
⑨	4-3	234-239	고분지통의 유래	오현섭(남,62)
⑩	6-2	216-220	고분지통	김정균(남,88)
⑪	6-5	238-240	못 믿을 마누라의 장담	윤아기(여,75)
⑫	6-6	486-489	무덤에 부채질하는 여인	최항령(남,64)
⑬	7-4	32-35	남의 욕하다 죽은 아내	배상오(남,78)
⑭	7-7	463-466	위시개하다가 할마이 죽였네	김놈이(여,58)
⑮	7-10	63-66	부인을 자결하게 한 소광렬	우흥태(남,69)
⑯	7-11	699-709	장수의 도술과 간부	김형준(남,51)
⑰	7-15	398-400	장주와 부인	김호준(남,88)
⑱	7-16	162-166	남편 죽자 사흘만에 개가한 여자	유효임(여,53)
⑲	8-9	182-183	못 믿을 아내	김갑태(남,81)
⑳	8-9	812-819	악한 마누라 버릇 고치기	박월순(여,61)

4)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에 대한 연구는 문학치료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박재인은 청상과부의 개가 욕망에 대한 아내의 분노를 강박적 분노로 논의하였고, 강미정은 남편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자살한 아내의 행동을 우울증을 해석하였다. (박재인, 「강박성향의 분노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 -〈아내 시험한 장자와 고분지통〉의 강박적 분노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3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4; 강미정, 「우울증 서사로 보는 <공쥐팔쥐>·<상사뱀>·<고분지통>」,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282-287쪽)

5) 간통설화와 육담 모두 서사구조 안에서 여성의 성적 욕망이 주요한 요소이지만, 여성의 성적 욕망 자체에 집중하는 서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간통설화의 경우 여성의 성적 욕망을 전제하면서도 대부분의 서사가 간통의 결과 이후 상대 남성(남편)의 대응 방식에 집중하고 있으며, 육담의 경우 흥미를 위해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는 육담의 기능적 측면이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6) 『구비문학대계』에서 ‘441-10 행실이 음란한 아내’ 유형은 총 35편의 각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 대상 자료로 삼은 작품은 남편이 아내의 정절을 시험하는 서사구조를 가진 각편이다. ‘441-10 행실이 음란한 아내’ 유형에서 이에 해당하는 각편은 총 20편이며, ‘223 자기(가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기’ 유형에서도 1편(⑨)이 제시된다.

㉔	8-11	729-734	농담 끝에 상처한 사람	박한섭(여,57)
---	------	---------	--------------	-----------

이 설화의 서사단락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사단락]

1. 남편은 개가를 하기 위해 죽은 남편 무덤에 부채질하는 과부를 만나다.
2. 아내는 과부의 행실을 비난하다.
3. 남편은 도술로써 죽음을 위장하고, 다른 남성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등장하다.
- 4-1. 아내는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청혼하다.
- 4-2. 아내와 남성이 혼인하다.
5. 남성은 치병(治病)을 위한 약으로 인골(간)을 요구하다.
6. 아내는 남성을 살리고자 죽은 남편에게서 인골 꺼내기를 시도하다.
7. 남편이 깨어나다.
- 8-1. 아내가 자결하다.
- 8-2.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다.
9. 남편이 후회하다.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는 액자구조로 구성된 이야기이다. 남편이 아내의 정절을 시험하는 사건이 액자 내부에 위치하는데, 이 사건을 바탕으로 아내는 욕망을 자각한 주체로 전환된다. 남편의 아내 시험은 과부의 개가 욕망에 대한 강한 분노감을 표출한 아내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설화의 각편에서 남편은 대부분 장자(장주)(①,②,③,⑤,⑥,⑧,⑬,⑯,⑰)<sup>7)</sup>로 제시되며, 그 외의 각편들에서도 상층 인물로 나타난다.<sup>8)</sup> 상층 남성 인물은 정절 이데올로기를 수호하는 자, 아내의 도덕적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된 자<sup>9)</sup>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정절 관념은 남성 중심적 입장에서 형성된 이념이기에, 이 이념에서 타자로 위치하는 여성은 끊임없이 편견과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남편의 아내 시험도 바로 이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이 설화의 각편들에서도 확인된다.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의 각편들에서 남편의 아내 시험 이유는 아내에 대한 의심(⑤,⑥,⑦,⑧,⑩,⑪,⑫,⑬,⑭,⑮,⑯,⑰,⑱,⑳)과 함께, ‘인물이 잘 나면 속이 검다’(②), ‘여자란 요물’(③), ‘여자란 원래 그런 것’(⑨) 등으로 표현된 여성의 성에 대한 편견이다. 여성의 성에 대한 불안감과 편견은 아내를 시험의 장으로 이끈다.

남편은 죽음을 가장(假裝)하고 새로운 남성으로 변신하여 아내 앞에 등장한다.<sup>10)</sup> 이때 남편이 변신한 남성은 대부분 젊고 출중한 외모를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아내는 이러한 남성을 보는 순간 강력한 성적 욕망을 느끼며,<sup>11)</sup> 인륜에 반하는 요구마저 승낙하기에 이른다. 즉, 인

7) 본고에서 각편 정보는 각편 번호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8) 각편들에서 장자 이외에 제시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장영(④), 울곡(⑦), 정명도(⑩), 장자방(⑫), 소광렬(⑮) 등의 역사적 인물, 진사(⑪), 대인(⑭), 선비(⑯,⑳), 대감(㉑) 등 양반 계층의 인물로 제시된다.

9) 흥나래는 간통 현장을 징치한 선비의 사례를 들어 징치자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논의한 바, 이를 참고하였다. “구비의 주인공들은 처음부터 월등히 도덕적 인물로 설정되었다. 이들은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여성을 향한 폭력적인 시선을 숨기지 않으며 이를 관음증적 응시와 차별화하였다.” (흥나래, 「조선후기 가부장 살해 소재 설화의 문화사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42, 한국구비문학회, 2016, 323쪽)

10) 각편 ③에서는 새로운 남성으로의 변신은 나타나지 않고, 남편의 도술범위는 죽음을 위장한 상황까지만 한정된다.

골을 먹어야만 낫는 병에 걸렸다는 남성의 고백에,<sup>12)</sup> 아내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죽은 남편의 시체를 훼손하고자 한다. 이때 남편은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고 시험은 끝이 난다.

아내는 결국 시험에 실패하고 자결을 선택한다. 아내가 자결을 선택한 이유는 부부 간 신의를 배반한 것의 미안함, 내밀한 욕망을 들켜버린 데에 대한 불안함(㉔,㉕), 남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㉖) 등으로 제시된다. 그동안 강력하게 억압되어 인지되지도 못했던 욕망의 정체가 이를 통제하는 주체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에서 아내는 죽음에 이를 정도의 강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한편, 각편 ㉖에 드러나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극심한 공포의 정체는 다른 남성을 향한 욕망이 사회적 단죄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아내의 인식으로,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 3.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아내를 시험한 남편> 설화에서 아내의 욕망은 남편이 제시한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다.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억압되어 자각하지 못했던 여성 주체의 욕망은 ‘시험’이라는 특정한 상황과 만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여성 인물은 욕망을 자각한 주체로 전환된다. 이 설화에서 과부의 개가 욕망에 대하여 분노했던 아내는 남편 시신 훼손을 시도할 만큼 강력한 성적 욕망을 가진 주체로 변모하는데, 이러한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 성에 대한 담론을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혐오스럽게 형상화한 주체, 구성 맥락, 그 의미를 아내가 욕망을 자각한 전후로 나누어 논의해보기로 한다.

#### (1) 욕망에 대한 부정 :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된 욕망

남편에 의한 시험이 제시되기 이전의 서사에서 아내는 가부장제의 정절 관념을 내면화한 존재로 형상화된다.

“아, 세상에 그런 년이 있어? 원 세상에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으면 고생하고, 수절하고 살던지 그래야 절부(節婦)지. 아, 그래 그 남편 모이를 말려 놓고선 시집 갈라고, 아 그런 년을 사지(四肢) 가량을 찢어서 죽여야 마땅하다.”고, 아 이러거든. (㉔, 28쪽)

장자 부인네가, “아이고, 그년, 화냥년의 부채.”라고 똑똑 뿌질라서 춤을 횡 받아(뺏어) 담 너메 후둑 내버린다. (㉕, 33쪽)

“아이구! 고연(그년) 못뻔 년, 고런 방정맞은 년!” [빠르게] 여자가 욕을 막 하그던.  
“자네는 아니 그럴른가?” “아이구!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늘이 내려다 본다고.” “그래?” (㉖, 64쪽)

아내는 개가 욕망을 드러낸 청상과부를 ‘가량을 찢어 죽여야 마땅하다’고 분노<sup>13)</sup>하며 비난

11) 아내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남성의 모습, 아내가 남성을 욕망하게 된 이유는 여성 화자와 남성 화자의 각편 간 차이가 있다. 여성 화자의 각편에서는 남성의 모습에서 외모가 강조되지 않으며, 남성을 욕망하게 된 여성의 내면 또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4장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12) 각편 ㉔, ㉕, ㉖, ㉗에서는 인골 대신 간을 요구한다.

13) 박재인(앞의 논문, 547쪽)은 장자의 아내가 청상과부를 비난한 분노의 형태가 Spielber, Krasner &

할 정도로 개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인다. 이는 ‘남편이 죽으면 수절하며 절부<sup>14)</sup>’가 되어야 한다는 열이념에 입각한 것이며, 홀로 살아가야 할 여성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처럼 여성 입장이 배제된 개가에 대한 아내의 인식은 개가를 욕망하는 청상과부를 ‘화냥년’으로 지칭하며, 개가 욕망을 곧 성적 욕망으로 간주하는 아내의 발화를 통해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과부에 대한 극렬한 비난의 언술이 보여주듯, 아내에게 성적 욕망은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성적 욕망으로 상정되는 과부의 개가 욕망이 아내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으며,<sup>15)</sup> 이는 오히려 가부장제의 필요에 의해 억압되는 것임을 상기해볼 때, 성적 욕망에 대한 아내의 혐오는 지배 집단의 이념이 내재화된 결과이다. 따라서 성적 욕망의 표출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인식될 만큼 절대적으로 부정되어야 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아내는 과부와 의 선긋기를 통해 거리두기를 시도한다.<sup>16)</sup>

그 이야기를 허영께, “여벗시오. 그런 더러운 년 이야기를 나한테 대해 그런 말썽을 허시는거요.” “허어 당신 참 얌잔헌 부인이니까, 내가 죽어도 당신은 절대로 개가를 안 하시겠소 그랴.” “누구를 대서 그런 더러운 말썽을 허시오.” (㉑, 218쪽)

각시 보고 하는 말이 이러 이러한 데가 있어서 그 부채를, 그 이야기를 해. “그런 추접한 부채를 가지고 왔으까?” “나도 어짜면 저 사람도 그랄 것이라.”고 인자 했든 것이여. “그런 추접한 것들! 그런 년들께다 비교한다고?” (㉒, 238-239쪽)

“사실 오늘 경향이 이래이래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전씨부인 태도가 팍 돌아서면서, “세상 여자만 다 같은 여자고 사람이만 다 같은 사람인 줄 아느냐?” 카이게네, 장자가 허허 웃었어요. “부인, 대단히 실수했소. 당신이 그렇다카는 건 아니예요. 어, 세상 사람이 다 그렇더라도 당신만은 그럴 수 있소.” 카미 고마 사과를 했어요. (㉓, 703쪽)

아내는 과부를 ‘더러운 년’, ‘추접한 년’으로 비난하며 도덕의 경계 밖으로 몰아내는 동시에 ‘세상 여자 다 같은 여자가 아니’라는 발화를 통해 본인을 과부와 차별화한다. 이때 아내는 도덕으로 상정되는 정절 이념 안에 위치하게 되는 바, 가부장제를 공고하게 작동시키는 동의자, 공모자가 된다.<sup>17)</sup> 하지만 가부장제의 주체가 남성이라는 점은 이를 바탕으로 한 성적 욕망에

---

Solomon이 제시한 분노표현방식 세 가지 중 ‘분노표출(anger-out)’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Spielber, Krasner & Solomon은 분노표현방식으로 분노억제(anger-in), 분노표출(anger-out), 분노조절(anger-control)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분노표출은 분노대상에게 비난,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신체적 행위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이른다.

14) 절부(節婦)는 남편의 부재, 예컨대 사망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지칭한다. 즉, 사회적으로 공인된 유일한 성적 대상자 외의 남성과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40쪽).

15) 이현재는 “혐오는 상대가 공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을 때에도, 혹은 특별히 부당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이현재, 『여성혐오 그 후, 우리가 만난 비체들』, 들녘, 2016, 33쪽).

16) 혐오 대상의 배제, 주변화에 대해서는 마사 너스바움의 다음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지배 집단은 자신이 지닌 동물성과 유한성에 대한 두려움과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집단이나 사람에게 혐오를 드러냄으로써 이들을 배제하고 주변화해 왔다.”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37쪽)

17) 김영희는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효과는 사실상 주체 스스로의 자발적 동의와 적극적 공모 없이는 작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여성 주체 스스로가 여성 섹슈얼리티를 부정적인 것으로 그려내면서 혼육과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

대한 혐오 역시 온전히 여성 주체의 것일 수 없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이와 더불어 타인에 대한 혐오의 감정과 혐오 발화가 자기 불안의 가장 약한 고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sup>18)</sup> 성적 욕망에 대한 아내의 혐오는 억압의 체제에 대한 균열과,<sup>19)</sup> 이로부터 회귀할 욕망의 존재를 이미 암시하고 있다.

## (2) 욕망에 대한 자각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에서 아내의 성적 욕망은 남편의 정절 시험을 통해 드러난다. 남편은 아내가 성적 욕망 표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고 아내의 내면을 시험하기에 이른다.

“부인들 말이야, 밥상을 들고 열 두 가지 마음을 문지방에서 먹었대야.” (①, 46쪽)

그러니까 장자는, “그렇지, 여자의 정절이 그래야 하는데 그런 여자가 있더라.” 구. 장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아 부인은 좀 한번 심지를 뽑아 봐야겠어. (⑤, 28쪽)

그 뭐 자기가 봐두 이쁘구 남이 봐두 다 탐을 내는데 ‘그, 사람이 인물이 잘나면 속은 검다 그랬다. 예이, 마누라가 하두 이쁘니 시험을 좀 해봐야겠다.’ (②, 372쪽)

하루는 가만히 있자니 여자들이란 게 세상 요물이야. 허니까 내가 우리 마누라 시험 해서 반다시 (반드시)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시험을 딱 보게 됐단 말이야. (③, 826쪽)

그래 남편네가 유언 그렇게 했다가 해서 그 이슬 빨리 말르라구 부채질 하구 있으니 아주 쾌짌허 단 말여. ‘아 여자들이라는 건 다 이 모양이구나. 거 내 아내두 믿지 못하겄는다.’ (⑨, 235쪽)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심은 여성의 성품(①,③,⑨), 인물(②) 등에 대한 발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편견에서 비롯된 마음이다. 결국 아내를 믿지 못한 데에 따른 불안감<sup>20)</sup>은 남편으로 하여금 시험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게 하는데, 이는 남편의 도술로서 마련된다. 인간의 내면은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한 알기 어려운 것이며, 특히 성적 욕망은 인간의 내밀한 영역이

---

은, 여성 주체의 자발적 동화와 공모에 기초한 상징 지배의 효과를 발휘하는 장으로 기능함을 짐작케 한다”고 논의하였다(김영희, 「한국 구전서사 속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신경증 탐색-〈월경혈 묻은 빗자루가 도깨비로 변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76쪽).

18) 이선옥, 「과학주의 시대-여성혐오라는 정동」, 『여성문학연구』 36, 한국여성문학회, 2015, 101쪽; 이는 박재인의 분석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 박재인(앞의 논문, 551쪽)은 과부에 대한 아내의 분노가 “아내자가 성욕을 노출하면 비난 받게 될 상황에 대한 공포를 품고 있었다가, 그로 인해 자극된 불안감이 청상과부에 대한 비난으로 전이되어 표현되었다”고 논의하였다.

19) 메리 더글러스, 줄리아 크리스테바, 엘리자베스 그로츠 등은 혐오의 대상을 ‘비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그 특징을 설명했다. “비체는 경계를 넘나드는, 그래서 더럽다고 여겨졌던 것이며 잡힐 수 없기에 공포스러운 것이다. 비체는 철통방어라고 여겨졌던 경계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존재이다.” (이현재, 앞의 책, 35쪽 참고)

20) 김영희는 여성의 몸이 타자화되는 것을 남성의 억압과 불안의 산물로 논의하였다. “여성의 몸이 혐오와 배제로 타자화 되는 것은 남성 주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억압과 불안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몸은 남성의 위반과 이에 대한 금기, 그리고 남성 내부의 심리적 억압과 이 억압이 야기하는 불안과 결핍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김영희, 「구술 서사 속 여성 배설물 모티프에 대한 젠더비평적 독해」, 『두 조선의 여성 : 신체·언어·심성』, 혜안, 2016, 292쪽 참고)

기에 타인에게 포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sup>21)</sup> 내면 깊숙이 억압된 욕망은 욕망을 억압한 상황이 제거될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는 바, 도술을 통한 새로운 세계가 요청되는 이유이다.

시험의 세계는 남편이 죽음을 거짓으로 위장한 상황으로부터 펼쳐지기 시작한다. 남편의 죽음은 가부장의 죽음, 즉 욕망을 억압하는 주체의 부재 상황을 의미한다. 주체의 부재로 공고했던 질서에 균열이 발생하며, 이러한 틈 사이로 억압되었던 욕망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제사 조거 걸으면 한 분 만쳐도 보고 한 번 안아도 보고 조거, 이거 며 참 하고 싶다.’ 카는 그런 어떤 애, 머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참 이 성욕이라카가요. 이기 발작이 났뻤는 기라요. (중략) 장례 전이니까, “곽이 계시니까, 선생님의 머리를 빌(벨)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도술가라서요. 선생님의 머리를 비기 전에는 참 부인하고는 동침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걸었는 거야. 조건을 거니까 그 전씨부인이 하는 말이, “예, 비겠습니다. 걱정마이소.” 그러니 인자 이 전씨부인이 인자 참 약속을 천사 저거 죽은 남편 모가지를 비야. 자기 저 남자를 델고 잠을 잘 수 있으이께네, 살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으이께네, 죽은 남편 목을 천사 벨 수밖에. (⑩, 704-707쪽)

남편의 죽음 후 장례 기간 중 찾아온 남성을 대상으로 아내는 ‘한번 안아보고’, ‘함께 잠을 자고’ 싶을 정도로 강력한 욕망에 휩싸인다. 아내는 욕망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남편의 시신 훼손을 시도하는 데에까지 나아가는데, 대부분의 각편에서 상대 남성이 치병(治病)을 목적으로 인골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위 각편 ⑩은 치병 목적이 아닌, 동침을 조건으로 시신 훼손을 요구한 남성의 요청을 고민 없이 수락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성적 욕망이 더욱 위협적으로 그려진 서사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남편의 장례 기간이 중에 일어났다는 점은 신의를 지켜야 하는 부부관계에 대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가부장제 질서에 위협을 초래하는 파괴적인 여성의 성적 욕망은 남성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더욱 억압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마련한다.<sup>22)</sup>

아내의 성적 욕망의 존재를 확인한 남편이 거짓 죽음의 상황에서 깨어나면서 시험은 끝난다. 결과적으로 시험에 실패한 아내는 처벌되는데, 이는 자결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 여자가 울마나 미안할 거야. 제 신랑을 골을 또깁라구 도깁 들어가 아 신랑이 일어나민, ‘이 사람이 왜 이래?’ 하구 일어나니 그 자기의 모든 약점을 다 보인 게 났지. 그래 여자가 미안해니깐 슬그머니 밖으루 나가서 안 들어오거든. (중략) 아 고기서 목을 탁 매가지구 탁 떨어지니 부엌에 가서 탁 목을 매 죽었더라 이거야. (②, 374쪽)

21) 바로 이러한 이유로 조선사회에서는 규방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풍문공사(風聞公私)’를 합법화하였다. 풍문공사란 ‘소문의 정치’로 『세종실록』에서는 풍문공사의 당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악(惡)을 공격함에 있어서 그 형세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습니다. 양(陽)은 단단하고 밝아서 알기가 쉽습니다. (중략) 음(陰)은 부드럽고 어두워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심술(心術)과 몸가짐에 비밀이 많아 덕과 같으면서도 덕이 아니고, 재주와 같으면서도 재주가 아니며, 또 크게 사악한 것은 오히려 정직한 것 같고, 대단히 정교한 것은 오히려 웅졸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대개 음(陰)에 속한 것으로 그 증거와 자취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종실록』 57권, 14년(1432) 8월 2일) (이숙인, 「공공성(公共性)의 타자들 : 실행(失行) 부녀의 배제와 감시, 공론(公論)의 이름으로」, 『다산과현대』 5,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2, 289-290쪽 참고)

22) 이숙인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이 설화에서 여성의 성적 욕망이 형상화된 방식의 의미에 대하여 시사점을 던져준다. “여성의 도덕은 쾌락을 부정하는 데에서 성립된다. 여성에게 쾌락 등의 성적 욕망을 박탈하는 것이 여성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으로 확보하려는 여성들의 행위는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세계에 대한 일탈로 이해된다. 성적 주체로서, 쾌락의 주체로서의 여성을 가문과 나라를 멸망시키는 존재와 동일시하는 담론의 개발은 남성중심의 질서에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숙인, 「‘貞淫’과 ‘德色’의 개념으로 본 유교의 성담론」, 『철학』 67, 한국철학회, 2001, 21쪽 참고)

에편네가 제 소행을 생각하고 무안해 못해 가지고 그만 뒤에 가서 자결이사(自決而死)요 자문이사(自問而死)요. 그 목을 찢러 죽었다 이 말여. (㉔, 335쪽)

아 그래 인자 살아와 버렸응게 머 초상도 안치게 되었는데 그 부인이 서방님 앞에서 얼굴을 못 내 놔 죽었다. 그 전에는 몰랐는디 금번에 시험을 보잉까 '죽었다 살았다 한 분네가 내 마음을 엿째 모를 것이라' 이거제. (중략) 얼마나 부끄러워서 마당 가운데 가서 물동우를 내엿채 버리고 기양 죽어 버렸제. 직사해 버렸제. (㉕, 219쪽)

이 설화에서 아내의 자결 이유는 부부 간 신의를 저버린 데에 대한 '미안함'과 '남편에게 자신의 욕망의 정체를 들켜버린' 것의 '부끄러움', '무안함' 등으로 나타난다. 아내의 이러한 감정의 본질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수치심이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고통스러운 감정<sup>23)</sup>이라면, 분노와 혐오의 발화를 쏟아내며 비난했던 과부의 욕망과는 감히 비견될 수 없는 강력한 성적 욕망을 남편에게 들켜버린 아내의 부끄러움과 무안함은 수치심이다. 한편, 죄책감은 잘못이나 위해를 저질렀다는 인식에서 발생하는 자기 처벌적 분노<sup>24)</sup>인데, 남편의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여성의 성적 욕망은 보편 윤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이에 아내는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신을 처벌하는 자결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는 체제 안에서 필연적 귀결이다. 그렇다고 하여 아내의 성적 욕망을 이끌어낸 남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sup>25)</sup>

내용이 뭐라 썼느냐 하이 '상부한 과부가' 저 저 청상과부제. '청상과부가 무덤 말라 놓고 살려가는 걸 우습게 여기더니 오늘날은 개가할라꼬 제 남편 목을 끊는구나.'카는 내용으로서 쓰거던. 뒤에 그 래 전씨 부인도 그 글을 안다 말이야. 하! 이거 고마 속았네, 완전히 자기 남편의 도술에 넘어갔다는 걸 알고 그 길로 가가지고 고개 말래이 가가지고 목을 매 죽어뵈어요.

그러이 목을 매 죽은 뒤에 그 연유를 이 장주선생이 가가지고 그마 달았는데, 이 여자는 어예가 죽었다. 그래 요즘도 서낭당쫘 가만 기침. 머 춤을 세 번 받지요(뻔지요). 돌도 던지고 하는 유래가 그거랍니다. '예이 더러운 년.' 춤 맡는 건 '예이 더러운 년' 바로 그거랍니다. (㉖, 708-709쪽)

위 각편 ㉔에서 보이듯 아내의 성적 욕망을 확인한 남편이 아내를 책망하며 글로 남기고, 그 글을 서낭당에 매달아 아내의 행위를 공론화한 서사의 내용은 아내 죽음의 혐의에서 남편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에서 아내 자결 후 남편이 '농담(장난, 우스개)'으로 아내가 죽었다며 슬퍼하는 고분지통의 귀결은, 시험자-피시험자의 권력관계가 분명한 시험이라는 상황에서 그 혐의가 '농담'으로 모면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아내의 죄의식을 추동한 이념의 주체, 즉 성에 대한 담론을 구성한 주체가 남성이라는 사

23) 마사 너스바움, 앞의 책, 318쪽.

24) 마사 너스바움, 앞의 책, 379쪽.

25) 박재인과 강미정은 이 설화에서 아내 죽음에 대한 장자의 혐의를 부정하였다. 박재인(앞의 논문, 555-556쪽)은 남편 시험이 장난, 농담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시험이 애초부터 아내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남편의 잘못은 없다고 논의하였다. 강미정(앞의 논문, 285쪽)은 아내가 자결한 것을 우울증 인지왜곡의 상태로 진단하고,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던 과부의 상태와 역지사지(易地思之)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지 못한 아내의 정신적 병인(病因)을 자결의 원인으로 논의하였다. 하지만 과부의 욕망과 아내의 욕망이 형상화된 형태가 다르고, 남편-과부/ 남편-아내의 관계 안에서 기대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설사 아내가 과부의 욕망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도 사회적 인식 안에서 아내의 욕망이 처리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의 강력한 정절 이데올로기 안에서 여성 욕망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으로 수렴될 수 없다.

실은 아내 죽음의 근본적 원인에 남편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남편은 ‘농담’으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며,<sup>26)</sup> ‘죄’는 오롯이 아내에게 전가되어 남편은 ‘고분지통(슬픔)’으로 그 혐의를 피해간다.

이 설화에서 아내는 시험을 통해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욕망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가부장제 안에서 강력하게 억압되고 통제된 욕망은 그 억압의 강도에 따라 더욱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여성 성적 욕망은 억압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명분은,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형상화된 여성 욕망의 존재태로 그 위험성이 역설되는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의 전승을 통해 반복하여 상기된다.

#### 4. 전승집단의 인식 양상

여성비평은 문학 속에 형상화된 여성 이미지를 사회적 관습과 이데올로기의 반영으로 본다.<sup>27)</sup> <아내의 정절을 시험한 남편> 설화에서 여성인물이 형상화된 방식 역시 사회적 관습과 전승 집단의 인식이 반영된 산물이다. 전승 집단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계층과 젠더 등에 따라 대상을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sup>28)</sup> 바로 이 지점이 개별 각편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sup>29)</sup> 특히, 전승 층위에서 젠더의 고려는 젠더 불평등의 역사 속에서 이들의 인식이 가로놓인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의 각편들 가운데 특히 젠더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의 각편은 21편으로, 이 가운데 여성 화자가 구연한 각편은 ⑩, ⑭, ⑱, ⑳, ㉑ 총 5편이며, 각편 비율 24%에 해당한다. 『구비문학대계』에서 여성 화자의 각편 비율이 20.1%인 점을 고려한다면,<sup>30)</sup> 이 설화는 남성과 여성 화자 사이에서 고루 구연되

26) 이는 프로이트가 지적한 농담의 기능과 연관된다. 프로이트는 “농담은 드러나지 않은 것, 숨겨진 것을 이끌어내야 하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비판이나 공격을 우회로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임인주 옮김, 열린책들, 1997, 18:182쪽 참고)

27) 강진옥, 「여성문학적 관점에서 본 구비문학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학회, 2000, 329쪽.

28) 전승 집단의 계층과 젠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영희의 다음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지역적 토착성과 젠더, 계층적 지표 등은 개별 연행 주체의 사회적 권력에 영향을 미쳐 그들의 입장과 태도를 일정하게 차별화하면서 연행 집단 내부의 균열은 물론 연행 자체에 미세한 틈새를 만든다. 그리고 이 틈새로부터 연행이 더욱 활성화되고 연행 작품의 의미와 효과 역시 다변화·다층화된다. (중략) ‘젠더’와 ‘계층’은 연행 주체로서 이야기꾼을 이질화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김영희, 『연행 주체란 누구인가』, 민속원, 2013, 36:51쪽)

29) 각편 별 차이의 중요성은 이미 강진옥, 이부영, 김영희의 논의에서 지적되었다. 강진옥은 “텍스트의 특정 부분은 당대적 사회 가치에 대립되는 것일 때는 삭제, 굴절되며, 부합되는 것일 때는 부연,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강진옥, 「여성문학적 관점에서 본 구비문학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학회, 2000, 344쪽). 이부영은 “민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민담의 집단의식적인 측면을 표현하고 있기에 같은 이야기가 다르게 이야기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이부영,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1995, 39쪽). 김영희는 “집단 내 반응을 통해 흥미롭지 않은 부분이나 의미 없는 대목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확장되거나 부각되는데, 특히 여성 동성 집단 내 연행에서 이러한 형태가 종종 발견된다”고 논의하였다(김영희, 앞의 책, 122쪽).

30)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14,866편의 각편 가운데 여성이 구연한 각편은 2,988편으로 20.1%, 구연자는 총 3,139명의 가운데 여성 767명으로 24.4%이다(김대숙, 「한국구비문학대계 여성제보자 구연설화에 관한 통계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229쪽 참고).

는 작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에서 남성과 여성 화자에 따른 차이가 포착되는 부분은 (1)개가에 대한 인식, (2)욕망 대상 남성의 형상화, (3)자결의 여부 등이다.

### (1) 개가에 대한 인식

아래 제시된 여성 화자의 각편은 과부의 개가에 대한 차별화된 인식을 보여준다.

그래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 여자도 너무 한다꼬. 삼 년이나 되거든 재혼을 하지, 삼 년도 안 돼서 재혼을 할 수 있나.” 이카인께 남자가 하는 말이 “저, 당신은 내가 죽어도 삼 년 돼야 재혼하겠네요.” 이카거든. (㉞, 163쪽)

거의 대부분의 각편에서 과부의 개가 욕망은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며, 개가는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에 반하여, 위 각편에서는 ‘그 여자도 너무한다’ 정도로 비난의 강도가 약하며, ‘3년이 되거든 재혼을 하지’라는 언술에도 드러나듯 개가는 금지되는 대상이 아니다. 이 각편에서 아내가 과부를 비난하는 지점은 개가의 시점일 뿐이다. 이는 정절 이데올로기의 맹목적 강조에서 벗어나, 부부 간 신의와 홀로 살아가야 할 여성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여성 전승집단의 사고의 소산으로 읽어낼 수 있다.

### (2) 욕망 대상 남성의 형상화

아내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남성과 여성 화자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 [남성 화자]

남자를 보니까 뭐 성품도 몰라. (㉠, 46쪽)

하 사람이 잘 생긴 사람인데 풍채에, 잘 생겼어. (중략) 아주 뭐 사실 친구가 와서 울구 그랬는데 둘이 한참 울다가 가만 보니까 세상 즈이 신랑보다 낮거든. (㉡, 372-373쪽)

현현장부(軒軒丈夫)에 저희 남편보다 이상 가는 남자가 하나 온단 말이야. (㉢, 826쪽)

그 어쩐 젊은 청년이 하나 오는데 참참 미남자래. (㉣, 492쪽)

그 장자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잘 생길 수가 없어. (㉤, 596쪽)

아조 옥골 미남자로 생겼거든. 그라고, 의복도 잘 입고 들왔은께. (㉥, 488쪽)

태패한 소년이 되어가지고, 아주 값은 밤 같은 소년이 돼서 딱 나왔어. (㉦, 399쪽)

위 제시한 각편들에서 보이듯 남성 화자의 각편 대부분에서 아내의 성적 욕망 대상은 ‘남편보다 나은’ ‘잘생기고’ ‘젊은’ 남성으로 형상화된다. 이 각편들에서 아내는 ‘성품도 모르는’ 잘생긴 남성을 보자마자 강한 성적 욕망에 휩싸이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에 반하여 여성 화자의 각편 ㉠와 ㉢는 아내가 상대 남성을 욕망하는 과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 [여성 화자]

일주일 있는데, 이놈 일주일 동안에, 있는 동안에 자꾸 이 마래(마루에) 와 넘받아 보고, 넘받아 보고, 고담책을 얼마나 참 청이 떠나가게 잘 일이께네. 또 와가주 넘받아 보고, 또 넘받아 보고 이래. 한 분 보이께 문공글(문구멍을) 뚫고 들받아 보고 이래드라네. 그래다가 마 참 바아(방에) 들 왔어요.

들어가주 [웃으면서] 마 비개로 느라(내려) 주고 이불도 깔아주고 이레가, 그래 마 이레 앓어 참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레다가 그 참 그 부부시간이 댕부렸어. (㉔, 465쪽)

그래 일가친척도 없는 애딴(외딴) 집에서 각중에 남편이 죽어가주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도 기가 차서 그래 통곡을 한다 카더라요. (중략) 그래 인제 그 사람이 와가주고 아, 참 그 말종노, 그 소연한테 돈을 조가주고 이 사람이, 총각 낭군이, “쭈투루 가서 인제 장애 가서 옷이야 옷감이야 모든 인지 장정을 해가오라.” 갠어. 그래 참 장정을 해가 왔어. 해가 와가이 마악 인자 옷을 입히고 해가 인제 장례를 쳤어요. 장례를 쳤는데 장례 처는 시간에 이 부인이 말이지 갑자기 반해가주고 ‘아, 저 낭군이 장가를 갔겠나, 안 갔으마 나가 백년해로 살마 어떻겠노.’ 싶었는 기라. (㉘, 164쪽)

각편 ㉔에서 아내는 ‘책을 잘 읽는’ 남성의 모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시간을 두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각편 ㉘의 경우 남편 장례 절차로 인해 곤경에 빠졌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에서 아내는 남성과 결연을 희망한다. 이 각편들에서 상대 남성에게 대한 아내의 욕망은 시간을 두고 상대의 됴됨이를 확인한 이후이거나,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었을 때 발생한다. 이는 ‘성품도 모르면서(㉑)’ 외모만을 통해 본능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을 형상화한 남성 화자들의 각편과 변별되는 것으로, 젠더에 따른 성의 인식 차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 (3) 자결의 여부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에서는 대부분의 각편이 아내의 자결로 귀결되는 가운데, 자결이 제시되지 않은 각편은 ㉑, ㉒, ㉘ 세 편이다. 이 세 편 중 여섯 편 중 여성 화자의 각편은 ㉑, ㉒로 각편 ㉘은 자결 자체에 대한 발화가 보이지 않으며,<sup>31)</sup> 각편 ㉑은 시험 후 아내가 죽지 않고 남편과 함께 사는 결말이 제시된다.

“니가 장담을 팡팡하드니 그것한테 그렇게 반했구나. 가봐라, 맨(전부) 다 헤세비다 그것이. 사람인 줄 아냐? 오 그랑께 내 골속을 파다 맥일라고 그라냐? 에기 무지한 년.” (중략) 그런 것을 뵈일라고 그렇구 여자가 장담하고 욕 퍼붓고 그랬드라우. 그래도 다 배운 사람들이라 그 사람하고 살었제잉. (㉑, 240쪽)

위 각편에서 아내 행위에 대한 남편의 분노는 드러나지만, 여성 화자는 부부 간 위기가 해결된 형태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여성 화자는 아내의 행위가 분노를 일으킬 만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은 ‘배운 사람이기에 잘못을 한 아내와 함께 살았다’고 구연하고 있는 바, ‘배움’이 용서를 베푸는 아량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여성 화자는 아내를 ‘무지한 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내의 행위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용서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함의한다. 대부분의 각편에서 여성의 성적 욕망은 자결의 형태로 강력하게 처벌되는 가운데, 조화로운 결말을 보여주는 이 각편은 경직된 관념 안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데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 5. 결론 (미완)

31) 남성 화자의 각편 ㉒도 아내 자결에 대한 언술이 생략되어 있다.

##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 설화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욕망의 문제」에 대한 토론문

홍 나 래 (성공회대)

본 논문은 장자의 고분지통 고사에 대하여 민간에서 상상·전승된 유래담이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분노와 혐오의 시선 속에 형상화되었음을 고찰하였습니다. 제가 한정된 시간에 논문을 읽다보니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으나 토론자로서 논의와 설명이 보강되기 바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 드립니다.

### 1. 설화의 표제에 대하여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은 설화 유형은 <고분지통 유래>(『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편』 표제)입니다. 그런데 논문에서는 이 설화가 장자의 본 주제와 별개인 세속화된 이야기라는 점, 아내의 자결에 남편이 책임이 있다는 점 등에서 ‘작품명을 고분지통의 유래담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장자의 본뜻과 전혀 다르니 이렇게 설화를 설명하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이야기로서는 고분지통의 유래로 널리 알려진 것이고 기존 연구나 사전에서도 이를 표제로 썼기 때문에 이 설화를 칭할 때에는 <고분지통 유래>(고분지통, 고분지통의 유래)라는 제목으로 써야하지 않을까요? 설화 연구의 사적 맥락이나 대중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더욱이 <아내 정절 시험한 남편>이라고 할 때에는 <고분지통 유래> 외에도 <열녀 시험>, <남편과 자고도 죽은 헛열녀>와 같은 이야기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이야기군들을 통합하여 상위 유형화할 경우와 개별적인 유형을 살필 경우를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 2. 여성의 욕망, 내면에 대한 일반화 문제

‘이 유형의 설화는 여성의 내면이 집중적으로 제시된 작품’이라고 서론에서 연구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논문에서도 언급하듯이 여성의 내면에 대한 진지한 관찰이라기보다 혐오와 수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데올로기적 서사이기 때문에 위의 문장 의미는 오해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부분이지만, ‘간통 설화에서 여성의 성적 욕망이 간통 사건을 발생시키는 계기’라는 부분도 일반화하여 쓰기 어렵습니다. 전근대 설화에서 대개 여성은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존재 그 자체- 외모, 유약함, 무지, 실수(얼굴을 드러냄), 임신, 지위 등등-가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추동하여 간통/강간의 계기가 됩니다.

설화에서 개가하는 여성의 욕망을 물론 성적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성 단신의 삶이 녹록하지 않은 시대이므로 자기 보존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제목에서 ‘여성인물의 욕망의 문제’가 본론에서 ‘여성의 성적 욕망’으로 일반화된 부분을 보다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 3. 4장 전승집단의 인식 양상 (1)개가에 대한 인식 (2) 욕망 대상 남성의 형상화 (3) 자결의 여부 부분

본문에서 여성화자 작품 1편으로 ‘정절 이데올로기의 맹목적인 강조에서 벗어난 ~여성 전승집단의 사고의 소산’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남녀 화자들이 욕망 대상을 서로 다르게 이상화한 것은 남녀가 이성애에 대해 호감을 갖는 일반적 차이를 확인하지만 본고의 주제

와 그다지 연관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2번의 질문을 기존 논의들과 연계해 4장의 내용을 보면, 삶을 보존하려는 여성의 다양한 욕망이 가부장 시선 속에서 성적 욕망으로 수렴되어 누구나 수월하게 혐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내를 시험하는 이야기들은 대개 농담/장난에서 시작되었지만 아내는 무지로 인해 수치를 당하며, <헛열녀>나 <고분지통 유래>에서는 자결하기에 이릅니다. 열 명과 동침해야 열녀인줄 알고 손가락을 세는 아내(열녀시험)나 지혜로워 죽지 않은 여인과 비교되어 남편과 자고도 죽은 헛열녀라 폄훼된 아내들(헛열녀)을 보더라도, 이 유형군에서 여성의 무지는 용서받을 여지를 함의한다기보다 혐오와 비웃음의 일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4장의 경우 남성의 농담/장난과 같은 시험을 통해 여성의 무지/수치/자기 처벌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사회적 의미를 보다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 『眉巖日記』에 나타난 ‘怒’

- 인식과 실천으로서 怒의 다스림을 중심으로

이 연 순 (부산대)

### <목차>

1. 서론
2. 眉巖의 ‘怒’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양상
  - 1) 공적 언행에서 드러난 인식
    - (1) 怒發 時 中庸의 中節을 통한 和 중시와 涵養
    - (2) 程子の ‘定性書’에 바탕 한 警戒 강조
  - 2) 사적 생활에서 보인 실천
    - (1) 인간관계에서 論語의 ‘不遷怒’ 실현과 省察
    - (2) 일상의 일에서 存心을 강조한 詩文 창작과 修養
3. 의의와 결론

### 1. 서론

본고에서는 眉巖 柳希春(1513~1577)이 乙巳土禍로 유배를 가 19년간 종성에서 지내다 선조 즉위와 함께 해배되어 조정에 돌아와 죽기 전까지 10년간의 기록을 남긴 『眉巖日記』에서, 특히 ‘怒’의 표현에 주목하고, 미암의 주자학적 이해에 따른 ‘怒’의 인식과 실천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암은 본관이 善山으로<sup>1)</sup> 海南에서 출생하였다. 외조부는 『漂海錄』을 지은 崔溥로, 성종대 영남 출신이 사람의 주류를 이루던 때에 호남출신으로는 드물게 중앙무대에서 활약하였기에 호남사림의 종조로 불렸다.<sup>2)</sup> 또한 미암의 아버지 유계린은 1500년 전남 순천에 귀향 온 김굉필에게 도학을 배우고, 김종직의 제자로 무오사화에 연루되었다가 갑자사화에 사사된 최부의 사위가 되어 그 학문을 계승하였다.<sup>3)</sup> 미암의 형 유성춘은 己卯土禍에 연좌되어 파직당한 후 해남에 우거하면서 지내다가 일찍 죽었다.<sup>4)</sup> 미암은 수학기에 학문적으로 이러한 외조부와 아버지, 형 등에게서 가계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다 25세에 생원시에 뽑히고 이듬해 文科 別試에 丙科로 급제하였는데 이때 晦齋 李彦適이 고시관으로 있다가 미암의 문장을 기이히 여겨 취하였다<sup>5)</sup>고 한다.

1) 최익현, 『勉菴集』 권25, 〈眉巖柳公神道碑銘 并序〉, 其先出文化 麗代有諱昌 尙書左僕射 生諱甫 都僉議贊成事 食邑于善 遂爲善山人 曾祖爲陽秀 進士 贈左通禮 祖諱公濟 生進俱中 贈左承旨

2) 김기주, 「조선 중기 금남 최부의 정치활동」, 『전남사학』 제24집, 전남사학회, 2004, p.192.

3) 한예원, 「16세기 사화기에 있어서 호남학문의 형성과 전개양상」, 『고시가연구』 제1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p.338.

4) 『大東野乘』, 「己卯錄補遺」, 柳成春傳, 柳成春 生 字天章 癸酉生員 甲戌及第 以佐郎坐罷 寓居海南世業 嘗與崔新齋尹橋亭齊名 稱湖南三傑 至是別構小齋於城外西北隅數里許 自號懶齋 或稱城隱 世居城中故云 陪侍杖履之暇 與虞人漁父 臂鷹逐兔 舉網求魚 供以甘旨 弟希春中文科 爲明廟朝名相

그런데 미암이 出仕 후 30세가 되던 1542년에 世子侍講院의 設書가 되어 河西 金麟厚 (1510~1560)와 함께 仁宗을 補導하는 직분을 맡고<sup>6)</sup> 1545년에 중종이 승하한 뒤 인종이 즉위하여 宋麟壽의 추천으로 미암이 33세로 홍문관 수찬이 되자마자<sup>7)</sup> 인종이 바로 승하하고 명종이 즉위하여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면서<sup>8)</sup> 얼마 안 있어 乙巳土禍를 겪게 된다.<sup>9)</sup> 그리고 2년 뒤 미암이 35세 되던 1547년 9월에 정언각, 이기 등이 전라도 양재역에 비방서를 壁書한 사건으로 인하여 정미사화가 일어나고, 을사년 여러 사람에게 크게 죄를 더하여 미암도 제주도에 보내졌다가 고향과 가깝다는 이유로 함경도 종성에 유배되었다.<sup>10)</sup> 동향인 임백령이 강직한 미암을 제 편에 끌어들이려다가 실패하고 그에 보복을 하려 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미암은 결국 종성 유배지에 오르게 된 것이다.<sup>11)</sup>

그런데 이렇게 土禍를 당해 억울하게 유배를 갔다가 20년 만에 해배되어 조정에 돌아왔을 때, 미암은 자신을 유배 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임백령의 자식들이 찾아오자 그에 대해 ‘不遷怒’ 했다는 기록을 『眉巖日記』에 남겼다.<sup>12)</sup> ‘不遷怒’는 『논어』에서 공자가 안희에 대해 ‘학문을 좋아하고 분노를 옮기지 않았다.’<sup>13)</sup>라고 평한 말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암이 일반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흔히 보이기 쉬운 반응이 아닌, ‘분노를 옮기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인 점에 주목하고, 미암이 평생을 심취했던 주자학적 이해에 따른 그 ‘怒’의 인식과 실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怒’는 ‘喜怒哀樂’ 또는 ‘喜怒哀樂愛惡欲’ 등과 같이 인간의 마음 중 여러 감정의 하나로, 이러한 감정은 동양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性과 心 등과 관련해 논의되어 왔다. 조선에서는 특히 주자학이 발달하는 16세기에, 여기

5) 柳希春, 『眉巖集』 권20, 李好閔,〈諡狀〉中廟三十二年 丁酉中生員試 次年 戊戌擢別舉丙科 晦齋李公爲考官 異其文而取之

6) 柳希春, 『眉巖集』 권20, 李好閔,〈諡狀〉三十七年壬寅正月 轉世子侍講院說書 時仁廟在東宮 公力以輔導爲己任

7) 柳希春, 『眉巖集』 권20, 李好閔,〈諡狀〉三十九年甲辰十一月 中廟昇遐 而仁廟嗣位 明年乙巳四月 大司憲宋公麟壽啓曰 新政之初 最重經筵 宜不拘內外 遴擇其人 用備顧問 蓋指公也 宋公按湖南 公適知茂長 相得甚權 故力薦之 於是 公以五月召入爲修撰

8) 『大東野乘』, 「乙巳傳聞錄」, 李中悅子,〈柳希春傳〉, 及仁廟賓天 任失勢 小尹始欲釋憾以逞 顧一時賢人君子無可從己者 廣引貪功喜亂及不得志者之徒 晝夜聚謀 未得其便 이때 大尹과 小尹, 곧 중종의 첫째 비 章敬王后 윤씨의 오빠 尹任과, 중종의 둘째 비인 문정왕후의 오빠 윤원형이 서로 대치하다가, 인종이 돌아가시자 윤원형이 윤임 일파를 고하여 죄를 주려 일을 꾸며 윤임, 유관, 유인숙 세 사람이 각기 유배를 가고 파직되며, 관직이 갈리게 되었다.

9) 『大東野乘』, 「乙巳傳聞錄」, 李中悅子,〈柳希春傳〉, 先生與執義以下同辭引嫌 啓曰 臣等以爲 三人雖有可論之事 當此主少國疑之時 姦細之徒 胥動浮言 論啓大臣 甚非其時 適以陷姦計而增土禍議不能一而罷 又不能即達於天聽 請賜斥免 不允 翌日再辭不允 宋公希奎大言曰 尹元衡主張密旨 傳播外朝 熒惑人聽 當首劾此姦明示天討 而今日已迫曠暮 門將閉矣 出納啓辭 似非其時 姑俟明日就職而後爲之 未晚也 先生與諸人良以爲然 遂皆退 而白公仁傑遲之 獨留抗啓 文定大怒 下仁傑獄 命盡罷希奎等職 先生與焉 不旬日 三人戮而大禍作矣 미암은 동료들과 함께 윤임과 유관, 유인숙에게 유배와 파직을 행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啓를 올리고, 자신들의 파직을 청하였다. 그러나 두 번이나 윤택되지 않자 백인걸이 끝까지 항의하다가 문정왕후가 노하여 백인걸을 옥에 가두고 송희규와 미암은 파직이 되었다. 이후 열흘 동안 세 사람을 죽이는 등의 사건이 일어났다.

10) 『大東野乘』, 「乙巳傳聞錄」, 李中悅子,〈柳希春傳〉, 其與百齡光準語也 不少降以自貶 危言正色 直發其肺腑而割擊之 先生之受禍固其所也 是後群憾合勢 必欲置先生死地 以濟州去家鄉不遠 移配鍾城

11) 이상 미암의 생애 대한 간략한 고찰은 이연순, 『미암 유희춘의 일기문학』, 혜안, 2012, pp.20~25. 참조.

12) 柳希春, 『眉巖日記草』, 제6책, 1571 신미년, 1.28, 日暮 前金山郡守林某 前司畜林泌來訪 乃百齡之兒也 滌則壬辰生 泌則更子生 余待之平平 不遷怒也

13) 『論語』, 「雍也」 哀公 問弟子 孰爲好學 孔子對曰 有顏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 未聞好學者也

서 더 나아가 理氣論과 관련하여서도 논하여졌다. 대표적으로 栗谷 李珥(1536~1584)의 說을 보자. 율곡은 먼저 인간의 性과 心과 情을 구분하였다. 곧 性은 天理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고, 心은 性에 氣를 합하여 一身에 主宰된 것이며, 情은 그러한 心이 사물에 감응하여 외부에 발현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性은 心의 본체요, 情은 心의 작용이며, 心은 未發과 已發의 總名이므로 心이 性과 情을 통괄한다고 하였다. 율곡은 이러한 心을 다시 人心과 道心으로 구별하여, 道心에는 ‘仁義禮智信’ 다섯 조목<sup>14)</sup>을 들고, 人心에는 ‘喜怒哀懼愛惡欲’의 일곱 가지를 들었다. 인심은 口體를 위하여 발현하는 것이 있어 배고플 때 먹으려 하고 추울 때 입으려 하고 힘들 때 쉬고자 하고 정력이 왕성하면 여자를 생각하는 것들이라 하였다.

그런데 율곡은 여기서 性이 心에 갖추어져 발해서 情이 되는 것이니, 性은 본시 善한 것이므로 情도 不善이 없어야 할 것인데, 情에 불선이 있기도 하는 것은 어찌된 까닭인가 묻고는 理氣論과 결부해 논의를 더하여간다. 理와 氣는 한 덩어리로 원래 서로 떠나지 않는 것인데, 理는 본래 純善하나 氣에는 淸濁이 있어, 未發하였을 때는 氣가 用事하지 않으므로 中體가 순선이나 發할 때는 善惡이 나누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것은 淸氣가 발한 것이고, 악한 것은 濁氣가 발한 것이나, 그 근본은 다만 천리일 뿐이라 하였다.<sup>15)</sup> 이처럼 淸濁이 있는 氣가 발하여 ‘喜怒哀樂’과 같은 情이 드러나기 전, 곧 未發 時의 涵養이 강조되며 주자학적 수양론이 발달하였다.

미암 또한 16세기 중반 『朱子大全』 등이 유입되면서 주자학이 한껏 고조되던 시기에 讀書堂에서 사가독서 하며 주자학에 매우 심취한 학자이다. 그러나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로 인해 19년간 종성에 유배가 있으면서 이러한 중앙의 학문 풍토와는 멀어졌다. 그런 가운데도 미암은 유배지에서 주자학을 더욱 신봉하며 학문적으로 발전시켜 『續蒙求分註』와 같은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미암은 주자학적 수양론 또한 깊이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실제로 미암이 유배지에서 돌아와 죽기 전까지 10년간의 기록을 남긴 『眉巖日記』에 주자학의 이론에 따라 언급하고 실천한 내용이 많이 보인다. 특히 경연에서 선조에게 강연하며 이론을 전개하고,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眉巖日記』 안에 함께 들어 있는 ‘經筵日記’에서, 후자는 『眉巖日記』 중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순수하게 성찰하며 기록한 부분과, 『眉巖日記』를 草稿로 하여 편찬된 문집 『眉巖集』에 수록된 詩文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sup>16)</sup> 이에 본문에서는 미암이 ‘怒’에 대해 공적 언행을 통해 펼친 이론의 전개와 그 인식의 면모를, 그리고 사적 생활에서 보인 실천의 양상을 각기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14) 율곡은 맹자가 仁義禮智만을 四端으로 한정하고 信을 제외한 경우에 대해 정자의 말을 인용해 뒤에 다시 설명하였다. 이이, 율곡전서, 권14, 人心道心圖說(壬午○奉教製進), 孟子就七情中 剔出善一邊目之以四端 四端卽道心及人心之善者也 四端不言信者 程子曰 既有誠心爲四端 則信在其中矣 蓋五性之信 如五行之土 無定位 無專氣 而寄旺於四時

15) 李珥, 『栗谷全書』, 권14, 人心道心圖說(壬午○奉教製進), 臣按 天理之賦於人者 謂之性 合性與氣而爲主宰於一身者 謂之心 心應事物而發於外者 謂之情 性是心之體 情是心之用 心是未發已發之總名 故曰心統性情 性之目有五 曰仁義禮智信 情之目有七 曰喜怒哀懼愛惡欲 …有爲口體而發者 如飢欲食 寒欲衣 勞欲休 精盛思室之類 是也 此則謂之人心 理氣渾融 元不相離 心動爲情也 發之者 氣也 所以發者 理也 非氣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 安有理發氣發之殊乎 但道心雖不離乎氣 而其發也爲道義 故屬之性命 人心雖亦本乎理 而其發也爲口體 故屬之形氣 …性具於心而發爲情 性既本善 則情亦宜無不善 而情或有不善者 何耶 理本純善 而氣有淸濁 氣者 盛理之器也 當其未發 氣未用事 故中體純善 及其發也 善惡始分 善者 淸氣之發也 惡者 濁氣之發也 其本則只天理而已

16) 『眉巖日記』에는 일기로서 산문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 쓰여 있는데, 이 가운데 문집에 뽑혀 들어간 작품이 많이 있다.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는 『眉巖日記草』(한국사편수회, 1936) 全 5권과 『眉巖集』(한국문집총간 34, 민족문화추진회)이다. 특히 『眉巖集』에 수록된 詩文작품은 권1과 권2의 詩와 권3에 실린 文을 대상으로 살펴보겠다.<sup>17)</sup> 본문에서 이 자료들에 대해 인용할 때는 저자 이름을 생략하고, 『眉巖集』의 권수와 작품 제목을, 그리고 『眉巖日記』의 책수와 날짜만을 기재함을 밝힌다.

## 2. 미암의 ‘怒’에 대한 인식과 실천

### 1) 공적 언행에서 드러낸 인식

#### (1) 怒發 時 중용의 中節을 통한 和 중시와 涵養

미암이 20년간 종성에서 유배를 살다가 조정에 돌아온 해부터 줄곧 經筵에서 어린 선조에게 聖學을 진강하였다. 곧 1565(명종 20)년에 문정왕후가 죽고 윤원형을 내쫓자는 공론이 일자 을사사림들이 伸雪되면서, 미암도 53세 되던 그 해 처음엔 恩津에 이배되었다가<sup>18)</sup> 2년 뒤 1567년에 선조 즉위와 함께 해배되어 10월 경연관 겸 성균관 直講을 제수 받고 서울로 올라온 때부터 조정에서 경연활동을 통해 聖學을 진강하다가, 1571년 전라감사에 제수되어 고향 해남에 내려갔으나 같은 해 10월 대사헌에 임명되어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계속해서 대사성, 대사간, 대사헌, 부제학, 예조참판, 이조참판 등 요직에 오르며 10여 년간 경연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그리하여 미암이 경전이나 학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직접 드러낸 것은 경연의 진강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해배 초기 경연에서 怒에 대해 펼친 견해가 눈에 띈다. 미암은 ‘怒’하는 것이 옳은 경우라 하더라도 절도에 맞게 해야지 지나쳐서는 안 된다 하였고, ‘喜怒哀樂’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라 인정하면서 평소의 수양을 강조하였다.

(前略) 유희춘이 말했다. “비록 올바른 노여움이라 하더라도 역시 절도에 맞게 하는 것을 귀히 여겨야지 적당함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또 말했다. “이 장은 『중용』의 ‘喜怒哀樂이 發하지 않은 것을 中이라 하고, 發하였으되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和라고 한다.”는 것과 서로 통합니다. 원컨대 유념하소서.”<sup>19)</sup>

위 언급 앞에 생략한 부분에서 『대학』의 긴요한 요지를 격물과 성의라 하고, 이어서 화를 내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 화를 내는 것이 옳을 때라도 節度에 맞게 하여야지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덧붙여 중용의 ‘희노애락이 발하지 않은 것을 中이라 하고,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음을 和라 한다.[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

17) 『眉巖集』은 전체 21권 가운데 詩가 두 권, 文이 한 권이며, 일기가 열 권, 경연일기가 네 권, 그리고 祭文과 諡狀 등이 두 권, 속집이 한 권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문집총간해제 2에 의하면, 미암이 종성 유배 시절에 지은 시가 1612년 함경도 관찰사 한준겸에 의해 『眉巖詩稿』 한 권으로 엮었는데, 현재 일본 천리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眉巖集』 권1의 시 아래 ‘鐘城刊本’이란 細註가 달려있어 그때 지은 시가 엮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권2는 해배 이후 지어진 시 작품이다. 권3은 疎, 書狀, 書, 序, 記, 跋, 銘, 祭文, 碣, 雜著 등 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유배지와 해배 후 작품이 함께 들어 있어 본고의 대상 자료로 한다.

18) 『大東野乘』, 「乙巳傳聞錄」, 李中悅子, 〈柳希春傳〉, 乙丑明廟二十年也 在位久聖治日新 因公論放黜元衡 稍雪乙巳被罪人 命移恩津縣

19) 『眉巖日記草』, 제1책, 1567 정묘년, 11.5, 希春曰 雖是怒之是者 亦當以中節爲貴 不可過當 又曰 此章蓋與中庸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相通 伏願留心焉

皆中節謂之和.]’라는 언급과 상통하는 점을 들어,喜怒哀樂이 드러났어도 모두 節에 맞았다면 和임을 밝혔다. 이것으로써 분노와 같은 감정의 상태를 드러내기 전과 드러낸 후로 명확히 구분하여 파악하고, 드러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 알렸다.

미암이 해배 후 조정에 돌아와 어떻게 바로 이러한 언급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서는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을 설명한 다음 언급을 이어서 살펴보자.

또 말하였다. “喜怒哀懼는 오직 없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또한 없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평소에 일이 없을 때 먼저 이 네 가지가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름지기 이 마음을 함양하는 것은 사물을 응하지 않을 때에 담연히 비우고 고요히 하여 마치 거울같이 비게 하고, 저울같이 평평하게 해서 사물을 응함에 이르면 바야흐로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sup>20)</sup>

‘喜怒哀懼’와 같은 감정이 없을 수 없지만, 평소에 일이 없을 때는 이것이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되고, 마음을 함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때 마음(心)이 未發하였다면 敬에 주하여 存養하고, 감정(情)으로 已發했다면 省察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물을 응하지 않을 때, 곧 혼자 있을 때 마음을 함양하는 방법으로 담담하고 고요히 하여 거울 같이 비우고 저울 같이 평평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고서 사물에 응하면, 곧 일상에서 생활하면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 (2) 정자의 ‘定性書’에 바탕 한 경계

怒에 대해 미암이 조정에서 한 다음의 언급도 살펴보자.

“노여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지만, 가장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략) 대저 노여움은 가장 쉽게 발하고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程子께서는 ‘定性書’에서 깊이 경계하셨습니다. 許衡의 詩에서는 ‘怒氣는 타는 불처럼 거세서 타면 한갓 자신만 상하는 것이니, 닿아 오는 것에 더불어 다투지 말라. 일이 지나면 마음이 청량해지는 것이다.’ 라 하였으니 유념 하소서.”<sup>21)</sup>

분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분노란 가장 쉽게 드러나 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하면서, 장재가 질문하자 정이가 답장한 ‘定性書’와 元나라의 정주학자인 魯齋 許衡(1209~1281)의 시를 들어 그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定性書’는 장재가 ‘性を 定하려고 생각하나 아무리 해도 性이 不動의 상태에 이르지 않으며, 이것은 바깥의 사물에 방해를 받기 때문인데 어떻게 하면 성을 정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한 데 대해 정이가 답한 편지이다. 정이는 ‘이른 바 性이란 움직임도 역시 정하고 고요함도 정해서, 보냄과 맞이함도 없고 안팎도 없다’고 한다. 성은 안팎이 없고, 안팎을 모두 잊음, 여기에야말로 ‘정해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요점은 ‘廓然大公, 物來順應’의 여덟 글자에 있다고 말해지는데, 요컨대 사적인 우연한 情을 극복하고 분별하는 지혜에 서는 일 없이 만사만물에 타당한 바를 추구하는 것, 여기에 ‘성을 정하는’ 것의 참된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sup>22)</sup> 위 글에

20) 『미암일기초』, 제1책, 1567 정묘년, 11.5, 又云 喜怒哀懼 非惟不能無 亦不可無 但平居無事之時 不要先有此四者在胸中 須是涵養此心 未應物時 湛然虛靜 如鑑之空 如衡之平 到得應物之時 方不差錯

21) 『미암일기초』, 제9책, 1574 갑술년, 2.25, 怒者 人之所必有 而最不可不慎也 (중략) 大抵怒最易發而難制 程子定性書 以爲深戒 許衡詩有云 怒氣劇炎火 焚如徒自傷 觸來勿與競 事過心清涼 伏乞留神

서도 ‘정성서’의 이러한 요점을 인용하여, ‘怒하는 것이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므로 깊이 경계를 삼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치를 펴며 미암 자신이 분노할 만한 일을 당하여서도 그것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에게는 옮기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여 일기에 기록해 남길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 2) 사적 생활에서 보인 실천

### (1) 인간관계에서 ‘不遷怒’ 실현과 省察

여기서는 미암이 실제 삶에서 자신의 분노에 대해 어떻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 먼저 인간관계에서 드러난 면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그것은 미암이 자신을 유배 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인 임백령의 아들들이 찾아왔을 때 보인 반응, 곧 ‘不遷怒’했다는 표현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다음은 그와 관련한 내용의 全文이다.

해가 저물어 前 錦山郡守 林滌와 前司畜 林泌가 찾아왔다. 임백령의 아들들이니 滌는 임진 생이요, 泌는 경자 생이다. 나는 대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여 怒를 옮기지 않았다.<sup>23)</sup>

위 인용문의 마지막에서 쓰인 ‘不遷怒’란 표현은 『논어』에서 공자가 안회에 대해 ‘학문을 좋아하고 분노를 옮기지 않았다’<sup>24)</sup> 라고 평한 말에서 나온 것이다. 학문을 좋아하는 것과 분노를 옮기지 않은 것이 각각의 성품으로 나열되었지만, 한편으로 서로 연관된 것으로도 보인다. 張載는 正心, 養性, 約情을 하면 배움의 방법을 알게 된다고 하였고, 정자는 「好學論」에서 약정을 정심, 양성의 앞에 두었다. 감정을 제약한다는 것이 마음가짐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 모두 배움의 방법을 터득하는 요소이자 하나의 길이 되고 있음을 알려 준다.

미암은 일상의 생활을 기록하면서도 사실을 그대로 적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때에도 대부분 간략하게 단편적인 몇 마디로 그칠 뿐이다. 미암은 그날의 사건에 대해 매우 객관적이고 단편적으로 서술하고, 자신의 사적인 감정은 절제하여 표현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임백령은 미암과 同鄉으로 을사사화 때 자신과 같은 편에 끌어들여 하였으나 미암이 동조하지 않자 미암을 미워하여 유배가게 한 결정적 인물이었다. 미암은 그러한 인물의 아들들이 찾아왔을 때 호통을 치며 내쫓거나 분노를 표하지 않고, 감정을 스스로 제약하여 ‘평상과 같이 대해주고 분노를 옮기지 않았다.’고 간략한 몇 마디로 일기에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분명 자신이 분노할 만한 일이나 그러지 않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미암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안회가 보인 ‘不遷怒’와 같은 경지를 실현할 수 있었을까.

미암은 해배 후 조정에서 자신에 대해 어떠한 평이 내려져있는지를 일일이 찾아보고 기록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곤 했다. 한번은 부제학에 제수된 다음해인 1570년에

22) 시마다 겐지, 『주자학과 양명학』, 까치, 1986, pp.66~68.

23) 『미암일기초』, 제6책, 1571 신미년, 1.28, 日暮 前金山郡守林滌 前司畜林泌來訪 乃百齡之兒也 滌則壬辰生 泌則更子生 余待之平平 不遷怒也

24) 『論語』, 「雍也」 哀公 問弟子 孰爲好學 孔子對曰 有顏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 未聞好學者也

春秋館을 가서 지나간 時政記를 보고 제목과 그 밑에 달린 주까지 상세히 적어놓았다.<sup>25)</sup> 자신의 평소 성품과 유배를 가게 된 경위, 또 유배지에서의 행적 등에 관해 공적으로 내려진 史官의 평가를 보면서, 자신도 미처 보지 못한 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돌아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경연에서는 일상에서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성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察’이란 한자가 ‘병을 다스리는 약’<sup>26)</sup>이라 하였다.

그러나 미암은 을사사화와 관련한 인물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바로잡고자 하였다. 해배되어 조정에 돌아왔을 때,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을사사화 당시 일의 통탄함을 여섯 가지로 들고, 정순봉과 임백령 등에 대해서도 짚은 일이 있었다.<sup>27)</sup> 미암은 그 내용을 일기에 모두 기록하며 특히 미암이 직접 피해를 입은 정순봉과 임백령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적어놓았다. “이기.정언각이 사람들을 공격하였으나 그들에게 지시한 것은 정순봉, 백령에게서 나왔으니, 순봉과 백령이 악의 우두머리”라 하고, “정순봉, 임백령은 귀신 같고 물 여우같이 종적을 드러내지 않으며 음탕하고 교활함이 심하다.”<sup>28)</sup>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임백령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이 일어나고 미암도 그에 대해 평가를 내리며 기록한 얼마 후에, 임백령의 자식들이 인사를 하러 찾을 때, 미암은 마음을 다스려 평상시같이 대하고 분노를 옹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을사 원흉의 당사자가 아닌 그 후손에게까지 관련지어 생각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 파악된다.

실제로 미암은 을사사화를 일으킨 당사자의 경우 그 행적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현재의 형편까지도 논박의 대상으로 삼았다. 을사사화에 위훈을 받은 鄭磻이 죽었을 때, 미암은 정현의 형이 바름을 지키고 사악함을 따르지 않자 죽이려고 할 정도로 흉사한 일이 지극했는데 정현이 이제야 죽어 늦었다<sup>29)</sup>며 탄식하였다. 정현(1526~?)은 대운일파를 제거하여 을사사화를 일으키는 데 공을 세우고 위사공신 3등으로 책록 된 인물이다. 또한 정현의 아버지 정순봉은 충순당에 입대하여 정미년 벽서 사건의 잔당을 몰아 土禍를 일으켰음이 기록에 남았으며<sup>30)</sup> 윤원형, 李芑, 임백령, 許磁와 함께 乙巳 五姦에 들어가, 당시에 이이에 의해 ‘용서할 수 없는 자’라고 비판받았다.<sup>31)</sup> 미암은 을사사화로 인해 僞勳을 받은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정현과 같은 인물이 죽은 것이 너무 늦었다고 솔직하게 평한 것이다.

또한 을사 원흉인 金仁이 미암에게 찾아왔을 때도 그 성격이 사납고 교만하여 윤원형에게

25) 『미암일기초』, 제4책, 1570 경오년, 6.8, 余到春秋館 見去年仲冬初六日時政記 於希春除副提學之下註云 字仁仲 英敏疏淡 博雅好文 嘗於乙巳年爲正言 駁密旨之非 至丁未初 竄耽羅 又移鐘城 既至謫所 惟以讀書爲事 教誨後生 多所成就 及丁卯還朝 揚歷清要 士林皆推重焉

26) 『미암일기초』, 제1책, 1567 정묘년, 11.5, 又言察之一字 乃治病之藥

27) 『미암일기초』, 제5책, 1570 경오년, 8.3, 見去月二十七日兩司所啓 當時之事 至今思之 聲淚俱發 言之痛矣 仁廟實天 几筵方臨 而誣陷名賢 刑烙於殞殿之咫尺 此其可痛者一也 明廟入承 名義俱正 而自以爲功 歷要敵血之盟 此其可痛者二也 攀緣椒戚 誣罔文定 擅弄威權 惟意所欲 此其可痛者三也 陰謀惡逆 網打士林 殄滅邦紀 斷喪國脈 此其可痛者四也 詐造諺書 敢誣懿殿 曖昧之言 至今未白 此其可痛者五也 造爲虛說 恐喝驚動 先王遂成憂悸之恙 此其可痛者六也

28) 『미암일기초』, 제5책, 1570 경오년, 8.3, 今日兩司合啓 搏噬攻擊 雖在於李芑, 彥愨 而發縱指示 實出於順朋, 百齡 則順朋, 百齡 乃惡之首也 / 같은 해, 8.4, 更見昨日兩司所啓 論順朋, 百齡曰 如鬼如蜃 不露蹤跡 而陰狡尤甚云

29) 『미암일기초』, 제9책, 1574 갑술년, 10.12, 聞奸賊鄭磻昨昨病死 乙巳士林之禍 磻實其父順朋之疏 以鼓扇之 又以其兄守正不從邪 至欲殺之 凶邪修至 久這天誅 今死亦云晚

30)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經史編, 韻書, 〈蒙求 四庫韻對辨證說〉, 蓋鄭順朋等 入對忠順堂 以丁未壁書餘黨 大起土禍故也

31) 『미암일기초』, 제3책, 1569 기사년, 9.1, 校理李珥叔獻當夕來訪 右副宋公亦來會 李君出其八月日課所製 其末一篇 論正名爲治道之本云 (중략) 鄭順朋, 尹元衡, 李芑, 林百齡, 許磁斯五姦者 罪通于天 必殺無赦者也

붙어 잔인하고 포악한 짓을 마음대로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문지가 미천하고 학문이 없어 대간의 논박을 받은 탓에 기가 꺾였다<sup>32)</sup>고 기록하였다. 이는 임백령의 아들들이 찾아왔을 때와 다른 미암의 태도로, 여기서 미암이 분노할 당사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그 후손이라도 그에게 분노를 옮기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중시했으며, 그것으로 삶에 대한 태도와 일기를 써나가는 자세를 일치시켰음을 알 수 있다.

(2) 일상의 일에서 存心을 강조한 詩文 창작과 修養

여기서는 미암이 앞에서 보았듯이 ‘不遷怒’를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근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암은 해배 후 시문 창작을 통해 일상에서 끊임없이 수양하는 면모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유배지에서도 주자학에 침잠하며 주자 시를 모방하기도 하여 ‘자기 수양’의 성격이 강한 시문을 창작하였다. 먼저 해배 후 일상의 일에서 미암은 存心하여 변화할 수 있음을 깨우쳐 알고, 일기에 기록하며 詩化하기도 한 대표적인 작품을 보겠다.

壬申陽月十三辰 임신년 1월 13일에  
 忽悟存心是大根 문득 존심이 큰 근본임을 깨달았구나.  
 從此源源無間斷 이로부터 계속하여 간단없이 노력하면  
 何慙蘧瑗化前痕 어찌 거백옥이 예전 잘못 고친 것에 부끄러우리오.<sup>33)</sup>

위 시 제목을 보면 ‘방에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옷이 문에 찢겼다. 존심이 일에 응하는 만사의 근본임을 크게 깨닫고 시를 지었다.’라고 지은 동기를 밝혔다. 마음을 잡지 않으면 아주 작은 일상의 일도 그르치기 쉽기에, 존심이 큰 근본임을 깨닫고 시를 짓는다는 것이다. 이어서 ‘存心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육십년에 육십 번 화한 거백옥이 전과 달라졌음을 어찌 부끄러워하겠느냐’고 한 것은, “거백옥과 자신이 같은 60이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썼다”<sup>34)</sup>는 일기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거백옥이 나이가 60이 되었는데 60번 변화하여 덕에 나아간 공이 늘어서도 쉬지 않은 인물이라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sup>35)</sup> 蘧伯玉은 춘추 시대 衛나라의 어진 大夫 蘧瑗의 字로, 거백옥이 나이 육십이 되었을 때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고쳤다는 고사가 있고, 이는 원래 인격과 학문이 계속 향상됨을 뜻하였다. 임신년은 1572년으로 미암이 육십이 되는 해라, 그 해의 초에 위와 같은 일을 겪고 논어에서 공자께서도 믿으셨다고 하는 거백옥의 일을 떠올리며 존심을 강조한 것이다.

미암은 경연에서도 “학문을 하는 데 存心이 大本이 되고 改過가 急務”<sup>36)</sup>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존심을 가장 큰 근본으로 삼고, 잘못을 고치는 것을 급선무로 하는 것이 학문하는 자의

32) 『미암일기초』, 제7책, 1573 계유년, 4.7, 上土僉使金仁 來告赴任 仁也性慄悍驕縱 曾附元衡 恣爲殘暴 邇來以門微不學 屢被臺諫之駁 今則氣挫矣

33) 『미암집』 권2, 〈慕華館習儀日入戶 不覺衣攢於戶 大悟存心爲應事之本〉.

34) 『미암일기초』, 제7책, 1572 임신년, 10.13, 今朝 因入室戶 不覺衣攢於戶 始大悟存心爲應事之本 作小詩云 壬申陽月十三辰 忽悟存心是大根 從此源源無間斷 何慙蘧瑗化前痕 蓋伯玉與我俱爲六十故也

35) 이 말은 본래 장자에 나오는데 이를 논어 주에서 인용할 때 거백옥이 오십 살에 사십 구년 동안의 잘못을 알았다고 한 문장을 하나 더 넣었고, 한비자에서도 논어 주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논어의 주에는 장자의 말들을 인용한 끝에, (거백옥이) 덕에 나아가는 공이 늘어서도 게으르지 않았고 실천하기를 독실하게 하였기에 공자께서도 믿으셨다고 하였다. 『莊子』 則陽, 蘧伯玉行年六十而六十化 / 『淮南子』 原道訓, 蘧伯玉行年五十 而知四十九年之非 / 『論語』, 「憲問」, 註 按莊周稱伯玉行年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 又曰伯玉行年六十而六十化 蓋其進德之功 老而不倦 是以踐履篤實 光輝宣著 不惟使者知之 而夫子亦信之也

36) 『미암일기초』, 제2책, 1568 무진년, 9.5, 蓋人之爲學 存心爲大本 改過爲急務

자세로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암의 유배기의 학문과 문학이 주목된다. 미암은 유배지에서 주자학에 침잠하면서 시에서 ‘자기 수양’의 작품을 많이 지은 점이 특징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미암이 유배지에서 주자학 연구에 몰입하면서 주자의 시를 모의하여 지으며 실천하고자 하였고,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 이치를 궁구하는 방편으로 삼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感興> 4수는 주희의 <齋居感興> 20수를, <半畝塘>은 <觀書有感> 2수를, <困學>과 권2의 <自警>은 같은 제목의 주희 작품을 모의한 것이다.<sup>37)</sup>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困學>과 <半畝塘>을 들어 살펴보겠다.

먼저 <困學>은 미암이 마음을 잡고 放心을 거두어 자신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삼기를 실천한 작품이다. 제목인 ‘困學’은 『논어』의 ‘困하여 배우니 또 그 다음이다’는 데서 취한 것으로, 그 주에 ‘통하지 않는 바가 있어 배운다’<sup>38)</sup> 라는 내용을 미암이 겸손하게 표현하여 쓴 것이라 보인다. 주자 시에도 이와 같은 제목의 시가 있다.<sup>39)</sup> 미암의 작품 원문은 오언고시로 장편의 시이므로 해당 부분만 짧게 들어본다.

……

悠悠四十年	유유히 사십년을
只學太玄龜	다만 거칠게 태현경만 배웠다네.
操存甘自畫	操存하는 공부는 스스로 선긋기 달가워했으니
靈臺日以蕪	마음이 날로 황폐해졌네.
昨看考亭訓	어제 주자의 가르침을 보고
忽覺轉戶樞	문득 문지소리 돌아감을 깨달았구나.
丁寧收放心	정녕 放心을 거두면
步步進長途	한 걸음 한 걸음 먼 길로 나아가겠구나. <sup>40)</sup>

……

처음 ‘유유히 사십년’이라 한 데서 이 시가 미암이 사십 세 즈음에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미암은 양옹의 저서인 『太玄經』만 거칠게 배웠으며, 곧 문자 공부만을 일삼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고, 그 사이 ‘조존’하는 일, 곧 마음공부에는 스스로 선긋기(自畫)를 달가워하여, 마음이 황폐해지게 했다고 고백한다.<sup>41)</sup> 문자 공부만 하다 마음을 놓고 스스로 포기를 했던 때가 많아져 어둡고 어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어제 주자의 가르침을 보고 깨달아, 放心을 거두면 먼 길을 나아가겠다고 한다. 미암이 유배지에서 방심을 거두어 마음을 잡고,

37) 이연순, 「미암 유희춘의 유배기 문학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32집, 동양고전학회, 2008, pp.1-27. 참조.

38) 『論語』, 「季氏」, 孔子曰 生而知之者 上也 學而知之者 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 (註:謂有所不通 言人之氣質不同 大約有此四等 楊氏曰 生知 學知 以至困學 雖其質不同 然 及其知之 一也 故 君子惟學之爲貴 困而不學然後 爲下)

39) 朱熹, 『朱子大典』 권1, <困學>

40) 『미암집』 권1, <困學> 전략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行年二十二 始知味眞腴 獨坐上院寺 潛心紫陽謨 小學觀外篇 惕然汗生膚 大學研或問 語錄窮錙銖 爰茲知向方 記誦不足趨 慙慙編古學 蚤夜持自娛 如何氣質弱 道遠不策驚 義利雖粗辨 積累無工夫 佩韋不汲汲 病根何年無 未免安舊習 好對象戲徒 終然心屢放 空却血肉軀 縱獲蓬麻益 奈無大根株 管窺何足喜 井蛙議江湖 憂患那增益 但見歲月徂 이 다음 부더가 본문에 인용된 부분이다.

41) 『孟子』, 「告子」上, 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 ‘잡으면 있고, 버리면 없으니, 출입이 때가 없고 그 고향을 알지 못하니, 오직 마음을 이룸이여!’에서 나와, 조존(操存)은 곧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즉 操存하는 것을 학문적으로나 삶에서 지향했음을 이 시에서 밝히고 있다.

다음, 미암은 깊고 맑은 못을 보면서도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마음을 맑게 다스리는 자세를 구하였다. 이것이 <半畝塘>이라는 작품에서 형상화되었다.

我有小沼靈臺下	내 마음 아래에 작은 못이 있으니
一脈初從武夷潄	한 줄기가 처음 무이 물가에서 왔다네.
澄治少懈便不潔	맑게 다스림 조금만 게을리 하면 곧바로 더러워지리니
下流幽黑不堪臨	하류가 검게 오염되어 임할 수가 없게 되네.
安得寸膠救大渾	어떻게 하면 아교로 크게 흐려진 것을 구할 수 있으랴
紫陽活水傳至今	자양의 활수는 지금까지 전해지네. <sup>42)</sup>

'半畝塘'이라는 제목의 이 시는 주자의 <觀書有感>二首 중 첫 수에서 詩題와 詩語를 취하여 지은 것이다. 주자의 시는 첫 수의 轉句에서 用力 상태를, 結句에서 省力得力 상태를 서술하여 깨달음이 열려 자유자재의 경지에 이른 것을 나타내고 있다<sup>43)</sup>고 평해진다.

인간은 자연의 운행 질서를 통해 느끼고 배워왔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인간 수양의 규범을 찾아 왔다.<sup>44)</sup> 위 시에서 미암은 이 못을 거울삼아 학문하는 마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뜻을 드러냈다. 자신의 마음 아래에 작은 못 한 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주자가 노닐었던 무이 가에서 왔다고 하고, 맑게 다스림을 조금만 게을리 해도 곧바로 더러워져, 하류가 검게 오염되고 임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크게 흐려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반문하며, 자양에서 활발하게 내려오는 물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자양의 활수도 주자의 시 결구에 나오는 '爲有源頭活水來'라고 한 데서 그 시상을 취한 것이다. 미암이 자연의 못을 통해 주자가 학문하던 자세를 본받고 다시 일으키고자 한 바람과 의지를 볼 수 있다.

미암은 위에 든 시 외에도 방당의 못을 여러 작품에서 시화하였는데, 유배지에서 지은 <晚悟>라는 시에서는 바다와 시내, 호수, 빗물과 같은 여러 물의 형태를 들어 자신의 신세와 학문이 처한 상황을 안타깝게 토로하였다. 일찍이 남쪽 바다인 고향 해남에서 학문을 매우 깊이 하였지만, 시내 호수와 같이 밝고 나아갈 곳이 다 작은 물구덩이와 같아, 바람이 불어오는 시련이 닥치자 돛단배와 같은 자신은 멀리 유배지에 처해 돌아갈 곳 없어지고, 삼라만상의 이치가 들어 있는 방당의 못과 어찌 비슷하겠나며, 늦게 깨달음을 안타까워하였다.<sup>45)</sup> 그러나 미암이 해배되어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판윤 김수문이 '玩心圖'를 보여주자<sup>46)</sup> 이에 題하여 지은 시에서는 '방당'의 맑고 깨끗함을 완상하며 優遊涵泳한 선현들을 떠올리고, 부지런히 도야하여 淸涼하게 살리라 다짐하는 뜻을 보인다.<sup>47)</sup> 또 미암이 유배지에서 『續蒙求』를 짓고 題한 시에서도, 그 내용이 三千支水같이 넓고 심오함과 연꽃같이 아름다움을 '半畝의 못'이라고 표현하며<sup>48)</sup> 학문이 깊고 맑으며 살아 있는 뜻을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怒'는 詩의 창작에서 風格을 논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실상은 시의 풍격 용어로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아 찾아보기 힘들었다. 유일하게 찾은 책이 釋 曉然

42) 『미암집』 권1, <半畝塘>.

43) 이동희, 『朱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p.289.

44) 이병한, 『증보 한시비평의 체례 연구』, 통문관, 1985, p.98.

45) 『미암집』 권1, <晚悟>, 曾泛南溟億丈深 溪湖到處盡蹄涔 風帆千里無歸宿 那似方塘萬象森

46) 「日記」, 1567 정묘년 10.22, 朝至德峴 金判尹秀文相見喜甚 談話對酌 判尹示我玩心圖 質問疑處 仍與擲圖 判尹有思政殿訓義 綱目二件 以一件將贈我 其書在京 此乃百朋之錫 不勝謝拜

47) 『미암집』 권1, <題玩心圖>, 鑿得方塘玩鏡明 夜來涵泳幾多星 但將查滓勤淘滌 莫慮淸冷何處生

48) 『미암집』 권1, <題續蒙求>, 三千支水導同歸 擬看汪汪萬頃波 主人好弄真堪笑 先作芙蓉半畝池

의 『詩式』으로, 여기서 시 창작의 원리와 감상의 기준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시에서 詩品評語의 하나로서 ‘怒’에 관해 다룬 유일한 내용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風格의 형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四不, 二要, 四難, 六述, 六至 등을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怒가 포함되어 있는 四不와 二要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겠다. 먼저 四不에 대해 언급한 원문 全文을 들면 다음과 같다.

詩에는 四不이 있다. 氣는 높되 怒하지 않으니, 怒하면 風流를 잃기 때문이다. 力이 굳세되, 露하지 않으니, 露하면 斤斧에 傷하게 된다. 情은 많되 暗하지 않으니, 暗하면 拙鈍함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요, 才는 넉넉하되 疎하지 않으니, 疎하면 筋脉에 損하게 되기 때문이다.<sup>49)</sup>

위에서 ‘怒’뿐만 아니라 ‘露, 暗, 疎’ 등도 나오는데, 이는 모두 시를 지을 때 경계해야 할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怒’가 가장 먼저 경계 대상으로 나오는데, 시에서 기가 높은 것은 추구하는 바이지만, 그러다 자칫 ‘怒’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풍류를 잃기 때문이라 하였다. 풍류가 느껴지지 않는 시란, 시에서 가장 경계한 것임을 여기서 알 수 있다.

詩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으니, 力이 穩全하되 苦澁하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고, 氣가 足하되 怒張하지 않음을 중요시한다.<sup>50)</sup>

위에서는 力과 氣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기 시에서 중요한 것과 경계해야 할 것까지 들었는데, 여기서도 氣와 관련해 ‘怒’가 경계 대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곧 氣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怒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한 것이다. ‘怒張’은 힘을 잔뜩 준 모양으로, 書法에서 ‘팔뚝에 힘을 잔뜩 주고서 억지로 생나무를 휘어 꺾으려는 것[怒張筋脈 屈折生柴]’이라 하여, 흔히 초보자의 서툰 서예 솜씨를 가리켜 말하는 데서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시에서도 이러한 ‘怒張’이라는 표현을 써서 서툰게 힘들여 쓴 시를 가리켜 평한 것이다.

이렇듯 시 창작의 원리로서 ‘怒’는 매우 낮은 경지이자 경계해야 할 품평어기에,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미암은 유배지에서 끊임없는 수양으로 학문을 통해 방심하는 마음을 거두고, 자연을 가까이 하며 그 이치를 깨닫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문을 창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 배 후에는 일상의 일 가운데 사소하게라도 ‘怒’가 표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자학적 수양 방법의 하나인 ‘存心’의 중요성을 깨닫고 ‘蘧伯玉’을 떠올리며 詩化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라 보인다.

미암은 이러한 깨달음을 자신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더욱 넓혀 임금에게 〈正心銘〉을 지어 바쳤다.

存養此心 이 마음을 보존하고 기르니  
鑑空衡平 거울처럼 비고 저울처럼 평평해지는 구나  
物來順應 사물이 왔을 때에 순히 응하면

49) 曉然, 『詩式』, 詩有四不, 氣高而不怒, 怒則失於風流. 力勁而不露, 露則傷於斤斧. 情多而不暗, 暗則蹶於拙鈍, 才贍而不疎, 疎則損於筋脉. 정요일 외 2, 『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p.238. 각주 52) 재인용. 여기서는 이에 대해, 석 효연이 풍격 형성의 요인을 氣, 力, 情, 才로 나누었는데, 이에 요구되는 기준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하면서, 곧 긍정적인 측면은 高, 勁, 多, 贍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怒, 露, 暗, 疎라 하였다.  
50) 曉然, 『詩式』, 詩有二要, 要力全而不苦澁, 要氣足而不怒張. 정요일 외 2, 『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p.238. 각주 53) 재인용.

위 시에서 마음을 존양하면 거울처럼 비고 저울처럼 평평해지는 이치를 말하였다. 그리고 사물이 왔을 때 응하기를 순히 하면 광명정대해진다고 하였다. 이 작품은 일기에 자세한 풀이가 소개되어 있다. <정심명>에서 말한 바, 사람의 한 마음이 담담하고 맑기는 거울같이 비고 저울 같이 평평하여 한 몸의 주재가 된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喜怒哀懼와 같은 감정에 미쳐서는 느낌을 따라 응하여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굽어보고 우러르며 사물로 인해 형태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음이 거울같이 비고 저울같이 평평한 것은 막힘이 없어 정대광명하기에 천하의 達道라 하니, <정심명>을 지어 임금에게 補益을 한다.”<sup>52)</sup>고 창작동기를 밝혔다.

그런데 미암이 중요하게 깨달은 ‘存心’은 양명학에서 ‘存心’만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다. 미암의 ‘存心’에 대한 인식은 주자학의 性即理說에 기반 한 것으로, 양명학의 心即理說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고에서 다루는 ‘怒’가 넓게는 인간의 마음에 속하며, 이러한 인간 마음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주자학의 心性論에서는 性과 情을 구분하여 性情二元論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理氣에 대해서 본체인 理에 의해 氣가 생성되어 현상적으로는 氣만이 작용한다고 하는 理先氣後를 주장한 것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자학의 심성론에서는 마음이 고요한 때를 理로서의 性으로 규정하고, 마음이 움직일 때를 氣로서의 情으로 규정하여 性情을 體用的 시간적 선후관계로 엄격히 구분하였다.<sup>53)</sup> 그런데 동정을 구분하여 고요할 때의 리로, 움직일 때를 기로 규정하는 주자학의 심성론에서 人心과 道心은 따로 구분하여 도심은 性命의 올바름에 근원하고, 인심은 形氣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나서, 인심과 도심의 근원이 각기 다르다는 二心說을 전개하였다.<sup>54)</sup>

그러나 이러한 점은 양명학에서 비판하는 점으로, 왕양명이 주자의 이심설을 비판하여, 마음은 하나이며 인위적인 것이 잡되게 섞이지 않은 것을 도심이라 이르고, 인위적인 것이 섞인 것을 인심이라 이르지만 인심이 바른 것을 얻게 되면 도심이 되고, 도심이 바름을 잃으면 인심이 되는 것이니, 처음부터 인심과 도심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일심설을 제기한 바 있다.<sup>55)</sup>

같은 맥락에서 앞에서 든 ‘喜怒哀樂’의 情에 대해서도 주자학의 이해와 양명학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데, 양명학에서 ‘희로애락’의 정은 그 용을 절차에 합당하게 하고 리에 알맞게 하

51) 『미암집』권3, <正心銘>

52) 『미암일기초』, 제7책, 1573 갑술년, 4.25, (전략) 然正心章所云人之一心湛明 如鑑之空 如衡之平 爲一身之主 及其喜怒哀懼 隨感而應 妍媸俯仰 因物賦形 鑑空衡平之用 流行不滯 正大光明 是乃天下之達道 臣據此作正心銘十六字 第臣不能寫字 不能書進 惟願上採擇 如有可觀 手寫置座右 幸甚 因誦銘曰 存養此心 鑑空衡平 物來順應 正大光明(후략)

53) 김길락, 『한국의 상산학과 양명학』, 청계, 2004, pp.364~365.

54) 『中庸』, 中庸章句序, 心之虛靈知覺, 一而已矣, 而以爲有人心道心之異者, 則以其或生於形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 而所以爲知覺者不同. 朱熹가 순 임금의 인심과 도심의 말을 부연 설명하면서, “마음의 허렁지각은 하나일 뿐인데, 인심과 도심의 다름이 있다고 한 것은, 혹은 形氣之私에서 나오고, 혹은 性命之正에서 근원하여, 지각을 한 것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길락은 곧 주자학에서 도심은 성명에 근원하고, 인심은 형기에서 발생하여 도심과 인심이 공존한다고 본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기이원론에 근거하여 사단과 칠정을 구분해 사단은 리에서 발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고 보아 천리와 인욕을 대립해 도심과 인심을 이질적 존재로 구분하고 사단과 칠정을 구분해 그 근원이 다르다고 이해하였다. 김길락, 앞의 책, p.371. 참조.

55) 王陽明, 『傳習錄』上, 徐愛錄, 十條目.

는 것과 그것이 각각 마땅한 것을 얻지 않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른바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발하여 화’란 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가 감응하여 마침내 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발의 성과 이발의 정의 관계 또한 주자학에서와 같이 시간적 선후를 가지는 이원적 관계로 보는 것에 대해 양명학에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결국 양명학에서는 사람을 떠나서는 理를 말할 수 없고, 마음을 떠나서는 大本을 말할 수 없다며, 마음 밖의 사물에 나아가 그 기를 궁구하는 것, 곧 ‘卽物而窮其理’가 가능하다고 본 주자학의 성즉리설을 비판하였다.<sup>56)</sup>

이러한 주자학과 양명학에서 존심에 대한 견해 차이는 당시 미암과 소재 노수신(1515~1590)이 해배 후 조정에서 사서오경의 토석 문제로 대립한 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소재는 을사사화를 겪은 관료문인이라는 점에서 미암과 유사한 宦路를 거쳤다.<sup>57)</sup> 그러나 주자학의 格物致知를 확신하던 젊은 날의 노수신은 을사사화로 인해 진도에서 19년간 유배를 보내면서, 外在하는 天理의 인식이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희의 공부 방법에서 벗어나 禪의 도움으로 진정한 실존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sup>58)</sup>

소재가 이렇듯 보인 변화상은 직접적으로 사화로 인한 유배에 있었고, 구체적인 변모상은 그 기간에 유배지 진도에서 나정암의 『근지기』를 읽고 감명을 받아 저술한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59)</sup> 일기에 의하면, 미암도 이에 대한 辨論을 쓴 것으로 보이거나 문장이 남아 있지 않고, 기대승의 〈困知記論〉을 베껴 쓰며 통쾌해했다는 기록이 있다.<sup>60)</sup> 또한 專一 공부가 성인의 경지를 배울 수 있는 요령이 된다고도 제시하였다.<sup>61)</sup> 그러나 이에 반해 소재는 〈人心道心辨〉에서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측면에서 人心에 긍정적이었고, 이러한 인식은 道問學보다는 尊德性を 강조하면서, 格物致知를 중심으로 하는 주자학의 主知主義의 공부론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sup>62)</sup> 반면 미암은 존덕성과 도문학을 함께 중시하며, 주자를 이 둘을 수레의 두 바

56) 김길락, 앞의 책, pp.362~372. 여기서 ‘발하여 화’에 대해 덧붙인 내용을 들면, 미발지중은 순수하여 치우치거나 엇매임이 없는 적연부동한 본체를 의미한다면, 발이중절지화는 품질이 본체에 타당하여 알맞게 되지 않은 것이 없는 감이수통한 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체는 용 가운데 있고, 용은 또한 체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체용은 결코 두 가지가 아니라 하였다. 또한 조선의 양명학 발전에 이바지한 정제두는 리기합일론에 근거를 두고 성정합일론을 제시하여 사단도 성이요, 칠정 또한 성이라는 이론을 제시해, 사단과 칠정을 엄밀히 나누는 주자학적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57) 유명중, 「나정암의 기철학과 이조유학」, 『인문과학』제3.4집, 성대인문과학연구소, 1973.74, pp.14~15. 소재는 인종 초 을사사화로 이조좌랑에서 파면, 순천으로 귀양 갔다가, 1549년(명종 2년)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진도에 유배되어 19년간을 보내고 1568년 선조 즉위와 함께 해배되었다.

58) 신항림, 「노수신의 인심도심설에 내포된 옥왕학의 심성수양론」, 『한국한문학회』 제34집, 한국한문학회, 2004, pp.305~308.

59) 유명중, 앞의 논문, pp.15~16. 소재는〈人心道心辨〉(1559)을 지어 道心은 未發, 人心은 已發이라 하여, 주자가 도심도 이발이라 한 데에 맞섰으며, 이듬해 〈근지기발〉을 지어 이항과 기대승, 김계 등의 비판을 받았다.

60) 『미암일기초』, 제3책, 1569 기사년, 5.23, 手書奇明彦困知記論 快哉 眞所謂攻其心腹 向我所辨 特枝葉耳

61) 현상운, 『조선유학사』(이형성 교수, 현음사, 2003, pp.201~204. 또 陳栢의 〈夙興夜寐箴〉에 대해 〈夙興夜寐箴解〉를 지어 그 강령이 敬에 있다는 것, 경의 방법은 專一에 있는데 誠敬과 專一이 덕이나 공부에 동일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하서의 비판을 받았는데, 소재가 “한결같은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誠이고, 사람에게 있으면 敬”이라 하며 誠敬과 專一의 덕을 동일시 한 데 대해, 하서는 “경은 천도인 성에 이르는 방법, 즉 한결같아야 하는 까닭이지 그 자체는 아니므로 경이 아니면 성할 수 없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김인후, 『하서전집』, 권11, 〈與寡晦論夙興夜寐箴解別紙〉夫一在天曰誠 在人曰敬伊(중략) 其所謂天之道 聖人之本者 其亦有二乎 未至乎此 則亦在乎誠之而已 然非敬 無以誠之 敬則誠矣 오병무, 「김인후의 성리철학」, 『동양철학연구』 제36집, 2004, pp.80~82. 참고.

62) 신항림, 『소재 노수신의 시에 나타난 思想 연구』, 고대 박사학위 논문, 2005, pp.309~310.

귀와 같이 갖추었다 칭하고, 오히려 존덕성만을 전적으로 주장한 육구연과 호인을 비판하였다.<sup>63)</sup>

그리하여 해배 후 경연에서 소재와 만난 미암은 存心을 중시하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였으나, 소재가 존심만 강조하고 窮理하지 않는 데에서는 의견의 대립을 보였다.<sup>64)</sup> 미암은 존심을 중시하여 궁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하였는데, 노수신은 존심만을 더욱 중시하여 經訓에서도 그 뜻을 알았으면, 문자는 버려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이러한 소재의 태도에 반박하여 미암은 주자의 말을 인용해 ‘글’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글을 단지 술지게미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보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였다.<sup>65)</sup>

결정적으로 미암과 소재 사이에 이 문제로 일어난 의견 대립은, 선조가 미암에게 『사서오경』의 토석을 정하라 명하였는데 이를 안 노수신이 미암에게 文義에는 신경을 쓸 것이 없다며 간여한 데서 비롯하였다. 이에 미암은 속으로 ‘소재가 文義를 변석하는 것을 싫어하여 御前에서도 글 읽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니 이런 말이 있는 것이다.’<sup>66)</sup> 라고 이해하며 더 이상 논쟁을 끌지 않았다.

이상에서 미암은 유배 기간 주자학에 깊이 침잠하며 유학에서의 본래 뜻을 헤아리려 하였기에, 해배 후에도 주자학에 기반 해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고 이론을 전개하며 끊임없이 실천하

63) 미암은 경연에서 博文約禮를 강론하며 博文은 도문학, 約禮는 존덕성의 일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박문은 성현의 경훈과 역사를 토론하고 궁리의 자료로 삼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존덕성은 主敬하고 存心하는 것이라 각각 풀이하였다. 그런데 육구연과 호인이 존덕성은 하였으나 도문학을 하지 않았고, 주돈이, 정자, 장재, 주자가 이 두 가지를 갖추었다 하며, 이 중 특히 주자가 이들 제유를 집대성하여 수레의 두 바퀴를 갖춘 인물로 보았다. 『미암일기초』, 제2책, 1568 무진년, 8.4. 講博文約禮章 博文 卽道問學之事 約禮 卽尊德性之事 所謂傳文者 非謂雜覽無理之書 乃謂討論聖賢典訓及歷代治亂君臣之迹 以爲窮理之資也 所謂尊德性者 卽主敬而存心也 宋之諸儒如陸九淵等 是專以尊德性爲主 而遺道問學一段 胡寅觀書窮理 頗有道問學之事 而無尊德性一段 惟周程張朱 具此二者 而朱子文集諸儒之大成 所謂具兩輪之車也 伏願聖 明留神焉

64) 『미암일기초』, 제9책, 1574 갑술년, 5.30. 又說孔子曰畏天命曰 所謂畏天命者 卽大學之顧諟天之明命 中庸之戒愼恐懼也 苟能畏天命 則畏大人畏聖人之言 在其中矣 畏大人者 不專指有位 乃指有位有德之人 卽孟子所謂三達尊 是也 人之善惡 只生於敬不敬之間 蓋心存敬畏 則事無不善 怠惰放肆 則衆惡必起 書曰 惟聖罔念作狂 惟狂克念作聖 人君尤不可不深念也 上曰 此云畏天命 莫是存心否 希春對曰 誠是

65) 『미암일기초』, 제9책, 1574 갑술년, 5.30. 盧守愼曰 人當只務存心 文字不濟事 至如經訓 旣解其意 則文字可忘 苟有留滯於胸中 卽爲有害 且上古那有文字 只相言語 存諸心而已 希春曰 不然 朱子曰 所以維持此心者 只有書耳 豈可遞指爲糟粕而輻輳不觀乎 要在以心驗之 以身體之而已 若駁雜不正之書 則固不足觀 聖賢經訓 豈可忘乎 朱子曰 學者不可擺落傳註 傳註猶不可棄 況經訓乎 盧曰 傳註不必留意也 希春日 諸家之註 不得聖賢之意 略之猶可 至如朱子四書三經註 妙得聖人之心 豈可輕乎 盧曰 雖善註 亦不足觀也 希春曰 人若不喜異同之說 則人不敢畢陳其說 念議論旣如此 惟在上之折衷耳 上曰 雖以存心爲主 然書旣讀 豈可遺忘 要在時習思繹 令與心身相合 豈可以爲不足觀耶 韓脩 洪進 朴啓賢等 皆以爲觀書窮理 不可闕 啓賢曰 孔子三絕韋編 又曰 溫故而知新 則可以爲師矣 書豈可少哉 講論畢 미암은 성현의 경훈이나 전주까지도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고, 소재는 전주에 유의할 필요가 없으며 보잘 것 없다고 응대하였다. 결국 이 논의는 선조가 미암의 편에서 거들고, 한수, 홍진, 박계현 등이 동조하는 데서 일단락되었다.

66) 『미암일기초』, 제9책, 1574 갑술년, 10.13. 盧公曰 聞上付公以四書經書吐釋之定 有諸 希春對曰 有之 盧公曰 文義不必致意 四方諸生 宜任其所讀 今若一定而印出 講書之際 以是爲準 則人多寬落 況曲巧之說 非所以一衆學也 希春曰 只云未當而從至當耳 豈必以曲巧爲哉 李湛曰 必率明經數人而爲之矣 余答曰 今宜廣詢博訪 而折衷之 可問於弘文館成均館等處 而太學儒生 亦可盡問矣 盧公所惡辨析文義 至以不可讀書之說 發於御前 宜乎有此言也 소재는 사방의 유생들이 읽는 대로 내버려두어야지, 한가지로 정하여 인출하면 독서할 때 이것을 기준삼아 떨어져 원망하는 이들이 많을 것인데, 하물며 공교한 설을 지어 무리의 학문을 하나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미암이 이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합당하게 할 뿐, 공교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 대응하고, “성균관과 흥문관, 대학 유생에게도 널리 묻고 절충을 할 것”이라 하였다.

려 했을 뿐만 아니라, 본래 유교에서 중시한 수양 또한 실현할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유교에서 ‘怒’는 인간의 수양과 관련한 다스림의 영역에서 다루어졌던 것이다. 논어에서 공자가 顔回를 평할 때 쓴 말, 곧 ‘안회는 학문을 좋아하고, 분노를 옮기지 않았다.’가 ‘怒’에 대해 인간心性으로서 지닐 수 있는 최상의 경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암에게서 그 다스림은 자연을 가까이 하며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일으켜 수양하는 것으로 한 단계 끌어올려져, 육십이 넘은 나이에든 存心을 강조하는 詩文 창작으로 나타났으리라 보인다.

### 3. 의의와 결론 (미완)

## 『眉巖日記』에 나타난 ‘怒’- 인식과 실천으로서 怒의 다스림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하 지 영 (이화여대)

이연순 선생님은 다년간 미암 유희춘에 대해서 연구하며 조선 전기 한문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셨습니다. 오늘 발표도 “분노”라는 감정을 옛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다스려왔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질의자는 미암이나 조선 전기 한문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여쭙는 것으로 질의자의 책무를 다 하고자 합니다.

1. 본 발표문은 임백령의 자식에게 미암 유희춘이 “不遷怒”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 행위의 기반이 주자학적 이해에 있다고 전제하며 유희춘의 노의 인식과 실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희춘의 “不遷怒”에 다소 큰 의미를 부여하신 것은 아닌가 합니다. 임백령의 자식들이 찾아온 것은 1571년이었습니다. 이 시기 임백령에 대한 단죄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임백령의 자식들은 사회적 지위를 모두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미암을 찾아온 것은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조금이나마 보존하려는 간절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됩니다.(1568년에도 “ 선전관 임발(林潑)이 방문하였는데, 임백령(林百齡)의 아들이다.”이란 기록이 확인됩니다.) 임백령은 미암의 외당숙이었으므로 임백령의 자식들 입장에서 미암을 방문하는 것은 일종의 최후의 생존책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암의 입장에서 이미 신원과 정신적 보상을 받은 상태이기에 굳이 “不遷怒”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기라는 기록은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쓰이는 것이므로 미암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가 성리학적 수양관에 입각해서 “不遷怒”를 실현한 인물로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미암의 한시에서 存心을 강조한 부분을 예로 들며 “怒” 풍격을 논한 『詩式』의 논의를 연결하여 논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암의 시론은 정작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시식』에 대한 시론이 미암의 한시에 반영된 것인지, 두 가지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怒를 다스리는 미암의 태도가 성리학적 존심론에 입각한 것으로 설명하시고 이것이 양명학적 존심론과는 차이가 있다고 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양명학적 입장에서는 怒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나아가 양명학자인 노수신이 유희춘과 대응방식에 차이를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4. 아직 더 고민하실 부분이겠지만, 궁극적으로 미암 유희춘의 怒가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논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규방가사 속 분노의 한탄과 남성 인식

이 민 규 (연세대)

### <목차>

1. 서론
2. 애상적 분노인 ‘慍’ : 아내로서 남편을 향한 한탄
3. 걱정적 분노인 ‘憤’ : 며느리로서 남성성을 향한 한탄
4. 질책적 분노인 ‘怒’ : 가르침에 의해서 금지되는 한탄
5. 결론

### 1. 서론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들을 가리키는 사자성어 ‘喜怒哀樂’은 『예기(禮記)』의 「중용(中庸)」에서 나왔다.<sup>1)</sup>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들인 ‘喜怒哀樂’을 남성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산군대 시강관(侍講官) 홍한(洪瀚)은 연산군의 탐욕을 경계하기 위해서 『중용』을 언급하며, ‘喜怒哀樂’은 안자 같은 현인군자여야 제대로 절제할 수 있다고 간언했다.<sup>2)</sup> 안자와 군자가 분노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논어(論語)』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안자의 죽음을 아쉬워하며, 안자는 ‘怒’를 세상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았다고 말하며,<sup>3)</sup> 공자는 군자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慍’의 의미는 폭넓다. ‘慍’은 ‘怒’를 품은 감정이기도 하고,<sup>4)</sup> ‘怒’ 그 자체이기도 하며,<sup>5)</sup> ‘怨’이기도 하다.<sup>6)</sup> 특히 『예기』 「단궁(檀弓)」에서 ‘慍’은 ‘哀’의 변형이기도 하다.<sup>7)</sup> 즉 ‘慍’은 슬픔과 원망을 포괄하는 애상적 분노이다. 한편 『예기』 본문에서 ‘憤’을 찾을 수는 없는데, 『예기정의』에서 ‘戚’은 ‘憤’과 연관되어 설명된다. ‘憤’은 노래와 춤의 열기 뒤에 이어지는 분노이다.<sup>8)</sup> 즉 ‘憤’은 ‘怒’와 ‘慍’에 비해서 더 걱정적 분노이다. 그리고 『예기』 「단궁」은 이 분노를 절제하는 일을 예라고 이른다. ‘怒’, ‘慍’, ‘憤’의 의미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怒’, ‘慍’, ‘憤’ 모두

1)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 『예기』 「중용」.

2) “孟子言四端中庸言七情皆是性也喜怒哀樂愛惡欲人所不能無者而發皆中節中人以上事也必大賢如顏曾以上然後可能也”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2년 1월 23일.

3) “孔子對曰有顏回者好學不遷怒不貳過不幸短命死矣” 『논어』 「옹야(雍也)」.

4) “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 『논어』 「학이(學而)」. ; “慍舍怒意” 『논어집주(論語集註)』 「학이」.

5) “慍怒也” 『시경(詩經)』 「모전(毛典)」 <백주(柏舟)>.

6) “慍怨也” 『후한서(後漢書)』 「풍연전(馮衍傳)」 이현(李賢) 주.

7) “慍哀之變也” 『예기』 「단궁」.

8) “사람이 기쁘면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면 노래를 읊으며, 노래를 읊으면 몸을 흔들고, 몸을 흔들면 춤추며, 춤추면 화나고, 화나면 성나며, 성나면 탄식하고, 탄식하면 가슴치며, 가슴치면 답답해지고, 답답해지면 몸부림치니, 이를 절제하는 일을 이르길 예라고 한다.(人喜則斯陶陶斯咏咏斯猶猶斯舞舞斯慍慍斯戚戚斯歎歎斯辟辟斯踊矣品節斯之謂禮)” 『예기』 「단궁」.

“慍斯戚”에서 ‘戚’은 화남과 성남이며, 분노가 와서 마음이 날뛰어 화내며 일어서는 모양이다. 이 구는 “喜斯陶”에 대비된다.(慍斯戚者戚憤恚也怒來戚心故憤恚起也此句對喜斯陶也) 『예기정의(禮記正義)』 ; 이 주석은 ‘戚’과 ‘憤’을 기쁨과 즐거움에 대비되는 감정으로 본 듯하다.

군자가 절제해야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군자가 아닌 여성이 ‘怒’, ‘慍’, ‘憤’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하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예기』 「내칙(內則)」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예기』 「내칙」에서 아들과 며느리로서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는 부모와 시부모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게을리하지도 않는다고 한다.<sup>9)</sup> 아들과 부모의 가족 관계는 자연적 출생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며느리와 시부모의 가족 관계는 인습적·사회적 활동인 혼인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리고 그 가족 관계의 매개자는 남성인 아들이다. 이 아들을 통해서 ‘怒’라는 분노를 분출할 권위를 부모와 시부모가 동등하게 가지게 된다. 『예기』 「내칙」에서 부모와 시부모는 아들과 며느리가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선 가르치며, 만약 가르칠 수 없다면 ‘怒’, 즉 분노를 분출한다. 부모와 시부모가 분노를 분출해서도 아들과 며느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아들이면 내쫓고 며느리면 내보내고, 그들의 과오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sup>10)</sup> 군자는 분노를 남에게 분출하지 않지만, 시부모는 교육을 목적으로 며느리에게 분노를 분출할 수 있다. 여성은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怒’를 분출하거나, 시어머니로서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에게 ‘怒’를 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이 며느리라면 ‘怒’를 분출할 수 없다. 『예기』 「내칙」에서 ‘怒’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일 뿐만 아니라, 부모와 시부모가 분출할 수 있는 질책적 분노를 지칭한다. 이 질책적 분노인 ‘怒’를 분출할 권위를 시어머니는 가질 수 있지만, 며느리는 가질 수 없다. ‘怒’를 분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며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인 남성을 매개자로 형성된 가족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군자가 되어야할 사대부의 사대부 가사에서 분노를 직설적으로 분출한 경우는 많지 않다.<sup>11)</sup> 아내이자 며느리인 규방 여성의 규방가사에서도 분노를 직설적으로 분출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 많지 않은 경우에서 분노의 성격은 규방가사 작품마다 달리 나타난다. 규방가사 속 분노의 성격이 질책적 분노인 ‘怒’인지, 애상적 분노인 ‘慍’인지, 걱정적 분노인 ‘憤’인지는 작품마다 다르다. 그리고 그 분노의 성격도 아들이자 남편인 남성을 매개자로 형성된 가족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규방가사 속 분노는 남편이라는 남성에게 대한 인식을 동반하게 된다. 규방가사 속에서 남성 인식은 자신의 옆에 있는 남성 개체인 남편에서 남편의 성적 정체성인 남성성 그 자체로 확장되며, 남편의 지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에 따라서 분노의 성격도 변화한다.

본고는 규방가사 속 분노의 한탄이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고는 규방가사 속 분노의 성격이 어떻게 남성 인식과 맞물리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선행 연구들이 규방가사의 신변탄식 또는 한탄을 분류·정리하였고, 신변탄식 또는 한탄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sup>12)</sup> 본고는 그 선행연구들의 성과들을 참조하면서, 신변탄식 또는 한탄의

9) “子婦孝者敬者父母舅姑之命勿逆勿怠” 『예기』 「내칙」.

10) “子婦未孝未敬勿庸疾怨姑教之若不可教而後怒之不可怒子放婦出而不表禮焉” 『예기』 「내칙」. ; 윗 주석 인용문의 ‘姑’는 시어머니를 가리키지만, 이 인용문의 ‘姑’는 잠간이라는 뜻이다.(“姑縱之者姑且也……姑教之者姑且也” 『예기정의』 「내칙」.) 또한 ‘怒’는 ‘責怒’라는 뜻이다.(“若不可教而後怒之者不可教謂教而不從然後責怒之不可怒者謂雖責怒之而不從命者” 『예기정의』 「내칙」.)

11) 가사명에서부터 ‘憤’을 드러내는 <만분가(萬憤歌)>만 하더라도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를 오가는 다중적 발화를 통해서 연군과 원망이라는 감정을 함께 전달한다는 점에서(최진희, 「<萬憤歌>의 서술 방식 연구 : 일인 화자의 다중적 발화 양상에 관하여」, 『이화어문논집』 28, 이화어문학회, 2010, 156~157 쪽.) 분노만을 직설적으로 분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12) 이재수, 「여자탄식가연구」, 『내방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76. ; 권영철, 『閨房歌詞 : 身邊嘆息類』,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 한정희, 「내방가사연구-자탄류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종순, 「규방가사 신변탄식류에 나타난 담론양상과 지향의식」, 『한성어문학』 21,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2. ;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제25집, 국제어문학회, 2002. ; 양태순, 「규방가사에 나타난 ‘한탄’의 양상」, 『한국 시가연구』 18, 한국시가학회, 2005.

양상뿐만 아니라, 달라지는 분노의 성격과 그에 결부되는 남성 인식까지도 다루어보겠다. 선행 연구가 지적한대로 실상 한탄은 탄식가류뿐만 아니라 계녀가류 · 화전가류 등 규방가사 전반에 폭넓게 나타나기에,<sup>13)</sup> 모든 규방가사들을 한 번에 다루기는 힘들다. 본고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몇몇 규방가사들만 선별해서 다루어보겠다.

또한 본고는 ‘怒’, ‘慍’, ‘憤’이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용하겠다. 규방가사를 향유한 규방 여성들은 『예기』에 바탕한 성리학적 가족 질서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므로 그 규방 여성들의 분노를 가리키는 용어들도 『예기』의 한자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 한자의 뜻에 주목하기보다는, 『예기』의 용례를 통해서 ‘怒’는 질책적 분노를 가리키는 고유명사, ‘慍’은 애상적 분노를 가리키는 고유명사, ‘憤’은 걱정적 분노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전제하고 사용하겠다.

## 2. 애상적 분노인 ‘慍’ : 아내로서 남편을 향한 한탄

규방가사 속 분노의 한탄은 일차적으로는 남편을 향해서 표출된다. 남편은 아내인 여성이 가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일차적인 대상이기에, 그 분노의 한탄도 일차적으로는 남편을 향해서 표출될 수 밖에 없다. 남편을 향해서 한탄을 표출하는 규방가사의 대표작으로는 널리 알려진 <규원가(閨怨歌)>가 있다.

엇그제 저멋더니 ㅎ마 어이 다 늘거니 / 少年行樂 생각ㅎ니 일러도 속절업다 / 늘거야 서른 말씀  
 ㅎ자니 목이 멘다 / 父生 母育 辛苦ㅎ야 이 내 몸 길러 낼 제 / 公侯配匹은 못 바라도 君子好逑  
 願ㅎ더니 / 三生の 怨業이오 月下의 緣分으로 / 長安遊俠 경박자를 꿈근치 만나 잇서 / 當時의 用  
 心ㅎ기 살어름 디디는 듯 <규원가>

<규원가>는 여성 화자가 자신의 젊음이 사라지고 늙게 되었다는 한탄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한탄의 원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있다. <규원가>의 여성 화자는 제후의 아내가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君子好逑’ 즉 군자의 아내가 되리라고는 기대했다. 그런데 이 여성 화자의 남편은 군자가 아니라 거리를 쏘다니는 한량일 뿐이다. 그래서 군자의 아내가 되지 못 한 여성 화자는 가슴 졸이며 살게 된다.

<규원가>의 여성 화자는 남편이 자신을 찾지 않는 원인을 남편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기도 한다.

雪鬢花顏 어디 두고 面目可憎 되거고나 /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귀소냐 / 스스로 慍愧  
 ㅎ니 누구를 怨望ㅎ리 / 三三五五 冶遊圓의 새사람이 나단 말가 <규원가>

젊음의 아름다움을 잃은 여성 화자는 자신을 어떤 남성이 찾겠냐며 한탄한다. 여성 화자는 남편을 책망하지 못 하고, 자신에게로 책임을 돌린다. <규원가>에서 한탄의 방향은 화자 자신을 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규원가>의 여성 화자는 다시금 남편에게로 한탄의 방향을 돌린다.

欄干的 비겨 서서 님 가신 디 바라보니 / 草露는 맺쳐 잇고 暮雲이 지나갈 제 / 竹林 푸른 고디

13) 양태순, 위의 연구, 2005, 244쪽.

새 소리 더욱 설다 / 세상의 서운 사라 수업다 허려니와 / 薄命은 紅顏이야 날 가뜰니 또 이실가 /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허여라 <규원가>

<규원가>의 여성 화자는 남편이 떠난 곳을 바라보고 새 소리를 들으며 남편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여성 화자는 <규원가>의 말미에서 ‘님’인 남편 때문에 운명이 박복한 자신 같은 여성은 없으리라며 한탄한다. <규원가>의 여성 화자는 말미에서 남편에게로 다시 한탄의 방향을 돌리며, 한탄의 진정한 원인과 직면하려 애쓴다.

<규원가>에서 남편은 아내인 화자에게 정을 주지 않고 밖으로 놀러다니는 한량에 불과하다.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규원가>의 서두에서부터 말미까지 그대로 지속되며 변하지 않는다. <규원가>에서 남성은 곧 남편이기에, 여성 화자가 표출한 분노의 한탄도 남편을 향한다. 다만 <규원가>의 여성 화자는 남편을 모든 남성으로 일반화시키지는 않는다. <규원가>의 여성 화자는 남편만을 상대하며, 그래서 남편만을 그리워하는, 슬픔과 원망을 포괄하는 애상적 분노인 ‘懼’을 분출한다.

<규원가>와 가사명이 유사한 <규원탄(閨怨嘆)>은 <규원가>와 주제의식까지도 유사하다. 그 노랫말은 아래와 같다.

紗窓을 半開하고 任계신곳 바라보니 / 万里 長空에 구름조초 愴望하다 / 이니八字 엇지홀고 長嘆  
息 쏜이로다 / 獨宿空房 寡婦인들 나에서 더홀소냐 / 첨아스헤 우는시야 終日哀怨 허지말고 / 任  
계신곳 초조가서 나의소회 傳허려문 / 任못보아 그린想思 病드러다 傳허여라 / 窓을닫고 누어시니  
새는정이 黃昏이라 <규원탄>

<규원가>와 비슷한 장면이 <규원탄>에서 반복된다. <규원탄>의 여성 화자는 <규원가>의 여성 화자와 비슷하게도 남편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새 소리를 들으며 남편을 그리워한다. 다만 <규원탄>의 여성 화자는 <규원가>의 여성 화자보다 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 <규원탄>의 여성 화자는 자신이 ‘想思病’에 걸렸다고 남편에게 전해주기를 새에게 부탁한다. <규원탄>의 솔직한 어조는 다른 대상을 향해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怪異한 저妖物이 남의丈夫 誘惑하니 / 前生에 무슴罪로 몫슬人生 되단말가 / 남의任 아사다가 제  
품안에 길이두니 / 此生에 무슴罪로 몫슬罪를 지엿는가 <규원탄>

<규원가>의 여성 화자가 자신의 미모를 잃게 된 늙음을 탓했다면, <규원탄>의 여성 화자는 자신의 남편을 뺏어간 첩실을 탓한다. <규원탄>의 여성 화자는 거침 없이 첩실을 ‘妖物’이라고 부른다. <규원탄>의 여성 화자는 한탄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지 않는다. <규원탄>의 여성 화자는 한탄의 방향을 첩실에게로 향하게 하며, 남편으로 향하게도 한다.

任은이리 無情헌디 나는어이 有情하고 / 任의마음 날긋하면 그덜헌순 오시련만 / 어디셔 신발소리  
귀에錚錚 들니눈듯 / 이지야 오시는가 반가이 迎接고져 / 顛倒이 나아가셔 前程을 讎혀보니 / 길  
가는 스람들의 지나가는 발자취라 <규원탄>

<규원탄>의 여성 화자는 신발 소리를 듣고 남편이 온 줄 알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행인들의 발자국 소리일 뿐이다. <규원탄>의 여성 화자는 발자국 소리를 착각할 정도로 남편을 그리워하지만, 남편을 원망하기도 한다. <규원탄>의 여성 화자는 ‘任’은 ‘無情’한데, ‘나’는 ‘有

情'하다며, 자신과 남편의 성정을 대비시킨다. 그리고 <규원가>는 자신의 사랑이 고결함을 남편의 무정한 성정과 연관지어 표현한다.

날곳튼 人生이야 쓸디가 쏘숯업다 / 百年을 定혼配匹 남되라고 싱것논가 / 사랑은 니저스나 스람  
쫓츠 니저스라 / 츠말眞情 못니즐것 任의스랑 썬이로다 <규원탄>

<규원탄>의 여성 화자는 남편을 향한 사랑을 '眞情'이라고 표현한다. 남편은 '無情'한데 자신은 '有情'하며, '無情'한 남편을 향한 사랑은 '眞情' 잊지 못 할 사랑이다. <규원탄>의 여성 화자는 남편에게 느낀 분노를 남편에 대한 사랑을 표출하면서 우회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격정적 분노를 <규원탄>에서 찾아보기는 힘들다. <규원탄>의 여성 화자는 남편을 향한 분노를 슬픔과 원망이 섞인 한탄으로 표출할 뿐이다.

<규원탄>에서 남편은 <규원가>에서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돌보지 않는 비가정적인 남성 개체에 불과하다. <규원탄>에서도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변하지 않고 노랫말 내내 지속된다. <규원탄>에서도 여성 화자가 표출한 분노의 한탄은 남편을 향하지만, 모든 남성을 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규원탄>의 여성 화자는 남편만을 향하는, 슬픔과 원망을 포괄하는 애상적 분노인 '慳'을 분출한다.

가사명이 비슷한 <규원가>와 <규원탄> 모두 여성 화자가 아내라는 지위에서, 어떠한 성격의 분노를 품으며, 어떻게 분노의 한탄을 표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규원가>와 <규원탄>에서 여성 화자는 자신을 버린 남편만을 바라보기에, 남편에게 슬픔과 원망을 포괄하는 애상적 분노만을 느낀다. 이 여성 화자의 남성 인식은 남편이라는 남성 개체에게만 머물며, 남편을 넘어서 남성성이라는 성적 정체성까지 확장되지 못 한다. 그래서 여성 화자는 남녀간의 성차별을 자각하지도 못 한다. <규원가>의 여성 화자가 남성과 대등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을 발견했다고 보기에는,<sup>14)</sup> <규원가>의 여성 화자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애상적 분노의 한탄만 표출할 뿐이다.

<규원가>, <규원탄> 외에 남편을 향해서 한탄을 표출하는 가사로 <원부사(怨婦辭)>가 있는데, <원부사>는 <규원가>와 노랫말이 거의 비슷하다.<sup>15)</sup> <규원가>는 『고금가곡(古今歌曲)』에, <규원탄>과 <원부사>는 고대본 『악부(樂府)』에 실려있다. 『고금가곡』이 강원도 일대, 관북지방, 관서지방에서 가창되던 노래들을 반영한 가집이라는 점,<sup>16)</sup> 고대본 『악부』가 풍류를 좋아하는 이용기가 기녀들이 부르던 노래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완성한 책이라는 점<sup>17)</sup> 등을 감안해본다면, <규원가>와 <규원탄>은 남성 청자를 염두에 둔 가사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규원가>와 <규원탄>의 여성 화자들은 모두 남성 청자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하며, 따라서 아내라는 지위에서 남편을 그리워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규원가>와 <규원탄> 모두 여성 화자들은 남편만 바라보며 남편에게 슬픔을 느끼고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남편을 그리워하는 애상적 분노인 '慳'을 분출한다.

한편 규방 여성들 사이에서 전승되던 규방가사들에서 여성 화자는 아내라는 지위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딸이라는 지위까지도 갖추고 있다. 여성 화자가 며느리로서의 지위에 처할 때, 남성 인식도 남편이라는 남성 개체로부터 남성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으로까지 확장된다. 그에 따라서 여성 화자가 표출하는 분노의 한탄도 그 초점을 달리하게 된다.

14) 정길자, 『규방가사의 사적 전개와 여성인식의 변모』, 한국학술정보(주), 2005, 42~44쪽.

15) 강진섭, 「『怨婦辭』에 對하여」, 『한국언어문학』 11, 한국언어문학회, 1973, 201~212쪽.

16) 이상원, 『『고금가곡』의 체제와 성격』,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2011, 705쪽.

17) 손진태, 『校舍 樂府 記』, 김동욱 · 임기중 편, 『교합 악부』, 태학사, 1982.

### 3. 걱정적 분노인 ‘憤’ : 며느리로서 남성성을 향한 한탄

규방가사에서는 시댁 식구에 대한 과감한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sup>18)</sup> 아예 없다고 보기도 힘들다. 규방 여성에게는 아내라는 지위도 있지만, 며느리라는 지위도 있다. 그러므로 규방가사에서 여성 화자는 남편을 원망하는 아내이기도 하지만, 시댁 식구를 원망하는 며느리이기도 하다. 다만 규방 여성이 언제나 일차적으로 대면하는 남성은 남편이라는 점은 중요하다. 규방 여성은 일차적으로 대면하는 남성인 남편을 통해서 남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남성성까지도 파악한다. <여자가라>는 이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어와우리 동유들아 여자가를 들어보소 ..... 건삼연이 남자되고 곤삼연이 여자되고 / 요순우탕 문무주공 공맹안증 정주부자 / 성인군자 되지마난 / 차차로 나실적에 인간문물 갖초와서 / 애의별절 싸 싸놓고 / 삼강오행 인의예지 오천만년 지니도록 / 실존화제 전골풍속 이법을 길이쫘차 / 남자길어 치부하고 여자길어 출가하니 ..... 칠팔세에 비은글을 십오십육 통달하여 <여자가라>

<여자가라>의 여성 화자는 서두에서 남성과 여성이 나서 ‘성인군자’의 예법을 닦지만, 남성은 ‘치부’하고 여성은 ‘출가’한다며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됨을 지적한다. 그 뒤에 ‘칠팔세’에 서부터 여성의 인생과는 다른 남성의 인생을 서술하는데,<sup>19)</sup> 그 남성의 인생은 남편의 인생이기도 하다. <여자가라>의 여성 화자는 남편을 보고서 남성을 논한다.

여자몸이 되고보니 유구무언 말못할새 / 구곡간장 타난불이 속치부만 하자하니 / 스스이 생각하니 그안이 분할손가 / 조다가 꿈에나마 남조한번 되어보면 / 죽었다 다시깨서 남조한번 되어보면 / 가소없다 가소없다 즉금남자 가소롭다 ..... 업눈으로 밍게보고 여조라고 업신여겨 / 속덕속덕 흥을보고 비식비식 웃난모양 / 압시하고 능멸하니 더욱분해 못살겠내 <여자가라>

<여자가라>의 여성 화자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당한 일이 많아 ‘분’하여, 남성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다. <여자가라>의 여성 화자는 바로 자신의 옆에 있는 ‘즉금남자’가 웃기기만 하다고 비판하는데, 그 ‘즉금남자’는 곧 남편이다. 이 남편은 여성 화자를 미워하고 무시해서 여성 화자의 ‘분’을 돋우기만 한다. <여자가라>에서 여성 화자는 남편의 미움 탓에 남편처럼 편안하게 사는 남성이 되고 싶어한다. <여자가라>의 여성 화자는 남편이라는 남성 개체로부터 일반적인 남성성을 추출해낸다. 그리하여 <여자가라>에서는 남편을 향한 한탄이 남성성을 향한 한탄으로 확장되며, 여성 화자는 남녀 간의 성차별을 자각하게 된다.

철드고 쇠든마암 암암스지 생각하니 / 여조된 우리팔조 원통코도 부럽더라 / 우리도 남조려면 의성 김씨 이문중에 / 종조종손 향열짜라 지조지손 이름지여 / 선사당에 지스춤여 새덕사에 출문지임 / 천추만되 지니도록 조손노릇 하올거설 / 친당이름 돌쩌디고 시댁소중 높이알아 / 추풍에 낙엽채로 산지스방 혼터진니 /유정한 우리동유 언재난 만나볼고 <여자가라>

18) 서영숙, 『한국 여성가사 연구』, 삼문인쇄사, 1996, 121쪽.

19)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같은 자리를 해서는 안 되고, 같은 그릇으로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된다. 여덟 살이 되면 문을 출입함과 자리에 앉고 음식을 먹음에 반드시 어른보다 나중에 먹게 하여 사양함을 가르쳐야 한다.(七年男女不同席不共食八年出入門戶及即席飲食必後長者始教之讓)” 『예기』 「내칙」. ; 『예기』 「내칙」에 따라서 남성의 인생이 여성의 인생과는 달라져서이다.

<여자가라>의 여성 화자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서 ‘항열’을 따르지도 못 하고 ‘시덥’만을 행겨야한다. <여자가라>의 여성 화자는 남녀 간의 성차별을 자각한다. 이 여성 화자는 여성이며 며느리이기에 자신의 친구들인 ‘동유’를 만나기도 힘들다. ‘동유’를 만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여자가라>의 여성 화자는 자신의 분노를 분출시킨다.

추석중구 시시째에 춘봉갓이 만나보고 / 혼인잔치 회갑잔치 번개갓이 흐터지고 / 춘삼월 화전째에  
꽃구경도 바뿌더라 / 육칠월 참미때에 석양도 날래더라 / 극분하다 우리동유 스스히 생각하니 / 열  
가지에 한가지도 혼흔세게 못볼러라 <여자가라>

<여자가라>의 여성 화자는 ‘동유’와 자주 어울리지 못 하고, ‘화전’놀이 때에도 꽃을 구경하기에만 바쁠 뿐, 여유롭게 즐기지 못 한다. 여성이라는 성별과 며느리라는 지위는 여성 화자로 하여금 ‘동유’와 무리짓지 못 하게 한다. 당시 화전놀이는 여성들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여성들을 사회에 통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활동이었다.<sup>20)</sup> 그러한 화전놀이에서 즐기기도 힘든 <여자가라>의 여성 화자 입장에서는 걱정적 분노인 ‘憤’을 분출할 만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여자가라>의 여성 화자는 ‘극분’하면서, 걱정적 분노인 ‘憤’을 분출하게 된다.

<여자가라>는 여성 화자가 어떻게 남성 개체인 남편으로부터 일반적인 남성성을 추출하며, 그에 따라서 남편을 향한 한탄을 남성성을 향한 한탄으로 확장시키는지 보여준다. <여자가라>의 여성 화자는 남편에게 분노하면서, 남성성에게까지 분노하게 되며, 그리하여 여성으로 태어난 자신을 한탄하게 된다. <여자가라>의 여성 화자는 애상적 분노인 ‘慍’과는 다른, 걱정적 분노인 ‘憤’에 가까워진다.

<여자가라>와 유사한 규방가사로 <장탄가>가 있다.

어와 남즈들아 여즈를 웃지마소 / 여즈는 무식하니 보비운데 업거니와 / 남즈는 유식하니 그른일이  
이슬손가 / 칠팔세에 글을비와 소연등과 하온후의 / 슈령방빅 흘니사라 부모효양 바러더니 / 어이  
하여 지금남즈 이전일을 모르난고 / 학업을난 고스하고 가사에도 쓸찌업다 <장탄가>

<장탄가>의 여성 화자는 서두에서부터 남성들에게 여성을 비웃지말라고 경고하면서, 남성의 무능력함을 읊는다. <장탄가>의 여성 화자는 남성이 ‘칠팔세’부터 학문을 배우면서도 ‘학업’은 ‘고사’하고 가정일인 ‘가사’에도 ‘쓸찌’가 없다면서 노골적으로 비판한다. <장탄가>의 남성 인생 서술 방식은 <여자가라>와 유사하다. 그런데 이 여성 화자는 마치 모든 남성들의 무능력함을 자신이 지적하고 있는 듯이 서술하지만, 실상 남성 개체일 뿐인 남편의 무능력함을 지적할 뿐이다. <장탄가>의 여성 화자도 <여자가라>의 여성 화자와 마찬가지로 남편을 보고서 남성을 논한다. 즉 <장탄가>에서 남편을 향한 한탄은 남성성을 향한 한탄으로 확장된다. <장탄가>에서 둘 사이에 경계는 없으며, 둘은 뒤섞여있다.

<장탄가>의 여성 화자는 남편과 남성성을 향해서만 한탄할 뿐만 아니라, 사정이 어려운 시덥을 향해서도 한탄을 표출한다.

속곳하나 두엇더니 식모버셔 드러습니 / 혼인신행 싱일잔치 의장을난 고스하고 / 감토업시 어이가  
며 신은어이 벗겼난고 / 혼즈드러 군동재난 어느찌에 보앗시며 / 민밥업서 비듬이오 된밥업서 물밥

20) 장정수, 「화전놀이의 축제적 성격과 여성들의 유대의식」,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169~171쪽.

일시 / 맛만보아 비부른가 디궁밥이 신기업니 ..... 아희찌에 곱던얼굴 시가와서 늘거졌니 ..... 장  
인장모 업는흥을 쪽쪽이 다보다가 / 남조츠로 그리아라 어러이도 흥을내니 / 친정긱별 그리다가 오  
랜만에 종을만나 / 부모동싱 심각하여 눈물니기 고이허리 / 이것저것 달라말은 소소한닷 하거니와  
/ 식가형세 오작하면 친정지물 달나허리 <장탄가>

<장탄가>의 여성 화자는 시집오면서 혼인 행사, 생일잔치는 제쳐두고 끼니때우기도 힘든 시  
댁 사정에 쫓았던 시절의 미모를 잃고 늙어간다. 무능력한 시댁에 지쳐가는 여성 화자는 친정  
식구만을 그리워하며, 친정 식구로부터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자 한다. <장탄가>의 여성 화자  
에게 친정 식구는 자신의 시집살이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다. 그러나 친정 식구  
에게로 되돌아갈 수 없는 <장탄가>의 여성 화자는 계속해서 남편 및 시댁 식구와 충돌하기만  
한다.

저양반의 거동보소 혼조보기 아갑도다 / 빅년동거 헛조하면 마일조키 식울손가 / 서른진정 할데업  
서 그렛잔타 말을하면 / 부절업는 된고함고 쓸데업난 강호령은 / 그른버릇 저른버릇 잘비왔니 못비  
왔니 / 안즌부모 욱비이고 문지가듬 도도오니 / 한말이나 디답하면 분푸리나 하려하고 / 아희도 짜  
듯난듯 그릇도 셔렛난 듯 / 멧희공은 못해던고 계집된 니팔조야 / 아마도 죽어드시 남조흔번 되스  
이다 <장탄가>

<장탄가>에서 남편은 '된고함'과 '강호령'을 일삼는다. 아내인 여성 화자가 남편의 말에 반  
대하면, 남편은 오히려 분노를 분출하며 여성 화자가 분노를 품게끔 만든다. 이렇게 남성인  
남편과 남편의 가족 집단인 시댁 식구에게 분노를 품은 여성 화자는 다시는 아내와 며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남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 여성 화자는 남녀 간의 성차별을 자각하기에, 그  
남녀 간의 성차별에 따라서 자신의 지위를 역전시키기를 원한다.

<장탄가>의 여성 화자는 남편과 남성을 동일시하며, 남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남성성을 추  
출해낸다. 이 여성 화자의 남편은 무능력했고 시댁도 무능력했지만, 친정은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 이 여성 화자는 남편과 시댁, 남성성을 향해서 분노의 한탄을 표출하면서, 격정  
적 분노인 '憤'도 분출하였다.

하지만 <장탄가>의 경우와는 달리 모든 규방 여성들에게 친정 부모가 시집살이의 버팀목이  
지만은 않았다. 시집살이 교육은 친정 부모에 의해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면  
서 친정 부모조차도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여자자탄가(女子自嘆歌)>는 며느리인 여성 화자가 시부모를 봉양해야한다는 가정적 · 사회  
적 의무를 어떻게 친정 부모로부터 주입받고, 그리하여 여성 화자가 그 가정적 · 사회적 의무  
에 어떻게 분노하며 남녀 간의 성차별까지도 자각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장탄가>  
에서 친정 부모가 여성 화자의 버팀목이었다면, <여자자탄가>에서 친정 부모는 여성 화자를  
교육시키는 교육자에 가깝다.

여자유흥 재일이라 여보시요 동기들아 / 여자홀일 심각하니 봉재사 접빈객이 / 교유중이 재일이라  
부모압이 찻흔말씀 / 천만번을 비엿드니 간간이 지년소리 / 틈사이 들리드니 날이가고 달이오니  
..... 우리엄마 헛신물습 시댁이 같지라도 / 번백사를 조심하고 부모흥얼 듯지마라 ..... 사랑흔든  
시부모님 유심하기 살피어라 / 날마다 조심하고 때마다 조심하라 / 아버님 헛신말습 엄히시고 엄히  
시다 / 여자의 빅행실이 참을인자 재일이라 / 구고를 잘섬기며 봉재사 극공하라 ..... 니말을 자시  
듯고 귀다마 들어두라 / 요조숙녀 새로업다 이로쫓차 허나라라 <여자자탄가>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는 여성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다가도, ‘봉재사 접빈객’ 같은 친정 부모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밤을 맞이한다.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는 자신이 시집갈 때를 회상하면서도 ‘시부모님’, ‘구고’를 잘 섬겨서 군자의 짝인 ‘요조속녀’가 되라는 친정 부모의 가르침을 상기한다.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에게 시부모를 봉양하라는 친정 부모의 가르침은 깊이 내면화되어있어서, 유흥을 즐길 때에도 과거를 회상할 때에도 모두 상기된다. 친정 부모의 가르침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반복된다.

삼복지간 더운새이 안니의 땀이속고 / 엄동설훈 친운새이 옥수가 다터진다 / 물결갓흔 새월이라 숨 자식이 번게갓다 / 바람불고 비올새나 눈이오나 달발근디 / 축흐의 안즈노니 고향싱각 간절흐다 / 부모말 듯든흔게 귀이쟁쟁 못이줄다 ..... 해가뜨니 심회사를 정돈흐고 방청이 / 골몰트니 시글흐난 삽쌀개는 사정업시 / 짓난고나 급급히 나가보니 반가워라 / 우리옵바 엇지그리 매정흐고 동기정이 / 이래오니 알쓸이도 그리워라 안부를 / 무른후이 만지통장 바다보니 어머니 / 하서로다 치보고 나 리보니 글시쫓차 / 반가워라 말끗마다 훈게로다 엇지그리 / 다연흐고 ..... 시가흥건 잇드리로 미답 다고 부디마라 <여자자탄가>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는 더위와 추위가 오가는 시집살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친정을 그리워한다. 그런데 이 여성 화자는 친정 부모의 가르침이 내면화되어서 친정을 그리워하면서도 그 ‘훈계’ 즉 가르침을 잊지 못 한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서 이 여성 화자는 시댁으로 찾아온 자신의 오라버니를 반기며 받은 어머니의 편지에서도 시댁의 허물을 덮으라는 가르침을 재차 받게 된다. 이처럼 <여자자탄가>에는 시부모를 봉양하라는 친정 부모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에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는 친정 부모의 가르침에 신물을 느끼게 되며, 그 가르침에 따라서 봉양해야하는 시댁 식구에게도 염증을 느끼게 된다.

부모업난 여자들아 이른흔게 드러바라 오흠다 / 우리여자 남자로 못담이고 여자로 / 대엿으니 극분 흐기 그지업다 싱각사로 / 이들흐다 남이집 짓차로서 우글이리고 / 말뱃쳐라 눈치빠른 맛동서요 개 살구진 시누이라 / 안이서도 눈치보고 거름마다 맵시본다 / 곱게본들 무엇흐며 밍게본들 어찌흐노 <여자자탄가>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는 친정 부모 없는 여성들에게 친정 부모의 이러한 ‘훈계’를 들어 보라고 권유하며, ‘우리여자’가 ‘남자’가 못 되고 ‘여자’가 되어서 ‘극분’하다고 말한다.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는 며느리로서 친정 부모로부터도 끊임 없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남성성을 향해서 남성이 되지 못 한 자신의 처지에 분노하고 한탄한다. 그래서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는 이 ‘훈계’를 조소한다. 시댁 식구들도 이 분노를 품는 데에 한몫 한다. 아니꼬운 ‘맛동서’와 ‘시누이’는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를 미워한다. 시댁 식구도 자신을 미워하니, 이 여성 화자는 시부모를 봉양하라는 친정 부모의 가르침 자체를 회의하게 된다.

오흠다 여자들아 이내말슴 드어봐라 / 제류부디 천타마라 만물중이 귀흐니라 / 남자로 못디이고 여 행된이 급분흐다 / 부모혈륙 타고나서 사람마다 섭섭흐다 ..... 일평싱을 풍풍우우 다격엇니 극분흐고 / 통분흐다 여자유행 극분흐다 <여자자탄가>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는 ‘극분’하고 ‘통분’하며 다시 ‘극분’하다며 <여자가라>와 <장탄

가>의 여성 화자들보다도 더 걱정적으로 분노를 분출한다. 이 분노의 근원은 남녀 간의 성차별에 있다. 같은 ‘부모혈육’이지만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진다. 그 성차별 앞에서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는 차라리 남성이 되기를 원한다.

오흠다 우리여자 후싱이 남자로다 ..... 여보시요 여자들아 잊이마시 잊이마시 / 부모언공 잊지마시  
비와보자 배와보자 / 착훈행실 비와보자 <여자자탄가>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는 남성이 되어서 자신의 지위를 역전시키기를 원한다. 하지만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는 다시 한 번 더 친정 부모의 가르침을 내면화시키자고 말하기도 한다.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는 친정 부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싶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못한다.

<여자자탄가>에서는 남편 대신 친정 부모의 가르침이 여성 화자로 하여금 남녀 간의 성차별을 자각하고 남성성을 향한 한탄을 표출하게 하였다. 그 가르침이 시부모에 의해서 강요되는 않았기에,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는 남성성까지도 한탄하면서 걱정적 분노인 ‘憤’을 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가 처한 처지는 <팔부답가(八婦答歌)>의 여성 화자가 처한 처지와는 다르다. <팔부답가>는 <팔부가(八婦歌)>의 화답가인데, <팔부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르는 규방가사이다. <팔부가>의 여성 화자인 시어머니는 자신의 며느리를 비롯한 다른 며느리들에게 시부모를 봉양하라고 일러준다.<sup>21)</sup> 친정 부모의 가르침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 며느리인 <팔부답가>의 여성 화자들은 시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친정 부모도 일러줬다고 말한다.<sup>22)</sup> 질책적 분노인 ‘怒’를 분출할 수 있는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인 여성 화자는 자신의 분노를 분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팔부답가>의 여성 화자는 표면상으로는 시어머니 애찬만 늘어놓게 된다.<sup>23)</sup> 이처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직접 친정 부모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상기하도록 강요한다면, 그 며느리는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에게 친정 부모가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상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고, 그리하여 이 여성 화자는 남녀 간의 성차별을 자각하고 걱정적 분노인 ‘憤’을 분출할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즉 질책적 분노인 ‘怒’와 걱정적 분노인 ‘憤’은 공존할 수 없다. <여자가라>, <장탄가>,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들은 모두 질책적 분노인 ‘怒’에 제약받지 않았고, 따라서 자유로이 걱정적 분노인 ‘憤’을 분출할 수 있었다. 비록 자세한 양상은 달랐을지라도 <여자가라>, <장탄가>, <여자자탄가>의 여성 화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며느리로서 시집살이를 겪으면서, 남녀 간의 성차별을 자각하고, 남편을 넘어서 남성성을 향해서 한탄을 표출했다. 그러나 <팔부답가>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질책적 분노인 ‘怒’가 분출될 가능성만으로도 한탄이 표출될 가능성은 차단된다. 질책적 분노인 ‘怒’는 애상적 분노인 ‘慟’과 걱정적 분노인 ‘憤’과는 달

21) “또훈말습 후올지니 여러신인 니말뎡소 / 부인니 후올이리 허다이도 만을시고 / 시부모도 니일ियो 봉지수도 니일ियो / 적빈직도 니일ियो 지친화목 니일ियो/ 어비복도 니이리오 / 치산등절 니일이라” <팔부가>

22) “귀후시고 사랑후스 팔부가 지어시니 / 도로혀 무한후고 황송키 그지업니 ..... 부모님니 거동보소 손잡고 후신 말습 / 잘하여라 잘하여라 시집소리 줄후여라 / 구고봉양 니일ियो 봉지수도 너일ियो / 적빈직도 너이리오 침선방적 너일ियो / 어비복도 너이리요 무의군스 너후여라” <팔부답가>

23) “하히 갖후 우리 시모 주이도 그지업니 ..... 다정후신 우리 시모 주이롭기 그지업니 ..... 사랑이야 우리 시모 사랑이야 ..... 거룩후신 우리 시모 후히갖후 은덕이야 ..... 인간이 주부 사랑 시모받기 또 인난가” <팔부답가>

리 한탄과 결부되기보다는, 한탄을 금지시킨다. 그 질책적 분노인 ‘怒’는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통해서 교육된다.

#### 4. 질책적 분노인 ‘怒’ : 가르침에 의해서 금지되는 한탄

계녀가류 규방가사는 친정 부모가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짓는 경우가 많다.<sup>24)</sup> 그 계녀가류 규방가사 중 전형을 갖춘 규방가사로 권영철이 교합한 <계녀가(誠女歌)>가 있다.<sup>25)</sup> 이 <계녀가>에는 시부모를 봉양하라는 친정 부모의 가르침도 담겨있다.

식부모의 사관홀제 쇼세를 일즉하고 ..... 부모님 우중커든 업드려 감슈하고 / 아모리 올흐나마 발명을 밧비마라 / 발명을 밧비하면 도분만 나느니라 / 안식을 보아가며 노기가 풀리거든 / 조용히 나아안자 차례로 발명하면 / 부모님네 우스시고 용서를 하시리라 ..... 구고님 우중커던 황송히 감슈하고 / 가장이 꾸짓커던 우스며 디답하라 / 웃으며 디답하면 공경이 부족하나 / 부부간 인정이야 화순밧긔 업논이라 <계녀가>

이 <계녀가>의 노랫말은 새로운 창작물이 아니다. 『예기』 「내칙」은 부모의 ‘怒’ 즉 질책적 분노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며,<sup>26)</sup> 송시열의 『계녀서』는 시부모와 남편의 꾸중을 듣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친다.<sup>27)</sup> <계녀가>는 『예기』 「내칙」과 송시열의 『계녀서』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사의 노랫말로 바꾸어놓았다.

<계녀가>의 화자인 친정 부모는 누가 질책적 분노인 ‘怒’를 분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계녀가>에서의 여성은 딸이라는 지위, 며느리라는 지위, 아내라는 지위를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딸로서 친정 부모에게, 며느리로서 시부모에게, 아내로서 남편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에 따라서 여성은 친정 부모, 시부모, 남편으로부터 ‘우중’ 즉 질책적 분노인 ‘怒’를 접하게 된다. 질책적 분노인 ‘怒’는 한탄하지 않는 분노이다. 질책적 분노인 ‘怒’는 한탄의 형태가 아니라, ‘우중’ 즉 가르침의 형태로 분출된다. 그에 따라서 다른 분노의 한탄은 금지된다. 여성은 질책적 분노인 ‘怒’를 접하면, 분노를 품어서도 안 되고 한탄해서도 안 된다. 가르침을 주는 자가 친정 부모든지, 시부모든지, 남편이든지 간에 며느리이자 아내가 될 딸인 여성은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한다. 그 순종의 방식이 친정 부모에게는 ‘노기’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서 변명한 뒤에 ‘용서’를 받는든지, 시부모에게는 ‘황송히 감슈’한다든지, 남편에게는 ‘우스며’ 호응한다든지 식으로 다를 뿐, 순종해야한다는 결론은 똑같다.

<계녀가>의 화자인 친정 부모는 딸의 남편을 ‘가장’이라고 지칭한다. 딸과 부모의 가족 관계는 자연적 출생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시부모와 며느리의 가족 관계는 인습적 · 사회적 활동인 혼인에 의해서 형성되기에, 그 가족 관계의 매개자인 남편의 지위는 중요시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화자인 친정 부모가 남편과 시부모에 질책적 분노인 ‘怒’를 분출할 수 있는 권위를

24) 최연,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구』, 학교방, 2016, 3쪽.

25)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176~177쪽.

26) “부모가 분노하여 기뻐하지 않으면, 매질을 당해 피가 흘러도 감히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공경하고 효도한다.(父母怒不說而撻之流血不敢疾怨起敬起孝)” 『예기』 「내칙」.

27) “식부모와 지아비 혹 그릇 아르고 우중하시거든 잔말하여 어지러이 발명말고 잠잠 잇다가 오린 후의 종용이 그러치아닌연고로 흐거나 쫘시 아니 살와도 아라실 날이 자연 잇스니 부디 당하여 불사이 발명말고” 송시열, 『계녀서』, 정음사, 1986, 201~202쪽.

부여하는 규방가사로 <계녀가>만 있는 게 아니다. 아래는 그 다른 규방가사들이다.

식부모를 효성하면 횡당사람 칭찬이라 / 어스럽세벽 문안하고 음식등절 공경하고 / 낮빛출 화순하고 지성으로 봉양하리 / 한거름도 조심하고 두거름도 조심하라 / 귀먹어 삼년이오 병어리 삼년이라 / 집집마당 견문알고 어른에게 법을바다 / 무삼일을 당하와도 꾸중날가 들어하소 / 꾸중후에 발명하면 어른긔기 수다하니 / 친정부모 무삼일노 짚보내고 옥먹으리 <행실교훈기(行實敎訓歌)>

시부모로 말을하면 구로지은 업다하나 / 여필종부 허난법이 소중은 더하니라 / 역시의 닷난되로 마음이 극진토록 / 낮빛을 온화하게 소리를 유순하게 / 시시로 문안하고 화온을 슬피여 / 시방이 출처안케 시중치 안이시기 / 빅날이 흐로갓치 어김이 업설지라 / 못난말슴 잇습거든 지체업시 디답고 / 씨기난일 게시거든 민첩하기 행하여라 / 스랑이 기픈스록 조심을 더욱하여 / 감스흠을 잊지말고 방심하지 말지어다 / 조흔일 잇드리도 소리나기 웃지말고 / 꾸중이 게시거든 화정무지 흘뿐이오 <여아(女兒)슬퍼라>

<행실교훈기라>의 화자인 친정 부모는 딸에게 시부모를 봉양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친정 부모는 ‘식부모’를 잘 모시면 사람들이 칭찬하리라고 이르며, 어르신들의 ‘꾸중’ 즉 질책적 분노인 ‘怒’를 접해도 그 분노가 다 끝난 다음에 변명하면 칭찬받으니 자신도 욕설을 받을 일이 없으리라고 딸에게 설명한다. 이 방법은 이미 <계녀가>에서 친정 부모에게 ‘용서’를 받는 방법으로서 언급되었다.

<여아슬퍼라>의 화자인 친정 부모는 딸이 시부모를 봉양할 때에도 항상 조심하라고 이르며, 시부모에게 ‘꾸중’ 즉 질책적 분노인 ‘怒’가 가르침의 형태로 분출되어도 가만히 따르라고 가르친다. 특히 이 친정 부모는 시부모는 ‘구로지은’ 즉 길러준 은혜는 없지만, ‘여필종부’ 즉 여성은 남편을 따라야하기에 시부모를 잘 모셔야한다고 설명한다. <여아슬퍼라>의 친정 부모는 시부모가 질책적 분노인 ‘怒’를 분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남편의 혼인에 있음을 지적한 셈이다.

남편의 혼인에 의해서 시부모의 분노도 감당할 이유가 생기기에, <행실교훈기라>와 <여아슬퍼라>는 <계녀가>처럼 남편의 지위를 중요시한다.

그가장은 하늘이라 한말인듯 이길소나 / 천상월노 매진연분 절발부부 되었스니 / 빅년기약 하합하와 부부유별 드러보소 / 요조숙녀 군자호구 금시상에 밋밋치고 <행실교훈기라>

가중은 하늘이라 / 하늘가치 높은이라 월노가약 미진연분 / 부모가 정훈비필 육예로 서로만나 / 빅연을 회로하여 여즈에 일싱고락 / 즁강이기 달연나니 아무썩록 화순하여 / 속야무연 하였스라 <여아슬퍼라>

<행실교훈기라>와 <여아슬퍼라>의 화자인 친정 부모는 딸이 남편과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남편인 ‘가장’을 하늘이라고 지칭한다. 이 남성 인식은 앞서서 살펴본 남성 인식과는 궤를 달리한다. <규원가>, <규원탄>에서 남편은 비가정적인 남성 개체에 불과했고, <여자가라>, <장탄가>, <여자자탄가>에서 남편은 일반적인 남성의 대표로서, 비판되어야 할 남성성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계녀가류 규방가사에서 남편은 하늘이기에, 그 남편에게는 아내인 딸은 남편에게 분노의 한탄을 표출할 수 없게 된다. 하늘 같은 남편에게 분노의 한탄을 표출하는 일은 ‘금시상’에 몇몇 있지 않은 ‘요조숙녀 군자호구’가 할 일이 아니다. 남성 인식이 변함에 따라서, 규방 여성들에게 분노의 한탄은 금지된다.

<계녀가>, <행실교훈기라>, <여아슬퍼라>에서 화자인 친정 부모는 딸인 규방 여성들에게 시부모와 남편의 꾸중과 가르침 즉 질책적 분노인 ‘怒’의 분출에 순종하라고 교육시켰다. 어쩌면 계녀가류 규방가사 자체가 꾸중이자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질책적 분노인 ‘怒’의 분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계녀가류 규방가사에서는 한탄을 찾아보기 힘들다. 질책적 분노인 ‘怒’가 한탄을 모두 금지시켜버려서이다.

## 5. 결론

본고는 규방가사 속 분노의 한탄을 위에서 설명한 분노의 삼분법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먼저 <규원가>, <규원탄>은 남편을 원망하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한탄들을 드러내었기에 애상적 분노인 ‘懼’에 가깝다고 보았다. 그 다음으로 <여자가라>, <장탄가>, <여자자탄가>는 일반적인 남성성을 비판하며 남녀 간의 성차별을 자각하는 한탄을 드러내었기에 걱정적 분노인 ‘憤’에 가깝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계녀가>, <행실교훈기라>, <여아슬퍼라>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질책적 분노인 ‘怒’를 표출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주고, 여성의 한탄을 금지시킨다는 점에서 질책적 분노인 ‘怒’에 가깝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본고는 규방가사 속 분노도 성격에 따라서 분출되는 양상이 다르며, 그 양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규방가사 속 분노의 한탄이 유사해보이지만, 실상 서로 다른 성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던 셈이다.

본고는 『예기』를 통해서 분노를 가리키는 한자어 ‘怒’, ‘懼’, ‘憤’의 의미를 분석했고, 그에 따라서 질책적 분노인 ‘怒’, 애상적 분노인 ‘懼’, 걱정적 분노인 ‘憤’으로 분노를 삼분했다. 확실히 이 분노의 삼분법을 규방가사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무리인지도 모른다. 규방가사는 한자어를 쓰기는 하지만, 한문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자어들의 의미들이 국문으로 쓰인 노랫말과 정확하게 대응하지는 않아서이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자 ‘怒’, ‘懼’, ‘憤’을 고유명사로 보기도 했지만, 성공적인 시도였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본고의 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怒’, ‘懼’, ‘憤’라는 한자어로 분노의 의미를 삼분한 시도가 얼마만큼 한문학에서도 유효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시에 이 분노의 삼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적용시킬 수 없는지 간에 그에 맞는 나름의 학술적 의의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학술적 시도는 분명 과거 사람들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분출해왔는지를 문화사적으로 재조망할 수 있게 해주리라 생각한다. 본고가 이러한 학술적 시도를 위한 예비작업이 될 수 있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자료

『논어』

『시경』

『예기정의』

『예기』

『조선왕조실록』

『후한서』

임기중,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홈페이지(<http://www.krpia.co.kr/>)

### 2. 단행본 및 논문

권영철, 『閨房歌詞 : 身邊嘆息類』,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박경주,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백순철, 『규방가사의 전통성과 근대성』,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서영숙, 『한국 여성가사 연구』, 삼문인쇄사, 1996.

송시열, 『계녀서』, 정음사, 1986.

정길자, 『규방가사의 사적 전개와 여성의식의 변모』, 한국학술정보(주), 2005.

최연,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구』, 학교방, 2016.

강전섭, 「『怨婦辭』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11, 한국언어문학회, 1973.

김종순, 「규방가사 신변탄식류에 나타난 담론양상과 지향의식」, 『한성어문학』 21,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2.

손진태, 「校舍樂府記」, 김동욱·임기중 편, 『교합 악부』, 태학사.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제25집, 국제어문학회, 2002.

양태순, 「규방가사에 나타난 ‘한탄’의 양상」, 『한국 시가연구』 18, 한국시가학회, 2005.

이상원, 「『고금가곡』의 체제와 성격」,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2011.

이재수, 「여자탄식가연구」, 『내방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76.

장정수, 「화전놀이의 축제적 성격과 여성들의 유대의식」,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최진희, 「〈萬憤歌〉의 서술 방식 연구 : 일인 화자의 다중적 발화 양상에 관하여」, 『이화어문논집』 28, 이화어문학회, 2010.

한정희, 「내방가사연구-자탄류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2.

## 「규방가사 속 분노의 한탄과 남성 인식」에 대한 토론문

조 은 별 (고려대)

이민규 선생님의 발표문은 ‘怒’, ‘慍’, ‘憤’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분노의 여러 양상을 규정 한 후, 규방가사에 나타난 분노의 여러 양상이 여성의 남성 인식과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세밀 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하여 <규원가>, <규원탄>, <여자가라>, <장탄가>, <여자자탄가>, <계 녀가>, <행실교훈기라>, <여아슬퍼라> 등 여러 편의 가사 작품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애 상적 분노인 ‘慍’의 경우 아내로서 남편을 향한 한탄으로, 격정적 분노인 ‘憤’의 경우 며느리 로서 남성성을 향한 한탄으로, 질책적 분노인 ‘怒’의 경우 가르침에 의해서 금지되는 한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은 규방가사 내 여성 화자들이 표출하고자 했던 복잡다단한 감정들을 신변 탄식 혹은 한탄이라는 단어로만 읽어왔던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그 감정들의 다양한 결을 꼼꼼하게 읽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논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아래 적은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는 慍, 憤, 怒의 개념을 경서, 특히 『예기』에서의 용례를 중심으로 각각 ‘애상 적 분노’, ‘격정적 분노’, ‘질책적 분노’ 등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 규정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토론자가 과문한 탓이겠으나, 이 세 단어가 전근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특히 조선조에서 『예기』에서의 의미만을 가지고 사용 되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예기』가 성리학적 가족 질서의 근간이 되었으며, 조선조 여성 들이 이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좀 더 설득력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예기』에서의 용례 외에 이 세 단어가 조선조에 고유명사로서 실제로 사용된 예가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1의 문제를 차치한다면 치더라도, 규방가사를 읽는 데 위의 세 개념이 얼마나 유효할지 의문이 듭니다. 규방가사의 작자들이 위의 개념들을 전제한 채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라면, 굳이 저 세 개념을 통해 규방가사에 형상화 되고 있는 분노의 여러 양상들을 살필 필 요가 있을는지요. 이들 개념이 없이도 규방가사에 형상화되고 있는 다단한 감정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발표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분노의 한탄’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듯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분노’는 ‘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 또는 그렇게 내는 성.’, ‘한탄’은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 또는 그 한숨.’을 의미 합니다. 이렇듯 두 단어 모두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에 뒤따르는 특정 행위를 동시에 지 칭하는 단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한 단어가 다른 한 단어에 종속된 식으로 사용 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닐는지요.

4. 3과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발표문에서 ‘慍’과 ‘憤’이 드러나는 예로 제시한 작품들에서 화자가 드러내고 있는 감정들은, 저에게는 분노보다는 한탄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

로 보입니다. 그리고 ‘怒’에 대해 서술한 4장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의 경우 역시, 분노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친정 부모와 시부모의 ‘꾸중’이라는 행위에 권위를 부여할 뿐, 분노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들 규방가사들을 읽을 필요가 있을는지요.

5. 선생님께서는 여러 양상의 분노가 남성성에 대한, 조금씩 다른 인식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3장에서 ‘격정적 분노’인 ‘憤’이 드러나는 예로 제시한 작품들의 경우, 며느리로서 남성성에 대한 한탄이 드러났다고 보기보다는 가부장제에 대한 한탄이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6. 규방가사는 가사의 여타 하위 갈래에 비해 특히 많은 수의 작품이 현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몇몇 규방가사들만 선별해서’(발표문 2면) 다루겠다고 하셨는데, 술한 규방가사들 중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선정하신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단어 형성론 관련 전문용어의 사전 뜻풀이에 대한 관전

- 《표준국어대사전》·《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연세 현대 한국어사전》을 중심으로 -

오 규 환 (동덕여대)

### <목차>

1. 머리말
2. ‘단어의 분류’ 관련 전문용어 뜻풀이의 비판적 검토
3. ‘단어의 형성’ 관련 전문용어 뜻풀이의 비판적 검토
4. 맺음말

### 1. 머리말

‘기술 문법’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한국어학자들이라면 ‘단어 형성론’의 기본 개념들을 숙지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당장 최근의 논의만 하더라도 이선웅(2012)가 있으며, 전문용어 사전인 한글학회 편(1995)와 남기심·고영근(1993), 이익섭·채완(1999), 구분관 외(2016) 등을 위시로 한 여러 한국어학 개론서에서도 단어 형성론 관련 전문용어의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한국어 형태론 개론서인 최형용(2016)에서도 우리의 관심 대상에 대한 치밀한 고찰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 익숙한 일반 언중들이 단어 형성론의 기본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 그 뜻을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전’을<sup>2)</sup> 참조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일반 언중들이 ‘사전’을 통하여 단어 형성론의 전문용어가 가리키는 바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사전의 뜻풀이가 ‘제대로’<sup>3)</sup> 이루어져 있어야만 한다.<sup>4)</sup> 다음의 <표 1>은 이 글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한국어 대사전》,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 등에서 제시한 ‘합성어’, ‘파생어’, ‘복합어’의 뜻풀이만을 정리하여 보인 것이다.<sup>5)</sup>

1) 이 글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은 모두 이선웅(2012)의 정의를 따른다. 즉 ‘기술 문법’은 ‘규범 문법’이 전제되지 않은 문법이요, ‘학교 문법’은 ‘규범 문법’을 전제된 문법이 되는 셈이다.

2) 이때의 사전은 ‘종이 사전’이 아니라 ‘웹 사전’이다. 최형용(2017: 162, 각주 1번)에 따르면 종이 사전은 그 개정이 쉽지 않지만, 웹 사전은 종이 사전보다는 개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 글에서 웹 사전을 참고하는 것은 단어 형성론의 전문용어들의 뜻풀이를 보완할 때에 이 글의 성과가 반영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3) 후술하겠지만,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자 미리 언급하자면, ‘제대로’는 ‘옳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전 내에서 모순이 없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4) 홍중선 외(2009: 111)는 《표준》의 등재어의 40% 정도가 ‘전문어(=전문용어)’인데 이 전문어들이 해당 전문 분야의 학술 용어의 전체도 아니며 분야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되지 않았으므로 전문어 등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이후의 논의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각각 《표준》, 《연세》, 《고려》로 줄여 부르고 이들을 아우를 때에는 ‘세 사전’이라는 표현을 쓸 것이다. 그리고 논의 전개에 큰 지장이 없다면 뜻풀이만 제시할 것이다.

표 1. 《표준》, 《연세》, 《고려》에서의 ‘합성어’, ‘파생어’, ‘복합어’ 뜻풀이

합성어	《표준》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집안’, ‘돌다리’ 따위이다.
	《고려》	두 개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모여 새로운 뜻을 가진 한 단어가 된 말. ‘집안’, ‘병마개’, ‘맛있다’ 등이 있다.
	《연세》	둘 이상의 낱말이 모여 만든 하나의 낱말.
파생어	《표준》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명사 ‘부채’에 접미사 ‘-질’이 붙은 ‘부채질’, 동사 어간 ‘덜-’에 접미사 ‘-개’가 붙은 ‘덜개’, 명사 ‘버선’ 앞에 접두사 ‘덜-’이 붙은 ‘덜버선’ 따위가 있다.
	《고려》	단어의 어근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생긴 단어. 어근에 접두사 또는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진다. 명사 ‘신’에 접두사 ‘덜-’이 붙은 ‘덜신’이나 명사 ‘선생’에 접미사 ‘-님’이 붙은 ‘선생님’ 따위의 단어들이 있다.
	《연세》	.
복합어	《표준》	하나의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붙거나 두 개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된 말. ‘덧신’, ‘떡이’와 같은 파생어와, ‘집안’, ‘공부방’과 같은 합성어로 나뉜다.
	《고려》	단어 구성 형태의 한 가지. 짜임새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인 말로, 형성 방식에 따라 실질 형태소 ‘신’에 형식 형태소 ‘덜-’이 붙은 ‘덜신’과 같은 파생어와 두 개의 실질 형태소 ‘짚’과 ‘신’이 어울려 이루어진 ‘짚신’과 같은 합성어가 있다.
	《연세》	(합성어나 파생어와 같이)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

위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전들마다 ‘합성어’, ‘파생어’, ‘복합어’를 다르게 뜻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동일한 전문용어를 사전마다 달리 정의하는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개별 사전의 뜻풀이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사전 안에서 일관되게 전문용어의 뜻풀이를 제시하기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풀이에 제시된 전문용어가 해당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든지, 서로 관련된 표제항들에서 모순된 뜻풀이를 제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연세》는 ‘파생어’가 미등재어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연세》의 표제어 선정 기준 중 하나는 중·고교 공통 교과 과정에서 출현하는 어휘는 그 출현 빈도가 높지 않더라도 표제어로 선정한다는 것이다(김선혜 2013). 하지만 ‘파생어’는 중·고교 공통 교과 과정에서 출현하지만 《연세》의 표제어가 아니다. 물론 교과서에 실려 있더라도 용례가 많이 발견되지 않는 어휘의 경우는 삭제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파생어’의 용례가 많이 발견되지 않는지, ‘복합어’와 ‘합성어’는 사전에 등재하였지만 유독 ‘파생어’만 등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한편 《고려》는 또 다른 유형의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고려》에서는 ‘파생어’의 뜻풀이에 ‘접미사’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복합어’의 뜻풀이에는 ‘형식 형태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고려》는 ‘형식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에 붙어 말과 말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 조사, 어미가 이에 해당한다.] 정도로 뜻풀이하고 있다. 즉 《고려》의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면 ‘접사’는 ‘형식 형태소’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바, 결국 ‘파생어’가 ‘복합어’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파생어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한 단어가 아니라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세 사전에 등재된 단어 형성론의 전문용어의 뜻풀이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여야 할지를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전술하였듯이 우리의 논의를 통하여 세 사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할 수 있다면, 언

어학 전공자가 아닌 다른 이들도 사전을 통하여 단어 형성론의 전문용어가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전문용어를 사전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단어 형성론 관련 전문용어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단어 형성론 관련 전문용어

단어의 분류		단어,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복합어
단어의 형성	단위	형태소, 접사, 접두사, 접미사, 단어
	과정	합성(법), 파생(법)

이 글에서 이와 같은 전문용어들만을 다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표 2>에 제시된 전문용어들은 기술 문법에서 단어 형성론을 전개할 때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sup>6)</sup> 국립국어연구원(2003: 61-62)은 기술 문법서들에서 등장하는 ‘단어 형성’ 관련 전문용어를 총 275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적어도 위의 <표 2>에 제시한 전문용어들은 연구자들마다 독창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sup>7)</sup>

둘째, <표 2>에 제시된 전문용어는 중·고교 교과 과정에서도 언급되는 전문용어, 즉 학교 문법에서도 필수적으로 제시되는 전문용어이기 때문이다. 즉 위의 표에 제시한 전문용어들은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에서 모두 언급되는바, 여타의 전문용어들보다 먼저 그 뜻풀이를 검토하여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우리는 <표 2>에 제시된 전문용어의 뜻풀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 2. ‘단어의 분류’ 관련 전문용어 뜻풀이의 비판적 검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단어’라는 전문용어와 관련된 문제 하나를 간략히 언급 하도록 하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단어’에 대한 부동(不動)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사전 편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든 ‘단어’라는 단어를 정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때의 ‘단어’가 무엇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전 편찬의 관점에서라면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사전 편찬의 관점에서는 해당 사전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고려하여 ‘단어’라는 단어의 뜻풀이를 정합적으로 제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문법 기술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어휘부 모형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이선웅 2012). 예컨대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이해하든, 조사만을 단어로 이해하든, 조사와 어미 모두를 단어로 이해하지 않든지 간에 ‘단어’라는 단어의 뜻풀이만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 우리는 ‘단어’라는 단어의 뜻을 해당 사전에서 풀이한 뜻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6) ‘사전’은 어떻게든 ‘규범’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이 학교 문법의 체계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7) ‘어간’을 ‘가지’로, ‘품사 전성’을 ‘몸바꿈’ 정도로 가리키는 것은 거의 동일한 현상을 다른 용어로 부른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우리의 관심 밖에 있다.

표 3. 세 사전에서의 ‘단어’의 뜻풀이

단어	《표준》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철수가 영희의 일기를 읽은 것 같다.”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철수’, ‘영희’, ‘일기 <sup>12)</sup> ’, ‘읽은’, ‘같다’와 조사 ‘가 <sup>11)</sup> ’, ‘의 <sup>10)</sup> ’, ‘를’, 의존 명사 ‘것’ 따위이다.
	《고려》	자립성(自立性)과 분리성(分離性)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 최소한 1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뜻을 가진다. ‘학교에 간다.’에서 ‘학교’, ‘에’, ‘간다’ 따위이다.
	《연세》	일정한 뜻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문장을 이루는 낱말의 단위.

위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사전 모두 ‘단어’는 ‘자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때의 ‘단어’는 학교 문법의 단어와 동일한 개념이며, 기술 문법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음운론적 단어’<sup>8)</sup>에 가까운 개념인 셈이 된다.

그런데 ‘단어’를 이와 같이 정의하면 《고려》와 《연세》의 뜻풀이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조사는 ‘자립성’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하나의 음운론적 단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와 《연세》는 《표준》과 같이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표준》의 뜻풀이에도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 《표준》은 ‘단어’의 뜻풀이에 ‘문법적 기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문법적 기능’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의 (1)은 ‘문법적 기능’이 뜻풀이에 제시된, 《표준》의 ‘교착어’, ‘형식어’라는 표제어를 보인 것이다.<sup>9)</sup>

(2) ㄱ. 《표준》의 ‘교착어’

<언어> 언어의 형태적 유형의 하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로, 한국어·터키어·일본어·핀란드어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ㄴ. 《표준》의 ‘형식어’

<언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의 보조로서, 오로지 추상적인 관계나 문법적 기능만을 나타내는 말. 조사·보조 동사 따위가 있으며, 형식 명사를 말하기도 한다.

(2)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표준》의 ‘문법적 기능’은 명사구에 조사가 결합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사구나 형용사구에 어미가 결합하거나 보조 동사 구성이 결합하는 것까지도 가리키는 표현이다. 물론 사전 내부의 정합성만 따진다면 ‘교착어’나 ‘형식어’의 뜻풀이만 수정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어미도 ‘문법적 기능’을 표현하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뜻풀이를 수정하는 것도 어찌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10)</sup>

8) 음운론적 단어는 Di Scullo & Williams(1987), Dixon & Aikhenvald(2010), 최형용(2013, 2016) 등에서 그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9) 이 글의 밑줄은 모두 필자가 친 것이다.

10)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되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절충적 체계를 취하고 있다. 최형용(2016)에서는 ‘어미’도 단어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도 최형용(2016)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표준》은 뜻풀이에 ‘실질 형태소’라는 전문용어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단어’를 ‘문법적 기능과 실질 의미를 가진 최소의 자립적 단위’로 정의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 의미’라는 표현을 뜻풀이에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편이 더 나은 것이다.<sup>11)</sup>

이제 관심을 돌려 ‘합성어’, ‘파생어’, ‘복합어’의 뜻풀이를 검토하여 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살펴볼 전문용어는 바로 ‘합성어’이다. 편의상 서론에 제시한 내용을 간추려 다음의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세 사전에서의 ‘합성어’의 뜻풀이

합성어	《표준》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집안’, ‘돌다리’ 따위이다.
	《고려》	두 개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모여 새로운 뜻을 가진 한 단어가 된 말. ‘집안’, ‘병마개’, ‘맞았다’ 등이 있다.
	《연세》	둘 이상의 낱말이 모여 만든 하나의 낱말.

합성어를 정의하기 위하여 《표준》과 《고려》는 ‘실질 형태소’라는 개념을, 《연세》는 ‘낱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 용어들의 뜻풀이를 해당 사전에서 찾아 보면 다음의 (2)와 같다.

(2) 가. 《표준》의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철수’, ‘책’, ‘읽’ 따위이다.

나. 《고려》의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와 같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예를 들어 ‘고래는 물을 뿜었다’에서 ‘고래’, ‘물’, ‘뿜’이 이에 해당한다.

다. 《연세》의 ‘낱말’

일정한 뜻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문장이나 이야기를 이루는 낱말의 뜻의 단위.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연세》의 뜻풀이이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연세》에서 풀이하고 있는 ‘낱말’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조사’와 ‘어미’는 ‘낱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연세》의 뜻풀이는 어찌 보면 ‘합성어’를 설명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준》과 《고려》의 뜻풀이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합성어를 이루는 요소들의 의미에서는 짐작할 수 없는 ‘새로운 뜻’이 합성어에서 반드시 관찰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와 얽혀 있다. 《고려》에서는 합성어의 뜻풀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병마개’와 ‘마개’라는 단어를 제시하였다.

11) 남길임(2008)에서는 《표준》의 전문용어 뜻풀이는 일반인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전문가에게는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표준》에서 ‘실질 의미’라는 표현을 누락한 것은 남길임(2008)의 지적과 동케의 것이라 할 것이다.

(3) 《고려》의 ‘병마개’와 ‘마개’

ㄱ. 병마개: 입구가 비교적 좁은 병(瓶)의 아가리나 구멍 등에 끼워 막는 물건.

ㄴ. 마개: 입구가 비교적 좁은 용기의 아가리나 구멍 등에 끼워 막는 물건

하지만 위의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병마개’의 의미는 ‘병’과 ‘마개’라는 실질 형태소의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고려》의 ‘합성어’는 새로운 예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뜻’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sup>12)</sup>

두 번째로 살펴볼 항목은 ‘파생어’이다. 《연세》에는 ‘파생어’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표준》과 《고려》만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표 5. 《표준》과 《고려》에서의 ‘파생어’의 뜻풀이

파생어	《표준》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명사 ‘부채’에 접미사 ‘-질’이 붙은 ‘부채질’, 동사 어간 ‘뒹-’에 접미사 ‘-개’가 붙은 ‘뒹개’, 명사 ‘버선’ 앞에 접두사 ‘뒹-’이 붙은 ‘뒹버선’ 따위가 있다.
	《고려》	단어의 어근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생긴 단어. 어근에 접두사 또는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진다. 명사 ‘신’에 접두사 ‘뒹-’이 붙은 ‘뒹신’이나 명사 ‘선생’에 접미사 ‘-님’이 붙은 ‘선생님’ 따위의 단어들이다.

파생어를 정의하기 위하여 《표준》과 《고려》는 ‘어근’, ‘접사’, ‘접두사’, ‘접미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은 파생어를 ‘어간’과 ‘접사’, ‘명사’와 ‘접사’의 결합으로 이해하였지만 《고려》는 파생어를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해하였다는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표준》과 《고려》의 정의를 따를 때, ‘개도독놈의갈고리’처럼 접사가 복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위와 결합한 단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형용(2017)이 지적하였듯이, 사전에서는 접미사로 처리하고 있지만, 한국어에는 구 이상의 단위에 결합하는 의존 형태소가 적지 않다. 물론 ‘개도독놈의갈고리’와 같은 단어들은 전형적인 파생어보다 그 수가 적기는 하다. 하지만 사전이 정확한 뜻풀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의 실질 형태소’(《표준》)나, ‘단어의 어근’(《고려》)와 같은 표현은 ‘실질 의미를 가진 단위’ 정도와 같은 느슨한 표현으로 바꾸는 편이 나을 듯하다.<sup>13)</sup>

세 번째로 살펴볼 표제어는 바로 ‘복합어’이다.

표 6. 세 사전에서의 ‘복합어’의 뜻풀이

복합어	《표준》	하나의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붙거나 두 개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된 말. ‘뒹신’, ‘떡이’와 같은 파생어와, ‘집안’, ‘공부방’과 같은 합성어로 나뉜다.
	《고려》	단어 구성 형태의 한 가지. 짜임새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인 말로, 형성 방식에 따라 실질 형태소 ‘신’에 형식 형태소 ‘뒹-’이 붙은 ‘뒹신’과 같은 파생어와 두 개의 실질 형태소 ‘짚’과 ‘신’이 어울려 이루어진 ‘짚신’과 같은 합성어가 있다.
	《연세》	(합성어나 파생어와 같이)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

12) 이는 곧이어 검토할 ‘파생어’와의 관련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고려》의 ‘파생어’에는 ‘새로운 뜻’을 가져야 한다는 진술이 없기 때문이다.

13) 실제로 《표준》과 《고려》에서는 ‘개도독놈의갈고리’를 모두 파생어로 처리하고 있다.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연세》는 파생어를 등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이고, 《고려》는 ‘접사’라는 용어 대신에 ‘형식 형태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를 덧붙이자면 《고려》의 ‘두 개의 실질 형태소’라는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고려》에서 등재어로 처리한 ‘한목소리’는 ‘한’과 ‘목소리’로 분석할 수 있지만, 세 개의 실질 형태소, 즉 ‘한’, ‘목’, ‘소리’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즉 《고려》는 두 단어로 분석되기는 하지만 셋 이상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까지 포괄할 만한 뜻풀이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실질 형태소’라는 표현은 《표준》과 《연세》처럼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편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한다.

### 3. ‘단어의 형성’ 관련 전문용어 뜻풀이의 비판적 검토

#### 3.1. ‘단어 형성 단위’와 관련된 전문용어의 검토

단어는 형태소를 기반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단어를 기반으로 형성될 수도 있는바, 우리는 ‘형태소’라는 용어부터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표 7. 세 사전에서의 ‘형태소’의 뜻풀이

형태소	《표준》	1.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야기책’의 ‘이야기’, ‘책’ 따위이다. 2. 문법적 또는 관계적인 뜻만을 나타내는 단어나 단어 성분. 프랑스의 언어학자 마르티네(Martinet, A.)가 제시하였다.
	《고려》	(1) (기본의미) [언어]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2) [언어] 문법적 또는 관계적인 뜻만을 나타내는 단어나 단어 성분.
	《연세》	더 이상 분석하면 의미를 잃거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소리가 되어 버리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견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술 문법에서나 학교 문법에서나 ‘형태소’는 ‘최소의 유의적 단위’ 정도로 정의된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사전 모두 ‘형태소’라는 전문용어를 ‘최소의 유의적 단위’ 정도로 뜻풀이하고 있다. 세 사전의 뜻풀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연세》에서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을 하나만 언급하여 두고자 한다.

《연세》에서는 형태소를 정의할 때 ‘의미를 알기 어려운 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연세》의 사전 편찬자들이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연세》의 뜻풀이는 현대 한국어의 ‘공형태’까지도 감안한 뜻풀이로 이해할 수 있다. 공형태는 분석을 하였을 때 의미를 알기 어려운 소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을 돌려 ‘어근’과 ‘접사’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의 <표 8>와 <표 9>는 《표준》과 《고려》에서 각각 ‘어근’과 ‘접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인 것이다.

표 8. 《표준》과 《고려》의 ‘어근’의 뜻풀이

어근	《표준》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 ‘덮개’의 ‘덮-’, ‘어른스럽다’의 ‘어른1’ 따위이다.
	《고려》	한 단어에서 더이상 나눌 수 없이 의미의 중심이 되는 요소. 여기에 접사나 어미가 붙어서 단어가 이루어진다. ‘아름답다’, ‘밝다’, ‘덧버선’에서 ‘아름-’, ‘밝-’, ‘버선’을 말한다.

표 9. 《표준》과 《고려》의 ‘접사’의 뜻풀이

접사	《표준》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語根)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 접두사(接頭辭)와 접미사(接尾辭)가 있다.
	《고려》	어기(語基)의 앞이나 뒤에 붙어, 어떤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형태소. 여기에 붙는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 접요소 따위로 구별된다.

《고려》는 ‘어근’을 뜻풀이할 때에는 ‘어근’이 ‘접사’와 결합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접사’를 뜻풀이할 때에는 ‘어기’와 ‘접사’가 결합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표준》과 《고려》에서 ‘어기’를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도록 하자.

표 10. 《표준》과 《고려》의 ‘어기’의 뜻풀이

어기	《표준》	단어 형성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 또는 요소. 일반적으로 어간보다 더 범위가 작거나 어간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고려》	단어 구성의 기본적 요소의 하나. 단어 구성에 있어 근간을 이루는 부분으로, 접사와 어미에 대하여 어근과 어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표준》은 ‘어기’를 접사의 짝이 되는 단위로 풀이하지 않았지만, 《고려》는 접사의 짝이 되는 단위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고려》는 ‘접사’의 짝을 ‘어근’으로, ‘어간’의 짝을 ‘어미’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고려》의 ‘어기’는 어근과 어간을 아우르는바, 넓게는 문장 형성의 차원에서도 논의될 만한 개념을 가리키게 된다. 그렇다면 《고려》에서 ‘어간’을 어떻게 뜻풀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도록 하자.

(4) 《고려》의 ‘어간’

[언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등 활용어의 활용에서 변하지 않는 줄기 부분. 예를 들어 ‘잡아, 잡으니, 예뻐, 예쁘니’ 등의 활용에서 ‘잡-, 예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어간’을 (4)처럼 이해한다면 ‘어기’를 통하여 문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진술도 가능하다. 이는 학교 문법의 설명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어간’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여도 문장의 형성은 설명할 수 있고 현행 학교 문법에서도 어기와 어미의 결합보다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문장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어간이라는 용어를, 어느 경우에는 어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고려》의 ‘어기’의 뜻풀이는 수정되어야 할 듯하다.<sup>14)</sup>

또한 《표준》에는 ‘접사’가 음운론적 의존성을 지니는 단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였지만, 《고려》에서는 접사의 음운론적 의존성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려》의 뜻풀이만으로는 ‘새싹’의 ‘새’를 접두사로 처리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고려》의 ‘접사’ 뜻풀이는, ‘접사’의 음운론적 의존성을 명시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sup>15)</sup>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과 《고려》에서 ‘접두사’와 ‘접미사’를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도록 하자. 다음의 <표 11>과 <표 12>는 《표준》과 《고려》에서 각각 ‘접두사’와 ‘접미사’를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를 간추려 보인 것이다.

표 11. 《표준》과 《고려》의 ‘접두사’의 뜻풀이

접두사	《표준》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맨손’의 ‘맨- <sup>5)</sup> , ‘들볶다’의 ‘들- <sup>8)</sup> , ‘시퍼렇다’의 ‘시- <sup>3)</sup> 따위가 있다.
	《고려》	접사(接辭)의 하나로 어기(語基) 앞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형태소.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항상 다른 단어의 앞에 결합하여 쓰인다. 그 뜻을 더하며, 품사를 바꾸어 놓는 일이 없다. 이 새로운 단어는 파생어에 속한다. ‘맨손’의 ‘맨-’, ‘들볶다’의 ‘들-’, ‘새하얗다’의 ‘새-’ 등이 있다.

표 12. 《표준》과 《고려》의 ‘접미사’의 뜻풀이

접미사	《표준》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선생님’의 ‘-님 <sup>4)</sup> , ‘떡보’의 ‘-보’, ‘지우개’의 ‘-개 <sup>13)</sup> , ‘떡히다’의 ‘-히-’ 따위가 있다.
	《고려》	접사(接辭)의 하나로 어기(語基)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형태소.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항상 다른 단어의 뒤에 결합하여 쓰이며, 그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바꾼다.

《표준》과 《고려》의 접두사 및 접미사의 뜻풀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논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고려》의 ‘접사’ 항목과 ‘접두사’, ‘접미사’ 항목의 뜻풀이의 관련성만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우리는 《고려》에서 ‘접사’를 뜻풀이할 때, 음운론적 의존성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문제 제기는 《고려》의 접두사와 접미사 항목의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고’라는 뜻풀이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접두사’와 ‘접미사’에는 음운론적 의존성을 명시하였지만, 정작 이 둘을 아우르는 ‘접사’라는 표제어에서는 음운론적 의존성을 찾아 볼 수 없는바, 《고려》는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3.2. ‘단어 형성 방법’과 관련된 전문용어의 검토

일반적으로 기술 문법에서는 둘 이상의 언어 단위가 결합하여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가리키기 위하여 ‘합성’과 ‘파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다음의 <표 13>과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사전에서의 ‘합성’과 ‘파생’은 기술 문법과는 다르게 풀이되어 있다.

14) 굳이 ‘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파생어의 뜻풀이에서 ‘어기’ 대신에 ‘어근’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5)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접요사’라는 범주가 한국어에서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접요사를 뜻풀이에 명시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듯도 하다.

표 13. 세 사전에서의 '합성'의 뜻풀이

합성	《표준》	1. 둘 이상의 것을 합쳐서 하나를 이룸. 2. <물리> 벡터, 힘 따위의 방향성이 있는 양을 둘 이상 합침. 또는 그런 일. 3. <생물> 생물이 빛이나 유기물, 무기물의 산화에 의하여 얻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유기 화합물을 만들. 또는 그런 작용. 4. <수학> 두 가지 이상의 변환을 거듭 실행함. 또는 그런 일. 5. <화학> 둘 이상의 원소를 화합하여 화합물을 만들거나, 간단한 화합물에서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 또는 그런 일. 6. [북한어] <언어> 자립적인 단위끼리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만들. 또는 그런 일. 자립적인 단위로는 '단순한 것, 확대된 것, 문법 형태를 가진 것' 따위가 다 될 수 있다.
	《고려》	(1) [화학] 둘 이상의 원소를 화합시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드는 일. 열, 빛 또는 촉매, 효소 따위를 가하는 일이 많다. (2) (기본의미) 둘 이상의 것이 합쳐져 하나를 이룸. (3) [물리] 둘 이상의 벡터 또는 텐서의 합을 구하는 연산.
	《연세》	1. 둘 이상의 사물이 한데 합해지는 것. 2. 둘 이상의 사물이 합해져 새로운 물질을 이루는 것.

표 14. 세 사전에서의 '파생'의 뜻풀이

파생	《표준》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 나와 생김.
	《고려》	(1) 사물이나 현상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 나와 생김. (2) [언어] 단어의 어기(語基)에 접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또는 그 방법.
	《연세》	하나의 본체에서 다른 사물이나 현상이 갈려 나와 생기는 것.

기술 문법에서 사용하는 '합성'과 '파생'이라는 용어의 뜻은 각각 《표준》과 《고려》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도 《표준》은 북한어의 경우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합성'과 '파생'이라는 용어가 다른 분야에서도 쓰일 뿐만 아니라, 일상어로도 사용된다는 점이 깊게 관여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전문용어가 일상어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변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일상어를 빌려 전문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sup>16)</sup> 우리가 관심을 두는 '합성'과 '파생'은 이 중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표준》과 《고려》가 기술 문법의 '합성'과 '파생'이라는 용어 대신에 '합성법'과 '파생법'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등재한 것도 '합성'과 '파생'이라는 기술 문법의 전문 용어를 등재하지 않은 이유가 될 듯하다.

표 15. 《표준》과 《고려》의 '합성법'의 뜻풀이

합성법	《표준》	1. <언어>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드는 단어 형성 방법. 2. [북한어] <미술>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 내용을 하나의 화면 구성 속에 결합하여 생활 내용을 폭넓게 보여 주는 미술 표현 수법. 선전화와 조각에서 많이 이용되며, 특히 대형 기념 작품에서 필수적인 수법으로 이용된다.
	《고려》	[언어] 실질 형태소를 서로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드는 단어 형성법.

16) 이와 관련된 논의는 장유정·홍희주(2005)를 참조할 수 있다.

표 16. 《표준》과 《고려》의 ‘파생법’의 뜻풀이

파생법	《표준》	<언어> 실질 형태소에 접사를 붙여 파생어를 만드는 단어 형성 방법.
	《고려》	[언어] 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를 붙여서 파생어를 만드는 단어 형성법. 즉 여기에 파생 접사를 붙여서 파생어를 만드는 단어 형성법을 말한다.

위의 <표 16>과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표준》과 《고려》의 ‘합성법’과 ‘파생법’은 각각 기술 문법의 ‘합성’과 ‘파생’에 대응한다. 그리고 그 뜻풀이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기술 문법과 사전 편찬학에서 확인되는 이와 같은 기술의 불일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듯하다.

첫째는, 《표준》의 ‘합성’에 제시한 북한어의 경우를 삭제하고, 《고려》의 ‘파생’에 제시한 뜻풀이를 삭제하여 사전의 내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처리는 기술 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과 사전의 뜻풀이에서 확인되는 개념 간의 괴리를 극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는, 《표준》과 《연세》에는 ‘합성’과 ‘파생’에, 《고려》에는 ‘합성’에 [언어]라는 전문 용어 표찰을 매겨 뜻풀이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미 《표준》과 《고려》가 ‘합성’과 ‘파생’이라는 용어에 모두 다의어 정보, 그것도 전문용어와 관련한 다의어 정보를 주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처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4. 맺음말

사전 편찬이라는 작업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별 사전에서의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전에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면 사전의 수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표준》, 《고려》, 《연세》에 실린 단어 형성론 관련 전문용어의 사전 뜻풀이가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단어 형성론 관련 전문용어를 찾아 보면 그와 관련된 단어(관련어)나 유의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고려》에서 ‘혼효어’를 찾아 보면 ‘혼태어’, ‘혼효어’ 등이 유의어로 제시되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유의어까지는 미처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대사전을 편찬할 때에는 미시구조뿐만 아니라 거시구조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사전들에서 단어 형성론 관련 전문용어의 관련어로 실고 있는 표제어들의 뜻풀이까지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용어 사전이라 불리는 언어학 사전과 한글학회 편(1995)에서 전문용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용어의 역사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우리가 관심을 둔 세 사전들에는 어떠한 개념들이 담겨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다면 전문용어의 어휘사를 탐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고스란히 후일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1》, 집문당.
- 국립국어연구원(2003),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원.
- 김병문·주영훈(2017), 남북 통합 국어사전에서의 언어학 용어 처리 방안 연구,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7-40.
- 김선혜(2013),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전문용어 표제어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22, 한국사전학회, 7-31.
- 김한샘(2015), 전문용어의 일반어화에 대한 소고, 《한민족어문학》 71, 한민족어문학회, 129-154.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남길임(2008),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표제항에 대한 사전학적 분석: 식물 영역 전문어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47, 언어과학회, 75-97.
- 도원영(2010),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정보, 《한국사전학》 16, 한국사전학회, 106-136.
- 도원영·차준경(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종합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송길룡·민경모·서상규(2003),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구성, 《한국사전학》 2, 한국사전학회, 9-43.
- 안의정·황은하(2010),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표제어 목록 구성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전학》 15, 한국사전학회, 165-193.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20),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 유현경(2010), 한국어대사전 편찬에 대한 새로운 제안, 《한국사전학》 15, 한국사전학회, 220-246.
- 유현경(2011), 한국어사전 편찬의 현황과 이론적 전개, 《한국사전학》 17, 한국사전학회, 186-208.
- 이병근(2000-),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정의(뜻풀이)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연구원, 73-84.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정민 외(1987), 《언어학 사전》(개정증보판), 박연사.
- 장유진·홍희정(2005), 국어사전의 전문용어에 관한 연구, 《한글》 270, 한글학회, 197-232.
- 조재수(2003),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살펴보기, 《한국사전학》 2, 한국사전학회, 45-84.
- 최형용(2013),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 박이정.
-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 최형용(2017), 구와 결합하는 접미사의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162-190.
- 한글학회 편(1995), 《국어학 사전》, 한글학회.
- 홍종선·김양진(2012),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접사 선정의 기준: '공시적 분석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54, 한국어학회, 325-359.
- 홍종선 외(2009), 《국어 사전학 개론》, 제이앤씨.
- 언어정보연구원, 2007, pp.5-28.
- Di Sciullo, A. M. & Williams, E.(1987), *On the Definition of Word*, MIT.
- Dixon, R. M. W. & Aikhenvald, A. Y.(2002), "Word: A Typological Framework", in Dixon, R. M. W. & Aikhenvald, A. Y.(eds.), *Word: A Cross-Linguistic Typ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1.

## 「단어 형성론 관련 전문용어의 사전 뜻풀이에 대한 관견」에 대한 토론문

정 한 데 로(가천대)

오규환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는 국내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전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단어형성론 관련 전문용어가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사전에 기술되어 있는지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이 발표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어학 용어들은 사실상 한국어학계 내에서도 연구자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해당 발표의 주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고려한다면, 각 사전 내 뜻풀이에 집중하여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전 기술상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있는 이 글의 접근이 장차 학술 용어의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발표자의 관찰과 분석에 동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에 논쟁적인 질문보다는, 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발표자는 <표 5>를 검토하면서, “‘하나의 실질 형태소’(《표준》)나 ‘단어의 어근’(《고려》)과 같은 표현은 ‘실질 의미를 가진 단위’ 정도와 같은 느슨한 표현으로 바꾸는 편이 나을 듯하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표 6>에서는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의 기술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형용(2017), 단어 형성과 형태소, 국어학 81, 국어학회, 351-391”의 내용도 참고할 수 있을 듯합니다. 최형용(2017)은 《표준》에 기술되어 있는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각 개념을 달리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복합어는 “형태소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합성어는 “직접 성분이 모두 어근인 단어”로, 파생어는 “직접 성분 가운데 하나가 접사인 단어”로 기술한 것입니다. 본 발표가 궁극적으로 사전 기술상의 차이점 비교를 넘어서 각 개념 기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까지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면 최형용(2017)도 함께 설명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고려》에 제시된 ‘두 개의 실질 형태소’라는 기술은 ‘짚신’ 설명에 국한하여 도입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러한 표현은 사전 기술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바 발표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2. <표 7>에서 《연세》의 ‘형태소’ 뜻풀이 중 ‘의미를 알기 어려운 소리’의 표현을 ‘공형태’와 관련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추가 설명이 더해진다면 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3. <표 10>에서 《고려》의 ‘어기’ 기술이 ‘문장 형성의 차원’에서도 논의될 만한 개념을 가리키게 된다고 설명하신 후, 결과적으로 《고려》의 ‘어기’ 뜻풀이를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장 형성 차원’에서 어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되는 것인지, 또 《고려》에서 ‘어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 가능할지 설명을 추가해 주신다면 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 정당 대변인 논평의 담화 분석

김혜림 · 진정 (선문대)

<목차>

- 1. 서론
- 2. 연구 배경과 연구 대상
- 3. 정당 대변인 논평 분석 I : 지칭
- 4. 정당 대변인 논평 분석 II : 어휘의 선택과 배제
- 5. 요약과 향후 과제

## 1. 서론

사건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누가’ 말하는가일 것이다. 발화자는 사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원인과 결과, 사건의 주체와 대상, 파생된 영향 등-을 언어를 통해 재구성한다. 발화자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는 발화자가 의도하는 재구성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미디어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여러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발화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가 사용되며 발화자의 입장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대립을 볼 수 있는 담화 중 하나가 바로 정당 대변인의 논평이다.

텍스트 담화의 성격을 지닌 정당 대변인의 논평은 특정 정당의 주장이나 의견을 불특정다수의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글이다. 정당 대변인은 일종의 텍스트 생산자로, 국민의 지식 또는 태도에 특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화문을 제시한다. 따라서 대변인 논평에는 각 정당의 의도가 가장 명료하고 확실하게 담겨져 있다. 각 정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화하고 집단을 규정한다. 또한 각 당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건을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는 데 힘쓴다.

‘비판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은 언어와 사회, 언어와 권력 관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 담화나 대중매체 담화에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언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연구한다. 본고는 이러한 비판적 담화 분석의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논평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칭어 및 어휘의 선택과 배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당이 각 당의 시각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재구성화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2장에서는 비판적 담화 분석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고의 연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장과 4장에서는 여당 및 야당 대변인의 논평을 지칭과 어휘의 선택과 배제 측면에서 살펴본다.

## 2. 연구 배경과 연구 대상

본고는 정당 대변인 논평을 비판적 담화 분석의 관점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비판적 담화 분석은 1990년대 초반에 Fairclough, Van Dijk, Wodak 등의 학자들이 정치 담화와 대중매체 담화 등을 분석하며 시작되었다.

비판적 담화 분석은 언어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작업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비판적 담화 분석은 이데올로기, 정체성 그리고 불평등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생산된 텍스트를 통해 어떻게 되풀이되는지 연구하는 담화 분석 연구이다.

(T.A. Van Dijk, Multidisciplinary CDA" in R. Wodak &)

비판적 담화 분석은 담화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나타나는 정치적 함의(ideology), 힘의 작용, 지배/피지배 관계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Fairclough(1989)에서는 ‘비판적’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연구가 ‘언어-권력-이데올로기’의 연결 모습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담화는 ‘이데올로기적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되면서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담화 속의 권력 관계는 비가시적인 것으로 담화 속에 항상 내재하고 있으며,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sup>2)</sup>

Fairclough는 담화가 텍스트(Text),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 과정(Interaction)이 동반되는 담화 수행, 사회문화적 수행(context)의 세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첫째,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실제 발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어휘, 문법, 텍스트 구조 등에 대한 분석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담화 수행 층위에서는 텍스트 생산, 소비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특정한 제약, 규범 등 담화를 구성하는 조건들과 상호텍스트성 등의 상호작용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셋째, 사회문화적 수행 층위는 거시적 차원에서 담화를 형성하는 사회적 조건의 관여를 다루는데 이 사회적 조건은 사회적 상황(situation), 사회 기관(social institution), 전체 사회(societi as a whole)의 세 계층과 관련된다.<sup>3)</sup>

Reisigl & Wodak(2001)에서는 비판적 담화 분석의 기본적인 전략을 ‘국영화(nationalisation)’, ‘탈공간화(despatialisation)’, ‘이화(dissimilation)’, ‘집단화(collectivisation)’로 나누었다.<sup>4)</sup>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다른 집단의 부정적인 측면 또는 위험성을 부각시켜 동일한 집단 내의 구성원들에게 결속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가진다. 외집단에 대한 함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겠지만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텍스트 소비자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칭대명사와 관계된 비판적 담화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은 동일한 인칭대명사가 각기 다른 의미를 나타내 집단의 범주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텍스트 소비자를 내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인칭 고유명사라고 하

1) 최윤선, 『비판적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2014. p.20에서 재인용

2) 최윤선, 『비판적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2014. pp. 22-23

3) 김해연, 「비판적 담화 분석」, 『담화 분석』, 종합 출판, 2016, pp. 319-320

4) Christopher Hart, 김동환·이미영 옮김, pp. 108-115.

‘국영화’는 특정한 범주화를 통해 외집단과 내집단을 구분하는 경우를 뜻하고, ‘탈공간화’는 내집단과 다른 공간으로부터 온 것으로 범주화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화’는 외집단이 내집단과 다르거나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범주화할 때를 의미하며, ‘집단화’는 텍스트 소비자를 내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더라도 이를 어떻게 지칭하느냐에 따라 텍스트 생산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비판적 담화 분석의 연구 대상으로는 정치인의 담화와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 담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여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창수(2013)에서는 국내 신문 기사의 텍스트 언어 분석을 통해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조사하였다. 비평적 담화 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수와 진보로 대표되는 신문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고 배제하고 있는지를 밝혀내고 있다. 본고가 다루는 정당 대변인 논평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대척점에 있는 두 당의 각기 다른 논평을 선정하였기에 선택과 배제라는 의도적 행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김해연(2013)에서는 언론 담화에 나타난 ‘사회 지도층 (인사)’의 의미와 용법을 비판적 담화 분석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해당 어휘가 맥락에 따라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을 관찰하고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필자의 의도를 추출하였다.

최윤선(2014) 또한 정치 담화와 대중매체 담화 속에서의 지칭/인칭, 어휘/문체, 전제/함축, 이미지 등을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어휘에 관한 연구에서 선택과 배제의 측면을 분석한 점은 본고의 연구에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본고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변인 논평은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논평이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중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여당과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이전 정권에서의 집권여당의 정통성을 계승한 야당이기에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각 정당의 누리집에 제시된 논평 중에서는 ‘제천 화재 참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된 논평을 각각 선정하였다. 이 두 주제는 최근 들어 두 정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화제이면서 동시에 각 정당 대변인 논평의 수가 비슷하다.

본고의 분석 대상은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논평 4개, 자유한국당 논평 5개, ‘문재인 대통령 방중’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논평 6개, 자유한국당 논평 6개이다.<sup>5)</sup> 분석은 제목과 본문으로 모두를 포함하며, 각 논평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 <더불어민주당>
- ① 제천 화재 참사,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계기삼아야(2017. 12. 25.)
  - ② 우원식 원내대표, 제천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2017. 12. 24.)
  - ③ 더불어민주당은 화재참사가 재발 않도록 총체적 점검에 책임있게 나서겠다(2017. 12. 22.)
  - ④ 제천 화재참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2017. 12. 21.)
  - ⑤ 문재인 대통령 방중, 한-중 신뢰회복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초석 성과 거둬(2017. 12. 17.)
  - ⑥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성과를 환영한다(2017. 12. 16.)
  - ⑦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원칙 합의를 환영한다(2017. 12. 15.)

5) ‘문재인 대통령 방중’ 화제에서는 수행 기자단 폭행 사건까지 포함하여 살펴본다.

- ⑧ 문재인 대통령 방중 수행 사진기자를 폭행한 중국 경호원 측에 유감을 표한다(2017. 12. 14.)
- ⑨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성과를 가져오도록 여야 정치권 협력은 물론 국민과 함께 성원한다(2017. 12. 13.)
- ⑩ 한·중 정상회담은 조속한 정상화와 신뢰회복이 최우선이다(2017. 12. 12.)

<자유한국당>

- ① 제천 참사에 대한 책임, 대통령의 눈물과 참모들의 아부 외에는 없는가.(2018. 1. 2.)
- ② 제천 화재 참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2017. 12. 25.)
- ③ 박수현 대변인은 유가족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2017. 12. 24.)
- ④ 제천 화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사태 수습과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17. 12. 22.)
- 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에 대해(2017. 12. 21.)
- ⑥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치욕과 분노로 멎게 한 방중 수행기자단 집단 폭행 사건.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한다.(2017. 12. 28.)
- ⑦ '사대주의의 부활'이라고 평가받은 문재인 대통령 방중, 외교안보라인 책임 추궁과 전면 교체만이 답이다.(2017. 12. 17.)
- ⑧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중국방문을 '정유국치'로 기록할 것이다.(2017. 12. 16.)
- ⑨ 짓밟힌 대한민국의 자존심, 집권여당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대안부터 만들라.(2017. 12. 15.)
- ⑩ 외교참사로 점철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나약한 정부를 대신해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2017. 12. 15.)
- ⑪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방문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수 하라.(2017. 12. 14.)

### 3. 정당 대변인 논평 담화 분석 I: 지칭어

본 장에서는 각 정당에서 특정한 인물 또는 정당 등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를 조사하고, 각 단어가 지니는 복합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일한 사람 또는 정당을 지칭하는 단어는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 특히 정당의 대변인은 정당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하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지칭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대변인 논평에 쓰인 지칭어가 단순히 지칭하는 지시적 의미를 넘어서 언어 외적인 측면까지 함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인물에 대한 지칭어라도 단어에 따라 청자가 느낄 수 있는 범주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정당이 내집단 및 외집단을 지칭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칭어는 크게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지칭, 정당에 대한 지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3.1.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지칭

두 정당 대변인 논평에서 사용한 대통령에 대한 지칭은 아래와 같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대통령	국가원수	국정의 최고 책임자
더불어민주당	제천	-	-	-	-	-
	방중	19	1	-	-	-
자유한국당	제천	2	-	8	-	2
	방중	22	3	9	2	-

더불어민주당은 현 대통령의 이름(또는 성)과 호칭을 반드시 아울러 지칭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집단이 아닌 개인적인 인물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 부름으로써 ‘문재인’이라는 개인을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공고히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칭어의 사용은 맥락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을 지칭하는 데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등의 구체적인 인명 지칭과 함께 ‘대통령’, ‘국가원수’, ‘국정의 최고 책임자’ 등 포괄적인 속성을 지닌 단어도 자주 사용하였다.

(1) ㄱ. 기껏 국민의 세금을 들여 외국으로 나간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의 외교는 뒷전이고 계속해서 국내 지지자들을 향한 어필만 하고 있는 한심함이 드러난 것이다.(자유한국당 ⑦)

ㄴ. (……) 끈질긴 노력을 통해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은 후, **대통령**이 ‘국민’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다면 이런 ‘굴욕 종합세트’를 선물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자유한국당 ⑧)

ㄷ. 국민방문 중인 **국가원수**와 함께 한 수행기자단을 집단폭행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자유한국당 ⑩)

ㄹ.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더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말이다.(자유한국당 ①)

포괄적인 속성을 가진 단어를 통해 지칭하는 방식은 상대방의 개인적 속성은 한걸음 뒤로 하고 사회적 지위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든다. 지위를 부각시킴으로써 그 지위에 걸맞은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텍스트 소비자가 연상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문장 내에서도 ‘국민의 세금을 들여 외국으로 나간’이나 ‘국민방문 중인’ 등 지위에 해당되는 책임을 연상시키는 말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러한 쓰임은 텍스트 소비자들에게 대통령이 가진 무게감을 은연중에 전달하여 인물보다 인물이 한 행동 또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보게 한다. 또한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것과 어긋난 행동 또는 결과가 나타날 경우에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제에 따라 지칭어의 쓰임에 극명한 양적 차이를 보였다. 방중과 관련된 논평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지칭어가 다수 사용되었다. 그러나 제천 참사와 관련된 논평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칭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방중’ 화제에서는 해당 인물을 반복하여 지칭하는 대신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화제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칭어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두 화제 모두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방중’과 관련된 논평에서는 매우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해당 화제에서 ‘문재인 대통령

령'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한다.

(2) (……)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자국민인 기자가 폭행을 당했는데 청와대는 뒷전에 물러나 있고 코트라가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정부에 처분을 맡기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 보호인가.(자유한국당 ⑦)

한편, 정부를 지칭하는 단어에서도 정당 간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정부	청와대	문재인 정권	국가	이 정권	정부 당국
더불어민주당	제천	-	1	-	-	-	-	2
	방중	2	1	-	-	-	-	-
자유한국당	제천	2	5	1	4	2	1	1
	방중	12	-	4	5	-	-	-

더불어민주당은 적은 가짓수의 지칭어를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경우도 매우 적은 편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지칭하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청와대', '문재인 정권', '국가' 등 다양한 지칭어를 사용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중과 관련된 화제에서 대통령 지칭어 사용이 매우 빈번한 대신 정부에 대한 지칭어는 제한적으로 쓰였다. 이는 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호감이 높은 만큼 대통령의 개인적 이미지를 앞세운 전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지칭어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방중' 화제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 '정권' 앞에 '문재인'을 함께 지칭하여 의미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한정적으로 만들었다. '제천' 화제에서는 정부의 잘못을 짚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을 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정부'라는 포괄적인 지칭을 사용하였다. '청와대'는 주로 대통령과 분리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국가'는 국가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에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었다.

(3) ㄱ. 수행중인 기자단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자유한국당 ⑨)

ㄴ. 보상에 **국가**가 당사자로 나서라.(자유한국당 ①)

### 3.2. 각 정당에 대한 지칭

양당에서 자신의 정당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단어는 아래와 같다.

		더불어민주당			야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제천	4	자유한국당	제천	-	4
	방중	3		방중	2	2

더불어민주당은 ‘제천’ 화제에서는 정부에 대한 지칭을 한정적으로 하였으며, 대통령에 대한 지칭어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화제가 현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여러 차례 지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당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방중’ 화제에서도 향후 과제에 대해 정당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ㄱ.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과와 발맞춰,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⑤)

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당국과 함께 피해자와 그 가족 분들에 대한 지원, 사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함께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②)

자유한국당의 논평문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수차례 지칭하여 정당의 주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자신들을 ‘야당’으로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여야의 대립 구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야당의 범주를 벗어나 더 넓은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5) **자유한국당**은 비록 **야당**이지만 나약한 정부를 대신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자유한국당 ⑩)

한편, 상대방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단어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야당	일부 야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제천	-	-	자유한국당	제천	-	-	-
	방중	4	2		방중	1	2	2

양당 모두 급작스레 일어난 ‘제천’ 화제에서는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았는데 이는 큰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논쟁이 충분히 가능한 ‘방중’ 화제에서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사용 양상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정한 정당을 지칭하지 않는 대신 여러 정당을 아울러 ‘야당’으로 지칭하였다. 또한 현 정부 또는 대통령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는 정당을 ‘일부 야당’으로 축소적으로 칭하였는데 이는 모든 야당이 현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보다 ‘민주당’, ‘집권 여당’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처럼 정당의 이름을 일부 생략하는 것은 상대방의 위치를 자신보다 낮게 두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여당’ 앞에 ‘집권’이라는 말을 덧붙여 상대적인 힘의 우위를 더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지난 정부

더불어민주당	방중	6	1	3
--------	----	---	---	---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에서는 ‘방중’ 화제에 한해 각 당의 협력을 요청하려는 목적으로 여당과 야당을 아우르는 지칭어를 여러 번 사용하였다. 또한 해당 화제에서 ‘지난 정부’를 사용하여 중국과의 외교가 매끄럽지 못했던 전 정부의 상황과 현 정부의 상황을 대조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이는 현 정부를 뒷받침하고 다른 정당들에게서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여당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로 보인다.

#### 4. 정당 대변인 논평 담화 분석 II: 어휘의 선택과 배제

본 장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논평에 나타난 어휘를 분석하여 각 정당이 특정한 사건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밝히기로 한다. 어휘는 정치 담화에서 프레임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도구이다. 담화에서 어떠한 어휘가 선택되고 배제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을 재구성하는 발화자의 입장과 의도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다.

제목은 논평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고 논평의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어 본문에서 사건을 규정하는 어휘들을 살펴보고 분석의 정밀함을 높이고자 한다. 논평이 발표된 시기에 따라 입장의 전환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에 시기 순으로 배열한다.

##### 4.1. ‘제천 화재 사건’

먼저, 제천 화재 사건과 관련한 양당의 대변인 논평 제목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제목	자유한국당의 논평 제목
① 제천 화재참사, <b>인명구조</b> 에 최선을 다해 주길 <b>바란다</b> (2017. 12. 21.)	①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에 대해 (2017. 12. 21.)
② 더불어민주당은 <b>화재참사</b> 가 재발 않도록 총체적 <b>점검</b> 에 <b>책임있게 나서겠다</b> (2017. 12. 22.)	② 제천 화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사태 <b>수습</b> 과 <b>안전 대책 마련</b> 을 위해 <b>최선</b> 을 다하겠습니다.(2017. 12. 22.)
③ 우원식 원내대표, 제천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b>조문</b> (2017. 12. 24.)	③ 박수현 대변인은 유가족의 <b>울부짖음</b> 이 들리지 않는가?(2017. 24.)
④ 제천 화재 참사, 근본적인 예방책 <b>마련</b> 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계기삼아야(2017. 12. 25.)	④ 제천 화재 참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b>처벌</b> 을 요구한다.(2017. 12. 25.)
	⑤ 제천 참사에 대한 <b>책임</b> , 대통령의 눈물과 참모들의 <b>아부</b> 외에는 없는가.(2018. 1. 2.)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당국에 대한 태도 차이-요구의 대상인가, 비판의 대상인가

먼저, 사건이 발생된 당일(2017. 12. 21.),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소방당국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바란다’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조속한 사건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후 처음 쓰인 논평의 제목을 보면 특별한 입장을 내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양당의 입장과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ㄱ. 소방당국은 무엇보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긴급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드린다.(더불어민주당 ①)

ㄴ. 대형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소방 당국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20여명이 화재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지만 출동한 사다리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구조작업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조속히 밝히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자유한국당 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본문에 쓰인 어휘가 제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목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부당국의 사건 해결 요구 입장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논평에서는 제목보다 본문에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미흡’, ‘늦어짐’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소방 당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원인’, ‘안전점검’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근본적인 문제 지점을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를 볼 수 있다.

#### 사건 수습 과정: 정부에 대한 태도 차이-함께할 것인가, 처벌할 것인가

사태 수습 과정에서 논평은 정부의 책임 문제로 전환된다. 그리고 양당의 입장 차이는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이 드러난다. 먼저, 제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차 논평에서 ‘화재참사’, ‘점검’, ‘책임’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책임의 일부를 나누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4차 논평에서 ‘마련’ 등의 단어로 이어진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2차 논평의 제목은 더불어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으나, 4차, 5차 논평에서의 ‘울부짖음’, ‘처벌’, ‘아부’, ‘책임’(정부) 등을 사용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본문을 살펴보면 더 두드러진다.

(7) ㄱ. 이번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미숙한** 대응과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초기 진입이 늦어지는 등 (……) 대한민국에 만연한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과 잠시 잠깐만 들끓고 마는 **단발성** 대책들로 인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안전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는 현장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마련한 각종 **재난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기구신설과 **책상머리 대책**으로는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현장에서 이것들이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자유한국당 ②)

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습

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금 정부당국이 할 일은 우는 것도, **아부**하는 것도 아니다. (……) 문재인 정권을 향해 “이게 나라냐”며 **절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조속하고 제대로 된 진단과 책임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대참사**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제천 대참사를 **만들었다**.(자유한국당 ③)

ㄷ. 2층 유리창만 부셨다면, 그래서 그들이 뛰어내릴 수 있게만 했다면, 타박상 정도에 그칠 일을 정부의 **문논**이 모두 죽음으로 내몰았다. (……) 문재인 정권은 현장 지휘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소방청장을 **파면하라**.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자유한국당 ④)

자유한국당은 ‘미숙한’, ‘위태로운’, ‘절규’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현 상황을 매우 불안한 것으로 진단하고 정부의 정책을 ‘단발성’, ‘책상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비판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비판의 수위는 더 높아져 ‘아부’, ‘무능’ ‘형사 처벌’, ‘파면하라’, ‘사퇴하라’ 등의 어휘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게 ‘제천 화재 사건’은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참사로서 책임자의 처벌을 요하는 사건으로 재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정부와 소방 당국의 책임을 묻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대책 마련, 공동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 ㄱ.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겠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 ②)

ㄴ. 우원식 원내대표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전했으며,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당국과 **함께** 피해자와 그 가족 분들에 대한 지원, 사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함께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③)

ㄷ.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기틀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④)

(8ㄱ)을 보면 사태 수습 과정에서 ‘점검’, ‘나서겠다’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사태 수습의 주체로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을 ‘협조’, ‘노력’의 당사자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사고 과정과 수습의 차원에 ‘국민들’을 끌어들이으로써 공동 책임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볼 수 있다. 이후 3차, 4차 논평에서 주목할 어휘는 ‘노력’, ‘함께’, ‘함께할’, ‘약속하다’, ‘약속’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소방 당국에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함께 노력하여 대책을 만들고 이를 국민과 약속하는 형태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천 화재 참사’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이 함께 노력하

여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사건으로 재구성된다.

양당 대변인 논평에 나타난 '제천 화재 사건'의 현실 재구성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사건 초기 강조 지점	구조 요구		사건 초기 강조 지점	구조 시 문제점, 원인 규명	
사건 수습 과정	책임	공동 책임	사건 수습 과정	책임	정부
	강조 지점	대책 마련		강조 지점	처벌
정부 당국과 당, 국민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사건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참사로서 책임자의 처벌을 요하는 사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정부와 여당의 관계, 정부와 야당이라는 관계적 조건에서 비롯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자신이 배출한 현 정부의 사고 책임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책임'이라는 어휘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의 영역이 아닌 대책 마련의 책임의 영역에서 사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발을 맞추어 현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대변인 논평에서 드러내고 있다.

반면, 정부를 견제하고 정치적 권력을 두고 다툼을 하는 야당은 '책임'이라는 어휘를 '처벌'이라는 어휘와 함께 사용하여 사고 발생의 책임의 영역에서 사용한다. 정치권력이라는 제로섬 게임의 영역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를 강조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4.2. 문재인 대통령 방중

양당의 '문재인 대통령 방중' 사건의 대변인 논평의 제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제목	자유한국당의 논평 제목
⑥ 한·중 정상회담은 조속한 <b>정상화와 신뢰</b> 회복이 최우선이다.(2017. 12. 12.)	⑥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방문 일정을 즉각 <b>중단</b> 하고 <b>철수하라</b> (2017. 12. 14.)
⑦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b>성과</b> 를 가져오도록 여야 정치권 협력은 물론 국민과 함께 <b>성원</b> 한다(2017. 12. 13.)	⑦ <b>외교참사</b> 로 점철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b>나약한</b> 정부를 대신해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2017. 12. 15.)
⑧ 문재인 대통령 방중 수행 사진기자를 폭행한 중국 경호원 측에 <b>유감</b> 을 표한다(2017. 12. 14.)	⑧ <b>짓밟힌</b> 대한민국의 자존심, 집권여당은 국민 앞에 <b>반성</b> 하고 <b>대안</b> 부터 만들라(2017. 12. 15.)
⑨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원칙 합의를 <b>환영</b> 한다(2017. 12. 15.)	⑨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중국방문을 '정유국치'로 기록할 것이다(2017. 12.
⑩ 문재인 대통령의 <b>성공적인</b> 방중 <b>성과</b> 를	

<p><b>환영한다</b>(2017. 12. 16.)</p> <p>㉑ 문재인 대통령 방중, 한중 <b>신뢰회복</b>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초석 <b>성과</b> 거둬(2017. 12. 17.)</p>	<p>16.)</p> <p>㉒ '<b>사대주의의 부활</b>'이라고 평가받은 문재인 대통령 방중, 외교안보라인 <b>책임 추궁</b>과 전면 <b>교체</b>만이 답이다(2017. 12. 17.)</p>
---	---

**문재인 대통령 방중: 성공인가, 실패인가**

제목만을 보아도 양당의 입장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뢰’, ‘성과’, ‘성원’, ‘환영한다’, ‘성공적’ 등의 어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가 되었던 중국 경호인의 기자 폭행 사건은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갈무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단’, ‘철수’, ‘외교참사’, ‘나약한’, ‘짓밟힌’, ‘반성’, ‘국치’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책임’, ‘추궁’, ‘교체’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책임자 처벌까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양당의 입장은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9) ㄱ.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신뢰 회복**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⑥)

ㄴ. 한중 양국 정상의 잦은 만남과 교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영역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성과를 가져오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 **협력**하는 길이야말로 국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더불어민주당 ⑦)

ㄷ. 문재인 대통령 수행 취재기자단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언론인들이 중국 경호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하며 남다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민주당 ⑧)

ㄹ. 이번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핫라인 개설을 통해 긴밀한 소통 채널이 구축되었다는 점은 높은 외교적 **성과**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양국 정상 간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뒷받침**을 다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⑨)

ㅁ. 문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로 악화일로로 치달고 있었던 대중 외교·안보·경제 분야의 실타래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과**와 발맞춰,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외교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 국익보다 **정쟁**이 절대 우선시될 수 없다는 점을 야당에 다시 한 번 **충고** 드린다.(더불어민주당 ⑩)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방중 전 논평에서 중국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진 논평들에서 이러한 기대를 중심으로 방중을 평가하고 있다. '확신', '환영', '성과', '성공적인'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권에 동반자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위 논평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의 '성과'에 '뒷받침', '노력' 등의 어휘를 사용하며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드러낸다. 특기할 것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한 태도이다. 야당을 '국익'에 '협력'할 대상으로 보면서도 야당의 비판을 '정쟁'이라고 규정하며 '충고'라는 어휘를 사용하며 야당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가 되었던 중국 경호단의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나의 논평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목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중국 경호단에 '유감'을 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다른 논평에서는 이 사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방중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들의 제목에서와 같이 본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참사'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 ㄱ.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났다.(……) 대통령 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차관보가 영접하고 총리 오찬은 취소당하며 급기야 수행 기자단이 폭행당하는 **굴욕**은 연내에 급하게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밀어 붙인 결과로 **외교 참사**이자 **굴욕외교**의 극치이다.(자유한국당 ⑥)

ㄴ. 동기자회견도 아니고 공동선언문도 아니고 겨우 나온 4대 합의는 이 정부의 북핵 위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합의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동은 결국 얼마 남지 않은 **북한**의 핵 완성을 용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수행 기자단 집단폭행이라는 엄청난 참사 속에 또다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북핵에 대한 면죄부는 또 하나의 **외교참사일** 뿐이다.(자유한국당 ⑦)

ㄷ. 중국 현지에서의 **푸대접**은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수준이었다.(……) 수행기자단에 대한 폭행은 대한민국에 대한 폭행이다. (……) 성과는커녕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이 **짓밟힌**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삼전도의 **굴욕**'만큼이나 **치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알현(謁見)**'보다 더 잘 맞는 단어는 없다.(자유한국당 ⑧)

ㄹ. 문재인 정부는 '**정유국치(丁酉國恥)**'로 기록 될 이번 대중 **굴욕**에 대해 깊은 성찰과 함께 외교안보 정책을 재수립하고 인사를 전면 개편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문재인 대통령은 국격을 침몰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치욕**과 **울분**과 **분노**를 남긴 대중 굴욕 외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모든 외교 안보 정책과 인사에 대한 **전면수술**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자유한국당 ⑨)

ㅁ.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의 철저한 **홀대**, 한국기자 집단폭행, 외교 성과 모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 백일하에 드러난 **굴욕** 순방, **치욕** 순방이었다.(……) 부족한 실력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외교안보라인의 **책임 추궁**과 전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⑩)

자유한국당은 본문에서도 ‘참사’, ‘굴욕’, ‘국치’, ‘치욕’ 등의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대통령의 방중을 높은 수위로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논평에 나타난 ‘알현’이라는 어휘는 언론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이는 ‘알현’에 담긴 계급적 함의 때문이다. ‘치욕’과 ‘굴욕’이 사건 자체를 평가하는 어휘인 반면, ‘알현’이라는 어휘는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관계를 왕과 신하 혹은 왕과 평민의 봉건적 위계로 치환하게 한다. 관계 자체를 비하하는 어휘이기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결과에 ‘책임’을 지울 대상을 언급하며 이들의 ‘교체’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방중 전에는 ‘신뢰’, ‘회복’을 ‘기대’한 사건이었으며 방중 결과, 이런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이룬 ‘성공적인’ 외교 결과로 재구성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유례없는 ‘굴욕’이자 ‘외교참사’로 규정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외교 당국을 ‘교체’해야 할 사건으로 재구성한다.

양당 대변인 논평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 방중’의 현실 재구성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방중 전 주요 어휘	‘신뢰’, ‘회복’, ‘기대’	방중 전 주요 어휘	언급 없음
방중 결과 주요 어휘	‘성공’, ‘성과’, ‘환영’, ‘뒷받침’	방중 결과 주요 어휘	‘굴욕’, ‘치욕’, ‘참사’, ‘책임’, ‘교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한 성공적 외교 결과.		굴욕적인 외교참사로서 책임자를 교체해야 하는 사건	

이러한 차이는 ‘제천 화재 사건’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 당국과의 관계에서 기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의 동반자 의식을 대변인 논평에서 주저없이 드러낸다. ‘함께’, ‘뒷받침’, ‘협조’ 등의 어휘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정부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긍정적인 평가 어휘를 사용하여 정부에 힘을 실어준다.

경쟁 관계에 있는 자유한국당은 방중 전과 방중 결과에 차이를 보인다. 방중 전에는 의도적으로 논평을 내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건 자체에 대한 언급을 배제하는 태도였으나 방중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논평을 내며 견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 5. 요약과 향후 과제

본고에서는 비판적 담화 분석을 활용하여 정당 대변인 논평에서의 ‘지칭’과 ‘어휘’에 드러난 각 정당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제천 화재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다룬 양당 대변인 논평에서 ‘지칭’ 및 ‘어휘’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집단의 범주화를 통해 각 정당에서 사용하는 지칭어의 양상이 달라졌다. 각 정당은 내재된 의도에 따라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지칭어에도 잘 드러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정한 성과를 부각시킬 때 정부보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지칭어를 사용하며,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지을 때 정부 및 대통령을 한정적으로 가리키는 축소된 지칭어를 사용했다. 또한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구체적인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포괄적인 지칭어로 나타내었다. 양당 모두 자신의 정당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제시하여 두각을 드러낸 반면, 상대 정당에 대해서는 ‘여당/야당’으로 제시하거나 이름을 줄여 불러 내집단의 응집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내집단의 지칭어와 달리 외집단에 대한 지칭어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외집단의 범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어휘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각 정당에서 견지하는 태도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천’ 화제에서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어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대책 마련 중심의 어휘를 주로 제시하였으며, ‘방중’ 화제에서는 정부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이는 정책 결정권자로서의 정부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집권여당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두 화제 모두 사건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어휘와 정부에게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는 어휘를 제시하였다. 의도적인 부정적 어휘 사용은 현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셋째, 본 연구를 진행하며 ‘정당 대변인 논평’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여러 과제가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화제의 초점화이다. 지칭과 어휘의 영역에 더하여 어떤 화제에 초점을 맞추는지가 분석된다면 양당의 현실 재구성화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화제 자체에서 선택과 배제가 일어나 사건과 관련한 양당의 논평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의 경우 UAE와 관련된 논평이 6건 이상인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주체의 설정과 문장 구조, 문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발화 주체와 발화 대상자에 따른 문체의 변화나 주체와 동작주에 대한 분석, 수동형과 능동형의 문제 등도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더 깊이 있는 정치 담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Christopher Hart(2017), 김동환·이미영 옮김, 『비판적 담화분석과 인지과학』, 로고스라임.
- Martin Reisigl & Ruth Wodak(2001), *Discourse and discrimination: rhetorics of racism and antisemitism*, London : Routledge.
- N. Fairclough, *Language and Power*, Longman(2011), 김지홍 옮김, 『언어와 권력』, 경진.
- 김해연 외(2016), 『담화 분석』, 종합 출판.
- 김해연(2013), 「언론 담화에 나타나는 ‘사회 지도층 인사’의 비판 담화분석적 연구」, 『텍스트 언어학』 34호.
- 이창수(2013), 「국내 신문기사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관한 비평 담화 분석 연구」, 『언어와 언어학』 제58집.
- 최운선(2014), 『비판적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 김지하 문학·사상의 자기구원 서사와 타자의 문제

정혜진 (성균관대)

### <목차>

1. 서론
2. 김지하의 예술가적 자아의 형성과 자기분열
3. '애린'으로 가는 도정 : 남성민중영웅의 탄생과 자기혐오/구원 서사를 위한 여성의 몸
  - 3.1. 문둥이와 미완의 혁명-남성성 : <금관의 예수>
  - 3.2. 여성에게 전가된 '썩은 몸'과 남성연대의 상상 : '장일담'의 형제들
  - 3.3. 지연되는 혁명의 시간과 구원의 기표로 소환되는 여성 : 『애린』
4. 김지하 문학·사상의 변주와 극복으로서 민중신학과 고정희(미완)

### 1. 서론

1970년대 민족문학·민중문학 형식의 측면에서 김지하의 영향은 지대했으며, 김지하의 수감, 법정투쟁, 문학적 파토스는 1970년대적 감수성의 큰 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지하라는 문제적 개인의 문학·사상은 하나의 시대정신으로서 논평할 필요가 있다. 홍용희는 “김지하의 문학은 1970년대 이래 최대의 문학적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민족문학사의 이념적 지향성과 형식원리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1)</sup>라고 평한 바 있다. 김지하의 '담시', '대설', '마당극(시)' 등은 1970년대 민중문화 양식을 문학으로 구현한 것으로, 당대 민중시의 하나의 전범이 되었다. 광명숙은 1970년대 민중시를 창작한 시인들로, 김지하와 함께 신경림, 민영, 문병란, 이성부, 조태일, 강은교, 최하림, 정희성, 양성우, 김준태, 정호승, 이동순, 김명인, 하종오, 고정희를 꼽았다. 광명숙에 의하면 1970년대 민중시란 “민중지향성을 드러내며 민중이 텍스트 내에서 의미작용의 중심에 놓여 있거나 민중을 재현하고자 한 텍스트”로 규정할 수 있다. 민중시의 형식적 특성으로는 '장시 형식의 서사적 욕망', “전통 민중 구비 양식의 전유”, “타자화된 죽음의 반복적 기억” 등이 주목된다.<sup>2)</sup> 김지하의 <오적>(『사상계』, 1970.5)과 <비어>(『창조』, 1972.4)는 위와 같은 민중시 형식의 선발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지하 문학에 대한 시대의 호응은 그의 구속, 법정투쟁, 검열에의 반응과 분리하기 어렵다. 주지하듯 <오적>이 『사상계』(1970.5)와 『민주전선』(1970.6)에 발표되자마자 『사상계』의 시판이 중단되고 『민주전선』 10만부가 압수됐으며, 김지하를 비롯해 『사상계』 대표 부완혁, 편집장 김승균, 『민주전선』 출판국장 김용성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오적> 이래 김지하 문학의 운명은 김지하의 검열-구속-법정투쟁 과정과 함께였다. 1970년대적 감수성의 일부로서 김지하 문학의 파토스는 그의 드라마틱한 정치적 행보(검열-도피-구속-법정투쟁의 반복)와

1) 홍용희, 『김지하 문학연구』, 시와시학사, 2000, pp.278-279.

2) 광명숙, 『1970년대 한국시에 나타난 민중의 의미화와 재현 양상』,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6, p.10.

밀착돼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김지하는 자기 문학의 의의가 형식적 차원에서 규명되기를 바랐다. 그는 “김현은 내 시를 읽어줄 유일한 사람”<sup>3)</sup>이라고 말해왔다. 김현은 김지하 시의 힘이 리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던 이였다. 김지하가 일생일대의 과제로 여겼던 ‘예술과 정치의 일치(통일)’는 위와 같은 정황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지하의 문학이 ‘김지하라는 정치적 사건’의 일환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김지하는 자신의 정치가 예술이 되길 바랐다.

‘민중’은 위의 맥락을 잘 드러내는 연표이다. 김지하 문학·사상에서 민중의 형상화·의미화 과정은 김지하 자신의 예술가적 자아의 획득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주목할 것은, 민중을 재현함으로써 구성된 김지하 미학의 핵심이 ‘젠더/섹슈얼리티’라는 점이다. 김지하의 미학적(예술적) 자아는 그가 젠더/섹슈얼리티를 다루는 방식을 통해 형성되어갔다. 더불어 김지하가 추구했던 ‘예술로서의 정치’의 실현에 기여한 것은 바로 기독교와 제3세계라는 사상적 외피였다. 기독교와 그 토착화로서의 제3세계를 전유함으로써 김지하의 정치적 행보는 공산주의를 비껴갈 수 있었다. 예술가가 되기 위해 김지하는 공산주의자 혐의를 벗어나야만 했다. 그러나 정치가 예술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레퍼런스는 오히려 김지하의 문학·사상을 반복적으로 ‘정치적인 것’으로서 호명했는데, 이를 본격화 했던 것이 바로 민중신학이었다.<sup>4)</sup> 어쩌면 김지하 문학·사상은 민중신학 내부에서 변주하면서 정치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민중신학이 김지하의 문학·사상을 변주하는 가운데 새롭게 기입된 것이 바로 ‘타자와의 만남’이다. 한편 김지하를 변주한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은 고정희는, ‘여성민중<sup>5)</sup>의 젠더/섹슈얼리티’에 착목해 타자와의 만남을 문학으로 구현함으로써 김지하와 다른 길을 개진했다. 본고는 이를 고찰하여 김지하 문학·사상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그 변주와 극복의 양상을 논하고자 한다.

## 2. 김지하의 예술가적 자아의 형성과 자기분열

김지하는 1970년 5월과 1972년 4월 <오적> 및 <비어> 필화사건으로,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 1975년 3월 「고행……1974」 및 옥중메모 <장일담>과 <말뚝>으로 체포·구속된 이래 1980년 12월까지 6년 4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했다. 주된 죄목은 모두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이었다. 김지하에게 ‘해방’이란 일차적으로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옥중 메모 <장일담>의 사상을 검증하는 검사 측 심문에 답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장일담> 메모에 기록된 : 인용자) 해방은 …(중략)… 감옥 속에 억압당한 인간의 보편적 해방에 대한 피타는 갈망이지 맑스주의적 개념이 아니다.”<sup>6)</sup>(밑줄 강조 : 인용자) 감옥은 김지하를 세

3) 황동규, 「김현 문던 날, 기억나지 그날? -이성복에게」, 『대구일보』, 2015.6.30. <http://www.idaegu.com/?c=8&uid=319779>

4)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 민중신학 태동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여러 차례 주목된 데 비해, 김지하 또한 민중신학의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사실은 신학계 밖에서는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박노훈 등 신학계의 논의는 김지하의 사상으로 민중신학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철호의 연구는 김지하와 민중신학의 친연성을 샤르댕의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논했고 그것이 다소 상이한 방식으로 민중론과 연계되는 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나는 샤르댕이 김지하에게 일종의 귀결점이었던 데 반해 민중신학에게는 전사(前史)에 해당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를 더욱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중신학, 특히 서남동의 사상이 전거(典據)로서 김지하의 지대한 영향 아래 있었으나 실은 그와 상당한 차이를 지녔음을 반증한다. 박노훈, 「1970년대 기독교 인간학의 출현과 수용」, 『종교문화연구』 25,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5; 이철호, 「김지하의 영성 : 1970년대 민중신학과 기독교 생명정치의 한 맥락」, 『동악어문학』 68, 동악어문학회, 2016, 참고.

5) 고정희와 ‘여성 민중’에 대해서는 김란희, 「한국 민중시의 언어적 실천 연구 : 1970·80년대 민중시에 나타난 ‘부정성’의 의미화 양상을 중심으로」, 서강대박사학위논문, 2011, 참고.

상으로부터 '분리'했다.7) 김지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양심선언」을 배포하다 구속된 학생들이8), “‘분단’의 비극 때문에 법정에 끌려”9)(작은따옴표 강조 : 인용자)왔다고 말했다. 그는 감옥에서 ‘통일’의 사상을 마련하고자 했다.10) 통일 사상은 공산주의자 낙인을 벗고, 감옥 안에서 소외·단절되었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이었다. 그러므로 “감옥으로의 행진이 곧 통일행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의 길은 곧 부활의 길이요, 참된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11)(밑줄 강조 : 인용자)라는 김지하의 발언은 지극히 역설적인 것이었다.12) 김지하에게 감옥이란 분단 비극의 상징이었으며 그를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죽음(사형)을 언도한 곳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존재를 정치범으로 한정시킨 장소였다. 따라서 감옥은 투쟁의 최전선이었다. 김지하가 도달하고자 했던 ‘정치와 예술의 통일(일치)’란 분리-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실존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김지하는 정치와 예술의 간극(분리)을 ‘예술가적 자아’를 (재)획득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6) 「제3회 공판-검사측 주심문」(1976.5.18), 일본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 편, 『아! 김지하』, 타임기획, 1991, P.44.

7) 이에 관해 김지하의 다음 진술을 참고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접견도 통신도, 집필도 금지되고 운동과 기타 모든 권리가 제약되는 채 심지어 서적까지, 성경까지도 금지된 상태에서 1·27평의 여동 속에 밀폐되어 있다.” 김지하, 「추신」(1975.5), 위의 책 p.296; “**김지하** …(상략) 또 작년 구속 이래 오늘까지 독서 금지, 접견, 운동, 통신 금지 등 갖가지로 인권유린을 당해왔고, …(중략)… 또다시 공산주의자임을 강제 자백시키는 등 작년 8월 이래 갖가지로 극단적인 인권유린과 심리적 압박 등 특수한 격리, 감시상태 속에 장기간 유폐되어 왔으므로 내 정신이 자유스럽지 못하다.” 「제3회 공판-검사측 주심문」, 위의 책, p.41.

8) 김지하의 「양심선언」과 그 ‘배포사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지금은 ‘김지하 양심선언’을 완전한 김지하의 것도, 조영래의 것도 아닌 당시 재야운동권의 ‘집체작품’이라고 보는 게 정설이다. 어느 일방의 것이라기보다 두 사람의 상호 수정과 다른 여러 사람의 첨삭을 거쳐 완성한 것이라는 얘기가. 그 과정에 ‘김지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치고 이것은 양보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조영래는 조영래대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진통도 있었다. …(중략)… 김지하의 재수감은 당시 재야운동권의 명운이 걸린 대사건이었다. ‘반체제’의 상징적 인물인 그가 ‘빨갱이’로 몰려 사형이라도 당하면 반유신 운동세력 전체가 용공으로 몰릴 판이었다. 손학규(현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김지하 양심선언’은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조영래가 착안-기획-실행한 것이었다. 김정남(전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 등 많은 인사가 그 제작과 전파의 숨은 조력자였다. …(중략)… 재야운동권이 총력을 기울여 완성한 ‘김지하 양심선언’도 국내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전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대부분의 국민은 몰랐다. 오히려 외국에서 더 잘 알았다. 조영래를 비롯한 재야진영은 가톨릭정의평화위원회를 통해 양심선언을 5개국어로 번역, 그해 8월 15일 같은 시간에 미국-일본-유럽에서 마스크에 발신케 했다. 그것이 국내로 역수입돼 전파되면서 이른바 ‘김지하 양심선언 배포 사건’이 줄을 이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정선자 등이 배포한 ‘이화여대 새벽지 사건’, 조성두(현 한국조폐공사 감사) 등 흥사단아카데미 소속 학생 5명이 연루된 ‘흥사단아카데미 사건’, 정치권으로까지 비화한 ‘김덕룡 구속 사건’ 등이다. ‘서울의대 간첩단 사건’ ‘이화여대 김윤수 교수 구속사건’ ‘서울대 방화음모 사건’ 등도 이 양심선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긴조 9호세대 비화] 새벽지의 3인’김지하 구출작전’, 『주간경향』, 2004.07.08.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7597&code=115#csidx2ed9308587f34869fb9532d90953a70>

9) 김지하, 「나는 무죄이다-법정최후진술」, 『남녘땅 뱃노래』, 두레, 1985, p.81.

10) 통일에 대한 김지하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절충이란 대립되는 양자가 결합하되 새로운 타자(他者)를 낳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얽혀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통일이란 대립되어있는 것이 하나로 부딪쳐서 완전한 타자, 새로운 것을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원래 한 덩어리 안에서 두 개가 하나의 문제로서 파악되는 인식의 내용으로 일치한 것이다.” 「제5회 공판-변호인 반대신문」(1976.6.29), 위의 책, p.69.

11) 위의 글, p.172.

12) 김지하는 감옥에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작성한 바 있다. “(벗이어 : 인용자) 싸우기 위해 만나자. 그러기 위해 부단히 헤어지자. 그대와의 친교의 참된 실현을, 저 숲한 이웃들과 더불어 친교의 낙원을 이 땅에 실현키 위해 헤어지자. 백천번 헤어지자. 헤어짐으로써 비로소 만남, 그 만남을 실현시키자.” 김지하, 「김지하의 편지」, 위의 책, p.298.

여겼던 것 같다. 이를 위해 김지하는 자신의 수감 및 법정투쟁의 과정을 ‘예술’로 만들고자 했다. 「고행……1974」(『동아일보』, 1975.2.25~27)과 「나는 무죄이다-법정최후진술」(1976.12.23)의 다음 대목은 이를 잘 보여준다.

사형이 구형되었다. 나도 웃었다. 김병곤이의 최후진술이 시작되었다. 첫마디가 “영광입니다!” 아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영광입니다” 사형을 구형받자마자 “영광입니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는 엄청난 충격 속에 휘말려들기 시작했다.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가? 분명히 사형은 죽인다는 말이다. 죽인다는데, 죽는다는데, 목숨이 끝난다는데, 일체의 것이 종말이라는데, …(중략)… 그런데, “영광입니다.” 성자(聖者)의 말이다. …(중략)… 우리는 드디어 죽음을 이긴 것이다. 그 지옥의 나날 피투성이로 몸부림치며 순간순간을 내내 죽음과 싸워 드디어 그것의 공포를 이겨내버린 것이다. 경석이 한 사람, 병곤이 한 사람, 또 나 한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이긴 것이다. 이기고 나아가 그 죽음 위에 한없이 거룩한 성총의 봉인을 씌운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을 이겼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들, 이 집단의 영생을 얻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이 집단의 사슬에 묶인 가슴 속에서 비로소 타오르기 시작하는 참된 삶의 저 휘황한 불꽃을 감격에 차서 바라보고 있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아니 역사적인 것만이 아니다. 종교적인 천상의 예감이었다. 아니 종교적인 것만도 아니다. 예술적인 감동의 극치이기도 하였다. 그렇다. 그 순간은 무어라고 차마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모든 인간적인 가치와 모든 고상한 것들이 통일되는 빛나는 절정이었다. …(중략)… 나는 드디어 것처럼 오랜 세월 나를 괴롭혀 온 나의 민주적 운동, 정치 행동과 예술적 창조 사이의 저 미칠 것만 같은 간극을 일시에 극복해 버리고 만 것이다.<sup>13)</sup>(밑줄과 굵은 글씨 강조 : 인용자)

인용한 글에서 김지하는 사형을 구형받고 “영광입니다”라고 응수하는 김병곤의 진술을,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이긴, 죽음의 공포를 이긴 성자의 말’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경험)를 자신의 것으로 전유한다.(“경석이 한 사람, 병곤이 한 사람, 또 나 한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이긴 것이다.”) 김지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법정최후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발화함으로써, 법정투쟁을 극화(劇化)하여 자신의 정치(적 행보)가 예술(적 창조)이 되게 했다.

특히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구형은 나에게 큰 영광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종신형을 다 살다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해서 10년 징역을 더 살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sup>14)</sup>(밑줄 강조 : 인용자)

뿐만 아니라 인용한 발언에서 김지하는, ‘죽음의 공포를 이긴’ 김병곤의 최후진술을 뛰어넘어, 자기 자신을 ‘죽음에서 부활’하는 존재로 의미화하고 있다. 이 대목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앞선 인용문에서 김지하는 정치와 예술의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정치(역사)와 예술 사이에 ‘종교’를 끼워 넣은 바 있다. 나는 이것이 김지하가 종교를 대하는 태도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김지하에게 종교는, 정치가 예술이 되게 하기 위한 ‘매개’ 기능을 했다. 그러니까 김지하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 예수가 되고자 했다.

반복하자면, 김지하의 법정투쟁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는 ‘예술로서의 정치’의 실현에 기여했다. 김지하는 실제로 자신에게 씌워진 공산주의자 혐의에 반박하기 위해 법정에서 기독교(와 제3세계)가 자기 문학·사상의 중핵임을 끊임없이 언급했으며 기독교는 반공의 강력한 알리바

13) 김지하, 「고행……1974」, 『남녘땅 뱃노래』, 두레, 1985, pp.37-38.

14) 김지하, 「나는 무죄이다-법정최후진술」, 위의 책, p.65.

이가 되었다.<sup>15)</sup> <오적>, <비어>와 달리 감옥에서 쓴 <장일담>과 <말뚝> 메모에서 기독교 모티프가 전면화 된다는 점 또한, 그가 자신에게 씌워진 공산주의자 혐의를 의식하며 문학적 상상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적극 전유했음을 반증한다.<sup>16)</sup> 예술가가 되기 위해 기독교를 경유해 공산주의자 혐의에서 벗어나려 했던 김지하. 그는 생명(통일·일치·부활)을 얻기 위해 죽음(분리)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분법적 대립과 동일성의 원리 바깥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옹호할 죽음-부활은 상징적, 문학적인 것이어야 했기에 그가 전거로 삼은 ‘예수 서사’는 예컨대 ‘전대일의 분신’과는 만날 수 없었다. 김지하의 예수 혹은 김지하-예수는 (그의 말과 달리) ‘밑바닥’에 있지 않았고, 끝내 수직으로 초월하고자 했다.<sup>17)</sup> 이러한 맥락에서, 「죽음의 굿판을 걸어치워라」(『조선일보』, 1991.5.5)의 김지하는 장일담의 목을 독재자의 몸통에 이접, 부활시키는 (이를 친교·화해라고 말하는) <장일담>(1974~1975)의 김지하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는 얼마나 전향했는가?

김지하의 ‘정치(적 주제)와 예술(적 주제)의 통일’이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따른) 분리-죽음의 극복을 위한 실존적 차원의 예술가 되기였다고 할 때, 이는 정치적 자아로부터의 이탈을 한없이 의식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도리어 이분법적 대립구도에 부합했다. 김지하의 정치와 예

15) 이와 같은 사례는 수없이 많으므로 모두 인용하기 어렵다. 일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요한 23세도 <어머니와 교사>라는 회칙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탄했는데, 그가 맑스주의자인가? 16, 17세기의 토마스 뮌저의 <<빈자의 슬픔과 고통>>, 존 릴번의 <<정당방위>> 등에도 나오는 것으로 맑스주의와는 무관한 것이다.” 「제3회 공판-검사측 주심문」, 위의 책, P.43; “이 내용 자체는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침묵의 질서 속에 장기간 유폐, 억압당한 민중의 잠든 의식 속에 해방과 자유에 대한 자의식을 급격히 조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환각적 해방의 메시지, 또는 충격효과로서의 언어적 폭력을 나타낸 것 뿐이다. 그리고 타도니 해방 등의 주제로 나타나 있는 ‘저주당한 자’도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혁명적 공산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는 상식으로써도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의 기생충’이라 하여 극도로 매도, 경계하는 이른바 룬펜 프롤레타리아, 즉 범죄자집단, 천민집단이다. 공산주의와는 무관하다.” 위의 글, 위의 쪽;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사회윤리에 입각한 표현으로 현 부패 독재 정권의 도덕적 타락을 래디컬(Radical)하게 폭로, 공격하려는 것 뿐이다. 이런 표현은 구약성서의 아모스 6, 8장, 이사야 3, 5, 10장 미카 2, 3, 6장 등 도처에 나타나 있다. …(중략)… 기독교적 래디컬리즘(Radicalism)에서는 자연스런 표현이다.” 위의 글, PP.46-47; “(내가 모택동 사상에 : 인용자)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도 가톨릭 입교 전인 1969년이 아니라 입교 후인 1973년경이다. 즉 1969년 모택동 사상을 읽었을 때 다만 지식인의 지적 호기심에 불과했고, 1973년경 농촌 협동문제에 손대기 시작하면서 당시 버나드 와이드맨이라는 미국인 동양 농촌문제 전문가로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마을운동의 기본골격에 중국의 초급합작사(初級合作社) 반신운동 등의 방법이 수정없이 거의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 모택동 사상을 대거 취급하고 있는 류엘 알베스, 우고 아스만 등 해방신학자의 저서 등을 읽으면서부터이지, 가톨릭 입교 이전이 아니다.” 위의 글, PP.49-50. 등.

16) 그러나 동일한 시점 김지하의 내면을 사로잡았던 사상은 동학과 증산도였다. 이는 그가 1980년 출소 직후부터 전개하기 시작한 모든 글이 동학과 증산도를 레퍼런스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때문에 김지하는 (동학을 전거로 하는) 생명 사상으로 ‘돌아섰다’고 평가되곤 했다. 그러나 도리어 김지하가 기독교 사상을 기능적으로 전유(토착화)해야 할 필요성이야말로, 검열이라는 정황에 국한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김지하는 수배되어 원주에 거주하던 1971년 무렵 이미 혁명 사상으로서 기독교를 수용하기 시작했고 그 영향 하에 있었던 것이 <금관의 예수>였다. 그러나 감옥에서 쓴 <장일담> 메모가 기독교의 토착화를 염두에 두고 동학과 증산도를 적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지하가 법정에서 공산주의자 혐의에 항변하며 역설한 것은 기독교 사상이었다. 김지하에게 기독교 사상이란 그가 검토한 다수의 혁명 사상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고,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된 것이었다.

17) 이러한 양상은 김지하의 동학 이해와도 연관된다.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카리스마, 즉 성육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진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화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동학은 밑으로부터, 즉 지상으로부터 천상으로 향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관계와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관계가 어떻게 결합되어서 현대 한국의 여러 가지 요청과 결부시켜 하나의 창조적인 민권운동의 방향으로 우리 전민족의 활로를 열어 줄 혁명적 종교운동으로 발전시키겠는가 하는 그런 관심에서 메모해 놓은 것이다.”(밑줄 강조 : 인용자) 「제5회 공판-변호인 반대신문」(1976.6.29), 앞의 책, p.70. 이와 관련해서는 3장에서 더 자세히 서술하겠다.

술은 위계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러한 위계적 분열은 지속된다. 김지하가 “내 시를 읽 어줄 유일한 사람”으로 지목했던 김현은 1980년대 중반 김지하의 시에서 (리듬뿐 아니라) ‘자 아의 분열’을 읽어낸 바 있다.

「속꽃 핀 열매의 꿈-김지하에게」(『문예중앙』, 1986년 가을)에서 김현은 김지하의 시 <무화 과>(『우리 시대의 문학』5집, 1986)<sup>18)</sup>를 분석한다. 김현은 시에 등장하는 ‘탄식하는 나’와 (나 를) ‘위로하는 친구’에 대해, “나는 실재적 자아이며, 친구는 잠재적 자아이며, 화자는 그 두 자아를 관찰하는 예술적 자아이다.”<sup>19)</sup>라는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는다. 실패감에 절망하는 실 재적 자아를 잠재적 자아가 달래고, 예술적 자아가 두 자아의 대화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기 위해 자아는 분열하며, 한 자아는 달래고, 한 자아는 그 달래움을 예술로 만든다. 한 자아의 욕망은 적절히 규제되어, 그의 절망은 폭발력을 제어 받는다. 그 분열의 과정은 아름답고 감동적이다.”<sup>20)</sup>(밑줄 강조 : 인용자) 즉, 김 현은 김지하의 시에서 자아 분열 과정이 곧 예술(적 자아의) 작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분열함 으으로써만 외로움(고독)에서 벗어나 위로하는 제 2의 자아를 얻고 이를 예술화하는 아이러니. 김현이 지적했듯 김지하의 시 <무화과>에서 분열의 해소는, 분열이 해소될 수 있다는 말과 달 리 유예되며, 김지하 미학(의 존재 가능성)은 분열(의 역설)에서 온다. 김현은 이를 단지 <무화 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소는 유예되고 그 해소에 대한 그리움만이 남아야 시 를 쓸 수 있다”<sup>21)</sup>며, 김지하 시세계의 근본으로 언급한다.

김지하는 ‘통일’, ‘친교(코이노니아)’, ‘화해’에 대해 끊임없이 말했으며, 이는 그의 문학·사상 의 핵심으로 간주돼왔다. 그러나 그의 통일·친교·화해는 실험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김현 이 지적한대로 ‘유예된 상태로 남겨진 통일’은 일종의 ‘실존주의자의 태도’<sup>22)</sup>였다고 볼 수 있 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예술가 되기의 과정이기도 했던 김지하의 자기분열 양상은 그의 문학 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 3. ‘애린’으로 가는 도정 : 남성민중영웅의 탄생과 자기혐오/구원 서사를 위한 여성의 몸

김지하의 『애린 첫째권』(1986)과 『애린 둘째권』(1986)(이하 『애린』)에 실린 시편들은 그가 생명사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쓴 것이라고 이야기돼왔다. ‘애린’은 ‘생명’의 상징이자, 김지하 가 남성성의 세계에서 여성성의 세계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기표로 간주되곤 했다.<sup>23)</sup> 『애린』

18) <무화과>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돌담 기대 친구 손 붙들고/ 토한 뒤 눈물 닦고 코풀고 나서/ 우 러른 잿빛 하늘/ 무화과 한 그루가 그마저 가려섰다.// 이봐/ 내겐 꽃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쩐가/ 친구는 손 뽑아 등 다스려주며/ 이것봐/ 열매 속에서 속 꽃 피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쩐가// 일어나 둘이서 검은 개굴창가 따라/ 비틀거리며 걷는다/ 검은 도둑꿩이 하나가 날째게/ 개굴창을 가로지른다” 김지하, <무화과>, 『애린 둘째권』, 실천문학사, 1986.

19) 김현, 「속꽃 핀 열매의 꿈-김지하에게」, 『김현 문학전집⑦』, 문학과지성사, 2015, p.64.

20) 김현, 위의 글, 위의 쪽.

21) 위의 글, p.66.

22) “시인은 나를 강조한다. 시인의 강조하는 나는, 그가 다른 시에서 잘린 나무라는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중략)… 그 나가 엘리트주의, 혹은 넓은 의미의 영웅주의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지 않은 것 은 아니지만, 그 흔적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삶에서 유리된 고립주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은 없다. 그것이 나의 미덕이다. 나는 차라리 본질과 외관의 괴리에 고뇌하는 실존주의자에 가깝다. 삶의 본질을 드러내려는 나의 꿈은 깊고, 그것의 실현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은 높다.” 위의 글, p.67.

23) 이에 대해서는 정훈, 「김지하와 월등된 문학에 나타난 여성 상징 비교 연구」, 『문창어문논집』43, 문 창어문학회, 2006; 최옥선, 「김지하의 시에 나타난 생명사상과 글쓰기 방식」, 『동학학보』40, 동학학

의 세계는 ‘남성 근대를 극복하는 대안적 사유의 모색’<sup>24)</sup>을 나타낸다거나, 김지하의 ‘문학적/사상적/정치적 변모’를 반영한다고 평가되었다. 변모의 계기로는 주로 ‘동학’ 혹은 김지하가 감옥을 중심으로 경험한 ‘남성적 국가폭력’이 언급된다. 그러나 애린은 김지하의 전(全) 시기 문학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희곡 <금관의 예수>와 옥중메모 <장일담>에서부터 『애린』에 이르기까지, 김지하의 문학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존재 자체가 ‘밑바닥 삶’이며, 대다수가 “창녀”이다. 그녀들은 변혁 주체로서의 민중으로 재현되지 않는다. 그녀들의 한 많은 삶은 변혁의 장소로서 들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일으킬 ‘남성민중영웅’의 하위주체성을 담보하는 비참한 삶의 배경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녀들의 역할은 때에 따라 변하나 남성민중에 대한 상상(의 변화)에 좌우되곤 한다. 조력자였다가 썩은 자궁이었다가 생명 자체(구원자)가 되는 그녀들의 교환되는 몸은, 김지하의 자기혐오/구원 서사 및 남성민중이라는 영웅적 주체성을 구축케 하는 객체이자 그것을 뒤흔드는 비체였다.

### 3.1. 문둥이와 미완의 혁명-남성성 : <금관의 예수>

김지하의 3번째 창작 희곡인 <금관의 예수>는, “1972년 1월에서 3월까지 한국 팩스 로마나의 크리스천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가톨릭교구의 지역본부가 있는 도시를 순회한 공연이었”<sup>25)</sup>으며, <구리 이순신>을 개작한 작품이다. <금관의 예수>는 공동창작으로 쓰였는데, 개작은 극회 ‘상설무대’의 대표 이동진이 맡았다. 애초에는 총 3장으로 구성되었으나 후에 오종우가 4장을 써서 덧붙였다. 이를 김지하가 최종적으로 수정·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6)</sup> 원작이 김지하의 <구리 이순신>이었고 김지하가 개작원고를 갈무리했음을 고려할 때, <금관의 예수>가 김지하의 사상을 반영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실제로 극 전반에서 김지하의 민중의식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이 작품은 김지하의 희곡으로 간주되어 그의 책 『뚝딱기 뚝딱』, 『구리 이순신』 등에 수록됐으며, 앞서 쓰인 그의 희곡 <나뿔레옹 꼬낙>, <구리 이순신>에 비해 민중상이 구체화되어 있다고 평가되었다. <금관의 예수>가 1970년대에 야외 순회공연을 했던 최초의 연극이었다는 점 또한, 민중극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준다.<sup>27)</sup>

극의 시대적 배경은 1971년 겨울이다. 전신은 시멘트로 덮여 있고 머리에는 금관이 쓰여 있는 예수상 주위에, 김지하가 작사한 노래 ‘금관의 예수’<sup>28)</sup>가 울리는 것으로 극은 시작한다.

회, 2016; 홍용희, 앞의 책.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4) 정용호, 『김수영과 김지하 문학에 나타난 근대성 비판 연구』, 울산대박사학위논문, 2017, 참고.

25) 박영정, 「1970년대 김지하 희곡 연구」, 『한국극예술연구』17, 한국극예술연구회, 2003, p.243.

26) 박영정, 「1970년대 기독교 연극 연구」, 『국제어문』21, 국제어문학회, 2000; 박영정, 위의 글(2003), 참고.

27) <금관의 예수> 창작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71년 원주에서는 가톨릭 문화운동과 민족문화운동을 화이부동(和而不同) 차원에서 융합하려는 새로운 문화운동이 싹텄다. 그 중심에 김지하가 있었다. 김지하는 가톨릭의 진보적 사상과 남미의 해방신학 및 개신교의 민중신학적 맹아를 일찌감치 예감했다. 강원도 탄광지역에 피신해 있던 김지하는 그 무렵 ‘금관의 예수’란 희곡 한 편을 썼다.” ‘금관의 예수’는 김민기가 작곡하고 양희은이 부른 곡(1972년)으로 유명하지만, 이 노래의 가사는 희곡 <금관의 예수>의 맥락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윤무한, 「[건국 60년 특별연재·책으로 본 한국 현대인물사 ⑧] 안병무」, 『신동아』, 2009.3.25, 참고.

28)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별판/ 태양도 빛을 잃어/ 아,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서 왔나/ 얼굴 여인 사람들/ 무얼 찾아 헤메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고향도 없다네/ 지쳐 몸 눕힐 무덤도 없이/ 겨울 한복판/ 버림받았네/ 버림받았네// 아아 거리여/ 외로운 거리/ 거절당한 손길들/ 얼어붙은 저 캄캄한 곤욕의 거리// 어디 있을까/ 천국은 어디/ 죽음 저편에/ 사철 푸른 나무숲/ 거기 있을까/ 가리라 죽어 그리로/ 가리라 고된 삶을 버리고/ 죽어 그리 가리라// 끝없는 겨울/ 밑모를 어둠/ 못견디겠네/ 이 서러운 세월/ 못견디겠네 못견디겠네/ 이 지나간 가

극에서 반복 등장하는 중요한 노래인 ‘금관의 예수’는 민중의 고통을 가난과 소외로 제시하면서 구원이 필요한 시대에 메시아를 찾는 극 전반부의 전경을 표현한다. 한편 극 <금관의 예수>의 후반부는 노래 ‘금관의 예수’에서 나아가 민중메시아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는데, 민중메시아의 묘사 과정에서 그에게 특정한 자질이 부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문둥 : 예수님, 어찌하면 예수님이 해방될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다시 살아나 저희들에게 오실 수 있습니까?

예수 : 내 힘만으로는 안된다. 너희들이 나를 해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략)… 내가 내 입을 열었다. 내가 내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내는 순간 내 입이 열렸다. 내가 나를 해방하리라.

문둥 : 예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 몸 하나도 의탁할 곳이 없는 가련한 놈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 : 아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다. 너만이 날 해방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세상에 하늘나라를 이룩하게 만들어 줄 사람이니라. 너의 그 가난, 너의 그 슬기와 어진 마음, 더욱이 불의에 대해 항거하려는 네 용기가 바로 그것이다. 자,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와, 내가 내 입을 열게 했듯이 내 몸을 자유롭게 하라. 이 세멘트를 벗겨내라. 내 머리 위엔 가시관으로 족하니라. …(중략)… 용기를 내라. 자, 어서 어서, 이 세멘트를 벗겨내줘. 답답하고 갑갑해서 못 살겠구나. 어서 빨리 훨훨 벗어나 백성들 속으로 가고 싶다.<sup>29)</sup>(밑줄 강조 : 인용자)

민중메시아를 암시하는 위 대목에서, 예수는 문둥이의 가난과 슬기, 어진 마음, 용기(저항)이 문둥이 자신을 해방자 민중메시아로 만든다고 말한다. 그런데 가난을 제외한 요소, 즉 슬기-어진 마음-용기 등은 문둥이를 극중의 다른 민중(거지, 성매매여성)과 구분 짓는 자질이다. 문둥이와 거지의 대화에서 문둥이는 거지와 달리 선량하고 염치가 있으며 인격적일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있다. 문둥이는 물질만능주의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간의 탐욕으로 왜곡된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에 대해 자문하는, 해학적이고도 고매하고 의로운 존재로 묘사된다. 또한 그는 극중에서 성매매여성에 비해 결기가 있으며 그녀로부터 애정과 존경을 받기도 한다. 3장의 말미에서는 성매매 여성과 수녀가 슬기로운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로 (예수에 의해)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들 사이에도 자질의 차이가 주어지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예수에게서 시멘트를 벗겨내려 움직이는 존재는 문둥이로만 제시된다. 여성(민중)들은 문둥이의 조력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거나 가질 수 있을 뿐이며, 문둥이의 행위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와 더불어 절규하는 양심일 따름이다.

문둥이를 민중메시아로 암시하는 ‘자질의 차이’는, 그를 뿌리 뽑히고 저주받은 자에게 한 ‘나병 걸린 썩은 몸’을 근거로 한다. (“거지꼴도 서러운데/ 문둥이가 웬 말이냐”) 이와 관련해 김지하의 다음 발언을 참고할 수 있다.

나는 오늘날의 교도소에 가득찬 천민 속에 복음이 인간회복의 참된 메시지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앓을 수 없었다. 즉 극단적인 비참이 하느님의 극단적인 영광으로 전환되는 파라독스(Paradox), 즉 역설을 이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속에서 기독교는 진정한 빛을 뿌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sup>30)</sup>

난 못견디겠네/ 차디찬 세상 더는 못견디겠네// 어디 계실까/ 주님은 어디/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별판/ 태양은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우리 구원하실 그분/ 어디 계실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주여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주여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 여기/ 우리와 함께, 주여 우리와 함께” 김지하, <금관의 예수>, 『민중의 노래 민중의 노래』, 동광출판사, 1984, pp.93-96.

29) 김지하, <금관의 예수>, 앞의 책, pp.133-134.

30) 「제5회 공판-변호인 반대신문」(1976.6.29), 앞의 책, p.74.

이러한 정권에 대항함에 있어 나 같은 백수건달 가지고는 안됩니다. 조직적으로 탄압하면 할수록 탄압 그 자체를 오히려 스스로가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들, 실제로 현 정권에 의하여 희생 유린된 창녀와 갈보와 전과자와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만이 현 정권과 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가슴 속에 쌓인 한,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축적된 그 한, 이 한의 엄청난 자기운동에 의해서만 현 정권과의 대결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나 같은 인텔리나 종교인들 또한 현 정부가 자비(?)로워서 그렇지, 현 정권이 계속 몰아붙인다면 전부 손들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주력 또는 주인공으로 본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sup>31)</sup>

인용한 글에 서술된 바와 같이, 김지하의 문학에서 혁명은 탄압 가운데 비로소 자신의 인간성을 주장하며 봉기하는 이들, 세상으로부터 극도로 소외되고 버림받아 한이 축적된 이들에 의해 발발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창녀와 갈보와 전과자와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 중, 여성들은 실제 김지하 문학의 혁명 주체가 아니다. <금관의 예수>에서 민중메시아는 젠더 위계를 반영하며 해방(혁명)은 명백히 남성적인 것이다.<sup>32)</sup>

그런데 <금관의 예수>가 예수의 (시멘트를 벗겨냄으로써) 해방을 완성하는 민중메시아를 재현하지 못하고 그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는 데 그친 이유, 즉 문둥이가 메시아 역할을 완수하지 못한 이유 또한 바로 문둥이의 ‘썩은 몸’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지하는 민중메시아를 재현하기 위해, 하위주체성을 표상하는 썩은 몸을 가진 남성민중을 등장시켰지만, 바로 그 몸 때문에 (그가 메시아적 자질을 가졌음에도) 혁명은 미완에 그쳤다. 민중메시아는 하위주체성을 담보하는 몸을 필요로 하면서도 남성민중영웅이 되기에 흠결이 없어야 했다. 그는 밑바닥이자 하늘이어야 하는데, 문둥이 이미지는 ‘성자의 자질’보다 ‘썩고 추한 몸’에 기울어있었다. 이런 양상은 김지하가 <장일담>에서 탄생시킨 남성민중영웅의 형상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 3.2. 여성에게 전가된 ‘썩은 몸’과 남성연대의 상상 : ‘장일담’의 형제들

<금관의 예수>에서 불가능했던 혁명의 완수는 <장일담>에서 가능해진다. 그 이유는, <장일담>에 이르러 모델이 완비되었기 때문이다. 김지하는 자신이 창조한 장일담이라는 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장일담은 : 인용자) 일자무식꾼으로 강도다. 아버지는 백정(白丁), 어머니는 창녀인 전과자다. 프란츠 파농이 말하는 ‘지구에서 추방된 자, 저주받은 자’다. 그는 감옥에서 반정부죄목으로 투옥된 목사, 그리고 지식인 등을 만나 귀동냥해서 득도(得道)한다. …(중략)… 창녀가 성병에 걸리고 폐결핵, 정신병에도 걸려 있는데도, 즉 다 죽게 되었는데도 아기를 낳는 것을 장일담이 보게 된다. 그는 창녀의 밑바닥에 입맞춘다. 즉 다 썩은 자궁에서 하느님을 의미하는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그 신비에서 득도하게 되는 것이다. 썩은 속에서 새것이 나온다는 이 신비를 득도하게 되는 것이다.<sup>33)</sup>

<금관의 예수>에서 문둥이의 조력자였던 성매매여성은 <장일담>에서 민중영웅 장일담의 어머니이자, 죽음을 무릅쓰고 “하느님을 의미하는 새 생명”을 출산하는 인물, 그로써 장일담을 득도하게 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여성(들)은 성병과 폐결핵, 정신병에 걸려 말

31) 김지하, 「나는 무죄이다-법정최후진술」, 앞의 책, pp.72-73.

32) 또한 인용된 글에서 김지하는 백수건달이자 엘리트인 자신이 혁명의 주역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는 스스로 혁명의 주인공으로서 민중이 되고자 했고 자신을 그렇게 의미화 했다. 심지어 ‘백수건달’은 김지하가 즐기치게 혁명의 주역으로 내세운 ‘룸펜’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33) 「제4회 공판-변호인 반대신문」(1976.6.15.), 앞의 책, pp.66-67.

로 다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로 다 죽어가는 처지가 돼야 했다. 그녀의 썩은 자궁을 송고한 것으로 의미화 하며 그곳에 입 맞출 장일담들을 태어나게 하고 득도시키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니까 문둥이의 '썩은 몸'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나아가 그녀의 정신까지 병들게 해 여성을 육체적·인격적으로 말살하여 '썩은 자궁'이 되게 함으로써, 남성민중영웅의 탄생 및 거듭남(각성)은 가능했으며 미완의 혁명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

이제 김지하의 남성민중영웅은 '깨끗하고 건강한 육체'를 갖고도 하위주체성을 담보 받게 된다. 김지하 문학에 등장하는 (성매매)여성들은, 남성이 진정한 민중영웅이 되기 위해 자기혐오를 투사(投射)하는 대상이었다. 강조하자면, 여성에게 자기혐오 요인을 투사하고 분열되기 이전, 혁명의 가능태였던 남성민중은 문둥이로 재현되었고, 김지하는 그를 혁명을 완수하는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그 주변에 조력자로 존재하던 (성매매)여성에게 썩은 몸을 전이시켰다.<sup>34)</sup> 장일담은 그렇게 자기분열을 거쳐 혁명가가 되었다. 이러한 남성민중영웅의 형상은 김지하 자신과 오버랩 된다. 이와 관련해 김지하의 다음 회고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다소 길게 인용하도록 하겠다.

큰 숙부 김문태(金文泰)씨는 타고난 '우투리'였다. 잘생긴 얼굴에 둥글고 서글서글한 눈매, 짙고 검은 눈썹, 완강한체격, 살인적인 완력, 굵은 목소리에 어글어글한 성격, 끈질긴 내기 욕심하며 그 싸움, 그 지독한 장난기로 집안에선 증조부의 그림자, 소귀(小鬼), 축소판이라고들 했다. …(중략)… 어려서부터 주먹대장인데 나이 들어 해군육전대 요즈음의 해병대 갔다 온 뒤로는 연동에선 단연 왕초요 온 목포바닥 으뜸 큰 주먹으로 저 유명한 '일담이'와 함께 형이야 아우야 하며 쌍벽이 되어 내리 그 판을 휩쓸었다. 건달 우투리! …(중략)… 또 생각한다. 연동 우리 친가 바로 앞에 무슨 관인지 장인지 하는 큰 술집에 '호마'라고 역실역실, 입걸고 덕대 큰 걸물 여주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숙부가 만취, 우리집 들어오는 그 집 옆골목 판장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호마야 이녀언! 위 아래로 별탈 없냐야?” …(중략)… 호마는 숙부보다 열 살 위였으니 우습다. 어느 가을날 대낮 시퍼런 하늘을 등에 지고 시뻘건 말위에 우뚝 앉은 숙부의 능름한 모습을 쳐다보며 나는 눈이 부셔 자꾸만 눈을 비비며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곤 했다. 숙부는 나의 영웅이었다. 그리고 숙부는 생전 내내 나를 끔찍이 사랑했다. …(중략)… 호방, 쾌락, 사나이의 삶, 거칠고 뜨거운 피, 야성의 사랑, 숙부의 세계다. 그리고 조금은 나의 세계이기도 하다.<sup>35)</sup>(밑줄 강조 : 인용자)

1975년 나의 반공법위반사건 내용 중에 당시 '장일담' 구상메모가 들어있다. 당시 수사관들은 장일담의 모델이 누구냐고 거듭거듭 물었었고 출옥 후에도 그것을 묻는 사람이 여럿 있었다. 허구라고 대답해왔고 물론 허구다. 장일담의 사상이 그러하니까. 허나 영상으로서의 모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 밝히겠는데 그가 바로 정일담이다. 정일담은 연동의 전설적인 영웅이며 목포건달세계의 신화적인 인물이다. 흔히 어른은 물론 아이들까지도 그저 '일담이', '일담이'하고 불렀던 그는 한마디로 그 무렵 연동과 목포의 민중영웅이었다. 숙부와 쌍벽이라고는 하지만 숙부보다는 나이도 위였고 한차원이 높은 큰 우투리였다. 그는 어릴 적 이후 지금까지 가장 절친한 나의 한 불알친구의 숙부이기도 하다. 그 전설 속의 정일담이 해방이 되자 목포에 나타났다. 당시 목포시 치안대장 정일담이 바로 그 사람이다. …(중략)… 그 뒤 일담은 사라졌다. …(중략)… 그 사라진 일담이가 6.25때 인민군 들어온 뒤 한참있다 어느날 정치보위부 대좌계급장을 단 군복차림으로 사이드카를 타고 연동에 나타났다. …(중략)… 그 무렵 '악질반동 부화분자'로 찍혀 솔개제 오동나무거리 교화소(敎化所)에 갇혀 모진 고생을 하고 있던 문태숙부를 석방했다. 그리고 또 다시 사라졌다. 이번에는 영원히. …(중략)… 정일담. 그러나 그는 가난한 모든 아이들의 끝나지 않는 꿈, 내 마음 속의 소박한 소박한 영웅의 전설이다.<sup>36)</sup>

34) 물론 민중메시아를 수태하기 위해 썩은 몸이 된 성매매여성은 메시아를 수태하기 위해 동정녀가 되었던 성모마리아의 거울쌍으로 볼 수 있다.

35) 김지하, 『모로누운 돌부처』, 『모로 누운 돌부처』, 나남, 1992, pp.51-52.

(밑줄 강조 : 인용자)

인용한 글에서 김지하의 숙부 김문태, 그리고 ‘장일담’ 이미지의 모델인 정일담은 굉장히 유사하게 묘사되며, 김지하 자신 또한 그들 이미지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김지하에 의하면 김문태와 정일담은 막역한 사이였을 뿐 아니라, 김지하와 그의 숙부 김문태, 김지하의 “불알친구”와 그의 숙부 정일담은 모두 김지하의 의식 속에서 ‘힘’, ‘호방함’, ‘쾌락’, ‘짓궂음’, ‘야성’, ‘늠름함’, ‘정의로움’, ‘건달’, ‘우투리’ 등으로 묘사되는 남성성에 기댄 형제애로 묶여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성격들이 ‘민중’과 ‘영웅’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그러므로써 “가난한 모든 아이들의 끝나지 않는 꿈”으로 의미화 되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김지하 문학·사상에서 혁명주체로서의 민중 형상 그리고 김지하 자신의 민중으로의 정체화는, ‘장일담의 형제들’의 영웅적 면모 및 남성연대의 맥락 안에 있다.<sup>37)</sup> 김지하의 시 <여름 감방에서>는 이를 잘 보여준다.

따통꾼 안씨는 만주서 왔다/ 전과 이십범 마적대 출신/ 별명이 갈쿠리인 안씨는 곧잘 마적들의/ 붉은 술이 달린 단도며 노을진 평원의/ 말달리기며/ 마을을 통째로 들어먹고 중국년을/ 한꺼번에 셋씩이나 상관했다는/ 옛이야길 하다가 노상/ 인간은 모두 도둑놈이라고/ 험상궂게 악을 쓰며 침을 뱉는다/ 그렇지 않다고/ 착한 사람 애길 하단 벽력이 떨어진다/ 너두 도둑 정권도둑/ 그러나 미수다 헤헤헤/ 나는 꺾꺾꺾 웃고 만다/ 그런 날 밤엔 안씨와/ 뺨질을 하며 나는 말을 타고/ 평원을 달리고 칼을 던지고/ 나는 흥악하고 흥악한 마적이 된다/ 중국년을 셋씩이나 상관하고/ 마을에 불을 놓는다/ 싸그리 통째로 들어먹는다/ 뿌우연 호박꽃을 쳐다보며/ 인간은 모두 다 도둑놈이라고/ 밤새워 중얼중얼거리며<sup>38)</sup>(밑줄 강조 : 인용자)

김지하, <여름 감방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전문

김지하는 인용한 시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스물 세살적 여름. 서대문 감옥에서다. 잡범들과 합방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안씨라는 따통꾼, 절도전과 13범. …(중략)… 자기 말로는 만주에서 마적질을 했다고 거품을 물고 주장하는데 아무래도 뺨튀김이다.”<sup>39)</sup> 그러니까 <여름 감방에서>는 김지하가 한일회담 반대투쟁으로 투옥되었을 당시 감옥에서 만난 실제 인물 ‘안씨’를 모티프로 해서 쓴 시다. ‘안씨’는 앞서 살펴본 ‘숙부 김문태’, ‘정일담’과 매우 유사한 인물이다. 주목할 것은 위 시에서, 남성민중영웅으로 간주된 인물형과의 결합 및 남성민중영웅으로의 자기 정체화가 구체화된다는 점이다. 시의 화자가 안씨와 남성 간 성행위인 “뺨질”을 하고 그와 동일한 행동(“나는 말을 타고/ 평원을 달리고 칼을 던지고/ 나는 흥악하고 흥악한 마적이 된다/ 중국년을 셋씩이나 상관하고/ 마을에 불을 놓는다/ 싸그리 통째로 들어먹는다”)을 하는 자신을 상상하는 내용은 이를 잘 나타낸다. 김지하는 영웅적 남성민중으로 정체화 함으로써 남성성의 세계로 진입, 남성연대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것이 그가 염원했던 ‘친교로서의 혁명’이었기 때문이다.<sup>40)</sup>

36) 김지하, 위의 글, pp.53-55.

37) 정용호와 홍용희는 김지하의 시에서 ‘아버 찾기’, ‘아버와 하나 되기’를 주목했으며, 김지하가 초기 『항토』의 세계에서부터 ‘애비’라는 남성 주체를 따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용호는 김지하에게 아버지가 ‘저항의 좌절’이자 “저항 정신 자체”를 상징하는 “민족적·민중적 영웅”인 남성 주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버지를 따름으로써 김지하는 죽음을 불사하며 저항정신을 지속할 수 있었고 이러한 태도는 민중적 삶-생명력과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정용호, 앞의 글, 참고; 홍용희, 「부정의 정신과 생명 찾기」, 상허학회 편, 『새로 쓰는 한국 시인론』, 백년글사랑, 2003, 참고.

38) 김지하, <여름 감방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창작과비평사, 1982, pp.32-33.

39) 김지하, 「모로누운 돌부처」, 앞의 책, p.96.

40)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이영숙<sup>41)</sup>은 <여름 감방에서>를 “민중 되기”의 일환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영숙은, 김지하가 「고행……1974」에 수록된 두 사례 ①김병곤의 최후진술에 감화되고 ②감옥과 인쇄공장에서 “밀바닥의 한”과 일치되는 경험을 겪으며, “자신의 민중적 자아와 만나게”돼 “감옥이 아니라면 평생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인간들과” “‘비로소’ 동등해”지고 민중 되기를 실현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사례가 <여름 감방에서>에 드러난 “따통꾼 안씨 되기”라고 하였다. 이영숙은 김지하가 (안씨로 대표되는) 민중과 “결연을 맺음으로써”<sup>42)</sup> “지식인의 자아에서 민중적 자아로 거듭나게” 됐다며 이를 들뢰즈의 ‘되기’의 일종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나는 김지하의 <여름 감방에서>를 위와 같은 의미의 민중 되기가 아닌, 남성민중영웅으로의 자기정체화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김지하의 영웅 형상은 ‘민중과의 만남 없이’ 초월적 이미지를 통한 위계적 통합을 가능케 한 매개였다. 남성영웅이기에 민중도 될 수 있고 민중메시아일 수도 있는 그는 김지하 자신이(어야 했다). 「고행……1974」에 묘사된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준다.

나는 작년 4월 25일 새벽 흑산도에서 체포되었다. …(중략)… 그러나 배가 목포항에 도착했을 때 내 귀에 문득 계면조의 대금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져 들어갔다. 10여 년을 그리던 고향, 그 고향에 나는 수갑을 찬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중략)… 내 시의 어머니. 굽이굽이 한이 얽힌 저 핏빛 황토의 언덕들. …(중략)… 아아 그 고향에 나는 수갑을 찬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가까스로 울음을 참으며 브리지를 내려설 때, 나는 그러나 파지장에 몰려선 수많은 생선장수 아주머니들의 그 삶에 지치고 별에 그을린 얼굴들 속에서, 수갑 찬 나를 강도나 절도로 파악하는 얼굴들, 그리하여 자기들과 똑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팔자 사나운 놈으로 생각하는 그 얼굴들 속에서 비로소 나의 귀향을 맞이해주는 고향의 뜨거운 인사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나는 이제야 내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이제야 내 핏줄에 다시금 뿔뿔이 복귀한 것이다. 저주받은 땅 전라도의 아들답게 수갑을 차고, 천대받는 사람들 ‘하와이’의 시인답게 한과 미칠 듯한 분노와 솟구치는 통곡을 가슴에 안고, 10여년 전 옛날과 똑같은 낡고 먼지 이는 그 가난한 거리에 못난 아들이 이제야 돌아왔노라 인사를 드리면서 나는 서서히 내 가슴 속에 미소가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다.<sup>43)</sup>

인용한 대목에서 김지하는 그리워하던 고향에 수갑 찬 모습으로 돌아온 자신을 잡범, 즉 “자기들과 똑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팔자 사나운 놈으로 생각하는” 민중의 얼굴에서, “고향의 뜨거운 인사”를 느낀다. 주목할 것은, 김지하를 잡범으로 보는 민중들의 멸시어린 얼굴을, ‘(김지하를)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얼굴’로 읽어낸 것이 바로 김지하 자신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김지하는, 대의를 위해 수난 받는 정치범인 자신이 강도쯤으로 간주된 것은 곧 ‘민중들과 동류로 취급된 것’이고 이는 그가 “저주받은 땅”과 “천대받는 사람들”의 운명에 동참하게 된 것이라 의미화 하고 있다. 여기서 민중과의 동일시(일치)는 오히려 ‘나는 잡범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되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우월의식·영웅의식이 매개가 되어 성립하는 것이 바로 ‘민중과의 일치(통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위 장면이 자기 고향에서 배척·수난 받는 예수를 떠올리게 하고, 그러한 역설적인 환영의 순간에 극적 효과를 주는 “계면조의 대금소리”가 등장하는 점은, 자신이 체포된 몸으로 고향에 도착한 장면을 예술로 승화하려는 김지하의 심리를 잘 나타낸다. 이처럼 김지하의 민중으로의 정체화는 그가 영웅-메시아가 될 때 가능했고 궁극적으로는 예술로서만 유효했다. 이러한 원리는, 이질적인 타자와의 만남으로 인한 자아의 붕괴 없이 ‘김지하’를 영웅이자 메시아의 이름으로 완성하기 위한 분열적 자기구원 서

41) 이영숙, 『김지하 시에 나타난 민중의식과 역사의식 연구』, 중앙대박사학위논문, 2016.

42) 이영숙에 의하면, 김지하와 안씨(등의 민중)이 ‘결연 관계’라는 것은 곧 그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흉악한 마적”의 연대감 속에 함께”함을 의미한다. 이영숙, 앞의 글, p.76.

43) 김지하, 「고행……1974」, 앞의 책, pp.31-32.

사-예술이었다.

### 3.3. 지연되는 혁명의 시간과 구원의 기표로 소환되는 여성 : 『애린』

<장일담>에서 여성이 생명을 출산하는 (씩은) 자궁이었다면, 『애린』의 (여성 청자인) ‘애린’은 생명 자체이다. 하지만 김지하 문학·사상에서 여성의 위상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특히 『애린 둘째권』에서 애린은, 권위를 상실한 채 비틀거리는 가부장의 비애를 표출하고 그가 최소한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름이다. 『애린』의 화자는 ‘애린을 그리워하는 자기이미지’를 통해 삶을 견딘다. 애린을 중심으로 한 이성애 구도를 통해, 남성성의 세계에 안착하지 못한 화자는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한다. 애린은 그를 위협하지 않는 안전한 구원자이다. 시집 마지막에서 “사랑하겠다”(〈사랑〉)는 의지가 표현되기도 하나, 화자는 사실 여전히 갈등 중이다. (“이제 나에게 오세요/ 문 열어 났습니다/ …(중략)…/ 전화하시면 돼요/ 아니 하지 마세요 / 하지 않는 동안 생각하세요/ 그 긴 시간/ 고통받았던 그 긴 시간/ 그리고 내 시간.”(〈이제 나에게 오세요〉) 그는 아직 사랑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고립되었다.<sup>44)</sup> 성민엽은 “애린과 나는 본디 하나였으며 지금은 분리되어 있으나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애린과의 만남·일치는 존재의 완전성의 회복인 것이다. 그 만남·일치에의 열망만으로도 ‘나’의 존재의 결핍부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채워져 간다.”<sup>45)</sup>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애린은, 남성성의 완전한 상실과 혁명(친교·남성연대)의 실패를 유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남이 지연 혹은 거부되는 타자이다. 『애린』을 메우는 그리움의 정서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시는, 타자(와의 만남) 없이 연합의 말로 충만한 김지하 문학·사상을 잘 드러내준다.

단 하나/ 함께라는 말/ 지금 여기 끝끝내 우린 함께라는 그 말/ 그 말만 잊지 말아줘/ 나머지는 얼 굴도/ 이름마저도 다 잊어줘/ 난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벌써 잊었어/ 애린이란 네 이름마저/ 그 옛날에.<sup>46)</sup>

<엽서>, 『애린 첫째권』, 부분

인용한 시의 화자는 청자인 애린에게, 서로의 얼굴과 이름은 잊되 “우린 함께라는 그 말”은 끝내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김지하는 이 시에 충실했다. 그는 애린이라는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른다. 그녀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타자와 만나는 대신, 상상 속의 그리움의 대상과 자신이 함께라고 되뇌며 자기 위안했다. 애린과 거리를 두며 줄곧 그리워해야만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기에, 김지하는 애린과 만나지 않았다.

44) 허윤희는 『화개(花開)』(2002)를 분석하며 김지하의 ‘외로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시인(김지하 : 인용자)의 단독성은 자존으로 극대화된다. 그 자존의 극대화는 시적인 전통에 의지하여 이미지의 귀환을 탐색하면서도, 그 이미지의 화개를 촉진시키는 횡단성이라고 볼 수 있다. …(중략)… 시사적 전통에 대한 인식이 읽히지 못한다는 것은 그를 다시 외롭게 한다. 그리하여 당그렇게 혼자 꽃대에 얽혀 서리가 내리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는 정녕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가 보다. 이 도저한 관념성이 그를 또 다른 맹목으로 몰고 가는 듯하다. …(중략)… ‘아니다 그렇다’의 수사가 갖고 있는 논리적 함의를 그는 ‘기우뚱한 균형’이라고 개념화한다. 이것은 그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라는 동학의 주문을 “우주사회적 공공성”이라고 재규정하는 맥락과 일치한다. …(중략)… 우주사회적 공공성의 영역은 다른 말로 하면 ‘더불어 살기’의 개념적 총칭이다. 얼마만큼 그 더불어 살기가 어려운가는 시인의 외로움 속에서 잉태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잠정적으로 환원론적 시간관에 기반으로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동시에 이것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주문할 수 있을 것이다.”(밑줄 강조 : 인용자) 허윤희, 「이미지로의 귀환과 시간의 횡단성-김지하의 「중심의 괴로움」과 「화개」를 중심으로」, 『한국의 현대시와 시론』, 소명출판, 2007, pp.494-495.

45) 성민엽, 「드넓은 통일의 세계-김지하의 서정시」, 『애린 둘째권』, 실천문학사, 1986, pp.113-114.

46) 김지하, <엽서>, 『애린 첫째권』, 실천문학사, 1986, p.44-45.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김지하는 예술가이기 위해 혁명-남성성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세계와 동화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였던 김지하는 스스로를 다른 남성 계보(동학 교도였던 증조부, 장일담의 형제들)에 위치시키려는 동시에 자신의 불완전한 남성성을 자기혐오적으로 되새김질했다. 『애린』과 더불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회고록 「모로누운 돌부처」(1992)인데, 이러한 역사(다시)쓰기 역시 한국전쟁 발발 시점에서 멈춰야만 했다.<sup>47)</sup> 그의 남성민중영웅 모델은 썩은 몸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완성됐으나, 『애린』은 자기혐오적 요인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래서 김지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까지는 나아갔지만 자신을 붕괴하는 타자와의 만남을 실현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지하가 젠더/섹슈얼리티를 다루는 방식은 그의 문학·사상이 지닌 한계의 핵심이다. 이는 『황토』에서부터 내재했던 근본적인 문제이며, 때문에 그의 사상은 한계에 봉착했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허윤희는 “김지하가 생명에 대해 말한 무수한 발언들이 시적인 구체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sup>48)</sup>이라고 말했다. 김지하의 시에서 생명은 죽음을 감수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의’ 미래완료적·주술적 시언어는 어떠한 전망도 보여주지 않기에 공허하다. 어쩌면 안전한 자기구원 서사를 위해 전망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 4. 김지하 문학·사상의 변주와 극복으로서 민중신학과 고정희 (미완)

47) 「모로누운 돌부처」의 마지막 글에서 김지하는, 유년 시절 아버지가 집을 지어 ‘우리집’이 생기자 “나는 드디어 완전한 안정을 찾았고 마침내 세계와 화해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글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어둠이 내리는 그 저녁 그 단란한 식사가 내내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 단란함 때문이 아니다. 이상하게 내려 쌓이기 시작하던 그 운명같은 그날 땅거미가, 그리고 그 외로운 스탠드 불빛이... 6·25가 다가오고 있었다.” 김지하는 자신의 아버지 김맹모가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을 2003년 발간한 『흰 그들의 길』에서 최초로 고백했다. 김지하, 「모로누운 돌부처」, 앞의 책, pp.117-119; 「회고록 ‘흰 그들의 길’ 펴낸 김지하시인」, 『경향신문』, 2003.7.8.,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0023592>

48) 허윤희, 앞의 글, p.474.

## 1970-80년대 『샘터』의 여성 필자·독자의 문제

홍지혜 (성균관대)

### <목차>

1. 서론 : 1970-80년대 『샘터』 독자투고글의 정치성 재고
2. 1970-80년대 『샘터』와 여성운동 지형 - 고정코너를 중심으로
3. 「샘터회」와 여성해방/노동운동의 관계 - 독자투고자의 글을 중심으로
4. 결론 : 『샘터』를 경유한 글쓰기, 연대와 지적 해방에 관하여

### 1. 서론 : 1970-80년대 『샘터』 독자투고글의 정치성 재고

이 글은 1970-1980년대 잡지 『샘터』의 여성 필자와 독자의 문제를 한국 1세대 여성학 진영 및 여성해방/노동운동의 자장 안에서 구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샘터』는 1970년 4월에 창간되어 현재(2016년 12월 기준) 통권 563호까지 발행된 잡지다. 해방 이후 창간된 교양지 역사상 최장수를 기록, 개화기 이후를 통틀어도 해방 전에 창간된 『시조(時兆)』에 이어 두 번째로 장수하고 있다. 1970년 창간 당시 『샘터』는 파격적 스타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4·6판(B6)의 판형에 2백자 원고지 10장 안팎 분량의 짙막한 글들을 수록하였으며, 관념이나 미문을 배격하고 인생의 진실한 체험들을 소재로 해 인기를 모았다.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교양지”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김재순(金在淳)에 의해 창간되었으며, 문학평론가 염무웅과 소설가 김승옥, 임정남, 번역문학가 오증자 등이 주간으로 참여했다. ‘자기가 속한 사회의 변영과 발전’을 이루고, ‘나라가 더욱 번영’케 하겠다는 구호와 함께 창간된 『샘터』는 ‘차내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농촌에서도 공장에서도, 그리고 일선의 참호 속에서도 읽혀질’ 잡지였고, 이는 『샘터』의 주된 독자가 ‘노동자’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가벼운 교양잡지’이며, 독자를 ‘모든 사람들’ 내지 ‘평범한 시민들’로 상징했고, ‘평균 이면을 넘지 않는 짧은 기사’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은 이 잡지의 주요 독자층이 잡지를 끼고 오랫동안 앉아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언급했듯 김재순은 『샘터』의 독자층을 처음부터 노동자·청소년이라 밝힌바 있다.

1970년대의 『샘터』는 당시 규율화된 교양의 형태뿐만 아니라, 제도화되거나 가시화되지 못한 비/반-교양이 배태되는 과정을 보여준 주요한 텍스트였다. 시대를 관통해 형성된 『샘터』 독자의 ‘교양주의’는 1980년대까지 이어져 다양한 주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변혁의 연장선에서 의미화될 수 있었고, ‘샘터회’ 소집단을 통한 독자들의 연대는 1980년대 노동운동과 궤를 함께하며 1980년대 무크지로 이행해가는 징후 중 하나였다.<sup>1)</sup> 물론, 이때 노동자들의 글쓰기는 민족인가 민중인가와 같은 이분에 수렴되지 않는 확장된 문학의 개념이자 문학 본연의 지위인 정치성의 발현이었다.<sup>2)</sup> 따라서 이 글은 1980년대 『샘터』라는 매체를 경유한 독자의 글

1) 홍지혜, 『1970년대 『샘터』지와 ‘교양’담론 연구』, 2017., 성균관대학교.

2) 김대성, 「해방의 글쓰기」, 『大東文化研究』 제86집, 2014, 45-71쪽,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쓰기가 당대 체제 질서에 다른 파선을 긋는 집단적 행위였음을 의식하며, 그들의 글쓰기 및 연대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에 관한 역사적 증표로 재평가되어야함을 논증하고자 한 시도이다.

1980년대 사회전반 및 출판계의 변화는 시대와 함께 독자대중의 정신성 변화를 필연적으로 호명했다. 1970년대 분화된 중산층이 ‘중간문화’를 향유하며 중간독자로 자리 잡았듯, 1980년대의 독서의 속도 변하기 마련이었다. 졸업과 동시에 대도시나 공단지역으로 모여든 방대한 교육인구가 새로운 독자층으로 부상했다. 이들이 독자 대중의 신주류가 되며 소위 ‘샘터’ 그룹이 형성되었는데, 이정숙은 이들에 대해 “기업사보를 보는 하위 화이트칼라 혹은 그들의 정체성을 자기화하는 노동자 계층”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이들에 대해 세대론적으로 “『개벽』과 『사상계』를 보던 세대와”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세계의 문학』 계간지 세대의 그룹”에 이어지는 신세대이자 전집붐 퇴조에 맞물려 양산되기 시작한 70년대 중반 문고/단행본의 주 소비자층이라고 정의한 것이다.<sup>3)</sup>

그러나 ‘샘터’그룹이라 상정한 독자층을 전대의 교양주의자-권위적인 취향을 자신들의 교양지표로 내세우던-와 차별화되는 망탈리테를 지닌 독자이자 중간단계의 교육인구를 중심축으로 두어 기능공과 여공들을 이 그룹에 속할 새로운 인자로 한정할 때,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샘터’의 독자분포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sup>4)</sup> 1980년대의 ‘샘터’는 1970년대와 다른 큰 분별 지점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의 ‘샘터’는 그동안 3:3:3원칙으로 운영되던 편집체계를 허물고 지식인 계층 혹은 사회 지도층에게만 허용되었던 특집코너의 문을 노동자에게 열었다.<sup>5)</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샘터’그룹이라 일컬어지는 샘터독자의 주체를 중간단계의 교육받은 ‘중간계층’으로 보지 않고, 화이트-블루칼라 모두를 아우르는 노동자계층 전체로 상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평균 2면을 넘지 않는 짧은 기사’를 특징으로 했기에 잡지를 끼고 오랫동안 앉아 읽고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손쉽게 접했고, 잡지의 뒷부분에 남겨진 ‘샘터회 소식’란은 실제 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통로구로 기능했다.<sup>6)</sup> 정식 편성된 이 고정코너를 통해 독자모임이 가능했으며, 이 모임은 주로 공통된 관심사·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자신이 속한 삶의 반경 안에서 “생활의 보람과 의미”를 탐구하거나 취미활동을 공유했고, “낭만”도 찾았으며, 교양함양을 위한 독서회 및 교양강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문학회와 노동자들의 야학 모임이 빈번했다.

● 저희 ‘샘터제일독서회’의 1월 공개교양강좌가 2백여명의 샘터가족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2월 무료공개 교양강좌가 다음과 같이 열린다. 샘터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장소 : 종로 2가 YMCA강당, 일시

- 3) 이정숙, 「1970년대 폰트붐의 문화적 지형도」, 『상허학보』 제 32집, 2011, 86쪽, 상허학회.
- 4) 『샘터』의 독자투고란을 기준으로 생성한 하단 도표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전체 독자의 48.64%, 여성이 29.43%로 남성이 여성독자에 비해 두 배 가량 많다. 세대 분포의 경우 10대는 2.24%, 20대는 24.08%, 30대는 3.17%, 40대는 0.85%, 50대는 0.54%, 60대는 0.15%, 70대는 0.07%로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직업군은 학생, 노동자-노동자의 세분류에는 공장 노동자, 서비스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해외 노동자, 그 외 기타 노동자, 가정부, 간호원, 광부, 기술자, 부모, 선원, 접대부(농어민 제외)가 포함된다-, 군인, 회사원, 주부, 교원 순이었다. 잡지의 독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서울시 거주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해외,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순이었다. 해외의 경우,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오스트리아 순으로 거주비율을 형성하고 있다. 홍지혜, 『1970년대 『샘터』지와 ‘교양’담론 연구』, 2017., 성균관대학교.
- 5) 투고 원고의 비율, 편집진의 글 3, 유명인사의 글 3, 독자의 글 3을 의미한다.
- 6) 1978년 10월호부터 시작. ● 산더미처럼 쌓이는 샘터 가족들의 편지를 보면 독자들 사이에 샘터가 우정의 가교를 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지역사회간에 샘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작은 모임이라도 이루어지면 샘터로 그 소식을 띄워 주십시오. 축하의 정표로 샘터의 패너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샘터』 1978년 9월호, 119쪽.

: 1979년 2월 10일 오후 3시 30분, 주제 : 큰 꿈에 도전하라. 『샘터』 1979년 1월호, 118쪽.

이러한 샘터회 모임 양상은 독자들의 소모임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공개교양강좌로 확대되며 점차 집단지성의 차원으로 이행해 가는데 이때 YMCA가 강좌를 위한 공간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1970년 후반부터 1980년에 이르기까지 YMCA의 의식화 교육 관련 움직임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활동과 관련되며, 이는 노동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샘터』 독자이자 「샘터회」 구성원들을 위한 교양강좌의 장소였던 YMCA는 1973년 서울 YMCA 사회개발단 출범을 시작으로, 1978년부터 시민의식 프로그램을 기획해왔다. 이들은 ‘기독교’와 ‘청년성’, ‘개방성’을 기치로 공동체 지향적인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활동했다.

한편, 사회운동차원에서의 농민운동은 1970년대 초반 카톨릭농민회의 탄생과 1970년대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농민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YMCA연맹의 농촌개발 사업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들 단체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sup>7)</sup> YMCA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더불어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농촌사업운동을 담당, 도시민을 위한 사업이 농민 등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는 자기반성으로 농촌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소외된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조직, 시민의식개발, 주체적인 대중문화 형성의 과제 수행을 목표로 자신들의 운동방향을 설정했다. 이러한 방향성은 생업으로 배움에 목마른 모두에게 교양과 지식을 전달하고자했던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목적과 일치하며 『샘터』의 잡지 창간 취지와도 연관되는 부분이다.<sup>8)</sup> 또한 실제로 YMCA의 이름을 명시한 소모임이 존재했다.

● 젊음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각기 다른 자기의 생각을 주고 받으면서 보람찬 생활을 하기 위해 『YMCA 샘터회』를 만들고 싶다. 관심 있는 분들의 연락있기를 바란다. ★설대혁·690·경남울산시 진장동 244번지<sup>9)</sup>

본고에서는 창간부터 1980년대까지 아우르는 『샘터』의 독자 분포 중에서도 ‘여성’과 ‘여성 노동자’를 주목하며 잡지와 당시 사회가 맺었던 문화자장에 다가가보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글쓰기라는 행위가 어떻게 이 시기 당대 생산된 지식담론과 관계하며 시대정신의 일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샘터』를 경유한 글쓰기가 제도여성학의 구성 과정과 여성운동의 분화에 있어 어떤 토대와 자원이 되었는지 잡지의 고정코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시도다.

## 2. 1970-80년대 『샘터』와 여성운동 지형 -고정코너를 중심으로

시간과 시대를 10년 단위로 간단히 분절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잡지 『샘터』는 1980년을 기점으로 실제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1980년 5월부터 시작된 「수기코너」,<sup>10)</sup> 1981년 2월부

7) 웹사이트, 한국YMCA전국연맹 YMCA활동소식,

<[http://www.ymcakorea.org/?mid=ecoop&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농촌&document\\_srl=1925](http://www.ymcakorea.org/?mid=ecoop&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농촌&document_srl=1925)>

8)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YMCA와 주요 인물들을 공유했는데 당시 청년이사이자 청년단체인 원클럽을 이끌었던 허정도(경남도민일보 사장)는 1975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출신이었으며, 마산YMCA에서 전국 최초로 사랑의 YMCA노동형제단을 만들어 80년대 초 노동자소모임을 이끌었던 황주석 간사도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과 YH노동조합의 사례로 소집단운동의 가능성을 발견한 바 있다. 김주완, 기사, 2007.06.13.,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21546>>

9) 『샘터』, 1980년 1월호, 175쪽

10) 알림 : 제 3회 「샘터 수기상」원고모집 - 샘터는 누구보다도 샘터 가족들의 글을 가장 우대하는 잡지입니다. 그것은 거짓없이 보람있게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체험담이기 때문입니다. 샘터

터 시작된 이범선의 「샘터 문장교실」, 1981년 6월부터 시작된 「샘터르포」, 1983년 4월부터 시작된 가로쓰기 등이 그것이다.

● 「샘터 르포 - 젊은 근로자의 하루」 / 크라운전자 생산부제조2과 김현자 (글·박몽구 사진·이영진)

희망이 있는 기운 찬 발걸음 글·이정남 / 사진·이수진

‘한국 수출산업공단’이라는 커다란 표지판에서부터 3단지로 구획돼 있는 구로공단에는 총력 수출의 표어가 붙지 않은 공장은 찾아 볼 수가 없어, 이 곳이 바로 수출산업의 전초지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중략) 김현자(25)양은 이 회사의 자동차 라디오를 만드는 부문에서 6년간 일해온 장기근속자이다. (중략) 돈을 벌며 학교에도 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78년 크라운 전자에 입사했다. 79년에는 영등포여고 야간부에 입학하여 주경야독을 해서 3년간의 인문계 고교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중략) 김현자양은 노동조합의 23명의 간부 중 한사람으로 운영위원의 직책을 맡고 있어 노조사무실에 자주 들른다. 크라운전자에 노동조합이 정착된 것은 회사가 설립된 지 무려 10년 후인 81년의 일이었다고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루 9시간 이상 일해도 월급이 최저 생계비의 반도 안되는 10만원 미만이었어요. 그러나 노조가 있게 되면서는 회사와 근로자들의 관계가 대등한 계약관계로 수평을 이루었지요”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김현자양은 이렇게 설명했다.

노조위원장 이금수씨의 말에 의하면, 80년 말에 등장한 노사협의제도가 근로자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자, 이에 불만을 갖게 된 크라운전자의 근로자들이 81년 3월 노조결성총회를 열어 근로자들을 위해 일할 노동조합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중략) 그녀는 노조사무실에서 빌린 책이나 다달이 사보는 <샘터>를 읽으면서 생활의 양식을 발견하고, 영등포여고를 같이 다녔던 5명의 친구들과 등상을 다니는 일이 즐겁다고 한다. 또한 유치원보모가 되고 싶었던 꿈을 실현하지 못했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때문에 시집을 가버릴 수도 없지만 자신이 그 어려움을 딛고 혼자 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긍지와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 노동조합 일을 돕는 기쁨이 있다.11)



[사진1] 노동조합원들과 김순례 양

● 「샘터 르포 - 샘터의 눈」 : 직업병, 산업사회의 음영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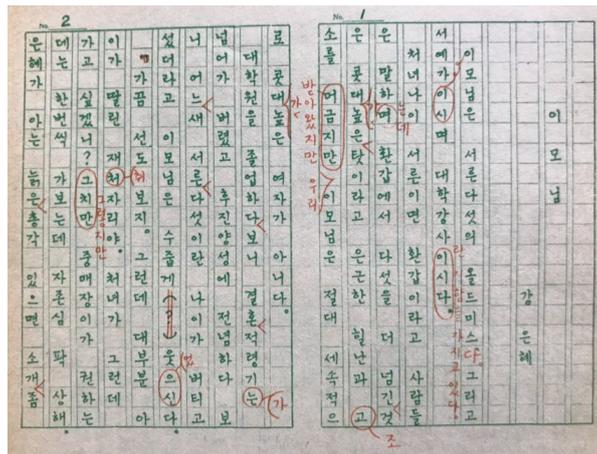
반월공단의 납중독 - 지난 2월 일간신문의 사회면을 떠들썩하게 한 반월공단의 납중독 사건은 도시의 큰 비울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일선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몸을 해쳐가며 노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 사건이었다. 반월공단에 있는 납 취급 공장에서 납중독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2월 노

가 「샘터수기상」을 제정한 동기도 독자들에게 보다 많은 집필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따뜻하게 격려하고 그 감동을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선정된 수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동시에 본지 창간 기념달인 4월에 종합심사의 대상작으로 삼겠습니다. 아래 요령을 보시고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역경을 이기고 난 체험담이나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감동어린 이야기, 그리고 교훈이 될만한 체험 수상, 생활에서 얻은 지혜 등, 삶의 희망을 밝혀주는 글이면 다 되겠습니다. ● 길이 : 2백자 원고지 40장 내외 ● 마감 : 매달 말일까지 ● 보낼 곳 : 110. 서울 종로구 동숭동 1의 115. 샘터사 편집부. (겉봉에 「독자수기 응모작」이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해 주십시오) ● 기타 : 보내시는 분의 주소와 연령·직업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응모하신 원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4회 샘터 수기상 당선작> 골분으로 만드는 촛불 - 노인원 참고.

11) 『샘터』, 1984년 6월호, 67쪽.

동부와 카톨릭의대 팀은 공동으로 이들 공장에 대한 환경조사와 근로자들의 중독현황을 조사했는데 수검자 101명 중 69명이 납중독으로 밝혀졌다. (중략) 직업병의 형태 - 반월공단의 납중독은 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추구해온 산업화와 더불어 나타난 직업병의 한 종류일 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직업병은 도시의 그늘진 곳과 농촌, 어촌 어디에서나 다양하게 뿌리를 내려오고 있었다. (중략)<sup>12)</sup>

노동자들의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수기 투고와 『샘터 수기상』의 시작, 독자들의 글쓰기 역량을 담당했던 침삭시스템이 독자들의 ‘글쓰기’와 관련된 영역의 변화라면 1970년대에 찾아볼 수 없던 르포 코너와 컬러인쇄, 가로쓰기는 편집 영역과 관련된 변화였다.



[사진2] 이범선의 「문장교실」 코너

또한 창간부터 1979년까지 유명인사의 글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집코너」의 경우 1980년대를 맞이하며 「여성특집」 코너로 이분되었다가 1982년 7월에 사라져 1983년 10월에 다시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샘터』의 「여성특집」 코너와 그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장에서는 1980년대를 맞이한 『샘터』의 다기한 변화 중에서도 몇몇 고정코너를 중심으로 논지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1980년대의 『샘터』는 당시 무크지 『여성』(1985)이나 『함성』(1985)과 같은 여성담론의 논쟁적 지식 생산의 장은 아니었으나, 제도의 안과 밖에 머무르는 인사들의 투고글이 1970년대부터 꾸준히 게재되었던 또 하나의 ‘장’이었다.

제호	코너 부제	제목	필자	직업	비고
1972-12-통권 033호	오는情(정) 가는情(정)	쓱쓱 떼어먹기	전택부	YMCA총무	특집코너2
1974-09-통권 054호	女子(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포스터	鄭姿煥(정자환)	동아일보 문화부기자	특집코너2
1974-12-통권 057호	이유있는 작별	여자가 아니라 人間으로	張必和(장필화)	크리스찬 아카데미간사	특집코너2
1975-03-통권 060호	憧憬(동경)	송도의 야다리	朴婉緒(박완서)	작가	특집코너2
1976-05-통권 074호	壁(벽)을 부쉬라	벽을 허무는 건 對話	朴婉緒(박완서)	작가	특집코너2
1976-12-통권 081호	고요한 눈	꺼지지 않는 등불	金玉吉(김옥길)	이화여대총장	특집코너2
1978-01-통권 094호	일하는 女性(여성)	팔자좋은 人形(인형)기보다는	朴婉緒(박완서)	작가	특집코너2
1978-09-통권 102호	脫出(탈출)	女子를 자유롭게 하는 것	朴婉緒(박완서)	소설가	특집코너2
1978-10-통권 103호	彷徨(방황)	無限한	徐沈善(서광선)	철학박사·이화여대교수	특집코너2

12) 『샘터』, 1984년 4월호, 120쪽.

		가능성앞에서			
1980-02-통권 119호	어디로 갈 것인가	80년대의 여자	김세영	이화여대교수 · 영문학	여성특집
1980-02-통권 119호	어디로 갈 것인가	낭비없는 생(生)	백정란	YWCA위원	여성특집
1980-01-통권 167호	새해를 여는 작은 소망	남녀평등은 가족법 개정으로	차명희	이화여대 법학과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일반특집
1985-02-통권 180호	정치와 여성	우는 아기에겐 젖 준다	주정일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여성특집
1985-02-통권 180호	정치와 여성	중이호랑이가 아닌 여성	장명수	이화여대 · 한국일보 문화부장	여성특집
이외 추후 보충					

[표1] 1970-80년대 『샘터』의 '여성' 관련 이슈 투고 글

여성담론의 논쟁적 지식 생산의 장을 가능하게 할 학제로서 여성학이 구축된 시기는 1977-1980년대 중·후반이었다. 1970년대는 세계적으로 여성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이자 1975년 UN이 제정·선포한 '세계 여성의 해'를 계기로 국내 여성운동계가 자극을 받았던 시기였다.<sup>13)</sup> 물론 1970년대까지 여성단체활동은 구호사업에 머물거나 단편적인 여성 지위개선에 한정된 측면이 강했고 대다수 여성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기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제도권을 중심으로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가치화된 움직임이 이루어졌다.

1977년 이화여대에 여성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여성학교재 편찬 및 교과과정 개발이 한국 최초로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1977년 2학기 이화여대에 '여성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교양과목이 처음 개설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처음부터 미국 여성학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 의도와 더불어 교과과정과 교수방식이 다양한 학부 전공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기획·개발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문과대학 부설 여성자원개발연구소 소장이었던 이효재는 유신시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독재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있다는 각성아래 여성문제를 가부장제와 독재, 그리고 한국 사회의 계급 문제를 함께 연결시켜 사고하고 있었으며, 사회학의 입장에서 성차별 이슈와 관련해 여성의 의식과 역할들을 분석하고자 했다.<sup>14)</sup>

198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의 여성운동은 진보적 지식인 여성운동가의 형성을 통해 변혁적 이념에 기초하여 전개·발전하기 시작했다. 강남식의 논의에 따르면 여성운동가들은 출신과 이념적 성향에 따라 1. 1960년대 후반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의 유학경험을 바탕으로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여성억압의 독자적인 체계를 인정하면서 여성을 '여성전반'으로 규정하는 사람들로 주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수용한 사람들이며 다른 하나는 2. 1970년대 박정희 정권과 1980년대 전두환 정권하에서 학생운동을 경험한 출신들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학출 인사들은 각 대학별로 소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으며 운동 과정에서 부당한 성차별을 경험하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또한 빈민 야학이나 노동 야학, 농활, 그리고 노동현장의 경험을 통해 '같은 여성'이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을 목도했다. 이들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기반하면서도 여성들간의 계급에 따른 '다름'을 주목하며 '여성적 이해'와 '계급적 이해'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여성운동에 있어서의 여성의 정체성은 노동자적 계급성을 갖는 기층여성이었다. 여성의 정체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30년』, 200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4) 김영선, 「한국 여성학 제도화의 궤적과 과제」, 『현상과 인식』 제34집, 2010, 323-350,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성을 여성전반으로 설정했던 쪽은 여성평우회나 또 하나의 문화의 구성원이 되었고, 기층여성으로 설정했던 쪽은 일부가 여성평우회로 들어갔으나 대다수는 민청련여성부에 집결하였다. 여성평우회는 남녀를 차별하는 성차별 문화개혁을 위한 문화운동을 펼쳤고, 또 하나의 문화도 여성평우회와는 다른 각도이긴 하나 소집단 활동과 활자 매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적 권위주의, 획일주의, 성차의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남녀평등 지향적인 대안문화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갔다. 새로운 방식의 여성문화운동을 전개해 가는 이들과는 달리, 민청련여성부는 한국의 여성대중들이 겪고 있는 억압적 상황은 그 본질에 있어 한국의 민중이 겪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 사회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며 한국 여성의 이중 억압에 대해 주목했던 것이다.<sup>15)</sup>

정리하자면 이화여대 여성연구소 및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공통 장소이자 지식인 네트워크로 묶이는 1970년대 한국여성학 제도화의 초창기 기획자들은 한국 여성문제의 해결책을 각각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여성학 제도화’라는 기획에서 찾았으며, 그들의 페미니즘 수용은 서로 맞물려 있었다. 1980년대 대학 제도 안팎의 움직임들은 분명 1970년대와는 다른 지층을 형성했다. 제도 밖 학술단체의 분화와 더불어 대학과 저널리스트가 아닌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담론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합했으며, 교실 밖의 지식을 새로운 실천과 번역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들은 본격적인 차이의 정치를 형성했다.<sup>16)</sup>

그리고 이화여대라는 제도의 장을 경유하며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간사로 활동했던 장필화, 이화여대 교수 서광선, 이화여대 총장 김옥길, YMCA총무 전택부, 소설가이자 또 하나의 문화그룹의 일원 박완서는 1970년 4월 창간 이래 『샘터』 「특집코너」의 주요 필진이었다.

"뭐라구? 애 정말이니?" 달뜩 목소리로 자기의 결혼소식을 알리는 친구는 주말에 약혼하고 그다음주말에 결혼한다. 당장 한 달밖에 안다니 직장에도 사표를 던졌다. 그럴 수도 있다. 또 어떤 친구는 지난 주에 선을 보고 내주 초에 약혼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날이 갈수록 사방 팔방에서 나도 결혼, 너도 결혼, 그저 결혼 소식 뿐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두 해가 지났으므로 이제 그럴만한 나이도 되어서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한다면 마냥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야 할텐데 온전히 그럴 수 만도 없는 것은 웬일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곳은 바쁜 출근 시간이지요" 오후 6시쯤. 무교동에서 쉽게 잡아 탄 택시운전수가 느닷없이 건네는 말이다. 서울시내 각 변두리에서 택시로 혹은 버스로 중심가를 향해 밀려들어오는 여자들. "지난번 주간지 기사에서 보니까 개중에는 대학생들도 꽤 많다고 그러더군요" 운전수는 입이 심심한지 계속 떠들기제다. 손님한테 주워 들은 모양인지 꽤 중요한 정보나 되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당수 여학생들의 그후의 행방이 석연치 않다고 혀를 찬다. "개네들이 다 어디를 갔겠어요?" 운전수의 흥두께같은 질문에 나는 기분이 언짢아져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공기를 마시면서 여하튼 어디론가 분주하게 가고 있다.

이 상반되는 두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로서는 펍 벅찬 문제다.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지금 막 환상을 안고 시집간 내 친구들의 남편이 두 번째 얘기에 나오는 여자들과 언제 어디선가 늘 만나고 있으리라는 사실 뿐이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세계의 똑같은 여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경명하는 관계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것 뿐이다. (중략) 세상은 다양하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마련이며 또 있어야 한다. 일률적인 사고방식은 금물이다. 다양한 세상을 다양한 인간들과 함께 살자니 어쩔 수 없이 너도 나도 조금씩 때가 묻고 타락하고 한편으론 신선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유독 여자에게 묻은 때와 타락만이 우리 사회에서 크게 돋보이는 이유는 뭣일까.

나의 친구 하나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갑자기 훌훌 단신이 되어버렸는데 몸만 성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길을 택할 텐데, 하고 푸념하는 걸 들었다. 그것이야말로 자기착취일 뿐이다. 실로 새해엔 이런 모든의식 또는 무의식에서 오는 자기경멸들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여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것. 이것이 어지러운 한 해가 나에게 남겨준 교훈이다. (여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 장필화 / 크리스찬 아카데미

15) 강남식, 「한국의 여성, 여성운동:한국 여성운동의 흐름과 쟁점」, 『기억과 전망』, 2004, 116-137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6) 대학 밖의 여성들은 <아현연구실>(1980),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84), <또 하나의 문화>(1985), <여성사연구회>(1987), <한국여성연구회>(1989)로 이어지며, 위의 <또 하나의 문화>와와 <여성사연구회>는 각각 『또 하나의 문화』동인지와 『여성』(1985~1989)무크지를 출간했다. 김영선의 논문, 56쪽.

간사)<sup>17)</sup>

이 시기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여성학이 개설되게 된 주요한 이유는 -여성의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 일각의 극심한 비판인-‘여자대학 무용론’의 대두였다. 이에 여자대학 무용론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고등교육 기관인 이화여대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위 장필화의 투고글은 이러한 ‘여자대학 무용론’을 비판적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아래 김세영의 글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남녀의 불평등한 지위를 계급적 모순으로 접근하기보다 가부장제와 남성지배문화의 권위주의, 획일주의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모든 여성을 미래의 ‘현모양처’로 상정한 여성관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 성판매여성에 대한 냉소는 무성적인 ‘공순이’로 폄하된 육체노동자의 멸칭만큼이나 모순적이다.

● 특집·새해를 여는 작은 소망

『남녀평등은 가족법 개정으로』 - 차명희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6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일해왔고 73, 74년도에는 가족법 개정 촉진회에 파견되어 근무하기도 했으며 상명여대 강사로 나가고 있다.)

1983년 5월 26일,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은 남녀평등과 기회균등을 보장하므로써 여성들의 권익향상, 실제적인 사회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한 의의는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여성지위에 관한 정부방침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 운동가들과 여권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법을 비롯한 법률상의 남녀차별 규정은 물론,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여성차별이 헌법과 이 협약에 의해 수정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특히 기본법인 민법의 친족·상속편을 일컫는 가족법은 1958년 제정당시부터 헌법위반, 남녀 불평등, 비합리적 규정의 잔존 등을 이유로 논란이 많았고, 1960년 시행된 이후에도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YWCA연합회 등 여성단체들은 불합리한 가족법의 개정을 위해 계몽, 연구, 자료수집의 운동을 계속적으로 벌여왔던 터였기에 기대는 더욱 컸던 것이다. 여권신장을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길고도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여성들은 슬한 불이익과 차별을 견뎌왔다고 할 수 있다.

1973년, 유신헌법은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로 10명의 여성국회의원을 탄생시켰고 당시 여당인 공화당에 ‘여권신장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가족법개정을 거론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다가왔다. 가정법률상담소와 YWCA는 재빨리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강연회’를 개최하고, 61개 여성단체의 연합체인 ‘범 여성 가족법 개정 촉진회’를 결성하여 활발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중략) 84년 새해에는 30년 이상 끌어온 가족법개정 문제만을 최우선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가족법이 재정될 때, 비로소 남녀평등은 실제적인 기반을 갖게 될 것이고 불평등 속에서 고통 받고, 자신의 능력과 희망을 제대로 펴보지 못했던 여성들은 힘을 내어 자신과 사회, 나아가 인류의 발전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또한 이 시기는 여성을 결혼을 통한 가부장질서에 복속시킴으로써 섹슈얼리티를 제한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던 때였고, 여대생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당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여성들의 의지는 당시 근대적 가족 모델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의 맥락 속에서 한층 복합적인 저항을 마주하게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중략)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남성들은 당당하게 찾아 이끌며 자기것으로 만드는데 여성들은 -물론 나를 포함- 남의 삶을 대신이나 살아 주듯이 끌려가며 낭비만 거듭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소망은 가져야 할 것이다. 날마다 좋은날을 맞으려면, 모순과 갈등이 많은 우리네 사회지만 그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캐내야 한다. 그래서 내 몫을 찾아 소중하고 새롭게 시간, 양심, 돈을 부리며 살아야 할 것이다. 공허한 지식 이 아니라 인격화로 지혜로, 말뿐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며 80년대는 낭비없이 살아보아야겠다. (낭비없는

17) 『샘터』, 1974년 12월호, 100쪽.

18) 『샘터』, 1984년 1월호, 36쪽.

지난 4월 어느 날, 정부가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 중의 여성개발 부문 계획을 발표하자, 신문들은 제각기 '여호주시대' '재산상속 남녀차별 없앤다' 등의 제목으로 이를 대서특필하였다. 그 기사들은 언뜻 보기에는 남녀를 불평등하게 대우하였던 법률제도가 내일 당장이라도 개선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실은 공허하기 이를 데 없는 약속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집권당인 민정당은 일찍이 1981년 선거철에 남녀를 차별하는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실현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이를 다시 '86년부터 '91년 사이에 행해질 정책추진방안으로 내걸었으니 새로운 것 하나 없는 발표내용이요, '88년 정권교체시기를 감안해 볼 때 현 정부에게서 그 계획실천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돌이켜 보면, 우리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기로 되어있는 헌법을 가진 지도 40년이 된다. 그동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리한 대우를 받는 사회제도가 관습이 오랜 뿌리를 드리워 왔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평등사상·평등한 법·제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시인하며 인내하여 왔다 하더라도, 40년- 그 세월은 남녀를 대등한 위치에 둘 수 있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세월이었다고 여겨진다.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이고 따라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남성과 협력하며 공존해 나가는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남녀평등 사상의 기초일진대, 어느 아버지가 딸자식을, 혹은 어느 남편이 자기 부인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을 거부하겠는가. 현행 가족법상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규정들은 개정되어야 하고, 여성에게도 남성의 경우와 똑같이 취업·승진의 기회가 부여되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 남녀를 차별하는 법이나 제도는 폐지되어 마땅하다는 사회적 필요와 인식은 성숙되어 이제는 과감히 그 매듭을 지을 때이다. (중략) 1986년 6월 (딸부잣집의 울안 - 김숙자 / 명지대 법정대 법학과 교수) 20)

앞서 나열한 「여성특집」 코너의 글들로 확인 가능하듯 1세대 여성학자들의 지식인 여성으로서 갖는 고민들이 있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있어 양적인 증가가 이뤄졌다고 하여 이것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직결되지는 않았던 현실과 더불어 여성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 측면에서 열악한 고용형태에 놓여있었고 노동형태, 임금, 승진 등 모든 측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것과는 별개로 명백하게 문제화하기 어려운 미시적 차원의 어려움이 많았다.

요사이 졸업반 학생들이 앞으로의 진로를 의논하러 오는 수가 부쩍 늘었다. 대학원에 갈 것인가 취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결혼을 할 것인가, 셋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민하던 때나 전공선택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던 것에 비하면 대학졸업을 한달 앞둔 이 마당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훨씬 그 농도가 짙다고들 한다. 남학생이라면 진학과 취직의 양자택일만 하면 될 것이고 결혼이란 여차피 할 것이니까 그리고 결혼이 공부에도 취직에도 방해가 되지 않을 테니까 한결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에게 있어서는 결혼을 택할 경우, 취직도 공부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여자가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을 새삼 열거할 필요도 없다. (중략) (80년대의 여자 - 김세영 / 이화여대교수 영문학)21)

김세영의 말처럼 남학생에게는 결혼이란 여차피 할 것이고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여대생에게는 결혼을 택할 경우 취직과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 등이 바로 그런 차원의 문제였다.

「여성특집-여자만의 페이지」 : 정치와 여성 / 눈치보는 눈에서 감시의 눈으로 - 이진아 (대학생)

(중략) 여성운동 단체들의 활동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지금에도, 여성들이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원인을 쉽게는 마스크를 통해 조장되고 있는 여인상들을 보면서도 느끼게 된다. (중략) 울고 짜는 희생적인 여인상이 일반적인 TV극의 주인공들이고, 쏟아져나오는 여성지들을 보면 말초적인 감성만을 자극하는 내용과 국적

19) -

20) 『샘터』, 1986년 6월호, 88쪽.

21) 『샘터』, 1980년 2월호, -쪽.

을 알 수 없는 패션정보들로 일관됨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여성들을 우매화하는 듯한 마스크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거창한 캐치프레이즈와는 정반대로,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올바로 보도록 하는 것을 애초부터 꺼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여성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그것은 곧 정치문제와 관련되지 않을 수 없기에 언론이 통제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의 마스크의 역할이란 본질적 조명을 봉쇄하는 것이다. 여성 스스로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략) 1975년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여성 인간 선언’의 초안으로 삼았던 전문에서 우리는 여성문제의 맥과 여성 정치활동의 포괄적인 의미를 되새겨 본다. ‘우리의 운동은 문화개혁·인간해방의 운동이다. 남성의 정치적 배려에서의 은혜에 불과한 약간의 권리 개선을 의미하는 단순한 지위향상 운동이 아닌 일체의 주종사상, 억압제도를 거부한 여성의 인간화와 인간 전체가 해방된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운동의 일환이다.’<sup>22)</sup>

여성들을 우매화하는 듯한 언론의 풍토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은 여성인권의 증진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근거로 정치와 언론의 관계를 기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샘터』라는 매체에 이 같은 글을 썼을까. 『샘터』의 독자분포는 꽤 다양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1세대 여성학자들을 위시한 투고자들과 함께 중산층계급을 대표하는 인사들의 투고글이 빈번했으며, 하층 노동자 계급의 여성 독자들도 역시 끊임없이 투고했다.

「여성특집-여자만의 페이지」 : 정치와 여성

종이호랑이가 아닌 여성 - 장명수(이화여고, 이화여대 졸업 후 한국일보사에 입사. 현재 한국일보 문화부장으로 <여기자칼럼>을 집필하고 있다.)

(중략) 각 정당들은 ‘남녀차별을 뿌리 뽑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는 선거공약을 만드느라고 바쁘고, 여성단체들은 가족법 개정 등 여성계의 ‘숙원사업’들을 내세우면서 ‘여성 유권자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느니 ‘가족법 개정에 반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자’느니 하는 구호들을 외치고 있다. 이런 광경은 우리나라의 선거 스케치 속에 늘 들어가는 낯익은 장면이므로 말하는 쪽, 듣는 쪽, 구경하는 쪽이 모두 긴장감을 갖기 힘들다. (중략) 지난 해 연말에 벌어진 가족법 개정운동의 좌절은 한국여성의 정치의식이 1950년대에 비해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한다. 온 여성계가 힘을 모아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를 만들고 가족법 개정운동의 백전노장인 이태영 박사가 회장에 취임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 운동이 성공권 내에 들어섰다는 것을 확신했었다. 여당과 야당은 한결같이 지난 선거에서 ‘여성 지위향상’과 ‘가족법 개정’을 다투어 약속한 바 있으며 11대 국회에는 여성의원이 8명이나 진출해 있었고, 무엇보다 85년은 UN의 여성 10년을 마감하는 해이므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남녀차별법 철폐를 서둘러야 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여성표에 신경을 쓰는 정당들을 움직이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중략) 해방 후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자기 성취의 기회 속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유권자로서의 여성’은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고, 점점 더 ‘종이호랑이’가 되었을 뿐이란 것을 11대 국회는 보여주었다. 여성의 의식이 깨어 있었다라면 남녀 의원들이 감히 어떻게 선거를 눈앞에 두고 여성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중략)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일 여성들이 어떤 자각을 보여준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여성운동사에 뜻깊은 해가 될 것이다.<sup>23)</sup>

이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서로가 읽을 글에 대해 고민했다. 지식인 투고자들은 문제적인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주요 이슈가 닿기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각으로 소개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 노동자 계층의 여성들은 이런 이슈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특집」 코너에 실린 글들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인권에 관한 안건을 국회에 상정하는 데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현실과 여성의원조차 페미니즘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은폐하는 상황에서 공람률이 높은 대중들의 잡지 『샘터』에서 이러한 이슈를 다루는 것 자체가 지닌 당대적 의미 혹은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

22) 『샘터』, 1985년 2월호, 92쪽.

23) 『샘터』, 1985년 2월호, 88쪽.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과 승진의 문제는 비단 어느 계층의 여성에게만 한정된 이슈는 아니었다. 고학력자들부터 임노동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특집」 코너의 글을 읽는 여성 노동자는 의식화되게 된다. 이 의식화는 단순히 마르크스적인 것이 아닌 운동의 측면과 여성 인권 향상 측면에 있어서의 의식화다.

이러한 경향과 그 영향은 실제 노동자 계층의 여성 투고글에 드러난다. 스스로를 근로여성이라 정체화하고 있는 이항희는 남녀사이의 임금문제, 회사 내 성차별문제, 성폭력 문제,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임신 후 부당해고, 가부장제 사회구조의 모순 등의 문제를 기민하게 담지 하며 투고글을 썼다.

● 「여성특집-여자만의 페이지」/ 남녀차별, 유보할 수 없다 : 작업장에 싱싱한 물 - 이항희(1964년 전남 장흥에서 출생. 부산 영생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하고 구로공단의 여러 봉제공장등을 거쳐 현재는 화서섬유 생산 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는 봉제회사에 다니는 근로여성이다. 봉제라면 대부분 가발이나 인형 따위를 만드는 수공업 계통의 일이 많은데 우리 회사에서는 주로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옷 만드는 일을 한다. (중략) 당시 나의 초임은 일당 2,050원, 남자들이 일당 2,440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400원이 낮았다. 그러나 이런 임금 차별은 별 문제가 아니었다. 어쨌든 나는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한 사람의 일군이 되기를 바랐고 그러한 꿈을 통해 아름다운 색깔로 내 인생을 채색하고 싶었다. 그러나 웬걸 첩첩산중이었다. 회사 내에서 여성은 멸시와 수모의 대상일 뿐이었다. 더구나 사회에서의 시선은 한술 더 떠서 '공순이'라는 별칭에 차가운 냉소마저 끼었는게 아닌가. (중략) 이들은 작업 도중에 조는 친구에 반말로 호통을 치거나 따귀를 때리며 욕설을 퍼붓기 예사이다. 또한 작업장 내에서 몸을 함부로 더듬기도 해 수모를 당한 동료들이 뭐라 반발을 할라치면 '별 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네'하며 오히려 눈을 부릅뜬 채 험악한 말을 내뱉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처자식이 있는 중년의 관리자들이 여성 근로자의 몸을 만지는 일도 가끔 있었다. 2년 전, 내가 따르던 민옥이 언니도 희생양 중의 하나이다. 그녀는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자 애를 배게 한 장본인인 관리자로부터 갖은 회유와 설득과 모욕을 받더니 결국은 사표를 쓰고 말았다. 그 후 두 번이나 회사를 옮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어떠한가. 오십보 백보가 아닐까?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관리자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동료 주영이가 회사에 쫓겨났을 때도 나는 놀라지 않았으니까. 또한 몇 달 전에는, 결혼한 뒤 임신했다는 어찌 보면 경사스러운 일 때문에 승혜 언니가 해고된 일이 있다. 나는 가슴이 아플 뿐이었다. 일손이 더디다는 게 해고 이유였다. 그러나 기혼자는 입사시키지 않을뿐더러 복직시키지도 않는 철칙이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 같다. 23세가 넘은 여자는 아예 입사시키지 않는 회사도 있으니 말이다. (중략) 봉제업 계통의 회사에서 일해 온지 어언 만 7년, 나는 이제 잔업·특근 수당을 포함, 한달에 총 24만여원을 받는 고참자가 되었다. 허나, 고참자가 된다는 것은 남성으로부터 받은 모욕의 총계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각 사업장 내에서 우리 여성근로자들은 언제나 하위 서열을 면치 못했다. 불행히도 자리매김은 언제나 가부장제 사회 구조의 상층부를 점유한 '남성'들의 차지였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난 우리 근로여성들은 꽃이 아니며 꽃이 될 수 없다고 외치고 싶다. 진정 인간다운 사회, 여성이 인간 대접을 받는 사회는 과연 언제나 찾아오게 될 것인가?<sup>24)</sup>

한편 『샘터』의 「여성특집」 코너의 필진으로 여성 공장 노동자가 참여하였다는 것 또한 의의가 크다. 1970년부터 1980년 초까지 특집코너는 사회 유명인사 및 지식인들에게만 허락된 보수적인 코너였기 때문이다.

### 3. 「샘터회」와 여성해방/노동운동의 관계 - 독자투고자의 글을 중심으로

『샘터』의 독자이자 투고자였던 노동자들의 글은 그들이 산업역군으로 기능하던 1970년을 관통해 1980년대에 접어들며 새로운 방향으로의 사회변동을 서술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

24) 『샘터』, 1987년 6월호, 94쪽.

서 중요한 텍스트다. 또한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의 여성에 관한 지형을 설명했던 기존 여성학 진영과 또 하나의 문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형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3장에서는 잡지 『샘터』를 경유해 이루어진 「샘터회」소모임-여성소모임 중심으로 -과 독자 투고글을 분석하며 그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혜령은 여성 정체성의 복합성을 요구하고, 때로는 ‘여성이나 계급이나’라는 물음이 던져져야 했던 상황이야말로 1980년대 여성운동과 그리고 그 문학적 실천으로서 여성문학을 대두시킨 태반이라고 보았다.<sup>25)</sup> 1980년대 사회정치적 상황이 복합적이고 갈등적인 여성 주체성을 고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성이나 계급이나’는 구호에는 실제로 양분되어 있던 여성학 진영의 지형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샘터』라는 매체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모두 동일한 여성 인권 향상이라는 주제에 입각한 글임에도 잡지 지면에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던 지식인 필자와 노동자 필자의 글은 다소 결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필자의 출신과 계급에 따라 범박하게 양분해 보면, 노동자 계급의 여성들은 좀 더 물리적이고 가시화된 폭력의 경험을 토로했으며, 지식인 여성들은 사회 구조나 현상에 내재된 미시적 폭력을 다루는 데 주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당대의 여성지 또는 여성 필자들이 다수 등장하는 대부분의 잡지에 수록된 여성 관련 텍스트들은 대개 엘리트가 주도하는 페미니즘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샘터』에서는 실제 노동자의 글이 보다 적극적으로 게재되었으며, 노동자들의 연대 공간까지 제공되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 가능성은 여성 지식인과 여성 노동자 양측이 서로를 실질적으로 만나거나 체험한 것은 아니나, 이들은 텍스트를 통해 서로의 상을 인식 또는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당시 지식인 여성들은 잡지 외부와 학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교류했으나, 『샘터』를 통해 이를 접할 수밖에 없는 여성 노동자 계급의 경우, 그러한 지형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기 고백적 일화나 계몽적 텍스트를 통해 지식인 여성들의 막연한 상을 그리고 있을 뿐, 실제 지식인 여성들이 그들 간에서 교류하는 만큼 서로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당시 여성 노동자들에게 지식인 여성이란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대상들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지식인 여성들은 부지불식간에 상세히 서술한 텍스트들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식인 여성과 여성 노동자들은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서로를 염두에 둔 글쓰기를 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샘터회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보인 조직적 움직임은 ‘여성들은 단결하라’는 지식인들의 구호를 내면화한 양상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1980년대 활발했던 소모임이라는 형태가 『샘터』라는 잡지를 경유했을 때 생기는 효과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은 『샘터』를 다양한 담론의 경유지로 활용하였으나, 특히 노동자 여성들이 소모임 활동을 할 때에 잡지 매체로서의 『샘터』는 엄청난 이점을 발휘했을 것이다. 주지한 바 『샘터』는 전국 각지의 도서관 포함 관공서, 학교, 군대 등 광대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연대를 도모하기에 적합한 통로였을 것이다.

더불어 잡지 지면을 활용해 결성된 독서회, 야학 등의 소모임을 통해 『샘터』라는 잡지가 갖게 되는 이미지 또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비판적 성향을 지닌 잡지들에서는 제5공화국의 3S 정책과 그에 부응하는 상업지 또는 여성지 등의 행태에 반발하여 외설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격했다. 그리고 『샘터』 또한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한 가지의 가능성은 「샘

25)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 『상허학보』 47집, 2016, 409-454쪽, 상허학회.

터회]소모임에 참여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올바른 국민상을 제언하고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를 지향했던 잡지 『샘터』를 투과하며, 올바른과 모범에 대한 감각과 이미지를 경유해서 자신들의 연대와 모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노동주체로서의 멘탈리티가 투고글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 가늠해본다. 당시 여성소모임이나 여성노동자들의 노조 모임, 운동권의 이미지는 문란하다는 주박을 면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이미지를 면하고 또 운동권의 전방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하되, 실은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의 대의나 기치에 동의하는 바가 있었던 「샘터회」소모임 구성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조원들과는 다르되 또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에서 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한다. 모범적 이미지의 『샘터』를 경유한 여성, 그리고 노동자들의 모임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노동자들의 야학과 문학, 연대, 의식화 등의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 <샘터회 소식>란은 샘터 독자들에게 의한 사회봉사, 교양강좌, 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익한 모임들이 조직되고 활성화되는 것을 돕는 난입니다. 보다 자발적인 샘터회들에게 활용되기 바랍니다.<sup>26)</sup>

◎ 공업단지의 삭막함속에 정서를 키워가며 진실한 생활관을 지닌 젊은이들의 부담없는 모임 「공단샘터회」를 갖고 싶다. ★구정일 690·경남 울산시 학성동 403의 427)

근로 여성들과 ▶ 고향을 떠나 직업전선에서 일하는 59~61년생 근로여성들과 친목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애환을 나누고, 봉사활동을 하고자 한다. (이순복·150-02·서울강서구 신월2동 463-6호)<sup>28)</sup>

독서의 교류를 ▶씨앗독서회라는 독서회를 조직하여 1년 가까이 독후감 발표, 주제토론 교양강좌 등 45회의 발표회를 가졌다. 이제 독서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하는 지 대충 그 윤곽을 파악하였다. 그래서 정식으로 독서회를 발족코자 하오니 먼저 조직된 모임의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독서회와 교류를 바란다. (장동식·150-06 서울 구로구 시흥동 340-3)<sup>29)</sup>

직업소녀들의 모임 ▶자신은 불우하고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도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직업 소녀들과 모임을 갖고 싶다. 나이는 16세~18세. (이영미·130-10·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역2리 22)<sup>30)</sup>

씨앗 독서회 ▶씨앗독서회는 지난해 발족해 독후감 발표와 교양강좌 등 45회의 모임을 가졌다. 지난 2월에는 60페이지짜리 글모음 「씨앗」을 발행했다. 앞서 가는 모임의 조언과 신규회원의 가입을 바란다. (장동식 150-03 서울 구로구 시흥동 340의3)<sup>31)</sup>

공단 샘터회를 ▶한국 수출산업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산업전사이다. 직장을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 만 20~26세의 미혼남녀로서 공단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환영한다. (오병현·150·서울 영등포구 양평 1동 1가 217의 16호 10통 1번)<sup>32)</sup>

여성들의 모임 ▶저희 '씨톨회'는 매달 동두천에 있는 애신보육원을 방문하고 아이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직도 여러 고아원, 양로원에서는 따뜻한 정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1년생 여성으로 함께 이할 새 회원을 모집합니다. (씨톨회·100 서울 중구 남대문 5가 493번지 10통 64번 4층 염미옥)<sup>33)</sup>

26) 『샘터』, 1984년 11월호, 145쪽.  
 27) 『샘터』, 1980년 2월호, 166쪽.  
 28) 『샘터』, 1982년 2월호, 157쪽.  
 29) 『샘터』, 1982년 5월호, 143쪽.  
 30) 『샘터』, 1982년 7월호, 142쪽.  
 31) 『샘터』, 1982년 8월호, 140쪽.  
 32) 『샘터』, 1982년 4월호, 145쪽  
 33) 『샘터』, 1984년 6월호, 145쪽.

이런 모임을 만듭시다 ▶22세의 근로자입니다. 저처럼 봉제직이나 이 유사 계통에서 일하는 젊은이들(18~25세)이 추축되어 모임을 가집시다. 시간을 쪼개어 머리를 맞대면 좀더 값진 내일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철 · 134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Apt. 36동 409호)<sup>34)</sup>

전국 샐터회들의 연합모임을 가집시다 ▶<샐터회 소식>란에 등장하는 이미 조직된 샐터회들이 함께 모임을 가져 보았으면 합니다. 각 모임의 취지와 활동상황을 듣고 어려운 점을 보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샐터를 통해 이루어진 전국 샐터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씨클연합회를 만들어 우리 내면에 있는 꿈과 이상을 마음껏 분출시켜 봅시다.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딤돌 모임 · 151 서울 동작구 상도1동 58-10 39통 4반 윤상수)<sup>35)</sup>

여성들에 의한 여성모임 ▶직장 여성들의 모임인 '목련회'회원들은 매달 두 번씩 고아원, 양로원을 방문하며 신체장애자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갖습니다. 인정이 메말라 가는 이 사회에 포근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모임의 회원이 되어 힘을 합해 봅시다. (샐터 목련회 · 151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924-14호 21통 6반 김정혜)<sup>36)</sup>

넉넉하지는 않지만 ▶'84년 2월에 '샐터 웅달샘회'라는 모임이 이루어져 여러 가지 조그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고향을 등지고 타향에서 생활하는 산업체 근로자들이지만 뭔가 뜻있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고자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해할 수 있고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 일하고 싶은 가족을 찾습니다. (샐터 웅달샘회 · 680 경북 포항시 해도 2동 103-12호 16/4 이관용)<sup>37)</sup>

▶샐터근로친목회에서는 두 번째 회원을 모집합니다. 생활이 어렵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청소년들끼리 모여 만든 본 모임은 현재 87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18세~25세)으로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마음로나마 위로를 주고 받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강일주 · 476-830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사서함 1호)<sup>38)</sup>

결혼후에도 활동 ▶20대 초반의 꿈많은 소녀들이 모인 샐터 울타리회가 발족 3년을 맞이했다. 이미 결혼연령에 도달한 회원은 새가정을 꾸미기도 했으나 회원활동은 계속하고 있다. 발족 이후 영아원 등 불우시설을 돌봐온 울타리회는 여성들만이 모인 모임의 특성을 살려가기 위해 신규회원을 모집한다. 61~64년생으로 부산에 거주하며 봉사활동에 뜻이 있는 여성을 환영한다. (울타리회 · 609 · 부산 동래구 연산8동 374의 33호 22통 6반)<sup>39)</sup>

봉제공들 손잡읍시다 ▶봉제직에 종사하고 있는 24세의 여성이다.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친목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데 새해를 맞아 전국으로 회원망을 넓히고 싶다. 모임 명칭은 가칭 「석죽회」. 18세~25세의 뜻있는 봉제공 남녀는 누구나 환영한다. (장미영 · 134-01 · 서울 강동구 천호1동 14의 1호 4통 1반)<sup>40)</sup>

---

34) 『샐터』, 1984년 7월호, 145쪽.  
35) 『샐터』, 1984년 9월호, 145쪽.  
36) 『샐터』, 1984년 11월호, 145쪽.  
37) 『샐터』, 1985년 4월호, 145쪽.  
38) 『샐터』, 1989년 10월호, 137쪽.  
39) 『샐터』, 1983년 3월호 144쪽.  
40) 『샐터』, 1983년 2월호 144쪽.



### 法律(법률)용어는 쉬운 말로

1981.12.12 동아일보 | 2면 | 정치 | 기사(사설)

法律(법률)용어는 쉬운 말로 | 「法(법)의 생활화」는 「法(법)의 이해」에서 비롯된다 | 法(법)은 무엇보다도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자...



### "새憲法(헌법)은 알기쉬운 우리 말로"

1980.01.28 동아일보 | 5면 | 사회 | 기사(뉴스)

"새憲法(헌법)은 알기쉬운 우리 말로" 한글학회 草案(초안) 채택 건의하기로 漢字語(한자어)남용 日本(일본)용어 버림때였다 改憲(개헌)... 이같이 법학자와의 공동연구로 얼마든지 헌법을 쉬운 우리말로...



### 稅法用語(세법용어) 쉬운말로 고쳐

1981.03.30 매일경제 | 3면 | 경제 | 기사(뉴스)

稅法用語(세법용어) 쉬운말로 고쳐 국민認識(인식) 높이고 理解(이해) 돕게 정부는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세법의 용어를 쉬운말로 바꾸고 그내용도 알기쉽도록 고쳐나갈 계...



### 稅法用語(세법용어) 쉬운말로

1981.03.25 경향신문 | 5면 | 경제 | 기사(뉴스)

稅法用語(세법용어) 쉬운말로 政府(정부), 국민認識(인식) 높이고 理解(이해) 돕게 정부는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세법의 용어를 쉬운말로 바꾸고 그내용도 알기쉽도록 고쳐나...



### 大法院(대법원) 어려운 裁判用語(재판용어) 등 쉬운말로 고치도록

1984.04.13 동아일보 | 11면 | 사회 | 기사(뉴스)

大法院(대법원) 어려운 裁判用語(재판용어) 등 쉬운말로 고치도록 대법원은 13일 판결문을 비롯한 각종 재판관계용어중 어려운 전문용어와 일본식한자어등을 쉬운말로 풀어쓰라고 전국법원에 시달렸다. 대법...

#### ● 풀어 읽는 노동법①

##### 근로기준법의 기본정신

일반적으로 민법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개인 사이의 관계나 문제를 다루는 데 비해, 근로기준법은 고용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고용주가 그 힘을 이용하여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실시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어떠한 약속이나 계약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지켜지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입사할 때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고 하자.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제28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약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고용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에는 반드시 법으로 정한 기준만큼의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 (중략) 근로기준법의 윤곽을 대강 살펴보았으니 다음 호부터는 근로기준법의 구체적인 적용사례들을 알아보자. (계속)<sup>41)</sup>

「편집자에게」 코너

● 최근 연재중인 「풀어 읽는 노동법」은 법률에 문외한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면을 더욱 할애하여 판례도 소개해 주십시오 (박종운 · 133 서울 성동구 도선동 15 · 극동레코드)

당시 『동아일보』 등의 주요 일간지나 『샘이깊은물』(1984-2001) 등의 잡지에서는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어려운 법률 조항과 용어들을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쉬운말로 풀어 설명해주는 기사가 유행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풀어 읽는 노동법」 코너의 편성은 대세에 편승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나, 샘터가 노동자 계층의 권익을 진지하게 고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시선을 조금 달리하여 현실 정치의 차원에서 논의를 개진해 보자면, 『샘터』의 발행인 및 편집자들이 기본적으로 제5공화국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었던 김재순은 좋은 싫든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 출판인 또는 편집자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을 염두에 둔다면 시류와 대중의 선호를 기민하게 읽어내야 했을 것이다.

즉, 『샘터』지는 역으로 발행인 김재순이 여론을 파악하는 매체로 기능했을 가능성 또한 있

41) 『샘터』, 1984년 4월호, 118쪽.

다. 그렇게 본다면 독자들에게 지면을 제공하여 가까이에서 대중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실음으로써 『샘터』 편집진은 독자 대중의 전체적인 상을 파악하고 이들을 장악하려는 욕망을 품었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그들의 의도와는 별개로 『샘터』라는 잡지를 통해 노동자들이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며, 그 안에서 노동자들은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체제 전복적이거나 선정적인 양상을 띠는 주제를 제외한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 관해 발언할 수 있었다. 독자 대중들은 말할 수 있었으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럼에도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연대와 공존의 가능성을 내보였다. 이러한 성과를 축소시켜서 보더라도 최소한 여성 인권의 향상에만큼은 기여한 바가 명확했던 것이다.

●풀어읽는 노동법②

여성·연소 노동자에 대한 보호규정(2)

여자와 18세 미만자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향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필요한 귀향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제62조). 이 조항은 여자와 미성년자들의 사회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해고 사유가 정당할 때 해당된다. (중략)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조항의 대표적인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9조~제61조의 규정들이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제59조), 이 생리휴가는 청구하여야 사용할 수 있으며 모았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중략)<sup>42)</sup>

● 「샘터의 눈」코너

작은 풀씨들이 모여 불밝히는 글방. 신현배

: 가진 것은 비록 없지만 마음이 부자인 우리들 언제까지나 흠어지지 않으리라

(중략)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큰 힘을. 상록독서회의 전신인 씨앗독서회가 만들어진 것은 1981년 5월의 일이었다. 시흥 2동에서 씨앗글방이란 헌책방을 경영하는 장동식씨(31세)가 독서회를 키울 뜻을 품고 (『샘터』 코너에서) 회원을 모집하면서 부터였다. 씨앗글방에는 검정고시를 목표로 공부하는 공장 근로자나, 책을 좋아하는 일반 직장인, 학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었는데, 나는 우연히 책구경을 갔던 것이 인연이 되어 그로부터 독서회를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그의 얘기인즉, 못배우고 가난한 동네 청년끼리 모여 서로 책을 돌려보고 토론하는 가운데 작으나마 배움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였다. 나는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의논 끝에 독서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 보니 모두 7명이었다. 대부분 공장에 나가거나, 장사를 하거나, 노동을 하는 등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들이었다. (중략) -야학 운동으로 한결음. 이 기간에 특기할 만한 점은 독서회 야학이었다. 당시 독서회에는 낮에는 공장에 다니면서 밤이면 학원에 나가거나 독학으로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회원들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한편 공부는 하고 싶는데 그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회원들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가 전부였기에 혼자서는 도저히 배움의 길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중략)<sup>43)</sup>



[사진3] 「샘터회」의 소모임 「상록독서회」

42) 『샘터』, 1985년 3월호, 127쪽.

43) 『샘터』, 1984년 10월호, 124쪽.

『샘터』는 1세대 여성학 진영이 제안한 문화운동의 방식, 즉 소집단 운동을 독자들에게 전파하고자 했다. 『샘터』의 독자였던 노동자 여성들은 자기수양 담론 차원으로서의 독서, 야학,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1세대 여성학자들로 대표되는 ‘엘리트’ 여성의 상에 가까워지고자 했다. 즉, 그들 자신이 기층 여성에 해당됨에도 이들은 『샘터』의 글을 경유하여, 글쓰기와 운동의 방식에 있어서는 지식인 여성들을 일종의 모범으로 삼아 비슷한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 것이다.

범박하게 보면 이로써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현실 운동으로부터 괴리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일례로 『샘터』는 1986년 여성운동계의 주요 이슈가 되었던 부천서 성고문사건 등 급진적이며 문제적인 사건은 다루지 않았으며, 계급 갈등에 관한 글 또한 일체 다루지 않았다. 1980년대 당시는 노동 및 여성운동사에서 거대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였음에도 『샘터』 지면 안에서는 일체의 소요나 분쟁 또한 다루이지 않은 것이다.

『샘터』는 지극히 모범적이며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자기 계발 담론만을 ‘암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창했다. 실제로 『샘터』라는 잡지의 창간 목적은 노동자 독자들이 노동자로서 그들의 위치를 가치있게 인식하고 이에 성실히 복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노동자로서의 자신만을 긍정하고, 현실 정치 투쟁의 현장에서 벗어나 작업장에서의 노동 행위에만 전념하도록 만든 것이다. 『샘터』는 이들이 추구하는 궁극적 삶의 목표를 중산층 여성이 되는 것으로 간주했으며, 이를 위해 중산층 여성이 향유하는 문화와 자기 수양 담론을 내면화하게 하였다.

그러나 문해력을 취득하고 글쓰기를 행해갈수록 이들이 자각케 된 사실은 그들의 삶이 엘리트 여성들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곧 기존에 투고되던 글쓰기의 맥락에서 볼 때 다소 돌출적인 한 편의 글(주석24 참고. 『샘터』, 1987년 6월호, 94쪽.)이 기고되기에 이른다. 보수적이었던 잡지의 의도를 전복하는 노동자의 투쟁글이 그것이다. 이러한 글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처럼 잡지 측에서 의도하지 않은 영역으로 나아가는 노동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들 여성 독자들은 그들을 ‘문학소녀’이자 지적인 여성으로 순화·양성하기 위해 젠더적 문제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다루었던 잡지의 의도와는 달리, 단순 문해력의 취득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식인 여성들의 글을 독해하고 글쓰기를 수행한 끝에 이들은 시사 현안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감각, 즉 비판적 사유 능력을 담지하게 된 것이다.

#### 4. 결론 : 『샘터』를 경유한 글쓰기, 연대와 지적 해방에 관하여 (미완)

## 「1970-80년대 『샘터』의 여성 필자, 독자의 문제」에 대한 질의문

안 상 원 (삼육대)

홍지혜 선생님의 「1970-80년대 『샘터』의 여성 필자, 독자의 문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잡지 『샘터』를 여성해방/노동운동의 자장 안에서 재독한 글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게 월간 『샘터』는 소설가 최인호의 ‘가족’이 장기연재된 잡지로만 환기되곤 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여성 필진과 독자의 활동을 더듬어 찾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애정을 담아 쓰신 논문이 맞춤형 토론을 해야 하지만, 토론자가 잡지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 간단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70년대와 80년대의 구분점이 얼마나 유효한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80년대를 주목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도 2장에서 ‘80년대를 기점으로 실제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70년대적인 『샘터』의 특징은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잠재태로서 70년대의 움직임이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80년대를 추동할 수 있었던, 70년대 필진-독자의 잠재적인 활동이나 언설을 무엇으로 포착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나마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이 글에서는 『샘터』의 여성필진들의 특성을 상당히 꼼꼼하게 언급해 주었는데요. 여성학의 제도화에 필진들이 상당히 공을 들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 『샘터』의 필진이 기독교 아카데미와 함께 여성학을 학문으로서 설립하고자 애썼다는 것 역시 근거가 되겠고요. 다만 논의의 안정성을 위하여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샘터』의 편집위원의 구성이 여성친화적이었는지, 그리고 전체 필진 중 여성필진이 여성적 시각을 드러내는 비율이 보장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굉장히 크고 무지한(!) 질문이나, 현재 논의가 두드러진 여성필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 부분에 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샘터』의 독자투고에 드는 궁금증입니다. 독자투고란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은 3장에서 「샘터회」 소모임(여성소모임)을 중심으로 해당 논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소모임을 소박하게 정의해 본다면, 『샘터』 독자들이 잡지를 읽으며 느꼈던 여성노동의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자 모임을 만들고, 이 모임 소식을 다시 『샘터』에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잡지에서 독자투고를 말한다면 잡지에 일정 지면을 할애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터라, 소모임을 독자투고로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따라서 여성 필진의 글에 반박/지지하는 독자의 ‘소리’가 투고란에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여쭙고 싶고, 그것이 아니라면, 소모임이 『샘터』를 경유하면서 유의미한 텍스트를 제공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이형기 초기 비평에서 역사와 창조성의 문제

—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와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

양 정 현 (서강대)

### <목차>

1. 들어가며
2. 고바야시, 김동리, 조연현, 그리고 이형기
3. 역사관의 과잉과 진보사관 배척
4. 나가며

### 1. 들어가며

이 글은 이형기의 초기 비평론을 일본 비평가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 1902.4.11.-1983.3.1.)와의 영향관계 속에서 구명하기 위해 쓰인다. 열일곱 살에 『문예』지를 통해 등단을 하면서 시단에 얼굴을 알린 이형기는 그 독특한 경력과 특유의 허무의식 등 시사적으로 희귀한 예에 속한다. 1950년 등단한 이래 비록 약 45년간의 시적 경력을 쌓아온 것에 비해 이형기에 관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시인이 2005년에 이르러 작고한 탓에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 있지만, 학위논문의 단위에서 시인의 시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등<sup>1)</sup> 비로소 연구가 축적의 단계에 돌입한 듯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형기의 비평론에 관한 연구는 특히 드물다. 이는 우선적으로 이형기가 시인으로서 자신의 문학세계를 구축해온 탓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960년대 비평계의 순수·참여 논쟁에서 한 국면을 차지했다는 점, 그리고 적어도 이 논쟁사를 다룰 때에는 빠짐없이 거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편중 현상은 다소 기이한 인상마저 준다. 1960년대에 열렬히 전개된 순수·참여 논쟁은 대체로 세 가지 차원에 다루는 데에는 대부분 논자들의 입장이 모이고 있다. ①비평가 김우종과 시인 이형기 사이에 신행된 논쟁; ②불문학자 김봉구의 논문 「작가와 사회」를 둘러싼 김봉구, 임중빈, 선후회, 김현 등에 의해 진행된 참여문학 논쟁; 마지막으로 ③비평가 이어령과 시인 김수영 사이의 불온시 논쟁이 그것인데,<sup>2)</sup> 이처럼 이형기가 순수문학론의 대변자로서 거명되는 것에 비해 독립적인 연구의 대상이 된 바는 극히 드문 것이다.

1) 맹승열, 「이형기 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혜숙, 「이형기 시의 변모양상과 창작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참조.

2) 권성우, 『형단과 경계』, 소명, 2008, 268쪽; 아울러 여기서 논자가 제시하는 선행 연구들로는 조남현, 「순수·참여 논쟁」, 『한국근현대문학 연구 입문』, 한길사, 1990; 허윤희, 「1960년대 ‘순수’비평의 의미와 한계」, 『1960년대 문학 연구』, 깊은샘, 1998; 한강희, 「순수-참여논쟁의 그 전말과 비평사적 의미」, 『한국 현대비평의 인식과 논리』, 태학사, 1998; 전승주, 「1950년대 순수·참여 논쟁의 전개과정과 그 문학사적 의미」, 『한국현대비평가 연구』, 강, 1996 등을 참고.

비단 순수·참여 논쟁의 맥락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형기 비평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sup>3)</sup> 속에서 196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이형기의 초기 비평이 인상 비평적 성격을 지님을 논구하고 있는 문혜원의 선행연구<sup>4)</sup>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논자는 이형기 초기 비평이 가지는 인상비평적 성격을 밝히면서 그것이 이형기의 비평적 근원을 이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형기의 순수문학론의 이론적 배경과 그 배경을 이루는 사상적 영향관계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이형기의 「문단 ‘인상’파론」(『현대문학』 1963. 5.)과 같은 글들 또한 이형기의 인상비평적 성격 내지는 그것에 대한 이론적 참조를 증명해주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구의 적실성은 충분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는 김동리와 조연현, 이형기 사이의 개인적이고 사상적인 교호관계에 대해서 조명하는 한편 후속연구의 필요성 또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관계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전기적 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실증사적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된 사실<sup>5)</sup>을 두고 볼 때 그와 같은 지적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상의 연구사적 성과를 수용하면서 기본적인 연구의 시각을 같이 하는 한편, 고바야시 히데오와의 사상적 영향관계가 실제 비평으로 표출된 맥락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는 순수·참여 논쟁에서 전개되었던 1960년대의 이형기 비평이 그의 허무주의적 문학관, 그리고 그 구체적 논거인 역사관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해명되어야 함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 2. 고바야시, 김동리, 조연현, 그리고 이형기

이형기는 비평 활동은 첫 시집인 『적막강산』(1963)을 출간한 이후 창작을 잠시 중단하면서 시작된다. 시인 자신이 밝히고 있듯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 동안 그는 시 창작에 난항을 겪고는 나름의 돌파구로서 소설 비평에 착수했던 것이다.<sup>6)</sup> 본격적인 첫 평문집인 『감성의 논리』(문학과지성, 1976)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비평문을 모은 첫 결실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형기의 초기 비평에 대한 연구는 대개 순수·참여 논쟁의 일부로서 접근하는 데에 편중되어 있다. 이 논쟁은 구체적으로는 김우종이 「파산의 순수문학」(《동아일보》, 1963. 8. 7.)을 통해 순수문학을 공박한 것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이형기의 응답으로서 「문학의 기능에 대한 반성」(『현대문학』, 1964. 2.),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서 김우종의 「저 땅위에 도표를 세우라」(『현대문학』, 1964. 5.)를 핵심 평문으로 한다.

그런데 분석의 세부를 보면 대체로 열거된 평문들의 핵심 논지들을 소개하면서 비평사적 의의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평가의 구체적인 양태 또한 논자에 따라 상이한 실정이

3) 황중연, 「현대성, 또는 허상의 폐허」, 『현대시』 1993. 6.; 허혜정, 「이형기 시론 연구」, 『어문논총』 제42집, 2006.

4) 문혜원, 「이형기 초기 비평의 인상 비평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30집, 2010.

5) 김윤식, 고은 등등.

6) “50년대 말부터 시가 막혔다. 그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삭여 볼 셈으로 60년대 초부터 비평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평 대신 답이었지만 답엔 답대로의 맛이 있어 오늘 현재까지 그것을 아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형기, 「서문」, 『감성의 논리』, 문학과지성, 1976, 5쪽);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중반까지 나는 그렇게 이론서를 읽노라고 시는 손을 놓다시피 했다. (...) 그래도 자신의 문학생활에 ‘내부 수리중 휴업’이라는 핏말을 내세우기는 싫어서 나는 그 무렵 소설에 대한 평론을 썼다. 시는 아직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에 평 대신 답으로 소설을 택한 것이다.” (이형기, 「허무로 가는 꿈꾸기」, 『현대시』, 1993.6., 59-60쪽)

다. 이는 우선적으로 해당 논쟁이 순수·참여 논쟁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또 각 논자들의 비평사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가령 이형기-김우종의 논쟁에 대해 임영봉, 권영민과 한강희의 판단은 정 반대이다. 임영봉과 권영민은 상대를 ‘당의 문학’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이데올로기적 고지대를 선점한 이형기의 수사에 김우종이 다소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형기의 전략은 참여론의 아킬레스건인 이데올로기적 차원으로 논점을 이동시키는 것이었고, 김우종은 “도구화된 문학과 참여문학의 구분에 의해 결백을 주장”<sup>7)</sup>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당의 문학이 아니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반박은 얼마간 초점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도리어 “당시의 문단과 사회의 분위기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게”<sup>8)</sup>하는 것이자, 당시 사회 전체를 아우르던 반공주의적 “금기가 ‘문학의 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sup>9)</sup>고 있다.

반면 한강희의 판단에 논쟁의 초점을 빗나간 것은 오히려 이형기이다. 여기서 논자는 “나랏님도 못한다는 가난구제를 문학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문학의 대사회적 효용이 보잘 것 없음을 지적하는 대목을 두고 “천박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이형기의 입장이 “김우종이 보여 준 참여론에 대한 오독이기 이전에 문제의 핵심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sup>10)</sup>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이형기의 주장이 나오자 예상했던 대로 김우종의 만만치 않은 반박이 뒤따른다”<sup>11)</sup>는 진술은 임영봉과 권영민의 것과는 다소 상이한 판단으로서, 양자의 논점이 서로 엇나가는 원인을 이형기에게 돌리고 있다.

물론 비평사적 의의는 개별 연구자의 비평관 내지는 문학적 입장에 입각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논자가 생각하는 문학의 핵심 가치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논쟁의 판세에 대한 정 반대의 독해는 논쟁의 구체적인 국면을 검토하면서 그 입장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며, 비평사적 의의의 종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임영봉의 연구는 이형기 자신의 전기적 내력을 실증적으로 거론하면서 그가 이른바 문협 정통파의 순수 비평론을 계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에 특히 주목을 요한다. 그에 따르면 이형기는 1960년대 순수문학론의 재생산 과정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그의 평문에는 조연현과 김동리의 비평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령 임영봉은 이형기가 “문학은 사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진실이다”라거나 “비평가는 교사가 아니다” 그는 “자기 감동을 유일한 기동으로 삼는 한 사람의 고독한 예술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때 그것은 조연현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sup>12)</sup>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김우종과의 논쟁을 촉발한 「문학의 기능에 대한 반성」에서 “본령정도의 문학”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 알 수 있듯 “순수문학론을 제창한 김동리의 옹호자이자 추종자이기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sup>13)</sup>다.

7) 임영봉, 『한국 현대문학 비평사론』, 역락, 2000, 146쪽.

8) 권영민, 『한국 현대문학비평사』, 소명, 2000, 262쪽.

9) 임영봉, 앞의 책, 146쪽.

10) 한강희, 앞의 책, 184쪽.

11) 위의 책, 185쪽.

12) 임영봉, 앞의 책, 120쪽.

13) 위의 책, 122쪽. 고명철 또한 이 점을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논자는 이형기가 언급하는 <인간성>이나 <본령정도의 문학>과 같은 표현이 김동리의 것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순수문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 정신의 본령정도의 문학이다. 문학 정신의 본령이면 물론 인간성 옹호에 있으며 인간성 옹호가 요청되는 것은 개성 향유를 전제한 인간성의 창조 의식이 신장되는 때이니만치 순수 문학의 본질은 언제나 휴머니즘이 기초되는 것이다.” 김동리, 「순수문학의 진의」(『서울신문』, 1946. 9. 14.), 『김동리 전집』 7, 민음사, 1997, 79쪽. 여기서는 고명철, 『논쟁, 비평의 응전』, 보고서, 2006, 45쪽에서 재인용. 그뿐만 아니라 고명철은 인간성 옹호, 개성 향유, 휴머니즘 또한 김동리 비평담론에 특유한 순수론의 기표들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형기가 『문예』지와 관련하여 조연현을 직접 찾아가 그의 집에서 일 주일 이상 묵었던 사실<sup>14)</sup>, 그리고 그를 통해 일찍이 문협 정통파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점이 지목될 수 있거니와, 이 둘의 비평적·이론적 영향관계는 훗날 이형기의 연구 「조연현의 감성논리」(『한국문학연구』 제15집, 1992)를 통해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추인된다.<sup>15)</sup>

김동리와 조연현을 상속한 이형기의 비평관은 고바야시의 비평관을 경유하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사상적 영향관계와 평문의 기본 전제에 초점을 맞추면 이형기의 「문학의 기능에 대한 반성」은 「정실비평론」(『신사조』, 1963.2.), 이어령과의 논쟁을 이루었던 「우정 있는 반환」(『현대문학』, 1963. 8.)과 같은 글과 함께 인상비평적 비평관을 드러내고 있다. 인상비평은 비평가의 창조성을 강조하는 비평이다. 마찬가지로 이형기는 비평이 비평가의 세계관이나 문학적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비평이 정실비평임을 자처하고 있다(「정실비평론」). 그뿐만 아니라 이형기에게 비평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물에 대해 깊이 감동할 수 있는 능력”(「우정 있는 반환」)이지 사실적, 객관적 분석의 능력이 아니다.

이처럼 비평가의 비평적 자의식이라는 근본 입장이 한국의 평단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던 것은 조연현에서부터이다. 김윤식의 지적처럼 “조연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비평은 한 가지 창조적 표현 형식으로 자각되었는데, 이는 일본 근대문학사에 있어서 고바야시 히데오의 출현에 견줄 만한 것”<sup>16)</sup>이다. 그에 따르면 조연현이 자주 인용하는 셰스토프라든가 도스토예프스키에 관한 해석은 모두 고바야시의 자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sup>17)</sup> 비평가의 자의식을 문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조연현의 「비평문학론」(『백민』, 1949. 1.)의 첫 문장인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남의 작품을 비평해 본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가 고바야시의 「각양각생의 의장」(1929)의 첫 문장인 “자기의 기호에 따라 사람을 평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에 대응하며, 그런 면에서 조연현을 비평가로 부추긴 것이 고바야시 히데오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sup>18)</sup> 이 점에 있어서는 김동리도 예외가 아니다. 김동리가 추구했던 ‘구경적 생의 형식’이 고바야시의 생각에 바탕을 둔 것임은 김윤식의 또 다른 작업을 통해서도 이미 해명되고 있는 것이다.<sup>19)</sup> 더구나 이형기 자신이 셰스토프라든가 고바야시 히데오의 저작을 탐독하면서 문학관을 형성했던 정황까지를 염두에 두면<sup>20)</sup>, 고바야시-김동리-조연현-이형기에 이르는 인상비평적 영향관계를 가늠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윤재웅의 글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이형기의 허무주의적 시 세계관의 자양분으로서 묘사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도리어 고바야시의 독특한 역사관은 이형기의 초기 비평문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평문의 구체적인 세목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14) 윤재웅, 「허무에 이르는 길」, 『문학비평의 규범과 탈규범』, 새미, 1998, 153쪽.

15) 문혜원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형기의 첫 비평집 제목이 ‘감성의 논리’임에 주목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개념은 조연현만이 아니라 이형기가 표방하는 비평적 특징이기도 하기에, 결국 이형기가 조연현에 대한 메타비평을 통해 자신의 비평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문혜원, 앞의 글, 91쪽)

16) 김윤식, 『해방공간 문단의 내면 풍경』, 민음사, 1996, 237쪽.

17) 위의 책, 275쪽.

18) 위의 책, 197쪽; 『한국 근대문학사상 연구』(2), 아세아문화사, 1994 참조.

19)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5-20쪽. 아울러 이형기와 김동리, 서정주, 조연현 등 순수문학론을 주장했던 문인들과 고바야시 히데오의 상관관계가 추후 연구과제임을 지적한 것은 문혜원이다. (문혜원, 앞의 글, 81쪽)

20) 윤재웅, 앞의 글, 154-160쪽 참고.

### 3. 역사관의 과잉과 진보사관 배척

참여문학론을 비판했던 「문학의 기능」의 논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문학의 현실변혁의 효용에 대한 회의이다. 이 시기의 순수·참여 논쟁이 그러했듯 순수론이건 참여론이건 최소한 형식적인 차원에서라도 문학의 현실 관련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애당초 이형기가 참조하며 옹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김동리에게서도 추인되고 있는 사실이다.<sup>21)</sup> 그러나 문학이 현실적인 맥락을 떼어놓고 성립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상 순수는, 아니 문학은 <현실적인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나 수단>이 아니다. 이것은 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조의 어투가 아니라, 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한계의 식의 고백에 불과하다. 여기서 <정치>나 <현실>에 대한 문학의 기능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sup>22)</sup>

문학이 현실과 관련되며, 현실을 변혁해야 한다는 인식 내지는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참여문학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그 성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희구하게 마련이건만 우리 앞에 놓여진 불쏘시개감의 효과는 너무나 간접적이며 또한 너무나 우회적이라는 약점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이다.”(33쪽)

또 다른 논변은 문학이 수단이기를 자처하는 이 ‘목적’에 내재한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형기는 문학이 설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음을 지적한다. 만약 문학이 목표하는 바가 달성된다면 그 후에 문학은 쓸모가 없어진단 말인가? 이에 대해 그는 「작가의 성실성」(『사상계』, 1965. 10.)에서 대답을 제출하고 있다. 그는 몇 가지 고전적 글들을 나열하면서, 그것이 “당대의 특정 현실의 요청에 부응키 위하여 쓰여진 작품들이 고전으로서 전승되는 예”임을 지적한다. 요컨대 그것들은 “문학이 목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 직접·간접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어떤 목적이 문학의 전부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히는 자료”인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미묘한 입장의 변화를 지적한 것은 임영봉이다. 그는 1965년 10월 『사상계』에서 개최된 ‘문학과 현실’ 심포지움에서 이형기가 「문학의 기능에 대한 반성」에서 보여주었던 참여 문학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유연하고 심화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전에 보여주었던 참여문학에 전면적인 부정을 철회하고 문학의 효용성, 실용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인정”<sup>23)</sup>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문학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태도는 「문학의 기능」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것이 「문학의 기능」의 두 번째 논변의 결과인 문학의 비관주의적 기능이다.

설령 문학이 <목적>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의 수행으로

21) 김동리 자신 또한 “문학과 정치는 절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밀접한 상호 관련을 가진 것이며 또 가지지 않을 수도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김동리, 「문학과 정치」(『문학과 인간』, 백민사, 1948) 및 고명철, 위의 책, 46쪽 참고.

22) 이형기, 「문학의 기능」, 『감성의 논리』, 31쪽. 이하 인용 쪽수는 본문에 표기.

23) 임영봉, 앞의 책, 123쪽.

써 인생의 난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옵티미스트가 될 수는 없다. 하나의 <목적> 다음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설정되고, 그리하여 영원한 목적의 산맥이 가로놓일 것이다. (….) 이러한 도로의 확인에서 나는 문학의 기능 검토가 시작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또 그런 뜻에서 문학은 페시미스트들의 영광스러운, 동시에 서글픈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33쪽)

순수를 배격하는 사람들은 아마 오늘을 극복하는 의지와 내일への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들은 역사의 발전과 전진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는 오늘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은 내일을 위하여 기꺼이 부정되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진보적인 사상의 소유자들은 오늘 우리의 당면과제로서 어제의 유물인 봉건주의의 전면적인 부정을 시도하고 있다. (35쪽)

이형기가 보기에 하나의 목적에서 또 다른 목적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진보의 도정은 다소 기만적이다. 이처럼 문학이 고통스러운 진보의 “등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른바 <목적문학>의 불완전한 변호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목적수행의 비참한 도로를 증명”(33쪽)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비관주의적인 전망과 대비시키는 낙관주의의 구체적인 지시물이 맑스주의 유물사관이라는 점이다. 목적수행의 비참한 도로는 다름 아닌 “역사의 발전과 전진”을 믿는 ‘옵티미스트’들의 문학관이다. 그런 면에서 순수·참여 논쟁에서 이형기의 입장은 이른바 ‘당의 문학’이라는 참여론자들과의 대타관계에서 성립한다고 봄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형기의 순수론의 핵심은 맑스주의적 유물사관, 달리 표현하면 목적론적 진보사관과의 대립을 통해 정당성을 수립하고자 하는 듯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점은 일찍이 고바야시 자신이 「각양각생의 의장」을 통해 제출한 바 있다. 거듭 지적하거나 고바야시-김동리-조연현-이형기에 이르는 인상비평적 영향관계는 여러 각도의 증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형기의 평문이 유물사관에 대한 고바야시의 논변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예를 들면 문화가 진보하는 한 단계로서 봉건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상이나 도덕에 봉건이라는 말을 씌워 봉건 도덕, 봉건 사상이라고 부르지만 하면 그 시대의 도덕이나 사상은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 버립니다. (….) 봉건 제도는 인간의 자유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박 하에 아마모토 쓰네토모가 얼마나 놀랄만한 자유를 누렸던가를, 역사가는 묵인해도 되는 것입니까?<sup>24)</sup>

(2) 어제의 유물인 봉건 그 자체도 중세의 절대신권에 대한 앤티로서 그 때 당시에는 인간에게 행복을 약속한 사회제도였다. 그것이 다시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렀으니 중세인에 비해 현대인은 그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만약 역사가 인류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전진·발전하는 것이라면 현대인은 과거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현대인은 자기네가 과거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고바야시의 「역사와 문학」의 한 대목인 (1)과 이형기의 「문학의 기능」의 마지막 대목인 (2) 사이의 논변적 유사성은 별다른 강조가 필요 없을 정도이다. 목적론적 진보사관이 전제하는

24) 고바야시 히데오, 「역사와 문학」, 『고바야시 히데오 평론집』, 유은경 역, 삼화, 2003, 209쪽.

문화의 진보, 그리고 그에 따라 연역될 수 있는 봉건 시대와 현대 사이의 자유의 위계성이 이형기에게서는 행복의 위계성으로 바뀌었을 뿐 비판의 요점을 동일한 것이다. 각 시대에는 각 시대에 맞는 사상과 도덕의 체계가 있고 시대 사이의 자유의 많고 적음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하듯, 행복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도 중세인과 현대인 사이의 직접적인 비교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유물사관의 핵심 전제를 부인하는 이 같은 고바야시의 비판이 이형기의 문학론의 핵심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비슷한 예는 「작가의 성실성」에서도 발견된다.

흔히 문학의 사회성이나 작가들의 현실의식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통털어 그들이 ‘태평한 시대’라고 부르는 20세기 이전에는 문학이 사회 및 현실과 유리될 수 있었고, 또 그랬어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문학의 자율성이라는 말을 타자와의 단절에 의한 독립이라고 그릇 해석한 결과이지만, 그것은 여하간, 문학이 일찍이 인간 사회의 연대권을 벗어나서, 천상의 꽃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생각만은 어처구니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sup>25)</sup>

「작가의 성실성」에서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관념, 그것은 일종의 ‘태평성대의 신화’이다. 오늘날 문학이 상실한 낙관적인 과거를 제시하면서 현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인데, 위의 고바야시의 논변에서도 공히 확인할 수 있듯 이는 유물사관의 오류에 불과하다. 「문학의 기능」에서도 이형기는 마찬가지로 관점을 이미 제시한 바 있는데, 그는 문학인의 “예언가적 기질”은 유물사관의 낙관적 전제와 대극에 있음을 확인한다. “그들은 역사에 대해 오늘이 불행하고 절망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캄캄한 절망의 심연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37쪽)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형기가 직접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비판주의적 전망과 낙관주의적 전망의 차이는 단순히 전망의 밝고 어두움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와 같은 전망 속에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과거와 현재 사이의 질적 차이가, 보기에 따라서 허구적임을 밝히는 것이 비판주의적 전망의 요점이다. 다음과 같은 고바야시의 진술은 앞서 제시되었던 인용문 (1)의 관점을 보다 명확히 해준다.

정말이지 오늘날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객관주의가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주의란 분명 가명(假名)입니다. 게다가 이런 가명을 붙여 놓은 사람을, 진보라는 사교가 항상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치 가명이 이중으로 겹쳐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진보를 아무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고, 인간의 퇴보를 믿어 의심치 않던 시대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은 여전히 최선을 다 했고, 노력가는 노력했으며, 게으름뱅이는 게으름을 부렸습니다.<sup>26)</sup> (「역사와 문학」, 210쪽)

그 자신이 객관을 참칭하는 목적론적 진보사관은 낙관주의적 전망의 유무를 근거로 특정 시대의 경향성을 단정짓는다. 그러나 자유와 행복의 총량이 특정한 시대에 따라 그 위계가 결정될 수 없듯, 진보에 대한 믿음이 특정 시대의 경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러한 믿음을 형성하는 유물사관은 실제의 ‘역사’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만든다.

역사, 실로 거창한 문제다. 인류의 예지를 대표할 만한 천재들도 이것을 건드리는 데는 여간

25) 이형기, 「문학과 현실」, 『감성의 논리』, 문학과지성, 1976, 18쪽. 이 단행본에서 「작가의 성실성」의 표제는 부제인 「문학과 현실」로 변경되어 있다.

26) 위의 글, 210쪽.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거기 비해 우리는 그 역사와 동일한 차원에 있는 <전통>을 너무 경솔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다시 역사쪽으로 되돌아가면 누구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관>이라는 무기일 것이다. 그 무기는 참으로 편리하다. 수백, 수천년의 시간의 안개 속에 묻혀버린 사실도 이 무기만 있으면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광맥을 찾아낼 수 있다.<sup>27)</sup>

역사는 인간의 흥미 있는 성격이나 존경할 만한 생활의 사실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역사교육에서부터 배제시켜 버리고, 어떻게 여전히 연대라든가 사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여튼 역사는 통사의 체재를 정확하게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진부한 편견이 근본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sup>28)</sup> (고바야시, 『역사와 문학』, 182쪽)

이형기에게는 그 어떤 사실적 차원에서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목적론적 플롯을 찾아내는 ‘사관’이라는 무기를, 고바야시 14세기의 수필가 요시다 겐코의 글을 빌어 역사로부터 도리어 멀어지게 만드는 무 것에 비유한다. “그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을 잘못 소비하는 자”로서 겐코가 들고 있는 예는 “몸에 이가 있고, 집에 쥐가 있고, 나라에 역적이 있고 소인에게 재산이 있고, 군자에게 인의가 있고, 승려에게 계율이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고바야시는 “역사가에게 사관이 있고”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역사와 문학』, 184쪽) 이를테면 “실물 역사에 예고 없이 찾아가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인 사관이 만능의 도구처럼 쓰이는 순간 “수단이나 도구가 바로 그 역사와 같은 얼굴을 하기 시작”(186쪽)하는 일종의 소외 현상에 대한 진술이다.

유물사관이 문제적인 것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하나의 견해에 불과할 사관이 도리어 생생한 역사적 사실들을 죽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뜻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역사적 사실들의 생생함을 사상시킨 결과에 불과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형기의 말처럼 사관이라는 무기만 있으면 그 어떤 지역적인 사실에서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광맥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예로 드는 것은 필부 김서방의 죽음이다. 가령 몇 백년 전 서울 어느 뒷골목에서 김서방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자. 이 하찮은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서는 단 1년도 버티어내기 어렵지만, 사관의 힘을 빌면 영양실조에 의한 김서방의 죽음은 순식간에 “양반과 상놈 두 계급이 대립하는 이른바 계급투쟁의 역사로까지 발전”(56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역사적 사실을 계급투쟁의 도식으로 환원하는 사고, 즉 “합리적인 역사의 발전도식의 모든 항목으로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사고”는 고바야시에게 “망상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sup>29)</sup>인지 알 길이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점은 문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형기의 비평론에서도 핵심적인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 4.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 이형기 초기 비평의 평문에서 보이는 역사관은 맑스주의 유물사관과 대책점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비평론을 정련했던 고바야시 히데오의 역사관을 답습하고 있다. 유물사관 또는 목적론적 진보사관의 전제인 시대와 시대 사이의 질적 차이, 하나의 목적에서

27) 이형기, 「전통이란 무엇인가」, 『감성의 논리』, 문학과지성, 1976, 55쪽

28) 고바야시 히데오, 앞의 글, 182쪽.

29) 위의 글, 192쪽.

또 다른 목적으로 이어지는 낙관주의적 전망의 부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와 같은 역사관을 형성하는 근거의 논변 또한 양자는 공통점을 보인다. 특정한 사관이 역사적 사실의 생생함을 죽이고 사관의 목적과 전망에 따라 사실을 재단한다는 관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늘 높이 뜬 보름달은 15cm로 보인다. 이론은 이 외관의 허위를 밝힐 수는 있지만, 15cm로 보이는 현상 자체에는 아무런 착오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람은 깨어나면 꿈의 어리석음을 비웃지만, 꿈은 꿈만의 독특한 영상 때문에 진실하다. (고바야시, 「각양각색의 의장」, 25쪽)

사랑 때문에 눈이 먼 그에게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녀의 곰보자국이 보이지 않는다. 곰보자국은 그에게 있어 애인의 황홀한 보조개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리얼리티라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이 리얼리티를 환상이라고 단정한다면, 이 세상엔 환상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이형기, 「장님의 영광」)

고바야시 히데오의 「각양각색의 의장」이 제시하는 논변을 고려하면, 양자가 공유하는 역사관은 공히 인상비평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역사적 사실을 단 하나의 목적론적 역사관에 따라 해석하는 일이 부당하듯, 특정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단 하나의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믿음 또한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작가의 성실성」에서 이형기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형기는 현실에 대한 이상화를 경계하는데, 그 말인즉 “현실을 파악하는 인간의 여러 의미구조 중에서 어느 하나의 패턴만을 절대화할 수 없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패턴에 의거한 설명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면, 작가는 스스로 겸허해질 수밖에 없으며, 현실에 대한 자신의 설명력의 가치를 스스로의 성실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 이는 이형기의 인상비평적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말이다. 비교적 초기의 비평인 ‘상식적 문학론’ 시리즈의 마지막 글인 「장님의 영광」에서 주장되는 비평의 주관성, 비평가의 창조성은 바로 고바야시 히데오의 사상적 영향 아래에서 형성된 역사관의 자명한 결과인 셈이다.

## 「이형기 초기 비평에서 역사와 창조성의 문제」에 대한 토론문

임 보 람 (서강대)

양정현 선생님의 논문은 이형기의 초기 비평론을 일본 비평가 고바야시 히데오와의 영향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형기가 1960년대 한국비평계의 순수·참여 논쟁에서 한 국면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적어도 이 논쟁사를 다룰 때에는 빠짐없이 거명되고 있음에도, 그가 독립적인 연구의 대상이 된 바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형기의 비평론을 독립적인 연구로 삼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와 시각을 같이하며, 고바야시 히데오와의 사상적 영향관계가 이형기의 실제 비평으로 표출된 맥락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이형기의 비평론에 대한 임영봉과 김영민, 그리고 한강희의 판단을 살펴면서, 특히 임영봉의 시각에 많은 부분 기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임영봉의 연구는 이형기의 전기적 내력을 실증적으로 거론하면서 그가 이른바 문협 정통파의 순수 비평론을 계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에 따르면 이형기는 1960년대 순수문학론의 재생산 과정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이형기의 평문에는 조연현과 김동리의 비평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리와 조연현을 상속한 이형기의 비평관은 고바야시의 비평관을 경유하면 보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이유를 선생님께서는 ‘인상비평적 비평관’에서 찾고 있습니다.

양정현 선생님의 이와 같은 논의는, 이형기를 순수문학론의 대변자로서, 비평가로서 독립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토론자 역시 선생님이 제기하는 비평의 연결지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하지만,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논의의 보완이 필요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토론자인 제가 선생님의 글을 곡해했다라도 이형기의 비평론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코멘트라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생님께서는 이형기 초기 비평의 평문에서 보이는 역사관은, 맑스주의 유물사관과 대척점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비평론을 정련했던 고바야시 히데오의 역사관을 답습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문학비평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비평가의 주관성, 비평가의 창조성이 고바야시 히데오의 사상적 영향 아래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한 이 과정에서 형성된 이형기의 역사관이 1960년대 비평계의 순수·참여 논쟁사와 연결되는 지점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선생님께서는 고바야시-김동리-조연현-이형기에 이르는 인상 비평적 영향관계를 가늠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고바야시에게서 출발한 사상적 배경이 이형기의 허무주의적 시 세계관의 자양분으로서 묘사되는데 그치고 있음이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인상비평적 영향관계에 대한 근거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듣고 싶고, 또한 이형기의 허무주의적 시 세계관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